

LHRI magazine

# 북한건설 개발동향

2024년  
1,2분기

## | 이슈진단 |

- 북한경제 : 3중고 넘어  
완민하게 회복중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주요내용
- 북한 산업 부문의 생산시설  
건설 동향과 평가
- 평양 살림집건설 비교 평가  
-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을 중심으로

## | 건설·개발 주요동향 |

-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과 및  
2024년 국가예산
- 2024년 1,2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 건재 생산 기반 현황과  
기술개발 동향
- 《지방발전 20×10 정책》
- 「살림집관리법」 전면 개정
- 강동종합온실 준공

## | 건설·개발동향 분석 |

-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
- 유형별 주요 건설·개발 동향
-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 | 종합 및 시사점 |

-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 1,2분기 종합 시사점

## | 부록 |

- 조사 개요
- '24년 1,2분기 북한건설·개발  
동향자료
- '24년 1,2분기 건재 관련  
주요 기사

## NORTH KOREAN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

「북한건설·개발동향」은 북한 건설·개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함께 북한의 건설인프라 동향 파악을 위해 북한 등 발행매체(노동신문, 조선신보)의 관련 기사를 시설유형별, 단계별, 지역별로 집계·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북한의 주요 학술논문과 한국의 매체 등도 검토하여 연 2회(7월, 1월) 발간됩니다.

###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이승지 수석연구원(총괄), 최대식 센터장, 김두환 연구위원,  
송상훈 연구위원, 임수현 주임연구원

# CONTENTS

## 이슈진단

- 004 북한경제: 3중고 넘어 완만하게 회복중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주요내용
- 030 북한 산업 부문의 생산시설 건설 동향과 평가
- 039 평양 살림집건설 비교 평가
  -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을 중심으로

## 건설 · 개발 주요동향

- 054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과 및 2024년 국가예산
- 058 2024년 1,2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 062 건재 생산 기반 현황과 기술개발 동향
- 075 《지방발전 20×10 정책》
- 079 「살림집관리법」 전면 개정
- 083 강동종합온실 준공

## 건설 · 개발동향 분석

- 090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
- 092 유형별 주요 건설 · 개발 동향
- 112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 종합 및 시사점

- 120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 125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 126 1,2분기 종합 시사점

## 부록

- 130 조사 개요
- 136 '24년 1,2분기 북한건설 · 개발동향 자료
- 197 '24년 1,2분기 건재 관련 주요 기사

2024년  
1,2분기

## 북한건설 · 개발동향

발행처 LH토지주택연구원 | 주소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 전화 042-866-8400 | E-mail sjlee268@lh.or.kr | 홈페이지 lhri.lh.or.kr | 발행인 정창무 |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 ISSN 2951-1488 비매품 | 발행일 2024년 7월 31일 | 디자인·인쇄 (주)에이퍼브





---

PART 1

# 이슈진단

I s s u e   R e v i e w



# 북한경제: 3중고 넘어 완만하게 회복중

##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주요내용

김일한(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교수)

### I. “경이적인 승리” vs. “심각한 식량난”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의 “경이적인 승리”와 2022년의 “심각한 식량난”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제시했다. 북한경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대내외 환경을 통과하고 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이후 북한경제 운영 기조는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대북제재와 코로나의 장기화 국면, 빈번한 자연재해, 즉 3중고의 위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필연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주요 투자대상으로 “자립경제의 쌍기둥” 금속과 화학공업, 그리고 ▲ 농업, ▲ 살림집, ▲ 생필품 생산 및 공급은 국가 경제시스템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3중고를 넘어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이후 3년동안 국민총생산액이 140%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금속공업은 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식량생산과 살림집건설도 계획을 달성했다. 나아가 인민소비품 생산을 위해 지방공업공장을 전국에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도 선보였다. 2023년 대외무역은 2018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시장물가와 환율 역시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2024.1.15.)에서는 2024년 3.4%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예고했다. 지난 3년간 1%대의 긴축재정기조를 확장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2024년 경제정책의 주요 타겟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 철강재증산과 기계공업 활성화, ▲ 식량증산과 농촌살림집건설, ▲ 지방공업발전을 통한 인민생활향상을 향하고 있다.

“경이적인 승리”와 “심각한 식량난”의 딜레마적인 환경과 완만하지만 회복세가 뚜렷한 경제환경은 북한경제를 새로운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 II. 김정은 시대 거시경제정책:

### 긴축 vs. 확장

#### 1. 재정부업 기조 변화: 완만한 확장재정<sup>1</sup>

북한경제가 완만한 회복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후 유지해오던 긴축적인 재정부업 기조를 팽창기조로 전환했다. 2024년 예산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3.4% 증액하면서 확장재정을 예고한 것이다. 2021년부터 내리 3년동안 1.0%대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계획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완전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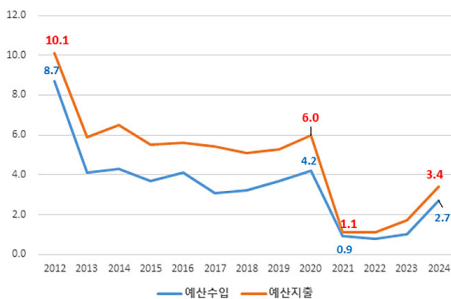
예산지출 증가율의 상향조정은 예산수입이 증가한 결과이다. 우리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국가기업리득금 증가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3%의 74%에 해당하는 3.2%로 증가했다. 예산수입항목에서 국가기업리득금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래수입금(거래세)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적인 재정부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sup>2</sup>

2024년 재정부업계획의 특징은 첫째, 기계공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인민생활과 관련한 교육/보건/체육/문화예술부문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수준으로 회복한 점이다.

특히 기계공업에 투자 증액은 2023년 금속공업부문의 성장에 따른 연관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 전원회의는 이례적으로 2020년 대비 부문별 중기성장률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8차 당대회 이후 3년차에 공개한 눈에 띄는 실적은 2020년 대비 ▲ 국내총생산액이 1.4배 성장했으며, ▲ 금속공업부문의 삼화철, 선철, 압연강재 생산이 각각 350%, 270%, 190% 증가했다. 2023년 금속공업부문의 실적도 공개했는데, 압연강재 생산이 102% 증가했고, 유색금속(비철금속) 생산이 131% 늘어났다는 것이다.<sup>3</sup> 그 외에도 2020년 대비 ▲ 공작기계가 510%, ▲ 질소비료와 시멘트 생산량이 각각 130%, 140% 증가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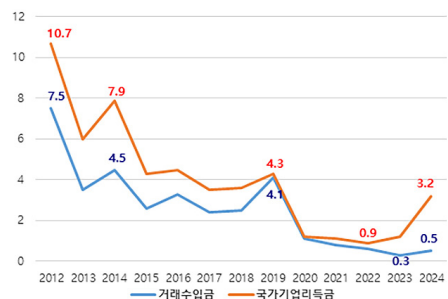
재정지출의 증가 요인은 첫째, 2020년 이후 ▲ 금속공업 등 기간공업부문 성장, ▲

그림 1 예산수입 및 지출 증가율



\* 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각년도. 단위: %

그림 2 거래수입금 및 국가기업리득금 증가율



\* 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각년도. 단위: %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0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로동신문』, 2024년 1월 16일.

2 국가기업리득금과 거래수입금은 북한 예산수입의 약 85%를 차지한다.

3 비철금속은 전기아연 140%, 연 121%, 마그네사크링카 104%로 생산량이 증가했다.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표 1 국가예산지출계획 추이

	증가율	인민경제(투자)							인민시책(지출)				
		농업	수산	경공업	기간 공업	과학 기술	기본 건설	산림	교육	보건	사회 보장	체육	문학 예술
2012	10.1	9.4			12.1	10.9	12.2		9.2	8.9	7.0	6.9	6.8
2013	5.9	5.1			7.2	6.7	5.8		6.8	5.4	3.7	6.1	2.2
2014	6.5	5.1		5.2		3.6	4.3		5.6	2.2	1.4	17.1	1.3
2015	5.5	4.2	6.8	5.1		5.0	8.7	9.6	6.3	4.1		6.9	6.2
2016	5.6	4.3	6.9	4.8		5.2	13.7	7.5	8.1	3.8		4.1	7.4
2017	5.4	4.4	6.8	4.5		8.5	2.6	7.2	9.1	13.3		6.3	4.6
2018	5.1	5.5				7.3	4.9		5.9	6.0		5.1	3.0
2019	5.3	5.7				8.7	6.6		5.5	5.8		4.5	4.1
2020	6.0	7.2				9.5			5.1	7.4		4.3	5.8
2021	1.1	0.9				1.6			3.5	2.5		1.6	2.7
2022	1.1	2.0				0.7			2.6	0.7		0.8	
2023	1.0	14.7			1.0	0.7	0.3		0.7	0.4		0.1	0.3
2024	3.4	0.1				9.5	0.5		6.0	5.5		5.0	5.0

\* 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 발표 자료 각년도. 단위: %

\* 2014년 체육: 평양청춘체육촌 건설, 종목별경기장과 체육인 숙소 서산호텔 건설 등

\* 2016년 건설: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 건설, 류경안과병원 등 15개 건축물 건설 등

\* 2017년 보건: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건설, 제약공업 현대화 등

\* 2023년 농업: 식량증산, 농촌건설 예산증액

\* 2024년 재정계획: ▲ 인민경제사업비 0.4% 증액, ▲ 과학기술 별도 분리, ▲ 비상방역 전년 동일

건설, 농업 등 부문별 실적향상에 따른 ▲ 국내총생산액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3중고를 겪은 2020년의 경기침체가 기저효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과 북중국경 봉쇄, 무역중단이 산업생산성에 악영향으로 작용했고, 2017년 이후 지속된 고강도 대북경제제재 역시 장기화되었다. 2020년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연이어 북한 지역을 직격했다. 2021년 4월 《고난의 행군》을 주문할 정도로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sup>5</sup>

셋째, 선철, 압연강재 등 철강산업 발전이 관련 산업의 연관효과 확대로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철강산업은 건설, 기계 등 전방산업과 원료, 에너지 등 후방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산업간 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알려진다.<sup>6</sup>

넷째, 2023년 부문 경제실적이 향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202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경제분야 12개 중요고지를 선정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독려해왔다. 결과 식량증산을 비롯해 금속 및 화학공업, 주택 건설 등 12가지 주요경제부문 성장목표를 수행했거나 초과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5 전략물자관리원 인터넷 자료 [www.data.go.kr/data/15034135/fileData.do](http://www.data.go.kr/data/15034135/fileData.do) 참조, 검색일 : 2024. 01. 10.)

6 철강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는 제조업 평균인 3.19보다 큰 5.45로, 석유화학 4.92, 일반기계 2.29, 자동차산업 2.06, 조선산업 1.72보다 높다. 2012년 기준. 한국철강협회, <https://kosa.or.kr> (검색일 : 2024. 01. 10.) : 따라서 공작기계, 화학비료, 건설건축부문의 성장은 산업간 유기적관계를 반영할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부문별 성장률: 2020년 vs. 2023년(%)

		2020년	2023년
국내총생산액		100	140
금속	삼화철	100	350
	선철	100	270
	압연강재	100	190
기계	공작기계	100	510
화학	질소비료	100	130
건설건재	시멘트*	100	140

\* 자료: 2023년 실적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023.12) 발표내용

표 3 12개 고지 실적<sup>7</sup>

구분	2023년 부문별 실적	제7차 당대회 5개년 전략(2016-2020) 생산 계획
금속	④ 압연강재: 102% ⑤ 유색금속: 131% - 전기아연: 140% - 연: 121% - 마그네샤크링카: 104%	- 철강 120만톤
기계*	- 전동기: 220% - 변압기: 208% - 베아링: 121%	
화학	⑥ 질소비료: 100%	- 질소비료 120만톤(남흥 60만톤, 흥남 60만톤) -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메탄올 30만톤, 합성석유 15만톤, pp섬유 1만톤, 에틸렌 5천톤)
전력	② 전력: 100%	- 500만kW (수력 250만kW, 화력 150만kW, 자연에너지 30만kW 등)
석탄	③ 석탄: 100%	- 석탄 3,800만톤
교통운수	⑫ 철도화물: 106%	- 철도수송량 5,500만톤 - 무역항 3700만톤 통과능력(원산항 5백만톤 규모 건설 등)
건설건재	⑦ 시멘트: 101% ⑧ 통나무: 109% ⑪ 살림집: 109% - 판유리: 100%	- 시멘트 500만톤 ※ 제8차 당대회. 800만톤 시멘트생산 목표
농축수산	① 알곡: 103% ⑩ 수산물: 105%	- 식량 800만톤 생산, 장기 900-1,000만톤 (1979년 657.6만톤) - 고기 25만톤, 수산물 150만톤
경공업	⑨ 일반천: 101% - 종이: 113% - 화장품: 109%	- 직물 2억 5,000만m - 신발 6,000만켤레

\* 자료: 5개년전략 목표는 이찬우,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 및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68차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21.1, pp. 211-217. 참조. ; 제8차 당대회. 건설건재부문 평양시 5만세대 건설, 검덕지구 2.5만세대 건설, 800만톤 시멘트생산 목표

\* 주: 기계공업은 12개고지에 포함되지 않음.

철강재 생산증가와 함께 “알곡생산 103%”는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없이 소중한 변혁중의 진짜변혁”이라고 발표했다. 건설부문의 살림집건설실적이 전년대비 109% 늘어난 것도 재정지출 확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발표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동안 지속된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팽창기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대외경제 환경변화와 완만한 회복세: 무역, 물가, 환율 동향

### 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동향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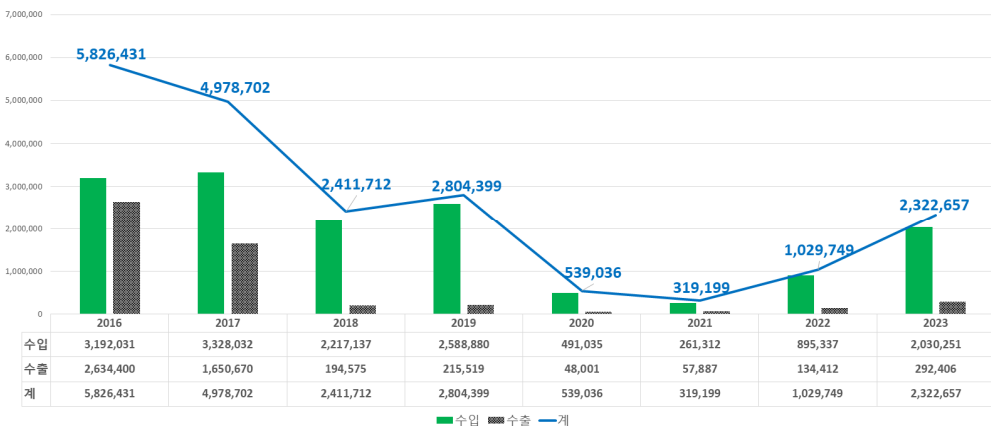
2023년 코로나 팬데믹 탈출이후 북한의 대외경제도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2017년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북중무역이 급격하게 위축되었지만,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북중무역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8년 수준을 회복했다. 나아가 주요 교역로인 단둥-신의주 등 육로를 통해 트럭무역이 전면화될 경우 북중무역은 형식과 품목, 규모가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규모 확대와 함께 경제협력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북중국경의 인구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노동자 파견 및 관광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나. 2023년 북중무역의 산업별, 품목별 동향

2018년 수준으로 회복된 무역규모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활용도 높은 전략물자의 수입액은 64.3%(2023년 9월 현재) 수준으로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sup>8</sup>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는 군사용은 물론 산업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품목으로서, 이들 품목의 수입정보는 북한의 산업 활성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림 3 북한의 대중무역 동향: 2016-2023년



\* 자료: kita.net. 단위: 천달러

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8 전략물자관리원 인터넷 자료 [www.data.go.kr/data/15034135/fileData.do](http://www.data.go.kr/data/15034135/fileData.do) 참조(검색일 : 2024. 0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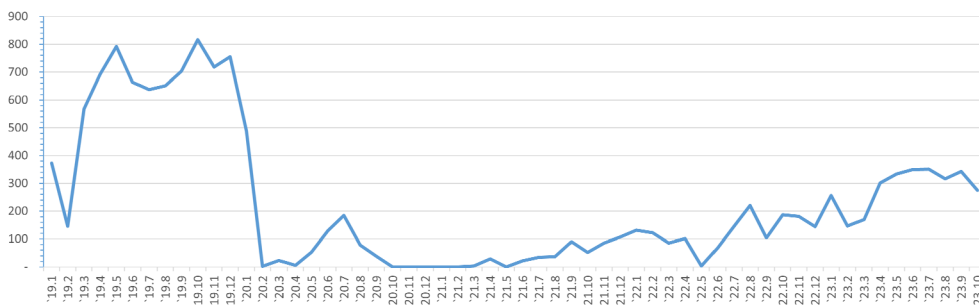
2023년 1~10월 전략물자 수입액은 2,841만 달러로 2018~2019년 1~10월 평균 총 수입액 5,279만 달러의 약 5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생산의 정상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3년 10월 현재 산업별 수입품목 비중은 섬유와 의류가 29.5%로 가장 높고, 농업이 25.8%, 화학이 14.9%, 플라스틱과 고무 14.8%로 뒤를 잇고 있다. 농업부문은 식량, 비료, 농자재 등이 주요품목을 형성하는데, 화학과 플라스틱, 고무 품목 역시 예년과 유사한 수입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섬유와 의류 수입 비중인데, 주로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수입품목을 형성하면서 2020년 이후 가파르게 수입비중을 확대해 2017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현상은 내수용보다는 수출용 섬유와 의류생산이 확대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곡물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곡물 수입량 확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쌀은 2019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밀가루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23

**그림 4** 북한의 대중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입 추이



\* 자료: 중국해관통계. 단위: 만달러

**표 4** 북한의 산업별 대중 수입 비중: 2015~2023.10월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0
농업	13.8	27.5	26.0	44.5	21.0	26.6	25.8
화학	5.1	11.6	10.3	14.0	33.0	20.4	14.9
전자기기	10.3	0.4	0.1	0.0	0.0	0.0	0.0
기타	5.3	7.9	9.9	6.4	2.4	4.3	2.3
섬유/의류	25.9	27.9	29.6	14.1	8.5	18.9	29.5
기계류	7.6	0.3	0.0	0.1	0.0	0.0	0.0
수산	3.2	3.3	2.2	1.1	0.0	0.0	0.1
광업	2.5	1.8	2.0	1.6	3.7	2.1	5.0
플라스틱/고무	8.8	12.6	13.2	12.3	26.1	20.8	14.8
금속	6.5	0.1	0.0	0.0	0.0	0.0	0.0
목재	4.6	6.5	6.6	5.8	5.3	6.9	7.6
운송수단	6.3	0.1	0.0	0.1	0.0	0.0	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중국해관통계. 단위: %

그림 5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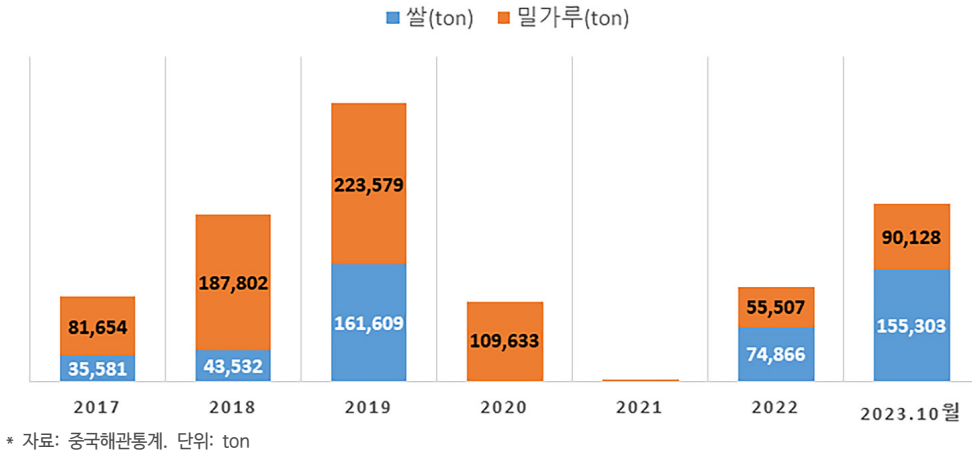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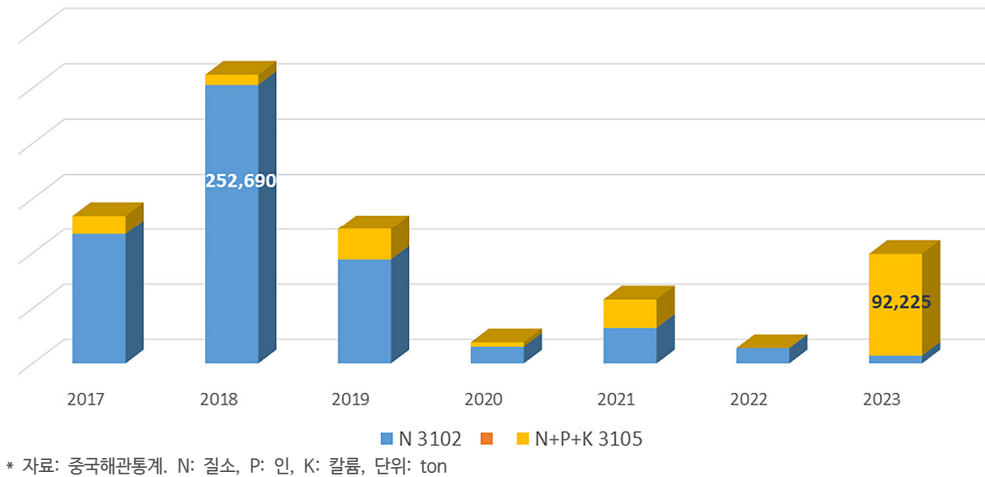


그림 6 북한의 대중국 비료 수입량



년 10월까지 경향성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말 곡물 수입량 25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수입량은 연간 생산량(약 500만톤 추정)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역규모의 확대, 공업용 곡물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화학비료 수입량도 2019년 규모에 근접했다.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질소비료를 중심으로 수입했다면, 2023년에는 인(P)성분이 강화된 복합비료를 대부분 수입했다. 2020년대 비 2023년 질소비료 생산량이 130% 늘어나면서 부족한 인비료 성분을 보완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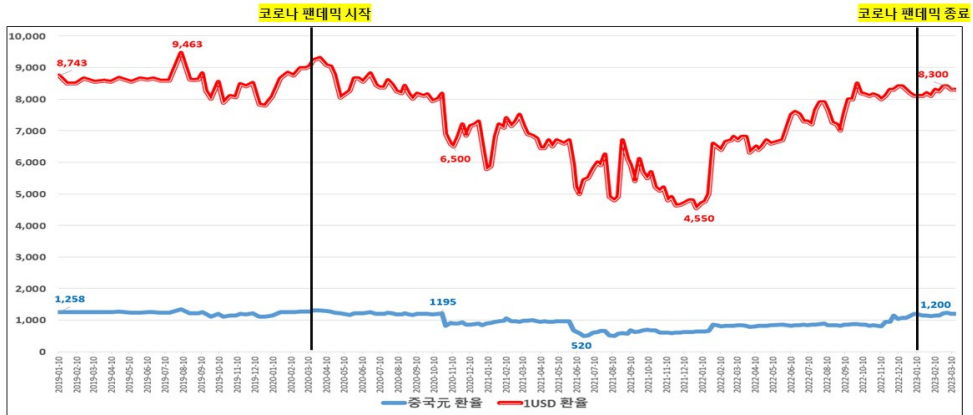
한 조치로 추정된다.

#### 다. 2023년 시장 물가와 환율 동향

북한 시장의 환율 변화는 코로나 팬데믹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달러, 위안 환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무역 재개 기대감에 환율이 정상화되었는데, 달러 환율은 2019년 8,000원 중반으로 회귀했다. 2022년 1월 4,550원으로 최저가격을 기록했는데, 2023년 3월 현재 약 2배가 상승한 8,000원대 중반으로 환율이 복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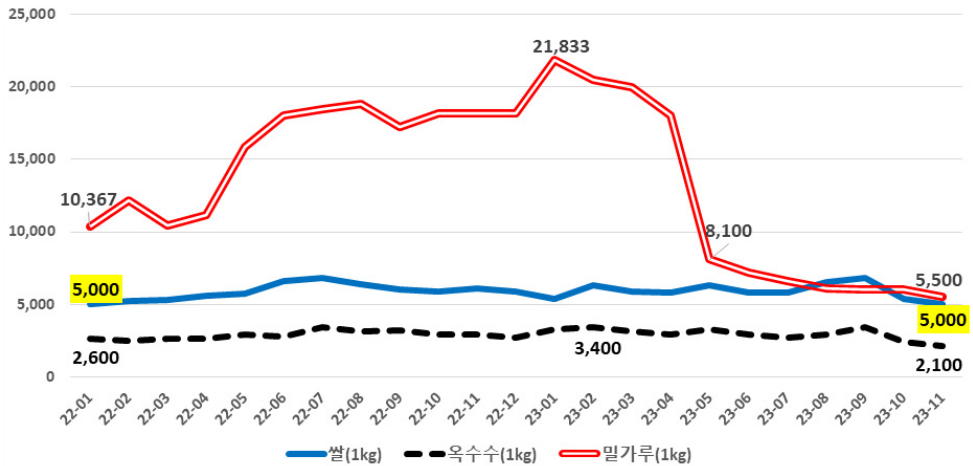


그림 7 북한 시장 달러 & 위안 환율 추이: 2019-2023.3월



\* 자료: www.asiapress.org. 단위: 북한 원

그림 8 북한 시장의 주요 곡물 가격 변동



\* 자료: 신의주, 평성, 청진시장 월말 가격. 단위: 북한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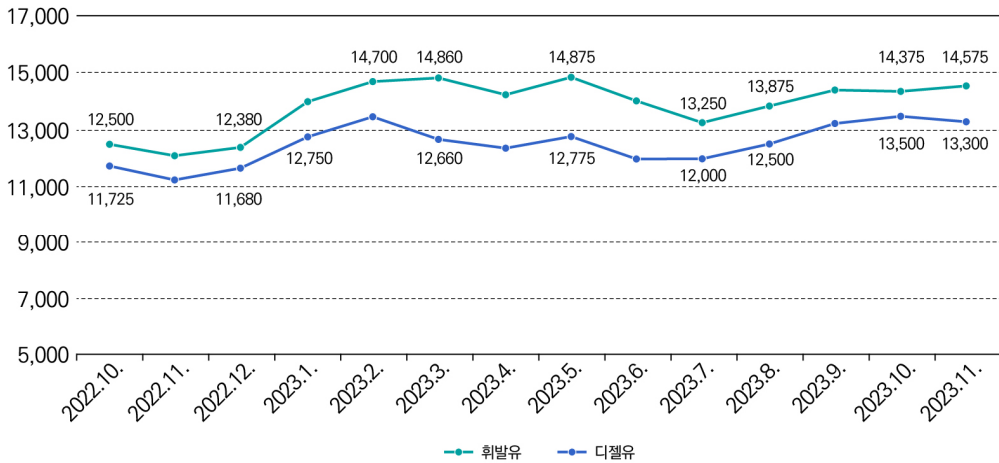
중국 위안화 환율 또한 2019년의 1,200 원대 가격으로 회귀했다. 2021년 6월 520 원으로 최저가격을 기록한 이후 2023년 3월 약 2배가 상승한 1,200원대로 복귀했다. 원인은 물론 무역 재개 기대감이었다.

북한 관련 주요 이슈인 식량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곡물가격 변동은 극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 곡물인 쌀 가격은 2022년 1월 kg당 5,000원을 기준으로 2022년 6월말 6,600원으로 상승했다가 2023년 10월 5,400원 하락했다. 옥수수 가

격 역시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가격이 안정되었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쌀과 옥수수의 평균가격은 5,000원과 2,500원에 수렴하고 있다.

특히 밀가루가격 변동은 주목할만하다. 북한 시장의 밀가루가격은 2022년 1월 기준 kg당 1만원대에서 2023년 1월 2만원대로 폭등했다. 그러나 5월에는 8천원대로 폭락하더니, 10월 현재 6천원대로 또 다시 하락했다. 밀가루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던 현상이 돌연 폭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그림 9 북한 시장의 휘발유, 디젤유 시장 가격: 2022-2023.11월



\* 자료: asiapress.org 월 평균가격. 단위: 북한 원/kg.

밀가루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되어 왔던 수입량 부족 등 수급불균형에서 찾았다면 밀가루 수입량 감소는 또 다른 설명을 요구한다. 즉 국내 생산량 확대 말고는 최근의 밀가루 가격 폭락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밀가루가격이 쌀가격에 비해 낮게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밀가루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 시장의 휘발유, 디젤유는 가격상승 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현상은 유류의 수요 대비 공급부족이 가장 설득력있는 분석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건설기계와 농기계 가동률 향상 등 복합적인 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요 생필품의 물가와 환율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나아가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평균 수준으로 수렴,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핵심 곡물인 쌀, 옥수수는 지난 10년 평균가격으로 수렴하고 있다. 주민과 시장의 수요가 매우 큰 밀가루 가격의 변동성은 드라마틱하다. 밀가루 시장가격의 격렬한 변동성은 국가의 농업정책을 변경할 정

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전통적인 곡물인 옥수수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 생산을 늘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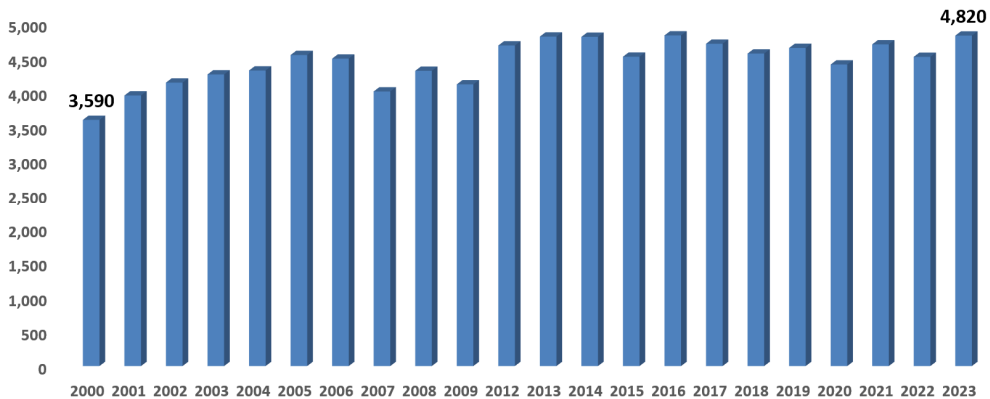
대외경제, 특히 북중무역의 핵심변수인 환율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전,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평균 가격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2023년 북중무역은 2018년 규모를 회복했고, 2024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돌발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북러무역, 경제협력 확대가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 Ⅲ. 김정은 시대 인민생활정책: 농업 & 농촌발전정책

#### 1. 김정은 시대 식량증산: 2000년 대비 2023년 34% 증산(농진청)

북한 당국은 2023년 식량작물 생산목표를 103%, 질소비료는 100%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남한의 농촌진흥청은 2023년 482만톤을 생산해 2022년 451만톤 대비

그림 10 북한 북한의 식량작물 증산 추이



\* 자료: 농촌진흥청,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보도자료 각년도. 단위: 천톤

약 6.8% 증산량을 추정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더디지만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아래 통계는 농진청이 추정한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으로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34% 증가했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농업정책은 본격적인 체계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왔다. 2012년 포전담당책임제로 알려진 농업정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고, 2014년 ‘우리 식경제관리방법’의 농업부문 정책인 농장책임관리제로 체계화되었다. 식량증산 관련 핵심 법령인 <농장법>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9차에 걸쳐 법안이 개정되었고, 농지확장을 위한 간석지개발 5개년계획, 농지보호를 위한 치산치수전망 10개년계획이 추진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식량증산 관련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농업기본법인 <농업법> 개정(2020)을 시작으로 <농장법> 개정(2022), 화학비료

생산 및 공급을 의무화한 <화학공업법>(2021)과 농기계생산 관련 <기계공업법>(2021)이 제정되었다. 곡물생산 및 통계관리, 농업인프라보호를 제도화를 위해 <허풍방지법>(2022)과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2021)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곡물유통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량정법>(2021)을 개정했고, 곡물관리를 위한 <수매법>과 <사회급양법>(2022)을 제정했다. 식량증산과 농촌주택 개량 등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10개년 정책추진과 이를 법제화한 <농촌발전법>(2022)을 제정했다.

농업 법제화는 농업생산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궤도에 올려세우기’<sup>9</sup> 위한 조치로

▲ 농촌문제 증장기 발전전략(2021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제8기 제4차전원회의) →

▲ 농업예산 14.7% 대폭증액(2022년 12월,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정책으로 이어졌다.<sup>10</sup>

2023년 북한 당국은 농업예산을 전년대비 14.7% 대폭 증액했다.<sup>11</sup> 북한 당국에 따르면, 10개년 계획을 목표로 “새시대 농촌혁

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3월 6일.

10 농업법제 제정 및 개정의 정책적 의도와 효과는 김일한, “북한 농업법제 변화: 농장의 자율성 확대 vs.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28권 제3호, 2023.09. 참조.

그림 11 농업정책의 체계화: 5.30 경제관리개선조치(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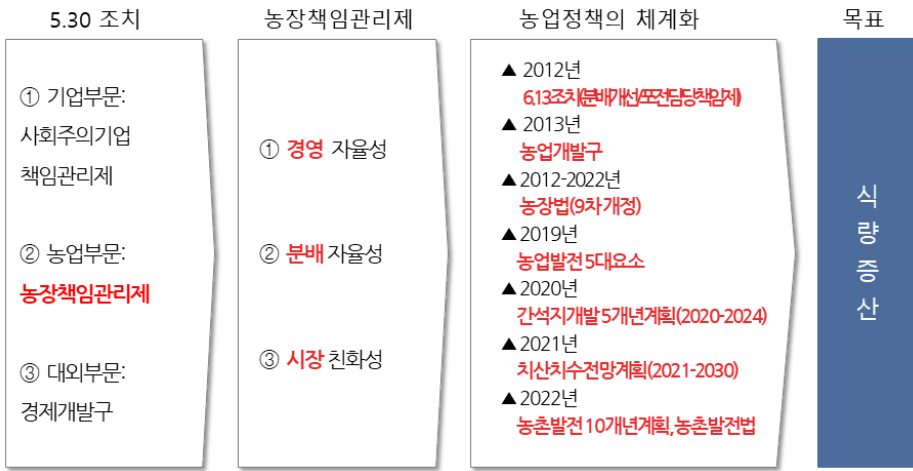


그림 12 최근 농업법령 제정 및 개정



명강령을 높이 받들고 농촌진흥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늘이는 원칙에서 지난해 114.7%에 해당하는 많은 자금을 농촌건설과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는데 지출”한다고 발표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은 농촌지역의 ▲ 농업발전(식량증산), ▲ 농촌살림집 건설, ▲ 지방공업 개선, ▲ 치산치수사업, ▲ 교육, ▲ 보건의 6대 분야 개발을 목표로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식량증산정책이면서 북한식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된 것이다.

## 2. 2023년 식량생산 동향<sup>12</sup>

2023년 북한경제를 평가할 때 식량생산량은 언제나 최고의 관심사였다. 그만큼 민감하고 폭발력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폭 증액된 농업예산 만큼이나 추수철이 가까워질수록 식량생산량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외부세계의 이러한 관심을 반영해서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풍작을 발표했다. 2023년 농업부문에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풍작을 거두고있는 농업발전의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로동신문』, 2023년 1월 19일.

12 식량생산 관련 내용은 다음의 보고서 수정 보완한 것이다. 김일한, “2023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4년 전망,” 국회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의원 이용선, 2023년 12월, pp. 37-44. 참조.

놀라운 현실”을 이룩했다는 것이다.<sup>13</sup>

연간 식량생산량은 봄작물과 가을작물 생산량을 합산해서 평가한다. 북한은 언론을 통해 밀, 보리와 감자 등 올곡식(봄작물)은 전국적으로 “레년에 없는 풍요한 작황을 마련”했고,<sup>14</sup> 북한의 서해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 등 전역에서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인 다수확농장, 작업반, 분조, 농장원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으며,<sup>15</sup>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는 “올곡식다수확단위 지난해보다 크게 증대”했다고 보도했다.<sup>16</sup> 올곡식을 증산한 이유는 “우량품종의 종자 적극 도입, 질 좋은 유기질비료 시비, 물원천 확보와 재배면적보장, 관개시설을 리용한 가물극복, 과학농법 도입”의 결과라는 것이다.<sup>17</sup>

한편, 가을추수 결과는 서해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남포시에서 “최근년간에 볼수 없었던 높은 수확고”를 기록했고, 이와 같은 높은 수확고는 관개체계 정비와 농기계 및 비료공급 확대, 그리고 박막 등 농자재 공급을 확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sup>18</sup>

## 가. 봄작물 생산 동향: “레년에 없는 풍요한 작황”

북한 언론은 2023년 봄작물 생산과 결산

과정에서 몇가지 이례적인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먼저, 황해남도 은률군 장련농장의 봄작물 증산 사례로 “올곡식이 너무도 잘되어 그것만으로도 한해 국가알곡수매계획을 큰 소리치며 넘쳐 수행”<sup>19</sup>했다고 보도가 등장했다. 매우 특수한 사례로 보이는데, 봄에 생산한 작물만으로 1년 농사 수확고를 달성했다는 것은 2023년 상반기 영농환경이 예년에 비해 매우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둘째, 2021년부터 추진중인 밀농사 확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밀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파종 및 추수기간이 단축되었다. 대표적인 밀생산 농장인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농장은 지난해에 이어 봄밀 생산계획 넘쳐 수행했는데, 전년대비 재배면적을 확대한 것이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sup>20</sup>

셋째, 봄작물인 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밀가공공장 개건과 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 농정 당국은 올해 밀가공기지건설연합지휘조를 구성하고 전국 밀가공능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200여개 시, 군량정사업소를 개건 및 신설을 추진하고 밀가공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황해북도 사리원시량정사업소가 시,군단위 본보기공장으로 지난 9월 준공했는데, 내각총리가 현지료해를 진행할 정도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sup>21</sup>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3년 9월 28일.

14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보름 앞당겨 앞그루밀, 보리수매 기본적으로 결속”, 『로동신문』, 2023년 7월 11일.

15 “흐뭇한 올곡식작황 마련”, 『로동신문』, 2023년 6월 29일.

16 “올곡식다수확단위 지난해보다 증대-황해남도에서”, 『로동신문』, 2023년 7월 14일.

17 “흐뭇한 올곡식작황 마련”, 『로동신문』, 2023년 6월 29일.

18 “한해 농사를 떼땀이 총화한 기쁨 전야에 넘친다-서해곡창지대 농장들에서 결산분배 련일 진행”, 『로동신문』, 2023년 11월 3일.

19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펼쳐지는 관개체계완비의 벅찬 현실을 체감하며”, 『로동신문』, 2023년 11월 9일. 황해남도 은률군 장련농장 사례

20 “재령군 삼지강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투쟁”, 『로동신문』, 2023년 7월 6일.

21 내각총리 김덕훈은 2021년 10월 5일과 2023년 7월 17일 사리원시량정사업소를 방문해 국가양정사업과 밀가공

FAO에 따르면 북한의 봄작물 생산량은 45~5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봄 밀과 보리, 그리고 감자로 구성된 봄작물은 가을추수전까지 중요한 식량자원 역할과 함께 생산량에 따라 시장의 곡물가격 등락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sup>22</sup>

한편, 시장에서 고공행진하던 밀가루 가격이 밀 추수가 본격화되는 5월이후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 밀 생산량 증가, ▲ 국가양정사업소의 공급능력 확대, ▲ 국가양곡판매소의 판매, ▲ 주민 결산분배물의 시장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밀가루 가격 하락과 동반해서 쌀과 옥수수 가격도 하향 안정되었다.<sup>23</sup>

## 나. 가을 추수 동향: “최근년간에 볼수 없었던 높은 수확고”

2023년 가을추수 시기에도 북한 언론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보도를 이어갔다. 대표적인 사례는 ▲ 알곡생산계획 초과 완수, ▲ 국가알곡수매, ▲ 주민 결산분배로 이어지는 전형적 과정을 기사화했다. 이러한 현상은 2023년의 특징적인 현상인데, 전년까지는 의례적인 보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또한 식량 증산과 관련해 ▲ 강냉이, 벼 모두를 증산했고, ▲ 간석지, 산간오지 등 저수확지 증산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 린안비로 공급과 시비 보도가 유례없이 다수 보도되었다.

먼저, 알곡생산계획 초과 완수 → 국가알곡수매 → 결산분배 과정을 보도한 기사를 살펴보자. 지난 10월초 전국적으로 벼와 강냉이가을(추수)을 기본적으로 마감하고<sup>24</sup> 운반, 낱알털기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면서 지역별로 곡물생산 실적이 이어졌다.

평안남도 평성시가 농사를 한달 앞당겨 10월 4일까지 국가알곡수매를 마쳤고,<sup>25</sup>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이 알곡생산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국가알곡수매를 거쳐 10월 8일 주민 결산분배를 마쳤다.<sup>26</sup> 남포시 온천군 증악농장도 정보당 평균 1.2t의 알곡을 증수해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고 결산분배를 진행했으며,<sup>27</sup> 대표적인 식량생산지 평안남도 숙천군, 황해남도 배천군, 평안북도 염주군이 국가알곡수매를 마쳤다.<sup>28</sup>

그리고 서해곡창 황해남도가 알곡생산목표 달성하고, 20일 이상 빨리 국가수매와 결산분배를 끝냈다.<sup>29</sup> 강원도와 함경남도, 함

공장 건설을 독려했다.

<sup>22</sup>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 (November/October), FAO, 14 June 2021. FAO는 2020/2021 북한 식량생산량을 추정하면서 봄철 계절곡물 생산량을 46만 6천톤을 예상(봄철 계절곡물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에서 약 8% 내외로 추정)했다. 6~7월 출하되는 봄작물(밀, 보리, 감자 등) 생산량은 식량공급 및 시장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다.

<sup>23</sup> 북한 시장의 주요 곡물 가격 변동 참조

<sup>24</sup> “전국적으로 벼가을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로동신문』, 2023년 10월 7일 : “각지 농촌들에서 강냉이가을을 기본적으로 결속”, 『로동신문』, 2023년 10월 7일.

<sup>25</sup>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드높은 열의-평성시에서 농사결속사업을 지난 시기보다 한달 앞당겨 추진”, 『로동신문』, 2023년 10월 8일.

<sup>26</sup> “황해남도에서 농업생산력이 미약하던 농장이 다수확의 성과 달성-배천군 역구도농장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 초과완수, 풍년의 자량안고 결산분배 진행”, 『로동신문』, 2023년 10월 9일.

<sup>27</sup> “간석지벌에 넘치는 풍년의 기쁨-남포시 온천군 증악농장에서 최고수확년도 돌파, 결산분배 진행”, 『로동신문』, 2023년 10월 16일.



**표 5 수매, 결산분배 절차**

구분	세부 내역	
1순위	국가의무수매료	국가알곡수매
2순위	농장 자체조성곡(종자, 가축사료, 공업원료)	
3순위	농장원 분배료	결산분배
4순위	확대재생산용알곡(저축)	
합 계	총 알곡생산량	

\* 자료: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실현방도』 평양: 농업출판사, 2016, p.67 수정.

경북도, 평안북도, 평성시가 알곡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고 결산분배를 진행했다.<sup>30</sup>

한편, 저수확지에서 식량을 증산한 사례가 예년과는 다르게 다수 보도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평안남도 숙천군 채령농장으로 정보당 최고 10.8t의 논벼를 증산했고, 자강도 위원군 고보농장이 정보당 5t이상 알곡생산계획 초과 수행했다는 것이다.<sup>31</sup> 이례적인 사례와 함께 저수확지(뒤떨어진, 뒤자리 농장 등)의 증산 기사가 빈번하게 등장했다.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은 이름에 알 수 있듯이 섬을 연결해 조성한 간석지농장이다. 농장은 2023년 알곡생산계획을 130% 이상 초과수행하고, 국가알곡수매를 거쳐, 8

일 주민 결산분배를 마쳤다. 농장의 대표적인 저수확 작업반에서도 정보당 2t이상의 알곡을 증수할 만큼 생산력이 향상되었다.<sup>32</sup>

남포시 온천군 증악농장도 대규모 간석지 농장으로 지력이 낮고 농사조건이 불리해 과거 농사가 잘 안되는 곳으로, 해마다 전체 군이 달라붙어야 모내기와 가을걷이를 할 수 있는 농장이었는데, 올해 정보당 평균 1.2t의 알곡 증수하고 최고수확년도 돌파했다.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방법론있게 실시해 올곡식(봄작물)생산계획을 197% 초과 수행했다.<sup>33</sup> 수천정보의 평안북도 홍건도간석지논에서도 예년과 다른 작황을 거두었다.<sup>34</sup>

28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서 큰 몫을 맡고있는 손꼽히는 별방군들인 숙천군, 배천군, 염주군에서 국가알곡수매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로동신문』, 2023년 10월 22일.

29 “서해군항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한해 농사를 총화하는 결산분배모임 련이어 진행”, 『로동신문』, 2023년 10월 25일.

30 “함경북도에서 전례없는 혁신 창조, 10월중에 국가알곡수매 결속”, 『로동신문』, 2023년 10월 28일 : “관개체계의 덕으로 높은 알곡소출 기록-평안북도에서”, 『로동신문』, 2023년 10월 28일 : “올해 알곡생산계획 초과완수, 결산분배 진행-강원도, 함경남도, 평성시의 농장들에서”, 『로동신문』, 2023년 10월 28일.

31 (평안남도 숙천군 채령농장 사례)“평안남도에서 29일까지 남알달기결속, 전반적인 농촌들에서 높은 알곡생산실적 기록”, 『로동신문』, 2023년 10월 31일 : (자강도 위원군 고보농장 사례)“산골농장에도 알곡증산의 기쁨 넘친다-위원군 고보농장을 찾아서”, 『로동신문』, 2023년 11월 8일.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데, 휴경지를 복구했거나(채령농장) 중산간지대의 관개시설 정비와 농자재가 추가적으로 공급(고보농장)된 예외적 사례로 보인다. 일반적인 농지의 추가 생산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2 “배천군 역구도농장의 결산분배장에서 울려나온 농업근로자들의 격정의 목소리”, 『로동신문』, 2023년 10월 14일.

33 “간석지벌에 넘치는 풍년의 기쁨-남포시 온천군 증악농장에서 최고수확년도 돌파, 결산분배 진행”, 『로동신문』, 2023년 10월 16일.

34 “평북의 드넓은 간석지벌에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다-수천정보의 홍건도간석지논에서 매일 많은 면적의 벼가을걷이 진행”, 『로동신문』, 2023년 10월 3일 : 홍건도간석지는 ▲ 2016.10. 1단계 완공, ▲ 2021.6. 2단계 공사를 완공, “1단계 건설을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해 4,500정보의 새땅을 얻어낸 데 이어 2단계 목표를 점령함으로써 또다

간석지에 이어 증산지역의 저수확지 증산 소식도 이어졌다. 평안남도의 증산간지대인 덕천시, 개천시, 북창군, 증산군, 신양군 등의 농장이 벼와 강냉이농사에서 성과를 내고, 황해남도의 저수확지 삼천군과 평안북도 녕변군 세죽농장, 평안남도 평원군 운연농장, 황해북도 금천군 원명농장, 황해남도 신원군 무학농장, 함경북도 김책시 룡도농장도 다수확농장으로 전환되었다.<sup>35</sup>

북한 언론은 2023년의 높은 식량증산 실적이 영농기술의 축적과 농자재 공급능력의 향상, 그리고 재배면적의 확대 등 국가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혁명적인 조치”의 결과라는 것이다. 북한은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급 농업지도기관은 다수확농장 등 특정 농장에 대한 생산지원체계에서 전체 농장에서 정보당 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관개시설 정비와 영농물자 공급을 강화했다.

식량증산의 요인은 ▲ 관개체계 정비에 따른 농수 공급, ▲ 린안비료 등 농자재 공급, ▲ 모내기 및 추수철 농기계 가동률 향상이 직접적이다.

북한 언론은 올해 알곡증산의 요인으로 국가적 지원체계를 지목하고 있는데, ▲ 농촌에 필요한 영농물자들이 적기에 맞춰 두메의 산골작업반까지 넉넉히 공급하고, ▲ 강령호 담수화공사와 청천강-평남관개물길 완공 등

물이 필요한 밭이라면 높은 둔덕에도 관개로 조성했으며, ▲ 큰 농장, 작은 농장 가릴 것 없이 새 농기계를 공급했고,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등에서 증산한 비료, 우월성이 확증된 좋은 종자와 《진심 1》 등 식물활성제 공급과 강서분무기공장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뛰어넘어 수십만대의 분무기를 농장에 공급했으며,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조성,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제와 화상지도체계, 먼거리협의체계도 훌륭히 구축해 과학농사를 실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6</sup> 특히 봄작물인 밀, 보리, 감자 등은 발작물로 용수공급 능력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6 농업발전 5대요소

	주요 분야
영농과학 기술	육종, 품종개량, ICT 등 영농과학기술
농자재 공급	종자/비료(화학/유기)/농약(화학/유기) 농기계, 비닐박막 등
농업 인프라	간석지/토지정리 관계체계 정비, 물길공사, 저수지, 댐 등
증산 영농	저수확지증산기술/기관기업소 분양 수확 효율화
증산 경쟁	증산경쟁요강 분배

\* 자료: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당의 사상의 기본요구”, 『로동신문』, 2019년 12월 30일 ;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시 5,500정보의 땅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조”, “용감한 바다정복자들의 위훈을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으리-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을 완공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을 전하며”, 『로동신문』, 2021년 6월 21일 : 1단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7년만의 증산 성과인 셈이다.

35 “우리당 농업발전관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지난 시기 뒤떨어졌던 많은 농장들이 올해에는 용을 쓰며 일어나 높은 소출을 냈다.” 2023년 10월 26일.

36 “뜻깊은 올해의 풍요한 가을과 더불어 사회주의농촌에 약동하는 진흥의 새 기운, 새 숨결을 가슴벅차게 체감하며”, 『로동신문』, 2023년 10월 28일 : 식량증산은 국가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혁명적인 조치”때문인데 종자,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공급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 “한해 농사를 멋있게 총화한 기쁨 전야에 넘친다-서해국창지대 농장들에서 결산분배 연일 진행”, 『로동신문』, 2023년 11월 3일.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관리는 2019년 농업발전 5대요소로 정책화되었다. 주요 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sup>37</sup>

### 3. “심각한 식량난”과 “의식주”

#### 가. 김정은, 2022년 “심각한 식량난”

2023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식량증산 소식을 전하면서 2022년에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식량문제를 인정한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발언의 맥락상으로는 코로나 방역과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식량작물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것이지만, “식량난”의 ▲ 수준, ▲ 범위, ▲ 생산량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공식발표나 언론보도에서도 2022년 식량생산 관련 공식보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3년나마 지속된 국제적인 공중보건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로도 국가적으로 실시한 엄격한 방역조치로 하여 모든 부문이 많은 제약을 받았고 적대세력, 방해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압박에도 대처해야 했고 험악한 안전환경에도 대응해야 했으며 더우기 급박한 문제로 나선것은 지나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산생된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는것이었습니다.<sup>38</sup>

최고지도자만 식량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니었다. 2023년 10월 로동신문은 개성시 판문구역 채련농장 방문기를 보도했는데, 2023년초 개성지역에 식량문제로 어려움을 겪었

다는 기사가 등장한 것이다. 채련농장 경리(구 관리위원장) 김용길의 인터뷰 기사에서 식량부족은 개성시민 뿐만아니라 농장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올해초 개성시민민들은 식량문제로 하여 참으로 어려운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채련농장의 농장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러한 때 당에서 보내준 식량이 개성시에 도착하였다.<sup>39</sup>

황해남도 지역에서 “영농사업에서 여러가지 폐단”도 발생했다.

특히 황해남도에서 지난 시기 영농사업에서 나타나던 여러가지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교양과 투쟁의 된바람을 일으키고 과학농사추진조의 역할을 높여 알곡수매계획을 수행한것은 그 누구보다도 농사의 주인인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과 농업부문 당조직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한 결과이라고 평가하였다.<sup>40</sup>

“심각한 식량난”, “식량문제로 하여 참으로 어려운 난관”, “영농사업에서 나타나던 여러가지 폐단” 등 국가적으로 숨기고 싶은 사실을 북한 언론과 최고지도자가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의도는 매우 미스터리하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식량난” 발언이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발언의 동기(Why)와 얻고자 했던 결과(What)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 정치방식을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인민생활향상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sup>37</sup> 김정은시대 농업발전 5대요소의 분야별 정책추진 과정과 실적은 김일한, “2024 북한경제 평가와 전망”,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2024년 1차 경례토론회, 2024.2.22. 참조.

<sup>38</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sup>39</sup> “항상 나라를 생각하는 진심을 묻어야 한다-개성시 판문구역 채련농장 경리 김용길동무에 대한 이야기”, 『로동신문』, 2023년 10월 29일.

<sup>40</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표 7 북한 식량생산 관련 공식발표

	내용	출처
2023	“알곡 103% ..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 ... 2023년도 경제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김정은)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전원회의 (로동, 2023.12.31.)
2023	“지난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산생된 심각한 식량난” (김정은)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전원회의 (로동, 2023.12.31.)
2023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풍작을 거두고있는 농업발전의 놀라운 현실”(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로동, 2023.9.28.)
2023	“올해초 개성시민들은 식량문제로 하여 참으로 어려운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개성시 판문구역 채련농장 (로동, 2023.10.29.) <sup>41</sup>
2021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었으며, 올해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잘짓는데 적극 기여한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인사”(김정은)	제8기 제4차전원회의 (로동, 2022.1.1.)
2021	“농업부문의 알곡생산량을 전례없이 높이는 성과”	김정은, 제8차 당대회 제7기 사업총화 (로동, 2021.1.9.),
2020	“과학농사열풍,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2020년) 올곡식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농근맹중앙위원회)	올곡식과 올과일생산목표 점령을 위한 2020년 사회주의경쟁총화 (로동, 2020.9.27.)
2019	“적대세력들의 악착한제재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고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2019년) 올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이 마련”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보도 (로동, 2020.1.1.)
2016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집중해 (2016년) 알곡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 (로동, 2017.4.21.)

몇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보면, ▲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위기였을 가능성, ▲ 위기를 국가적 역량으로 극복했다는 성과 과시일 가능성, ▲ 2024년 농업부문의 긴장감 조성 가능성 등이다. 그중에서도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화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자극제일 가능성이 높다. 2023년 3월 제8기 제7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의 보고가 단초가 될 수 있다. 농업부문의 문제를 찾아

내고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속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생산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과업들과 전망목표들을 수립하고 ... 농업 발전에 부정적작용을 하는 내적요인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해소하며 ... 사회주의경제건설의 2대분야인 농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안들을 책정하고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촉진시킬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sup>42</sup>

41 “항상 나라를 생각하는 진심을 묻어야 한다-개성시 판문구역 채련농장 경리 김용길동무에 대한 이야기”, 『로동신문』, 2023년 10월 29일 : “황해남도에서 지난 시기 영농사업에서 나타나던 여러가지 폐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 영농사업에 나타난 폐단은 다수확농장에 지원을 집중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4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3월 6일.

개성시 등 일부지역에서 식량부족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평가하기는 어렵다. 2023년 상반기 북한 당국이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역간 물적, 인적 이동이 봉쇄된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식량공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장의 곡물가격 변동폭 역시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식량위기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개성시의 지역자립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것 역시 식량문제를 야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몇년동안에 중평온실농장과 련포온실농장을 건설하고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일신시켰으며 전국적인 농촌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성시가 자체로 살아나갈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지방인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작전하고 내밀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sup>43</sup>

최대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의 농업문제는 “농사지도에서 편파성”과 “균형성을 보장”하지 못한 문제에서 비롯된 지적으로 보인다. 농업지도의 편파성은 식량작물 생산량이 많

은 농장을 중심으로 농자재 및 기술지도 등을 우선 지원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3월 농업위원회 위원장 주철규는 “전국적인 농업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농사지도에서 편파성을 극복하고 전반을 책임지는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농장에서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농업생산지도를 혁신”하는 내용의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sup>44</sup> “모든 농장의 정보당 수확고 확대 정책”의 결과 북한 언론에는 2023년 정보당 곡물생산량 우수 농장 대부분이 간석지, 중산간지대 등 저수확지 농장이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 나. “식의주”에서 “의식주”로

40여년 북한에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식의주”대신 “의식주”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인민들의 의식주에서 실제적인 개변”을 주문하면서 의식주가 등장한 것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용어가 식의주<sup>45</sup>인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이례적인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몇가지 의도를 추정해볼 수 있는데, ▲ 식

4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16일.

4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3월 6일.

45 식의주 개념은 최근까지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 당과 국가는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를 비롯한 중요회의들에서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문제들을 취급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 “공화국의 존엄, 당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문제”, 『로동신문』, 2024년 1월 8일 :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의 정책적과제들을 철저히 집행 ...”, “사설, 전체 근로자들여여, 애국의 열정과 근면한 노력으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23년 5월 1일 등 ; 식의주 용어가 시작된 것은 1985년 10월 정무원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서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옷이나 집 같은 것은 부족하여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먹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주라는 말을 식의주라고 고쳐 쓰도록 하였다”고 밝히면서 용어에 변화가 나타났다. “공산주의적 시책, 정무원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10월 22일”, 『김일성저작집』 39권(1985.1-1986.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량생산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서 정책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일 가능성, ▲ 전국적인 지방공업발전계획인 《지방발전 20×10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다. 여전히 부족한 식량작물 생산량

최근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생산능력이 여전히 뒤떨어진다. FAO에 따르면 연간 식량작물 생산량과 별도로 추가 1백만톤 이상의 곡물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FAO의 평가와는 별도로 가공용, 사료용 등 추정이 어려운 변수까지 고려하면 현재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주민 식량용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국가적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 생산의 측면에서는 먼저, 농기계 공급 확대로 수확후 손실분<sup>47</sup>을 축소하고, 둘째, 화학 및 유기질 비료공급과 우량종자 육종과 영농기술 보급으로 절대적인 생산량을 늘일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와 생산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해외 식량수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농기계화는 또한 산업구조 개선에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북한의 농업인구는 경제활동인구의 33.9%로 매우 높다. 농업 노동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면 공업노동자를 확대하고 경제부문간 균형을 앞당길 수 있다. 식량증산과 산업구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림 13 FAO 2020/2021 식량생산량 추정치<sup>46</sup>

	Rice (milled) <sup>1/</sup>	Maize	Wheat and barley	Other cereals	Potatoes <sup>2/</sup>	Soybeans <sup>3/</sup>	TOTAL
<b>Domestic availability</b>	1,395	2,214	146	161	697	276	4,889
Main season production	1,395	2,214	–	161	377	276	4,423
Winter/spring production	–	–	146	–	320	–	466
<b>Total utilization</b>	1,930	2,636	252	161	697	276	5,952
Food use	1,605	1,954	207	124	413	238	4,541
Feed use	–	137	–	–	38	–	175
Seed requirements	46	58	14	13	72	10	213
Post-harvest losses	279	487	31	24	174	28	1,023
Stock build-up	0	0	0	0	0	0	0
<b>Import requirements</b>	<b>535</b>	<b>407</b>	<b>106</b>	<b>0</b>	<b>0</b>	<b>0</b>	<b>1,063</b>

\* 자료: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 (November/October), FAO, 14 June 2021.

<sup>46</sup>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 (November/October), FAO, 14 June 2021.

<sup>47</sup> 수확후 손실분은 연간 총 생산량에서 1백만톤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표 8** 북한 농업부문 경제활동인구 분포: 2008년 기준

	인구(명)	비중(%)
전체	12,184,720	100.0
농업/축산/수산	4,386,895	36.0
농업/축산	4,130,038	33.9
임산	59,949	0.5
수산	178,979	1.5

\* 자료: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 Korea 2009

#### 4. 김정은 시대 최고 히트작, 살림집 건설<sup>48</sup>

**당 제8차대회이후 우리 당이 제일 큰 힘을 넣은 중대국사인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에서 혁혁한 성과가 기록된데 대하여 평가되었다. 건설부문에서는 화성구역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또다시 일떠세워 이제 오는 태양절에 수도시민들을 입사시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청년건설자들은 서포지구의 4,100여세대 살림집건설을 과감히 내밀어 전위거리라는 새로운 청춘기념비를 떠올리였다. 인민군대는 수도의 살림집건설뿐 아니라 지난 4년동안 검덕지구에 2만여세대의 살림집들을 일떠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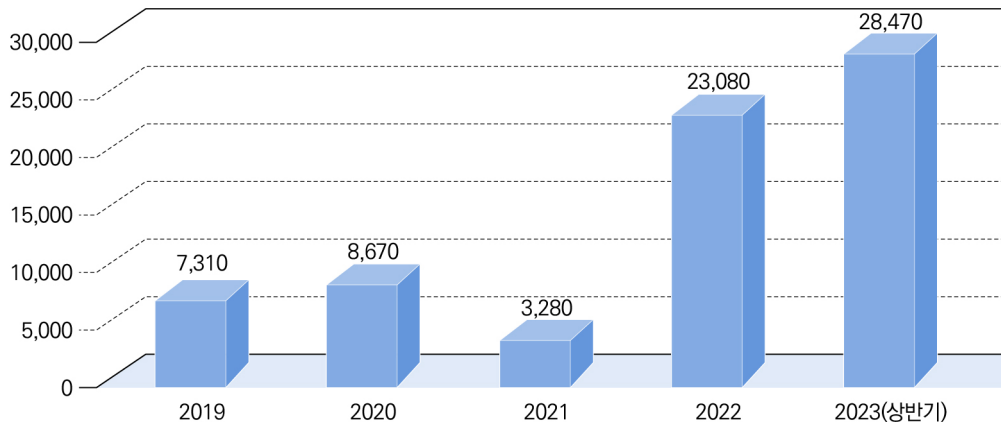
새 산악협곡도시의 장관을 이루어냈으며 ... **농촌살림집 건설계획은 2022년의 두배이상인 5만 8,000여세대**로써 40여개의 시, 군들에서는 이미 건설을 끝내였으며 다른 시, 군들에서도 새년도 봄철까지 계획된 살림집건설을 전반적으로 완공하게 된다.<sup>49</sup>

북한의 제8차 당대회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에 따르면 살림집 건설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는 정책이다. 제8차 당대회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촌살림집 건설을 추진되었다.<sup>50</sup>

북한의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준공일(새집들이)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188건 사업에 총 70,810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었다. 주택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단층, 소층, 다층, 다락식, 고층 등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살림집 건설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이후 인민생활향상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2021년말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그림 14** 준공시기별 살림집 건설 추이: 2019-2023년 상반기



\* 자료: 북한 방송 및 언론보도 기준 추정치. 단위: 세대

<sup>48</sup>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 임산물 교역 동향 분석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 국립산림과학원 용역보고서, 2023.9월, pp.105-113. 참조. 살림집의 건설 세대수 추정은 북한 방송 영상자료, 언론보도 등을 활용했다.

<sup>49</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sup>50</sup> 김두환, “최근 북한의 살림집 건설정책”,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pp.47-63.

을 채택하면서 농촌살림집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2022년에 준공한 살림집은 2020년 대비 약 3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2022년 준공실적을 초과할 정도로 건설량이 증가했다.

농촌살림집 건설정책은 크게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농촌지역의 인민 생활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제일주의 슬로건이 인민들의 생활에서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건설업이 경제성장, 즉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은 10개년계획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살림집 건설붐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IV. 2024년 북한경제 전망

2021년 제8차 당대회이후 북한경제 운영 기조는 ‘선택과 집중’이다. 대북제재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필연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주요 투자대상으로 산업분야에서 ▲

“자립경제의 쌍기둥” 금속과 화학공업, 인민 생활분야에서는 ▲ 농업, ▲ 살림집, ▲ 생필품 생산 및 공급에 집중해왔다.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문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국민총생산액이 140% 증가했고, 금속공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식량생산과 살림집건설도 계획을 달성했다. 나아가 인민소비품 생산을 위해 지방공업공장을 전국에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추진을 예고했다.

대외무역은 대북제재의 먹구름이 여전히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2023년 대중국 무역총액이 2019년 수준에 근접했지만, 수출은 여전히 회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공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 수입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시장물가는 코로나 기간 격렬한 변동성을 시현한 이후 최근 비교적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와 위안 환율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했고, 쌀과 옥수수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의 특별한 상품인 밀가루는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쌀 가격대비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표 9 《지방발전 20×10 정책》 2024년 대상지역 20개 지역

지역		착공시점	지역		착공시점
평안북도	구성시	2024.3.7	자강도	우시군	2024.3.11
	운산군	2024.3.11		동신군	2024.3.11
	구장군	2024.3.11	강원도	고산군	2024.3.11
평안남도	속천군	2024.3.7		이천군	2024.3.11
	성천군	2024.2.28	함경북도	경성군	2024.3.7
황해북도	연탄군	2024.3.11		어랑군	2024.3.7
	은파군	2024.3.7	함경남도	금야군	2024.3.11
황해남도	채령군	2024.3.11		함주군	2024.3.11
	은천군	2024.3.11	량강도	김형직군	2024.3.11
개성시	장풍군	2024.3.11	남포시	온천군	2024.3.7

\* 자료: 『로동신문』 보도기준.



2024년 경제계획은 2023년과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금속공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계공업과 지방공업 설비생산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2024년 경제정책 기조와 부문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 전망1. 완만한 재정지출 증가율로 기계공업부문 등 산업생산성 견인

북한경제는 2021년 이래 3년 연속 1%대의 극단적인 긴축재정 운영기조에서 3%대의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재정지출 확대는 기간공업 등 산업부문의 생산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특히 2024년 기계공업부문 현대화가 주요 정책목표인 만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락원기계종합기업소 등 기계공업 발전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이어 12개 중요고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 운수 등 기간공업부문의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특히 ▲ 룡성의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일신과 5개년 경제발전 계획기간(2021-2025)내 ▲ 대안과 락원 등 중요기계공장 현대화, ▲ 금성프락토르공장의 농기계발전 전략과 단계별목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공업 강화는 기초소재인 철강 및 비철 금속의 원활한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따르면 최대의 실적은 금속공업부문에서 나타났다. 기계공업부문에서도 일부 실적이 드러났는데, ▲ 2020년 이후 공작기계 생산이 510% 증가했고, ▲ 2023년 전동기(220%), 변압기(208%), 베어링(121%) 등 전기제품 및 부품 생산이 확대되었고, ▲ 농기계 완제품이 2022년 5,500대, 2023년 약 10,000대 생산 공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적인 지출

은 풀어야할 과제가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철강재 생산 → 룡성, 대안, 락원 등 산업기계 생산 → 화력, 수력용 터빈, 발전기 생산 → 금성, 대안 등 농기계 생산 → 부가가치 확대 → 재정수입 증가 → 김철, 황철 등 철강재 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전망2. 무역 및 대외경제 활성화

2024년 확장 재정 기조는 2023년 무역 규모 확대와도 상관성이 높는데, 2024년 대외무역 규모 역시 전년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의 수교 75주년을 맞아 관광, 무역 등 다방면의 경제협력이 추진될 경우 예외적인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성을 견인할 수 있는 이중용도 활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수급문제는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특히 북러, 북중경제관계 활성화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24년은 북한이 중국과 수교 75주년, 러시아와는 2023년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러정상에서 합의된 경제·문화분야협력과제 이행 등 중-북-러 사이의 교류협력이 어느때보다도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최근 북한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이하에 불과하지만, 경제협력이 확대될 경우 무역규모의 순증효과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북러무역의 기저효과를 기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북러 사이의 노동자 파견사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 규모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1월 제10차 북러 무역, 경제 및

표 10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일정	장소	회담대표		보도 내용
			북한	러시아	
10차	2023. 11.16	평양	윤정호 대외경제상	알렉산드르 꼬즐로브 자연부원생태학상 (2019년 원동 및 북극발전상)	(북러관계가) <b>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데 맞게</b> 무역,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쌍무교류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 확정
9차	2019. 3.10	러시아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	북한 대외경제성, 수산성, 보건성, 철도성 등 대표단 15명 파견(연합, 2019.3.2)
8차	2018. 3.22	평양	김영재 대외경제상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원동발전상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 토의
7차	2015. 4.28	평양	리룡남 대외경제상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원동발전상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 토의

\* 일정,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기준

그림 15 북중 외무 회담



\* 자료: 〈조중친선의 해〉 최선희 손위동 회담, 『조선중앙통신』, 2024년 1월 27일.

과학기술협조위원회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북한의 윤정호 대외무역상과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꼬즐로브 자연부원생태학상 사이에 합의된 회담 보도문에 따르면 “(북러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데 맞게 무역,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에서 다방면적인 쌍무교류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 확정”됐다는 것이다.

북러사이의 정치적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다. 2024년 1월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상은 ▲ 푸틴을 예방해 답방을 제안했고,<sup>51</sup>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로씨야연방에 대한 방문결과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보좌실 공보”, 『로동신문』, 2024년 1월 21일. “뿌진대통령 동지는 김정은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신데 대하여 다시금 깊은 사의를 표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 2023년 9월 북러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조치, ▲ 2024년 ‘조로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5돌을 맞아 모든 분야에서 쌍무교류와 협력사업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편, 러시아 제1차관 광단 도착(2024.2.10.), 농업기술대표단 러시아 방문(2024.2.10.), 노동당대표 러시아 국제회의 참가 출발(2024.2.13.) 등 전방위적인 북러교류협력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2024년 북중관계 역시 예년과 다른 다이내믹스를 보여주고 있다. 2024년 1월 1일 김정은-시진핑 사이 교환된 친서에서 ▲ “올해를 《조중친선의 해》로 정한 것은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전진단계에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한 속에서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승화발전시켜 나가려는 공동의 염원에 부합”(김정은)하며, ▲ “새 시기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관계”(시진핑)를 평가하고 있다. 외무상 최섉희와 중국 외교부부부장 손위동이 《조중친선의 해》를 맞아 회담(2024.1.27.)하고, 북한 체육성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2024.1.27.)한데 이어 중국 랴오닝성문화대표단이 방북(2024.1.29.~2.2)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제재가 북러, 북중협력 활성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전망3. 살림집, 지방공업 등 지역발전 드라이브

2021년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발표이후 ▲ 살림집 건설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면, 2024년에는 ▲ 《지방발전 20×10 정책》 지방공업공장 건설 정책이 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추진하는 기존의 6대 부문의 추진 정책이 단계별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 식량 증산, ▲ 살림집 건설, ▲ 지방공업공장 건설, ▲ 치산치수, ▲ 교육, ▲ 보건 등이다.

### 전망4. 화학공업 등 기타 산업부문

주요 관전포인트는 “자립경제의 쌍기둥” 중 한 축인 화학공업으로 ▲ 탄소하나화학공업의 메탄올 생산개시, ▲ 순천린비료공장 생산 정상화 등 실적 가시화 등이다. 홍남비료연합기업소와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액비료 생산 성과가 중평, 련포, 강동 등 대규모 온실농장 생산정상화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요 관찰대상이다.

### 전망5. 농업부문, 기계화 가속, 과학기술 개발 독려

2023년 대폭 증액한 농업부문 예산이 유지되면서, 식량증산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금성트랙토르공장 2차 현대화가 진행중이고, 대안중기계, 락원기계 등의 농기계 생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과학원 원장 김광욱을 단장으로 하는 농업기술대표단이 러시아를 17일간 방문했다.<sup>52</sup> ▲ 밀 등 종자협력, ▲ 농업연구소 등 과학기술 및 인프라 협력, ▲ 농기계 개발 협력, ▲ 카리비료, 인비료등 비료기술 협력 등이 추진될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기술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러시아는 세계최대의 밀 수출국이자 질소와 칼륨비료 최대 수출국이

52 “로씨야에 가는 농업기술대표단 출발”, 『조선중앙통신』, 2024년 2월 10일 : “로씨야에 갔던 농업기술대표단 귀국”, 『조선중앙통신』, 2024년 2월 27일.

표 11 복리 농업과학기술 협력 가능 분야

	과학기술 연구과제	
농업과학원	육종과제 (로동, '23.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산성 높은 밀품종</li><li>• 옥수수 품종</li><li>• 감자 품종</li><li>• 벼 품종 등</li></ul>
	연구소 건설/개건 (로동, '23.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농업화학화연구소</li><li>• 농업생물학연구소</li><li>• 농업토지자원연구소</li><li>• 간석지연구분소</li><li>• 잡학연구소</li><li>• 가금연구원 등</li></ul>
	영농기술 (로동, '23.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해성이상기후대응 품종 선정</li><li>• 농작물병해충식별지원체계</li><li>• 지역별 복합조류생물비료 등 각종 영양강화제, 살초제, 살균제제조</li><li>• 주요농작물의 종자성형피복제와 지효성비료의 생산도입 등</li></ul>
국가과학원	비료 등 (로동, '2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카리비료 문제해결, 인비료생산 확대 연구</li><li>• 화학공업부문, 새로운 가스화기술 연구개발</li><li>• 원통형 냄새재배장치기술 개발</li><li>• 지능형통합생산체계 개발사업 등</li></ul>

다. 밀종자, 화학비료 생산기술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은 긴축과 팽창의 딜레마가 교차하는 다소 혼란스러운 국가 경제 운영계획을 예고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24년

북한경제는 국내외 변수의 통제 능력에 달려있다. 낮은 수준의 공업생산성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정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두환, “최근 북한의 살림집 건설정책”,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 김일성, “공산주의적 시책, 정무원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10월 22일”, 『김일성저작집』 39권(1985.1-1986.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일한, “2024 북한경제 평가와 전망”,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2024년 1차 정례토론회, 2024.2.22.
- 김일한, “2023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4년 전망,”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의원 이용선, 2023년 12월.
- 김일한, “북한 농업법제 변화: 농장의 자율성 확대 vs.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28권 제3호. 2023.09.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 임산물 교역 동향 분석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 국립산림과학원 용역보고서, 2023.9월
-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실현방도』, 평양: 농업출판사, 2016.
- 이찬우,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 및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68차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21.1.
-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 Korea 2009.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 (November/October), FAO, 14 June 2021.
- 농촌진흥청,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보도자료 각년도.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http://www.kita.net)
- 한국철강협회, <https://kosa.or.kr>
- 전략물자관리원 인터넷 자료 [www.data.go.kr/data/15034135/fileData.do](http://www.data.go.kr/data/15034135/fileData.do)
- 아시아프레스 [www.asiapress.org](http://www.asiapress.org).
- 중국해관통계
- 『로동신문』
- 『조선중앙통신』

# 북한 산업 부문의 생산시설 건설 동향과 평가

김수정(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I. 들어가며: 북한 산업의 현황

북한의 산업은 대북제재(2016년부터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생산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대북제재의 장기화의 국면에서 자력갱생 전략을 추진하고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산업생산이 소폭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sup>1</sup>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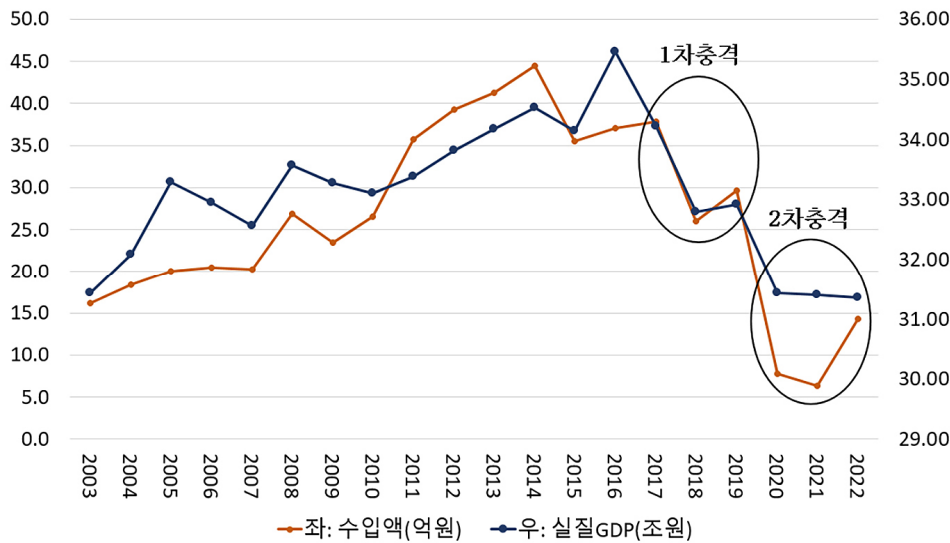
2016년부터 시작된 UN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산업의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2016년에는 제재가 두 차례 강화되었고(2016년 3월 UN안보리 대북제재 제2270호, 11월 제2321호), 2017년에는 세 차례의 추가적인 제재 강도 상향(8월 제2371호, 9월 제2375호, 12월 제2397호)이 있었다. 물론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이 원인이다. 2017년 12월에 통과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로 인해

제재의 수준은 사실상 전면적 수준으로 전환되었고 이 영향으로 2018년부터 북한 경제, 산업의 큰 침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경제의 실질GDP와 수입액 추이를 나타낸 그림 1에서 잘 드러난다.

2000년대 이후로 북한 경제의 실질 GDP와 수입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2016년을 정점으로 실질GDP는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되었고, 2020~2022년의 실질 GDP는 2003년의 수준보다 낮다. 다시 말하면, 201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북한 경제가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렸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의 회복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와 같은 북한 산업의 후퇴는 대북제재가 가져온 외국으로부터의 산업용 원부자재, 자본재의 수입 급감의 영향이 큰데, 같은 시기에 수입 규모도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산업의 생산수준을 평가할 때 북한의 대외무역, 특히 수입에 주목

1 자세한 내용은 산업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전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차년도 평가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북한 경제의 GDP 및 수입액 추이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https://kosis.kr/bukhan>, 검색일: 2024.03.09.)

표 1 산업별성장률(단위: %)

	산업 회복기			대북제재기(2016~2022)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총생산	1.1	1.0	-1.1	3.9	-3.5	-4.1	0.4	-4.5	-0.1	-0.2
농림어업	1.9	1.2	-0.8	2.5	-1.3	-1.8	1.4	-7.6	6.2	-2.1
광공업	1.5	1.1	-3.1	6.2	-8.5	-12.3	-0.9	-5.9	-6.5	-1.3
- 광업	2.1	1.6	-2.6	8.4	-11.0	-17.8	-0.7	-9.6	-11.7	4.6
- 제조업	1.1	0.8	-3.4	4.8	-6.9	-9.1	-1.1	-3.8	-3.3	-4.6
· 경공업	1.4	1.5	-0.8	1.1	0.1	-2.6	1.0	-7.5	-2.6	5.0
· 중화학공업	1.0	0.5	-4.6	6.7	-10.4	-12.4	-2.3	-1.6	-3.7	-9.5
전기,가스,수도업	2.3	-2.8	-12.7	22.3	-2.9	5.7	-4.2	1.6	6.0	3.5
건설업	-1.0	1.4	4.8	1.2	-4.4	-4.4	2.9	1.3	1.8	2.2
서비스업	0.3	1.3	0.8	0.6	0.5	0.9	0.9	-4.0	-0.4	1.0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산업별 성장률”을 이용하여 작성.

하는 것은 북한이 자체적인 산업생산 능력이 미흡하고 핵심적인 원부자재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설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음식료품이나 건설용 자재도 상당수 수입에 의해 조달해 왔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전반적으로는 북한 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산업별 상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화학공

업은 2017년에 -10.4% 성장, 2018년에는 -12.4% 성장하는 등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이후로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건설업은 2017년과 2018년(두 해 모두 -4.4% 성장)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경공업도 타 업종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양호한 편이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지만, 산업별

성장률의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먼저 경공업부터 살펴보면, 경공업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 아니다. 대북제재는 기계류, 철강, 에너지에 집중되었고 민생 관련 품목인 경공업품(음식료품 등)은 제재 비해당품목이다. 따라서 제재 수준이 전면적 수준으로 강화된 시기에도 수입이 가능하여 국내 생산이 가동될 수 있었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에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국경봉쇄 기간에는 경공업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이 불가능했고 그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 않다.

건설업은 2019년부터 매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 사업이 지속 수행되었다는 의미이고 건설에 필요한 각종 건설재료가 생산되었음을 시사한다.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광업과 중화학공업이 큰 폭의 위축을 겪었고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 활동과 건재공업 가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하여 자력갱생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건설 사업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고는 산업 부문 생산시설 건설 동향을 살펴보고 그것의 영향과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 II. 산업 부문 생산시설 건설 동향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이중고 속에서도 전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생산시설 건설, 기존 시설의 개건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북제재 이전에는 수입에 의해 조달할 수 있었던 중간재, 자본재 공급이

급감하거나 중단되었기 때문에 북한내 산업 연관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간공업 부문의 생산역량 강화가 필요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경공업에도 큰 제약이 발생한 만큼 이를 단기적인 공급 부족의 완화와 장기적인 자력갱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년은 5개년 전략의 세 번째 해로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정비보강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연중 정비보강 관련 목표의 달성을 내각 등 국가경제지도기관과 각 공업부문 담당자, 현장의 인력들에게 촉구해 왔으며 연말에는 설비투자 관련 완공 성과보도가 노동신문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노동신문에 언급된 산업 부문의 정비보강을 위한 건설부문 주요 성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기계공업을 포함한 기간공업 부문에서 대규모 건설 및 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간공업의 정상화를 위한 설비투자활동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속공업 부문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대형 산소분리기 건설, 저온 삼화철 생산공정 건설, 화학공업 부문의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 새로운 화학제품 생산기지(소금 생산기지 등) 건설, 각종 개건현대화 및 증설공사(탄산소다 생산공정, 요소합성공정, 신의주화학섬유 공장 등) 등이 있다.

김책제철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준공은 금속공업의 대표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추구해온 자력갱생의 상징과도 같은 성과이다. 북한의 보도에 의하면 기존의 낡은 제철공정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산소열법용광로와 2기의 대형 산소분리기를 설치하여 주체철의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기계공업



그림 2 김책제철의 새로운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준공식



자료: 노동신문 (2023.12.21.)

부문에서는 공장의 개건현대화 공사가 여러 공장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 의미 있는 동향으로는 금성트락도르공장의 1단계 개건현대화 완료(2022년), 남흥청년화학련 합기업소의 탄산소다생산공정 개건현대화 완료(2022년),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새로운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완공(2023년)이 있다. 기간공업 부문의 정비보강은 현재의 공급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력갱생 구조 확립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기간공업 외에도 지방공업 공장의 건설과 개건현대화에도 주력하였다. 2023년 9월 1

6일의 노동신문 보도에서는 지방공업 공장의 현대화(개건현대화, 새로운 생산공정 설치 등)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함경북도에서는 시, 군의 모든 식료공장의 개건과 빨래비누 생산공정의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함경남도에서는 백운산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공정들을 새로 설치하여 여러 종의 새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함흥기초식품공장에서는 여러 생산 설비를 개조하여 개선된 기초식품을 생산한 경험을 모든 시, 군에 일반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평안북도에서는 구성시식료공장을 본보기(‘모범사례’

표 2 주요 기간공업 공장의 설비투자 현황(공정 및 설비 설치)

부문	건설 공사
금속공업	-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완료(김책제철), 중주파유도로 설치공사 완료(황해제철), 수직식 산화배소구단광로 건설 완료(청진제강소), 은률광산 서해리분광산 개발 완료 등
화학공업	- 영양액비료공장 준공(순천화학련합기업소), 요소합성공정 증설 완료(남흥청년화학), 갈탄저온건류공정 확립(북부지구), 결정망초생산공정 준공(12월5일청년광산), 봉화데트론섬유생산공정 준공, 인견팔프생산공정 확립(청진화학섬유공장) -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개건현대화 건축공사(수십개 건물 건축공사) 진행중 - 제약 및 보건용품 공장 · 정주예방약공장: 생산공정 현대화 완료 및 조업개시 · 흥남제약공장: 의약품 2계열생산공장 현대화 완료 · 함흥수의예방약품공장 준공 · 신의주방역의료품공장 준공
전력공업	-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 진행중 - 세포군민발전소 준공, 평강군민발전소 준공
석탄공업	- 서창청년탄광 2단계 벨트콘베이어계통 새로 완성
기계공업	- 금성트락도르공장 2단계 개건현대화 공사 진행중(2022년에 1단계 공사 완료) - 남시축산기계공장 건설 완료

자료: 김수정 외(2024), 『2023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24년 전망』(발간예정)

에 대한 북한식 표현)로 하여 시, 군들에 일반 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장 군화학일용품공장 사례(낡은 비누생산공정을 모두 철거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다시 설치)의 일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소개되었다. 전국 각지역에서 신규 공장 건설, 개건현대화, 살림집 건설 등 건설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각 지방에서의 건재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

재생산을 위한 지방공업 공장 건설도 추진하였다. 노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2023년중에 천리마타일공장과 개천타일공장의 능력 확장공사가 추진되었고, 혜산타일공장은 새로 건설되었으며, 건설건재공업성의 주도로 석재가공기지건설도 진행중이다.

연도별로 완공된 공장의 목록은 공장 건설이 북한의 산업전략,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노동신문 보도

표 3 경공업과 건재공업 부문의 설비투자 및 공장 건설 현황

부문	건설 공사
경공업	- 준공: 남포시품질분석소, 봉화데트론섬유생산공장, 밀가공공장(사리원시, 해주시, 남포시, 신의주시), 북청군과일가공공장(완공 여부 미확인), 광천닭공장(2024년 완공) - 여러 곳의 교복공장 개건완료(혜산학생교복공장, 사리원학생교복공장, 평성학생교복공장), 봉화데트론섬유생산공장 준공
건재공업	- 천리마타일공장: 생산능력확장공사 추진(생산건물 신규 건설 및 새 공정 설치) - 혜산타일공장: 새로 건설 및 시운전 완료 - 개천타일공장: 능력확장공사 진행중 - 석재가공기지건설 진행중(건설건재공업성 주도)

자료: 김수정 외(2024), 『2023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24년 전망』(발간예정)



표 4 최근 북한의 신규건설 공장 동향

연도	완공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양강도보건산소공장, 함경남도보건산소공장</li> <li>- 경공업: 해주시학습장공장</li> <li>- 건재: 단천건재공장, 청진목재가공공장, 평성건재공장</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공업(음식료): 8월풀가공공장, 백두산샘물공장, 은정차음료공장, 평안북도기초식품공장</li> <li>- 경공업(일용품): 승호군광명일용품공장</li> <li>- 농축수산: 북청돼지공장, 은정돼지공장</li> <li>- 건재: 희천타일공장</li> <li>- 기타: 해주시오물처리공장</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평안남도보건산소공장, 평안북도보건산소공장, 함경북도보건산소공장, 황해북도보건산소공장, 희천입원침대공장</li> <li>- 경공업(음식료): 고산과일가공공장, 남포샘물공장, 정방산샘물공장, 좌양산샘물공장, 평성샘물공장, 평성김치공장, 강원도김치공장, 함흥김치공장, 해산김치공장, 사리원포도술공장</li> <li>- 농축수산: 태천자라공장</li> <li>- 비료: 순천린비료공장, 청진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li> <li>- 기타: 평양민족악기공장, 함흥시연재탄가공공장</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공업(음식료): 강계샘물공장, 구성청룡산샘물공장, 대성산샘물공장, 매봉산샘물공장, 평안북도샘물공장, 강계김치공장, 남포시김치공장, 송림김치공장, 평안북도김치공장, 청진김치가공공장, 삼지연들쭉음료공장</li> <li>- 경공업(일용품): 룡봉학용품공장</li> <li>- 비료: 식주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창성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li> <li>- 농축수산: 배천메기공장, 함흥메기공장, 운산메기공장</li> <li>- 건재: 평안남도기와생산지</li> <li>- 기타: 산림기재재공장</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공업(음식료)신의주김치공장</li> <li>- 건재: 미림색기와공장</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치과위생용품공장</li> <li>- 경공업(음식료): 금산포전갈가공공장, 류경김치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li> <li>- 경공업(의류): 강계가방공장, 라선가방공장, 사리원가방공장, 성천강가방공장, 평성가방공장, 해주가방공장, 해산가방공장</li> <li>- 비료: 강남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li> <li>- 농축수산: 금산포수산물사업소, 순천메기공장, 평안남도메기공장</li> <li>- 기타: 양덕군박제품공장, 평원군악기공장</li> </ul>

자료: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기업DB』(<http://nkindustry.kiet.re.kr>)

를 토대로 완공 공장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인데, 2019년 경부터 음식료품 생산공장의 완공 건수가 다른 부문의 공장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다. 물론 지방공업 공장의 건설, 경공업의 발전을 강조한 것은 김정은 집권 초기에서부터이다. 2012년 1월 22일의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며 인민들이 인정하는 질종

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지방공업 발전에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면적인 대북제재로 북한 중화학공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코로나19 국경봉쇄로 경공업의 여건마저 추가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경공업부문의 실제적인 개선,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기간공업의 회복과 함께 지방공업 가동 수준 향

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장기적인 산업 기반 구축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부터 음식료품 공장의 완공 보도가 집중된 것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된 경공업 전략의 결과로 보여진다.

경공업과 지방공업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공업 공장을 무분별하게 건설하기보다는 특정 모범사례(북한은 이를 ‘본보기 공장’)의 일반화, 확산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이다. 2022년부터의 지방공업 공장의 현대화 사업은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식료공장, 종이공장, 일용품공장, 옷공장)을 여러 지역에 확산하는 방식이다. 김화군에 건설된 네 곳의 지방공업 공장은 자동화 및 흐름선화, 환경보호형 및 절약형 생산공정 설치라는 특징을 가진 현대화된 공장<sup>2</sup>으로 동 공장의 생산공정 설계도면을 각 지역에 보급하여 지방공업 공장의 현대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김화군의 모델이 적용되어 건설된 지방공업 공장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많은 지방공업 공장들이 김화군의 사례를 적용 또는 참고하여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체계적인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3년에는 경공업과 지방공업에 대한 강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공업과 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 수 있게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사업체제와 방법을 모색하고 무조건 실행하여야 한다”<sup>3</sup>, “경공업 부문과 지방

공업 부문에서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데 모를 박고 경공업 제품들을 계획대로 생산하며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생산공정의 정비보강을 적극 추진” 하겠다<sup>4</sup>는 중앙 당국의 발표 내용이 보도되었다. 경공업을 중심으로 지방공업을 강화하겠다는 중앙 당국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물론 북한의 보도내용만으로는 지방공업과 경공업의 건설 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경공업, 지방공업에 대한 계획이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 III. 마치며

본고는 최근 북한의 산업부문 생산시설 건설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파악한 주요 특징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의 산업별성장률 추정치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건설업은 2019~2022년 모두 플러스 성장을 해왔는데 건설업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만큼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것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추정치, 여러 연구자들의 북한경제 분석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의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업 생산시설 건설과 설비설치 등의 설비투자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산업 전반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이 대규모의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지만 건설사업이 집중된 주요 공장에서는 다소 생산여건

2 김수정 외(2023), 『2022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23년 전망』, p.234

3 노동신문(2023.01.01.)

4 노동신문(2023.01.19.)

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당면한 산업생산 능력 확대 및 장기적인 자력갱생 구조 확립을 위해 전 산업부문에서 공장의 개건과 설비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사업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의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설비투자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 등 산업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산업가동에 필수적인 연료, 원료,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했던 북한이 외국으로부터의 도입없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산업생산을 수행하고 산업연관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장기화 국면속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아도 국내 인력과 기술, 원료 등을 이용하여 주어진 제약조건하 최대한의 생산을 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의 산업부문 생산시설과 관련한 다수의 동향들을 보면 북한 당국이 위와 같은 환경 인식하에서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건설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공업 공장을 중심으로 지방공업 공장의 현대화와 신규 건설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단행한 국경봉쇄로 인해 더 극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지방의 민심 이반을 막고 중앙으로부터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이 불가피한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일반화, 확산시키려는 것은 지방공업 전략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지방공업 건설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 경제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 15일에 개최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는 매년 20개 군에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과 같은 수준으로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와 군지역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sup>5</sup> 북한은 이를 '지방발전 20×10 정책'이라고 명명하였다. 앞으로의 지방공업 관련 건설사업은 이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 사업의 지역적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경제기반 건설을 위해 산업시설 건설 및 각종 설비투자 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건설 성과가 경제, 산업 전반에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건설 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재가 충분히 생산, 공급되어야 하며 건설 인력과 장비도 공급되어야 한다.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지방공업 공장의 가동에 필요한 생산 설비를, 농축수산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등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전력공업과 광업부문에서는 전기와 석탄 등을 충분히 생산, 공급해 주어야 한다. 즉,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공장의 가동을 위해서는 산업연관관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중앙의 역량과 주민의 소비여력, 수요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산업시설 건설활동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건설업과 건재공업만이 아니라 전후방으로 연계된 연관산업들에도 파급될 수 있다. 이렇게 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수정·이석기·권태진·김미숙·최지영(2023), 『2022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23년 전망』, 세종: 산업연구원.
- 김수정 외(2024), 『2023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24년 전망』(발간예정)
-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기업DB』(<http://nkindustry.kiet.re.kr>)
- 통계청 북한통계포털(<https://kosis.kr/bukhan>, 검색일: 2024.03.09.)
- 노동신문(2023.01.01.)(2023.01.19.)(2023.12.21.)(2024.01.16.)

# 평양 살림집건설 비교 평가

## -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을 중심으로

김혁(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 I. 들어가며

북한에서 건설은 체제의 정당성, 정책의 당위성, 권력자의 권위와 위상,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정치 사업이다. 특히 평양시의 위상은 북한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미래, 미래를 선도하는 선경도시로, 아무나 갈 수 없는 특별한 공간, 현존하는 동경의 대상이다. 평양시의 건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정치의 대표적인 정치 사업이며,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이 시작되어 지방으로 확산하는 건설정치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평양중심의 건설정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과 비교해 우월하고 독보적이며, 선도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한다. 특히 건설정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설대상이 살림집 건설이다. 살림집 건설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양주민들이 폐부로 느

낄 수 있는 애민정치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데 있으며, 지방주민들의 동경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살림집 건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다.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화되었다. 김정은 집권초기부터 ‘문명한 사회주의 건설’을 제시하고 평양시를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선경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에 집중해왔다. 김정은은 2013년 12월 8일 건설부문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 보낸 서한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인민의 낙원’ 건설에서 중요성과 평양을 ‘조선의 심장’으로, ‘문화의 중심지’로 ‘세계적 도시’로 개발하는데 있다고 밝힌바 있다.<sup>1</sup> 즉 평양은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강성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경도시, 북한의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평양시는 평양주민 뿐만 아니라

1 김정은(2013),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p.5.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주의 문명시대를 보여주는 선경도시인 동시에 북한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김정은 체제의 건설정치인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선대의 정채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대상인 창전거리를 짧은 기간 조기에 결속하고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특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과학자, 인텔리들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과학자, 기술자 살림집 건설을 시작으로 교육자, 언론인, 일반주민, 농장원으로 확대해나가는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창전거리를 2012년 완공한 이후 은하과학자거리(2013), 위성과학자주택지구(2014), 창전남새농장(2014), 미래과학자거리(2015), 려명거리(2017) 등 평양시 대규모 살림집 건설 성과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또한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 동안 평양에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을 주요 대상건설로 제시하고<sup>2</sup> 송신-송화지구(2021), 화성지구1단계(2022), 2단계(2023), 경루동(2023), 대평지구(2023)를 완공하고 서포지구와 화성지구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농촌살림집 건설과 함께 대표적인 대상건설로 대규모 국가적 투자와 지원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상건설과 달리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살림집 건설이 다수가 존재한다. 예컨대 평천구역 23층 고층살림집 건설은 붕괴사고로 인해 세간에 알려진 대표적인 일반살림집 건설사례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천구

역 안산1동 붕괴아파트는 2011년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2014년 4월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으며, 붕괴의 책임을 만회하기 위해 평양시가 건설역량을 총 동원해 같은 해 10월 기준 외장도색까지 마치는 등 사태수습에 빠르게 대처한 바 있다.<sup>3</sup>

그동안 아파트가 돈주, 건설주, 시당국, 평양시 산하 관계 기관, 공장, 기업소 등 협력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탈북민 다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공식매체를 통해 대상건설과 다른 일반아파트가 건설된 정황이 나타난 것은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사건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건설된 아파트들의 부실시공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고 평양시에 얼마나 건설되었는지 그 현황이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있다.

## II. 접근방법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동향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다수의 북한 도시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부동산 열풍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는데 있다. 특히 일반살림집 건설은 도시의 건설역량(시장자본, 지방건설 자본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북한의 중앙매체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접근의 한계가 분명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반살림집 건설동향과 특징,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고 전망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 동향과 규

2 노동신문,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01.09.

3 KBS ‘남북의창’, “평양 아파트 붕괴, 북 속도전 민심동요”, 2014.05.24.



모를 파악하기 위해 본 글에서는 위성영상을 시계열적으로 접근해 그 변화를 추적하고 수치화함으로써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 현황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평양시 주요 거리 및 살림집 건설 정책 방향과 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살림집 건설의 주체가 중앙차원에서 추진되는 건설 사업인지, 평양시 자체에서 주도하는 건설사업인지에 따라 일반건설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비계획적 형태의 파편화된 살림집 건설은 건설주체, 건설역량, 건설기간, 건설규모 등에서 주요 대상건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을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서 제도적 차이가 건설현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할 것이다. 북한이 2010년대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과학자, 교육자, 기술자 등을 위한 살림집 건설을 추진한데 이어 2020년대에는 5개년계획(2021~2025) 기간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을 주요 건설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일반건설과 대상건설을 구분하고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건설 특성에 따라 살림집의 형태, 특징, 규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구역에 따라 살림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평양시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동평양, 남평양, 서평양, 본평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개 구역(화성구역 포함), 2개 군(강남군, 강동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역의 특성은 지리적 위치, 정치적 위상, 산업적 규모 등에 따라 살림집 건설의 형태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양시 살림집 건설 동향을 통해 김정은 집권이후 일반건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일반건설은 5개년계획기간 추진되는 대상건설과 달리 평양시의 자체 건설역량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평양시의 아파트 건설 붐과 위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의 살림집 일반건설을 대상으로 하며, 시기는 2010년대로 한정하고자 한다. 북한의 살림집 일반건설은 2000년대 시장화의 확산으로 사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형성(생산, 유통, 공급, 무역)되면서 지방공장기업소의 비현실적 살림집건설계획을 실현시키는 투기자본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시장자본이 살림집 건설자본으로 유입되는 것이 가능해진 2010년대라는 점에 주목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노동신문』, 『평양시관리법』 등 북한에서 생산되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평양시 살림집 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료검토를 토대로 위성영상(Google Earth Pro)을 활용해 주요 건설대상과 일반건설에 대한 비교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문헌에서 파악이 어려운 일반살림집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영상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접근해 그 변화와 규모를 파악할 것이다.

### III. 평양시 살림집 건설제도와 특징

평양시 건설은 기본적으로 내각(평양건설위원회)이 주도하는 건설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방(평양시인민위원회) 건설로 구분할 수 있다. 내각차원에서 추진하는 건설은 국

가경제발전계획으로 채택된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을 의미하는 반면, 건설대상 이외 주요는 지자체 행정기구인 평양시인민위원회가 추진하게 된다. 특히 살림집 건설에서 경제발전 계획 대상이 아닌 살림집 건설은 주요에 따라 건축형태를 결정하고 관리감독하며,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평양시인민위원회에 있다.

평양시 건설계획 및 추진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 평양건설위원회, 국가건설감독성, 수도건설총국 등 내각의 관련 기관이 평양시 건설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국가경제계획으로의 채택, 대상건설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상건설은 상하수도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 아파트, 문화시설, 놀이공간, 교육시설을 비롯한 주거 및 생활문화 공간의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규모 위성도시 종합건설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제발전 계획에 반영되는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국가발전 5개년계획’에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농촌살림집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가계획과 별개로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수도행정기관인 평양시인민위원회가 주도하게 되는데 이때 건설은 평양시 산하 건설관리국, 건설지도국, 건설설계국, 건설관리국에 의해 설계, 감독, 자재보장, 관리가 진행되고 평양시 소속 건설기관, 공장기업소에서 건설자재, 건설인력 등을 동원해 살림집을 건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평양시인민위원회가 주도하고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양살림집 건설 구조는 평양시관

리법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평양시관리법 제7조는 평양시영역을 중심구역과 주변구역으로 나누고 중심지역은 만수대를 기준으로 하며, 주변지역은 중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지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경영, 교통, 농업생산시설과 농촌마을을 제외한 새로운 대상을 배치 및 건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10조). 살림집 건설과 관련하여 평양시관리법 제11조에는 인구밀집과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 서비스망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위성도시 건설을 내각과 국가계획기관이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sup>4</sup>

또한 평양시관리법 제14조에는 건설 총계획은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성도시 건설 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살림집 건설에는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살림집 수요에 맞게 건설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18조에는 중심지역에 건설할 중요대상의 건설명시서와 건설허가는 내각(평양건설위원회)의 승인이 그 밖의 건설대상의 건설명시서와 건설허가는 해당 건설감독기관(평양시인민위원회)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sup>

평양시관리법에 나타난 살림집 건설 내용을 종합하면 2008년 제시된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창전거리)에서부터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중시 정책에 따라 추진된 살림집건설, 경제발전 5개년계획 목표인 5만 세대 살림집 건설대상 모두 위성도시 건설로써 당이 제시한 결정을 내각의 건설허가에 따라 내각건설역량이 동원되어 추진된 것이다. 반면, 이러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

4 국가정보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북한법령집 上』 (서울: 국가정보원, 2022), p.184.

5 위의 책, p.187.



의 살림집 건설은 평양시 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평양시 소속 산하기관과 건설역량이 투입되어 추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평양시 살림집 5만 세대 건설을 5개년계획 기간 추진해야 할 주요 건설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평양시 인구의 과밀화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 평양시 건설이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설사업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과학기술, 교육, 언론계에 대한 특혜와 도심의 현대화를 통해 김정은 통치의 정당성과 이상향을 주요 건설 사업으로 보여주었다면 2020년대는 평양시 주민생활권 인구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위성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2010년 평양시의 인구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남쪽에 위치한 상원군, 승호구역, 중화군, 강남군을 황해남도로 편입시킨 바 있으며,<sup>6</sup> 2012년 강남군이 평양시로 재편입되기도 했다.<sup>7</sup> 북한의 평양시 인구축소 사업이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소개사업, 추방으로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2017년 현재 26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으며, 200만 명까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sup>8</sup> 결과적으로 북한의 계획과 달리 평양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2020년대 5개년 계획에 5만 세대 규모의 위성도시를 건설해 인구과밀화를 해결하는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추진되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일반살림집 건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국책사업으로 국가적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평양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일반살림집 건설과 규모나, 건설역량, 건설대상에서 분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즉 평양시 인민

위원회 결정권한에 따라 추진되는 살림집 건설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 현재 추진중인 대상건설을 함께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평양시 살림집 건설을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 IV. 살림집 건설 주요 특징비교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내각이 주도하는 건설과 지방이 추진하는 건설에 따라 건설역량, 건설규모, 건설범위, 건축형태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내각이 주도하는 건설은 살림집을 포함한 위성도시 건설로 이른바 ‘지구’건설이 핵심으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현대적으로 건설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도의 건설역량(설계, 기능공, 숙련공, 건설인력 등)을 보유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짧은 기간 안에 완공한다는 점이다. 반면, 평양시가 주도하는 일반건설은 살림집 건설에 한정되어 기존 인프라 위에 재건축하거나,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는 정도에 그치며, 소속 건설사업소, 공장기업소 노동자, 사무원을 비롯해 건설역량이 부족한 노동력을 동원하는 등 내각과 큰 차이가 있다.

표 1의 평양시 살림집 일반건설과 대상건설 비교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평양시 대상건설은 교육시설, 도로망, 하부시설, 살림집, 공원, 상점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면서 신규계획에 따른 대규모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반면, 일반건설은 살림집과 필수시설(양배수, 쓰레기장 등) 설치에 그치면서 대상건설과 분명한

<sup>6</sup> 동아일보, 2011.02.15.

<sup>7</sup> 연합뉴스, 2012.02.29.

<sup>8</sup> 자유아시아방송, 2017.08.15.

표 1 평양시 일반건설과 대상건설 규모의 차이

		
평천 아파트 재건축(22.5)	보통강 아파트 재건축(23.4)	송신-송화지구 신축(23.4)
일반건설(단독형)	일반건설(대규모 단지형)	대상건설 지구형
23층, 재건축, 0.1ha	저~초고층, 재건축, 12.4ha	중~초고층, 신축, 57ha
○ 일반건설 단독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 아파트 단지내 잉여부지</li> <li>- 신규인프라: 양수장, 오물처리장</li> <li>- 시설: 기존시설 이용</li> </ul>	○ 일반건설 단지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 아파트 부지, 기업소부지</li> <li>- 인프라: 양수장, 배수장, 오물처리장</li> <li>- 시설: 기존시설, 상점 미확인</li> </ul>	○ 대상건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 농지(외부), 나대지, 일부 기업소 부지, 재건(중심지)</li> <li>- 인프라: 도로망, 양배수망, 오물처리장 등</li> <li>- 시설: 교육, 공원, 상점 등</li> </ul>

출처: Google Earth Pro 캡처, 필자 작성 [검색일 : 2024. 06 10, 저자 검색]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상건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위성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인구밀도 분산)과 도심의 재건(현대화)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위성도시를 외곽의 농지(평양), 나대지를 이용해 대규모거리를 조성하고 도심의 경우 재건축부지로 소규모 거리를 조성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먼저 대상건설 지구형 사업을 살펴보자. 첫째, 국가발전 5개년계획의 대상건설인 송신-송화지구(2021년 3월 26일 착공, 2022년 4월 11일 준공)는 사동구역 송신동, 송화동 농경지 약 56ha와 단층집 30여동을 철거하고 건설된 위성도시로 전체 면적이 약 57ha에 달하고 80층 초고층 건물을 비롯해 160여동의 살림집, 공공건물이 조성되었다.<sup>9</sup> 전체 세대는 1만세대로 공공건물을 제외하면 총 106개 동의 살

림집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시설로는 주상복합형 백화점, 공원, 롤러스케이트장을 비롯한 쇼핑 및 문화시설, 유치원, 탁아소, 소학교, 인근 2개의 중학교 등 교육시설, 중앙로, 간선로, 지선, 원형육교 등 도로망, 송신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오수, 우수를 처리하는 오물집하장, 오수처리장, 우수라인 등 하부시설을 별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위성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성도시로 조성된 송신-송화지구는 위치상 남쪽으로 동쪽의 원산과 이어지는 1급도로, 사리원과 연결되는 2급도로 이어지는 평양시 남동쪽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에 따라 건설된 송신-송화지구는 기본적으로 평양시 도심 내 인구체증을 완화하고 원산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입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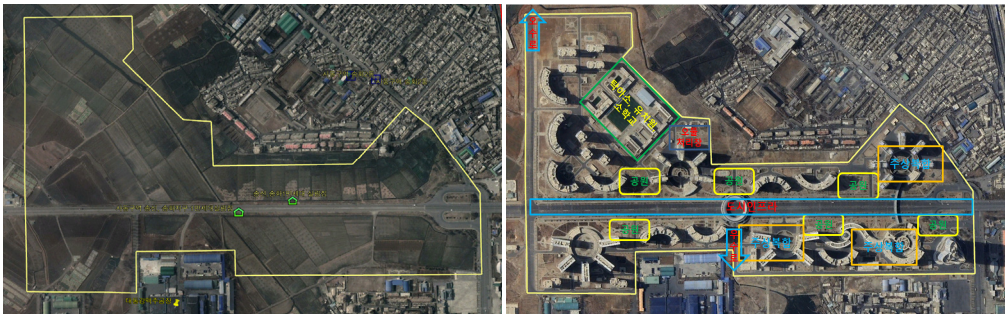
9 조선의 오늘, “조선통신사 상보,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숙원이 떠올린 인민의 리상거리: 송신, 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건설이 훌륭히 완공되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이 빛나게 결속되는데 대하여”, 2022.4.13.

역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송신-송화지구는 동평양 평야의 농경지에 대규모 거리를 조성하는 만큼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조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송화거리가 완공되면서 국가경제 발전 5개년계획 대상건설인 화성지구 건설(총 4단계)이 본격화되었으며, 2024년 현재

화성지구는 3단계가 건설중에 있다. 화성지구 1단계(2022년 02월 12일 착공, 2023년 4월 16일 준공)는 현 화성구역(전 룡성구역)<sup>10</sup> 화성동, 청화동지역 논 약 100ha, 평양남새온실 100여동 22.7ha를 철거하고 송화거리의 약 3배에 달하는 150ha의 부지에 40~60층 규모의 초고층 살림집 4개동을 비롯해 총 265개동의 살림집 1만 2,000세대

**그림 1** 송화거리 건설 전후 비교



송화거리 착공전 모습

송화거리 완공후 변화

출처: Google Earth Pro 캡처, 필자 작성(위성일자: 2020.3.21., 2024.3.17.) [검색일 : 2024. 06. 10, 저자 검색]

**그림 2** 화성지구 1~2단계 건설 전후 비교



화성1단계 건설 전후모습

화성2단계 건설 전후모습

출처: Google Earth Pro 캡처, 필자 작성(위성일자: 2020.3.21., 2024.3.17.) [검색일 : 2024. 06. 10, 저자 검색]

<sup>10</sup> “평양시 화성구역의 거리, 동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3.1.17.



규모와 중앙로, 복합쇼핑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위성도시가 건설되었다.

여기에 2023년 4월 화성지구 1단계건설이 완공되면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2단계건설(2023.2월 착공, 2024년 4월 16일 준공)과 서포지구 4,100세대 건설(2023년 2월 26일 착공, 2024년 5월 14일 완공)이 본격화되었다. 화성지구 2단계(전 통성구역) 농경지 43ha, 평양남새온실 70여 개동,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유리온실 일부를 철거하고 총 81ha 규모의 70여동의 중층형 아파트와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정화장과 배수로를 건설하는 등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위성도시 건설을 완료했다.

화성지구 2단계와 함께 2023년 2월에 추진해 2024년 5월 14일 완공된 형제산구역 서포지구는 4,100세대 살림집 건설을 목표로 총 개발부지 면적 50ha 규모로 주변의 나대지와 일부 건물을 철거해 추진되었다. 서포지구는 8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비롯해 약 58개동의 아파트와 공공시설, 기반시설이 조성되었으며, 형제산구역 서포1동 지구를 현 전위1동, 전위2동 개칭하는 등 서포지구 건설을 정치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밖에도 대상건설로 분류할 수 있는 평양시 보통강안 다락식주택(이하 경루동 다락식주택)은 2021년 3월 착공해 2022년 4월 13일 완공<sup>11</sup>되었으며, 김일성의 5호 저택을 철거하고 총 14.5ha의 부지에 800세대 규모의 다락식 주택들과 상업시설들을 갖춘 대표적인 고급주택으로 총 60개 동의 다락식주택과 아파트가 건설되어 언론계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21년 평양시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만경대구역 대평지구 살림집 건설

은 2022년에 들어서 건설역량이 집중되면서 2023년 5월 21일 완공되었다.<sup>12</sup> 특히 기존 110세대 저층(3층)형 아파트 14개동을 철거하고 주변 농경지를 포함해 부지규모를 2.5배 이상 늘렸으며, 약 15.5ha(복족 공장 포함 21ha)에 1,400세대 살림집을 건설했다. 최근에는 약 92ha 규모의 화성지구 3단계 건설이 진행되는 등 주요 대상건설에 중앙의 건설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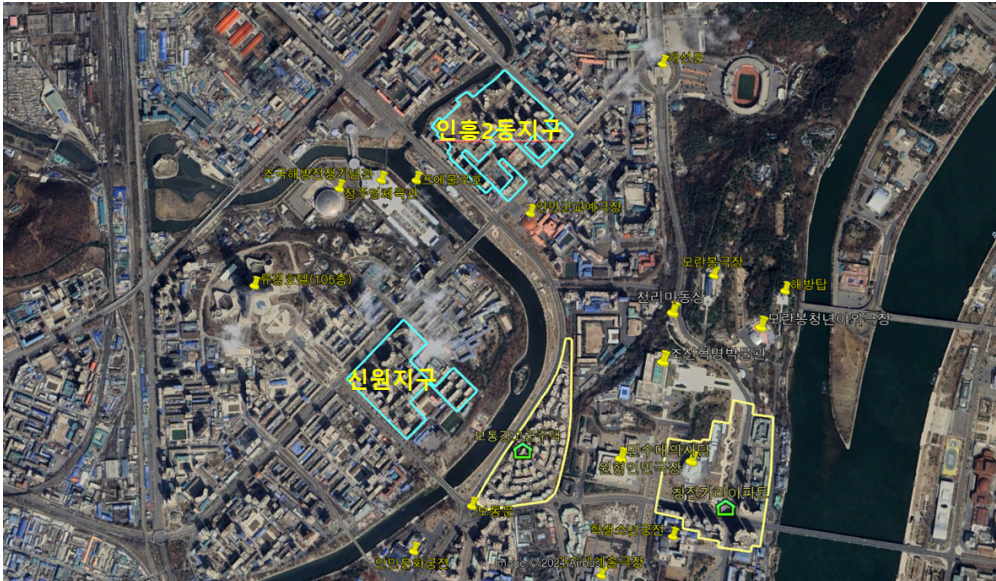
평양에서 대상건설은 기본적으로 중심지역의 인구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위성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과는 달리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에 의해 추진되는 살림집 건설은 지리적 위치상 동평양 관문인 사동구역 송화지구, 평양의 북쪽 관문인 서포지구와 화성지구에 위성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즉 평양의 교통과 물류를 요충지인 동시에 건설이 용이하고 분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평야에 위성도시를 건설함으로써 평양 중심지역의 인구체증 및 인구유입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에서 평양시의 건설역량으로 추진 중인 보통강구역 신원동재개발단지, 모란봉구역 인흥2동 재개발단지의 건설규모는 지난 2022년 4월 준공된 경루동 다락식주택지구와 유사한 규모로 평양시가 추진하는 살림집 건설중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중구역 경루동 다락식주택지구와 보통강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신원동재개발단지는 기존 12.4ha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허물고 살림집 단지의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모란봉구역 인흥2동재개발단지는 기존 16ha의 아파트 주거

<sup>11</sup> 뉴스1, 2022.04.04.

<sup>12</sup> KBS뉴스, 2024.05.25.

그림 3 신원동, 인흥2동 재개발단지 위치



출처: Google Earth Pro 캡처, 필자 작성(위성사진일자: 2024.3.17.) [검색일 : 2024. 06. 10, 저자 검색]

단지와 기업소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대규모 단지를 건설 중에 있다.<sup>13</sup>

신원동재개발단지와 인흥2동재개발단지 건설사업은 재건사업과 더불어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원동과 인흥동은 본평양의 중심지인 동시에 평양도로망의 중심지역으로 류경호텔 조국해방전쟁기념관, 정주영체육관, 봉화거리와 마주하고 동쪽으로는 인민교예극장, 경주동 다락식주택, 남쪽은 보통문, 인민문화궁전과 접해있는 문화관광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신원동과 인흥2동재개발은 오래된 살림집과 사업소들을 철거하고 살림집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것 외에도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대단지 건설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원동재개발단지, 인흥2동재개발단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임에도 북한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5개

년계획(2021-2025)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북한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위성영상을 통해 확인된 것과 같이 두 개발단지 모두 주거시설 외 교육, 공원, 주상복합형 상업시설, 인프라 건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평양시가 주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임에도 주거공간에 한정되고 대부분 문화생활시설은 기존시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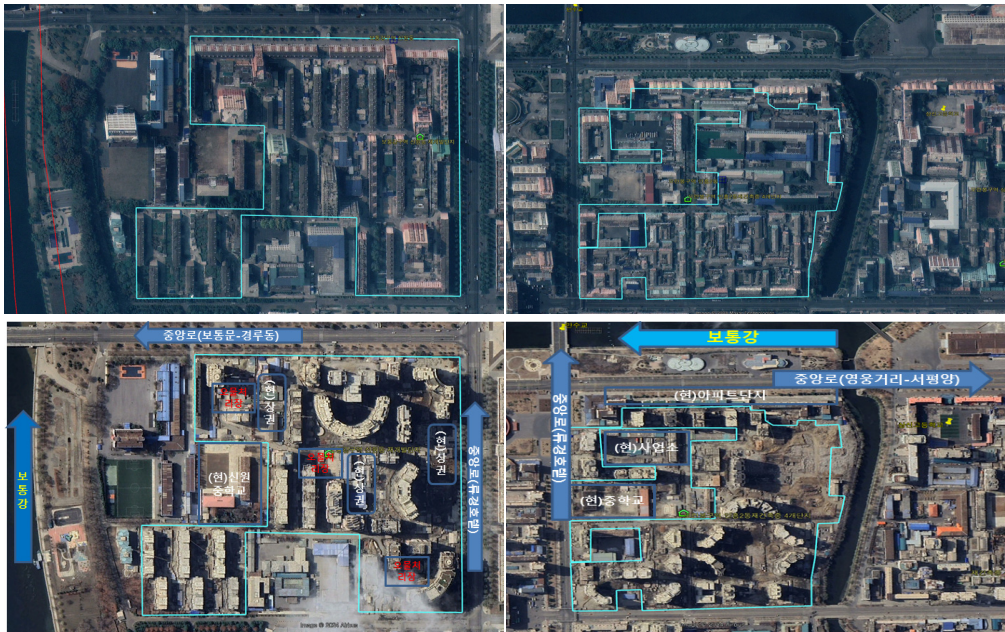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의 재건축단지 차이는 도시계획과 건설에서 나타난다. 주요거리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살림집, 문화생활시설, 교육시설, 도로망, 하부시설 등이 갖춰지는 대상건설과 달리 평양시의 신원동과 인흥2동재개발단지는 필수적인 양수장이나, 쓰레기장을 제외하면 학교나, 상업시설은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건설의 건설기간도 대상건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신원동재개발단지는 3년이 넘

13 자유아시아방송, 2023.09.26.



그림 4 건설중인 신원동 재개발단지와 인흥2동 재개발단지



보통강구역 신원동 재개발 전후

모란봉구역 인흥2동 재개발전후

출처: Google Earth Pro 캡처, 필자 작성(위성사진일자: 2017.10.27., 2024.3.17.) [검색일 : 2024. 06. 10, 저자 검색]

는 기간(2020년~현재) 단 2개동을 완공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인흥2동재개발단지는 4년이 넘는 기간(2019년~현재) 완공된 단지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평균 1~1.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상건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살림집 건설만 놓고 볼 때 규모나, 형태는 대상건설에 크게 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한된 건설역량으로 평양시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건설기간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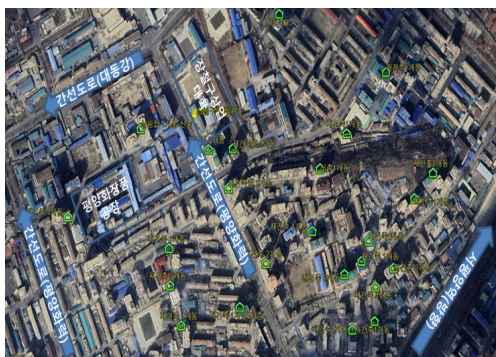
세 번째는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은 상당 부분은 단독형 살림집 건설이 차지한다. 단독형으로 건설되는 살림집은 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잉여 부지를 활용하거나, 단지와 접해있는 일부 사업소 부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살림집 건설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러한 형태의 단독형 아파트는 단지건설과 달리 무질서 하게 조성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일반건설에서 대단지 건설을 제외하면 먼저 도로변에 조성하는 경우 도로변의 경관에 맞게 건축양식을 현대적으로 조성하거나 질서정연하게 조성되는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잉여 부지를 활용한 건설은 단순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건설되는 특징이 있다. 그림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반살림집 조성 모습은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를 따라 구획화된 주거지역 내에 기존과는 달리 아파트가 분절적으로 건설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살림집 건축양식도 대단지와 달리 단순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반건설에서 구역의 위상에 따라 살림집 건설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그림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구역은 간선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현대적인 양식의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그림 5 평천구역 일대 일반살림집 조성모습과 형태



평천구역 봉지동, 북성동 일대



중구역 역전동, 외성동 일대

출처: Google Earth Pro 캡처, 필자 작성(위성사진일자: 2024.3.17., 2023.4.16.) [검색일 : 2024. 06. 10, 저자 검색]

이유는 산업집중지역인 평천구역과 달리 중구역은 북한의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으로 살림집 건설허가가 도시경관에 맞게 엄격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살림집 건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단독형 살림집 건설은 평양시의 인구체증과 높은 살림집 수요에 대한 공급 부담, 공장기업소의 자체적인 살림집 건설계획에 대한 부담이 건설주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면서 비계획적인 단독형태의 살림집 건설이 다수 진행된 것이다. 즉 평양시는 인구체증 완화를 위해 정치적 부담이 적은 지역의 건설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공장기업소는 매년 살림집 건설계획을 채워야 하지만 살림집을 재건할 수 있는 재원이 없고, 살림집 건설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건설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건설주와 돈주는 재원과 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형 살림집 건설이 확대될 수 있었다.

## V. 일반건설 변화와 평가

평양시가 주도하는 일반건설을 4년 단위로 나누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

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착공동수, 완공동수, 초고층 착공 등 건설규모의 변화, 두 번째는 건설기간의 변화이다.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상건설의 확대에 따라 악영향을 받고, 착공에서 완공까지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며, 시기가 지날수록 평균건설기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평양시 일반건설에서 2000년 이후 착공해 2023년 현재까지 완공된 동수를 파악한 것으로 시기별 평균건설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북한의 정책적 변화와 대내외관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초고층(21층 이상) 비율의 변화는 대규모 전자재의 확보, 건설장비 동원, 기술자와 기능공 확보 등, 건설인력의 충원이 가능해야 하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착공한 건설수는 93건에 불과했으나 실제 평균 건설기간은 10년 8개월이 소요되고 완공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착공해 2023년 현재 완공한 동수는 445건이지만, 건설기간의 2년 4개월 단축에도 불구하고 2차시기 완공된 살림집은 확인되지 않았다. 1차시기와 2차시기에서 주목되는 부분



표 2 평양시 일반건설 평균 건설기간 변화(2000년 착공후 2023년 기준 완공동수)

구분		'00~'06	'07~'10	'11~'14	'15~'18	'19~'23	합계
시기구분(기)		1	2	3	4	5	
평균건설기간(년)		10.8	8.38	5.18	4.07	2.86	6.25
착공동수		93	445	239	103	37	917
완공동수		0	0	103	365	449	917
초고층	동수	0	23	93	51	8	175
	착공비율(%)	0	5.2	38.6	49.5	21.6	19.0%

출처: Google Earth Pro 활용, 필자 작성

은 모두 김정일 집권기에 착공된 살림집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완공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 집권기 평양시 자체의 자본과 역량에 의해서만 건설을 추진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완공수가 103건으로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해 2차주기에는 평균 건설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있다. 3차주기(2011~2014) 기간 총 103개 동의 완공모습이 확인되었으며, 평균 건설기간도 5.18년으로 착공 1차 대비 5년 6개월, 2차 대비 3년 2개월이 단축되고 초고층 비율도 착공수의 38.6%에 달해 2차시기 대비 7.4배 증가했다. 특히 2차부터는 김정은 정권의 시장화 확대, 기관기업소의 자율경영 조치, 부동산(합영, 합작 등) 제도 마련 등 살림집 건설에 시장자본의 유입을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4차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북한에서 부동산 붐은 2013년을 전후로 확산되는데 완공동수는 착공수 103개동 대비 365개동으로 이중 초고층 살림집 비율은 크게 증가해 49.5%에 달했으며, 2차 대비 9.5배, 3차 대비 1.28배 증가했다. 특히 4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착공수는 줄어들었지만 착공후 완공까지 평균 4년으로 단축되어 건설기간이 짧아졌으며, 같은 기간 완공수는 365개동으로 크게 증가해 평

양시 부동산 열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부동산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의 강화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대북제재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2018년 무역의 위축, 대북투자 전면중단 등으로 시장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5차인 2019년부터 착공수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초고층 건설 비율도 4차 대비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물론 완공동수는 기존에 건설이 진행되던 아파트들이 완공되면서 높은 449개동이 확인되었고 건설기간도 2년 8개월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투자자본 확보의 어려움, 코로나19에 따른 무역의 전면적 중단과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인력동원의 어려움,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인 5만세대살림집 건설 본격화로 평양시 자체의 건설동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위성도시 건설을 통해 인구과밀화를 분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평양시의 일반 건설은 과밀화된 기존 아파트 수용의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부족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살림집 건설정책은 도시 인구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부족한 평양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평양시가 주도하는 일반건설의 특성상 대규모의 건설자재, 기술자와 기능공, 건설인력 등 동원할 수 있는 가용한 건설역량이 부족해 대단지 건설이 어렵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건설역량이 흡수되면서 평양시 건설역량이 크게 위축되어 평양시 차원의 대단지 건설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높아지는 평양주민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비계획적인 아파트 개발하거나, 건설과정에서의 자재의 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한 질적인 문제 등 임시방편적인 대응조치에 따른 문제가 향후 불어질 가능성, 나아가 난개발로 인한 재개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20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북한법령집 上』, p.184,187.
- 김정은(2013),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건설부 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p.5.
- 노동신문(2021.01.09.일자),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 노동신문(2023.01.17.일자), “평양시 화성구역의 거리, 동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 뉴스1(2022.04.14.일자), ‘北 보통강안 다락식주택구 준공..’김정은, 건설 전과정 지휘“
- 동아일보(2011.02.15.일자), “北, 수도 평양 변적 절반 줄였다”
- 연합뉴스(2012.02.29.일자), “北, 평양 인구 200만 명으로 감축 작업 진행”
- 자유아시아방송(2017. 08. 15일자), “북한, 평양 인구 60만명 줄인다… 김정은 불안심리 드러난 것”
- 자유아시아방송(2023. 09. 26일자), “평양 도시 재개발 속 시장 사라져 주민 불편”
- 조선의 오늘(2022.04.13.일자), “조선통신사 상보,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숙원이 떠올린 인민의 리상거리: 송신, 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건설이 훌륭히 완공되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수도 건설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이 빛나게 결속되는데 대하여”
- KBS 남북의창(2014.05.24.일자), “평양 아파트 붕괴, 북 속도전 민심동요”
- KBS뉴스(2023.05. 22일자), ‘북, 평양에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 “2025년까지 5만호 공급”



---

## PART 2

# 건설·개발 주요동향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s



### 1.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과 및 2024년 국가 예산

2023년 예산집행은 농업부문을 비롯한 12개 중요고지 점령에 집중, 2024년 예산계획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교육, 보건, 체육 등 사회주의문화부문 투자도 전년 대비 크게 늘림

#### 1.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산보고 진행<sup>1</sup>

- 2024년 1월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4년 국가예산을 보고함

#### 2.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의 주요 내용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당면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
  - 농업부문을 비롯한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해 국가예산의 많은 몫을 할당함
- 국가예산 수입은 100.5%로 집행되었고, 전년(2022년)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99.8%로 집행되었고, 전년 대비 100.8% 지출
  - \* 중앙예산수입 계획은 100.6%,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0.3%로 집행
- 국가예산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투자에 전년 대비 100.1% 지출
  - \* 기본투자사업: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서포지구 전원거리건설, 강동온실농장건설, 강동세멘트공장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들

<sup>1</sup> 노동신문, 2024.01.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 기간공업부문(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 등)의 정비보강과 생산능력 확장에 예산 지출 총액의 24.4% 보장
-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100.9%로 늘림
- 농업부문은 지난해의 115%를 보장, 관개건설 목표 기본적 달성, 농촌건설이 힘있게 추진됨
- 방역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였는데, 지난해에 비하여 113.2%의 자금을 보장
- 사회문화부문에 지출총액의 36.8%를 돌려 육아정책, 교육, 보건, 체육, 문화부문에서 진일보
- 2023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함
  - 일부 기관, 기업소들이 국가기업이익금(국영기업이윤에 대한 세금)계획을 잘 수행하지 못함<sup>2</sup>

### 3. 2024년 국가예산 계획의 주요 내용

- 2024년 국가예산 편성 방향
  - 군사적 잠재력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투자 집중으로 지속적 발전 추동
  - 인민생활에서 실제적 변화를 꾀하고, 과학, 교육, 보건,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편성
- 국가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2.7% 인상
  - 거래수입금은 지난해보다 0.5% 증가, 국가기업이익금은 지난해보다 3.2% 증가
    - \* 이 두 항목은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으로 수입총액의 84% 차지, 지난해에는 83.7% 차지
  - 이외의 예산수입항목들은 지난해보다 0.1~2%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함
    - \*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3.7% 차지
- 국가예산지출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수준에서 계획
  - 사회주의경제 건설 투자를 지난해의 102.4%로 장성시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돌림
    - \* 국가예산지출 총액에서 사회주의경제 건설 투자는 44.5%. 국방비는 15.9%를 계획
  - 기본투자 지출을 지난해보다 0.5% 증가시킴
    - \* 올해 기본투자 사업: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농촌살림집건설, 평양시 생활용수능력확장공사 등
  - 인민경제사업비를 지난해보다 0.4% 늘려 전력, 석탄, 금속,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경제부문들에서 상호균형 보장과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 보장
  -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지난해보다 9.5% 늘리고, 올해부터 국가예산지출의 독자 항목으로 둬

표 1 연도별 주요부문별 예산 수입계획의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수입 전체	8.7	4.1	4.3	3.7	4.1	3.1	3.2	3.7	4.2	0.9	0.8	1.0	2.7
국가기업이익금*	10.7	6	7.9	4.3	4.5	3.5	3.6	4.3	1.2	1.1	0.9	1.2	3.2
협동단체이익금	5.3	5.3	4.8	3.2	1.5	1.6	0.9	1.1	0.4	0.4	0.4	0	0.2
고정재산감가상각금	2.3	2.8	-	-	-	-	-	-	-	0.1	0	0.7	1.5
부동산사용료	1.7	3.4	9.5	0.7	4	2	1.8	0.3	0.1	0	0.3	0	2
사회보험료	1.7	-	5.1	2.8	1.1	1.2	1.2	0.2	0	0.3	0.2	1.0	2
거래수입금	7.5	3.5	4.5	2.6	3.3	2.4	2.5	4.1	-	0.8	0.6	0.3	0.5
재산판매및가격 편차수입	-	-	-	1.4	2.5	-	0.5	-	0.3	0.1	0	0.1	0.3
집금 수입	-	-	-	-	-	-	-	-	-	-	580.0	0.2	0.4
기타 수입	-	-	-	0.8	1.3	1.2	0.8	0.5	0.2	0.6	0.2	0	0.1
특수경제지대수입	-	-	-	3.6	4.1	1.2	2.5	1.6	-	0.2	0	0.3	0.6

주: 2012~2014년은 김석진(2015), p.8에서 재인용, 2015~2024년은 노동신문 각 연도 국가예산 발표 기사에서 구성

\* 2021년까지는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으로 명명, 2022년부터는 국가기업리득금, 협동단체리득금으로 변경함

표 2 연도별 주요부문별 예산 지출계획의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지출 전체	10.1	5.9	6.5	5.5	5.6	5.4	5.1	5.3	6.0	1.1	1.1	1.7	3.4
인민경제발전	-	-	-	-	-	-	4.9	5.4	6.2	0.6	2.0	1.0	0.4
-공업(선행부문)			5.2	5.1	4.8	4.5							
-농업	9.4~ 12.1	5.1~ 7.2	5.1	4.2	4.3	4.4	5.5	5.7	7.2	0.9	-	14.7	0.1
-수산업				6.8	6.9	6.8							
-(과학기술)*	10.9	6.7	3.6	5.0	5.2	8.5	7.3	8.7	9.5	1.6	0.7	0.7	
-산림	-	-	-	9.6	7.5	7.2	4.9	6.6	-	-	-		
-기본건설	12.2	5.8	4.3	8.7	13.7	2.6			-	-	-	0.3	0.5
과학기술*													9.5
사회주의 문화											0.4		
-교육	9.2	6.8	5.6	6.3	8.1	9.1	5.9	5.5	5.1	3.5	2.6	0.7	6
-보건	8.9	5.4	2.2	4.1	3.8	13.3	6	5.8	7.4	2.5	0.7	0.4	5.5
비상방역 사업											33.3	0	0
-사회보장	7.0	3.7	1.4	-	-	-	-	-	5.8	-	-	-	
-체육	6.9	6.1	17.1	6.9	4.1	6.3	5.1	4.5	4.3	1.6	0.8	0.1	5
-문화	6.8	2.2	1.3	6.2	7.4	4.6	3	4.1	-	2.7	0.3	0.3	5

자료: 김석진(201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및 노동신문 각 연도 국가예산 발표 기사에서 구성

\*: 2024년부터 인민경제발전 항목에서 분리된 것을 반영함



#### 4. 시사점

- 코로나이후 1% 내외 증가율로 유지되던 국가예산증가율이 2024년에는 2~3% 수준으로 계획
  - 김정은 집권이후 2020년까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보임
- 기본투자를 지난해보다 0.5% 늘리고 있어, 평양살림집, 농촌살림집, 기타 중요대상 건설에 매진하여,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2022년의 2배를 공급했던 2023년 농촌살림집 공급규모를 2024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높은 지출증가율을 배분했던 농업에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0.1% 늘려 배분하고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촌건설, 농업생산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건설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임
- 높은 지출증가율을 배분한 과학기술부문, 사회주의문화부문도 관련시설의 조성사업 활성화 예상
  - 코로나 시기 저조했던 문화휴양시설 등의 건설활동이 회복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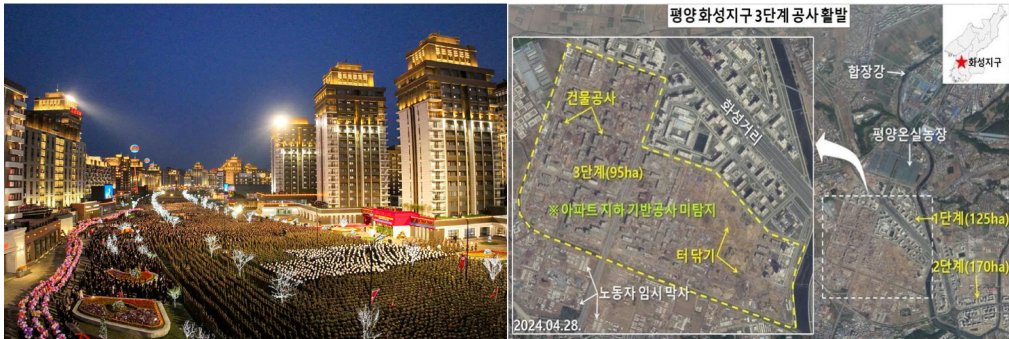
## II. 2024년 1,2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sup>3)</sup>

노동신문 기사(2024.06.10.) ‘종합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분기 농촌살림집 건설 실적은 18,000여 세대, 2021년 이후 건설 총물량은 ‘건설 중’ 포함 113,700여 세대, ‘준공’ 44천 세대. 신문의 사업 기사 자료를 ‘종합자료’를 기준으로 보정하여 추정하면, 농촌살림집 사업은 전년 같은 기간(1,2분기) 대비 1.3배 수준으로 증가. 이외 평양시 대규모 살림집 사업 14,100세대, 검덕지구 매년 5,000세대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1. 평양시, 화성지구 2단계(림흥거리)와 서포지구(전위거리) 사업 준공

- 평양시에 5년간(‘21~’25년) 5만 세대, 매년 1만 세대 살림집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4년째로,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을 준공(2024.04.16)하고, 3단계 사업 진행 중

그림 1 화성지구 2단계 전경과 3단계 공사장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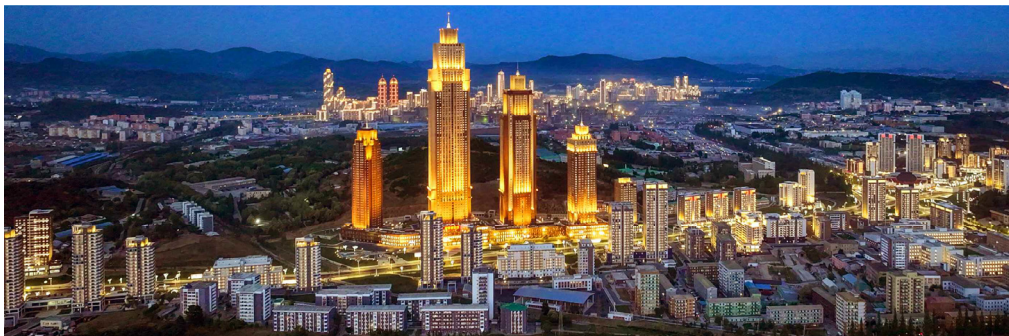


출처: (좌) 노동신문(2024.04.17.: 2면)

(우) DAILY NK(2024.05.10.), “[위성+] 화성지구 3단계 건설 기초 공사 한창…야간에도 작업”.

- 5만 세대 사업 이외에 서포지구 새거리(전위거리) 건설사업(4,100세대) 준공(2024.05.14.)

그림 2 전위거리 전경



출처: 노동신문(2024.05.15.: 2면)

3 2023년 3/4분기 「북한 건설개발 동향」(토지주택연구원)의 “3/4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4/4분기 사업 실적과 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표 3 2021년 이후 평양 새거리 건설사업 현황(2024년 6월 기준)

구분	사업명 /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대 수	비고(입사대상 등)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사업	송화거리/평양 남측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	2021.3.23. 착공 2022.4.12. 준공	5만 세대 첫 사업, 80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만 세대	1만	철거지역 주민, 공장 종업원, 무의무탁자 순
	화성지구 1단계/ 금수산태양궁전과 백화원초대소 인근	2023.4.16. 준공	5만 세대 두 번째 사업	1만	국방과학원 연구사들, 평양시 각 부문과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들
	화성지구 2단계 (림흥거리)	2023.2.15. 착공 2024.4.16. 준공	5만 세대 세 번째 사업	1만	일반 노동자, 영예군인, 전쟁로병, 제대군관 등
	화성지구 3단계	2024.2.23. 착공	5만 세대 네 번째 사업	1만	“40여 일만에 골조공사 결속”(2024.4.10.)
별도 사업	경루동지구/ 본평양 지역의 보통강변	2022.4.14.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12만㎡ 부지에 800세대 건설	800	모범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인재 등 근로자들
	서포지구(전위거리)/ 평양의 북쪽 관문지역	2023.2.25. 착공 2024.5.14.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4,100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육자 가정과 다자녀 세대 등
	대평지구	2021.9월 시작 2023.5.21.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다층, 고층 살림집, 학교, 진료소 등	1,400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들

## 2.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2단계 건설사업 진행 중

- 검덕지구 2단계 사업: 5개년 계획기간(‘21~’25년) 동안 2만 5천 세대의 살림집 건설
- 처음 2년 동안 1만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 이후, 2023년에도 다층 및 소층 살림집 수천 세대를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노동신문, 2023.08.25)
- 2024년 초, 단천시 대흥 1동과 무학동에 1천여 세대 소층, 다층 살림집을 완공하고(노동신문, 2024.1.20.), 룡천동에도 선경마음이 일어섰다고 보도(노동신문, 2024.1.23.)

그림 3 검덕지구 전경



출처: 노동신문(2024.04.07.: 2면)

### 3. 2024년 1,2분기 농촌살림집 건설사업 현황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12.27~31) 이후 본격 추진한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은 평양시를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시군의 농촌마을에서 추진
- 노동신문 기사<sup>4</sup>에서 그간 농촌살림집 사업 실적 ‘종합자료’를 제시

- 현재까지 농촌살림집이 완공된 농장 수는 수백 개이며, 세대 수는 4만 4천여 세대
- 2024년 상반기 기간에 60여 개 농장에서 18,000여 세대 완공
- 지금까지 완공, 마감단계, 진행 중인 모든 농촌살림집은 113,700여 세대

-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추정한 총 농촌살림집 완공 세대수, 2024년 1,2분기 실적 추정치와 ‘종합자료’를 비교해 보면, ‘종합자료’가 추정치의 ‘0.843배’임
  - ‘종합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가정할 때, 신문 기사 기준 추정치가 과다 추정된 것으로, “수천 세대, 수백 세대, 백 수십 세대를 각각 4,000세대, 400세대, 140세대로”로 가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임
  - 이외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군 지역의 농촌살림집은 건당 230세대, 시 지역은 건당 150세대로 기존에 알려진 지역별 농촌살림집 평균 세대수를 적용한 것도 과다 추정의 이유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오차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됨
- 여기서는 ‘종합자료’에서 제시한 1,2분기 완공 농촌살림집 18,000세대를 기준으로 기존 신문 기사로 추정한 자료에 ‘0.843’을 곱하고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100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실적치를 추정하였음

표 4 2024년 1,2분기 살림집 준공 실적 추정(종합자료로 보정)

(단위: 세대)

구분	합계	1/4분기	2/4분기
합계	49,100	11,100	38,000
평양시 살림집 사업	28,200	8,200	20,000
검덕지구 살림집	2,500	2,500	-
농촌살림집	18,000	400	17,600
기타	400	-	400

\*‘기타’는 체육관 숙소 등 물량으로, 기사에는 규모가 나타나지 않아 건당 200호로 추정하였음

\* 평양시 살림집 사업과 기사 실적은 기사의 세대수를 각각 2배한 값임.

북한의 살림집 건설은 ‘대상건설’과 ‘일반건설’로 구분, 신문에 실리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건설에 국한됨<sup>5</sup>. ‘대상건설’은 북한 중앙당국이 계획, 실행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살림집 거리조성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건설’은 평양시 인민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노동신문 등에 기사로 실리는 경우가 거의 없음.

대상건설과 일반건설 물량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양시 살림집 총 건설물량은 대상건설 물량 14,100호의 2배 가량으로 추정됨. 김혁(2023)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 살림집 건설 실적은 대상건설이 656동, 일반건설이 917동으로 일반건설 동이 대상건설 동의 1.4배 수준인데, 대상건설이 초고층과 고층 위주인 것에 비해 일반건설은 대부분 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서는 세대 수 기준으로 대상건설과 일반건설 물량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였음

4 노동신문(2024.06.10.), “날마다 전해지는 새집들이 소식으로 온 나라가 흥성인다”.

5 김혁(2023), “천리마와 만리마의 공존: 평양 살림집 건설”, 2023 북한도시포럼: 평양의 도시레짐, KINU, pp.15-56.

#### 4. 전국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1,2분기) 대비 1.3배 수준의 실적을 보임

- 평양시 살림집 사업은 ‘대상건설’ 사업인 평양시 5만 세대(매년 1만 세대) 건설사업과 전위거리 사업 물량을 더한 14,100세대의 두배 가량으로 추정되며, 검덕지구 매년 5,000세대 건설사업의 절반인 2,500세대가 전년 목표를 올해 1,2분기로 넘겨 완공한 것으로 보임
- 농촌살림집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배 정도의 실적으로 추정되며, 2024년 1,2분기 실적인 18,000세대는 2023년 목표의 일정 부분이 해를 넘겨 완공된 것임
- 농촌살림집 사업의 2022년 실적 추정 규모 8,000세대가 2023년 24,100세대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4년 1,2분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배로 성장
- ‘종합자료’에 근거해 볼 때, 농촌살림집 69,700세대가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2024년 연말까지 농촌살림집 사업의 총 실적은 2023년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 5 2023년, 2024년 1,2분기 살림집 준공 실적 추정치 비교

(단위: 세대)

구분	2023년 1,2분기(A)	2024년 1,2분기(B)	B/A
합계	37,000	49,100	1.3
평양시 살림집 사업	22,800	28,200	1.2
검덕지구 살림집	-	2,500	-
농촌살림집	14,200	18,000	1.3
기타	-	400	-

061

#### 5. 시사점

- 살림집 건설의 ‘물량 증가’와 함께 ‘사업 범위 확대’, ‘제도 정비’ 추진
  - (물량 증가) 매년 1만 세대 건설은 려명거리(4,800세대)의 두 배 이상 규모
  - (공간 확장) 평양 중심에서 외곽으로, 평양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 (대상 확대) 핵심 공로자와 과학자에서 일반 근로자, 철거민, 농민 등으로
  - (제도 정비) ‘살림집관리법’ 채택으로, 관리체계, 배정원칙, 공동주택 관리 강화 등
- 살림집 사업은 ‘목표’가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고, 필요한 ‘자원’(시멘트, 노동력 등)이 자체 조달가능하여, 당분간 지속 성장 또는 최소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살림집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 하에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과제”의 위상을 가짐
  - 2023년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조선중앙통신, 2023.12.31)에서 “시멘트 생산량이 2020년에 비해 1.4배로 장성하였다”고 함
- 다만,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건설의 두 전선’ 중 ‘산업건설’보다 ‘살림집 건설’ 부문에 성과가 더 두드러지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아직은 불확실함



### Ⅲ. 건재 생산 기반 현황과 기술개발 동향

살림집을 포함하여 지방·농촌건설에 필요한 각종 건재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지역별로 마감 건재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해왔으며, 해당 현황을 건재 공장과 기술개발 관점에서 파악하였음

#### 1. 건재 생산 관련 동향

-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면서 건설자재 부문의 생산 확대를 요구하였음
  - 이를 위한 기본과제로 시멘트 공급량을 연간 800만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존 시멘트 공장을 현대식으로 개조하고 원료, 에너지, 수송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선진 기술이 도입된 시멘트 공장 신설을 요구함
  - 또한 마감 건재의 자급자족 실현을 위해 자체 원료를 사용하는 염료와 외장재 생산기지 구축과 지붕재 생산기술 발전도 제시함
  - 여기에는 탄소 제로 건물, 에너지 제로 건물 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건설자재 생산 준비와 각 도에서 지방의 원료에 기초한 건재생산기지 건설이 포함됨
- 전국 각지에서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지방발전정책 실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체의 건재생산토대 강화에 있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
- 2024년 1,2분기에 보도된 건재 관련 일반 동향은 다음과 같음(부록 참조)
  - 지난 시기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지역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질 좋은 건재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질을 높이고자 함
  -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건재생산기지들에 대한 정비보강을 추진함
  - 도, 시, 군들은 건재생산단위의 기술자, 기능공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건재생산단위들사이의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함

그림 4 건재 생산 관련 기사 내용



평양수지건재공장 모습



전시된 마감건재 원료

출처: (좌) 뉴스1, 2024년 5월 27일자, “건설 사업에 주력하는 북한…“수지관 생산 박차””

(우) 뉴스1, 2024년 6월 5일자, “북한, 건설 자재 생산 ‘박차’…“막돌 하나, 폐설물 하나 버리지 말아야””

- 또한 현재의 건재기지를 활성화하면서 질 좋은 건재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종합적 마감 건재생산기지 건설을 추진
  - 자강도는 강계시에 종합 마감건재생산기지를 본보기로 조성, 지역 자체 원료 활용을 통한 색기와생산공정과 각종 규격의 수지판 생산공정 마련, 아크릴계 칠감생산능력확장 공사와 함께 기와칠감 등을 자체로 개발
  - 평안남도에서는 평성건재공장을 종합적 마감건재생산기지로 개선하기 위한 공사 추진, 색물 탈, 외장재, 메움재는 물론 란주, 란간을 비롯한 각종 인조석가공품들과 건구를 대량 생산
-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각지 주요대상 건설에 널리 도입된 평양교통운수대학 개발 경소마그네샤 건재판을 비롯하여 경소마그네샤<sup>6</sup>에 대한 언급이 다수 있었음
  - 강원도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원산시상업관리소 등에서 수지건재와 유리건재, 경소마그네샤건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품을 생산함
  - 함경남도는 경소마그네샤를 이용하여 목재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농촌건설 건재수요 보장을 도모하고, 황해북도는 송림시, 경암건재공장, 토산군과 연탄군, 황주군 에서 경소 마그네샤로 건구와 여러가지 건재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음
- 평양시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대한 건재 조달의 경우 김책제철련합기업소(함경북도 청진시)가 철판과 선철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공사(평안남도 천리마군)는 환강과 철판, 형강을 보장하고 있음
  - 흙관과 전기비닐관, 인조석은 평양에서, 전기비닐관은 평양시, 남포시, 함경북도에서, 공사용목재는 양강도, 함경북도, 자강도에서 입수
  - 기타 대동강축전지공장(평양시 평천구역)과 문평제련소(강원도 문천시), 단천제련소(함경남도 단천), 2.8비날론련합기업소(함경남도 함흥시)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평안남도 안주시) 등이 연계되어 있음

그림 5 경소마그네샤를 활용한 건재 생산 관련 기사 내용



경소마그네샤를 이용하여 지은 온실



평양기포부재공장 경소마그네샤 건재 생산공정

출처: (좌) SPN 서울평양뉴스, 2021년 7월 6일자, "평양교통운수대학, '경소마그네샤' 이용 '경질장식판성형'-제품 생산"  
 (우) SPN 서울평양뉴스, 2024년 3월 2일자, "평양교통운수대학 개발, '경소마그네샤 건재판' 주요 건설장 도입 늘어"

6 경소마그네샤는 마그네사이트를 낮은 온도에서 구워서 만든 가루상태인 산화마그네슘으로서 목재로 만든 제품에 비해 방화, 방수, 방음, 내구성, 내부식성이 좋으며, 탄산가스를 흡수해 건강에도 좋아 녹색가구로서 가치가 있음(노동신문, 2024년 3월 2일자)



## 2. 건재 생산 인프라 현황 검토

- 대규모 살림집 건설을 포함하여 각지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건설의 차질 없는 진행에는 건재의 적시 공급이 필수적임
- 그에 따라 건재생산을 위한 공장을 지역별로 정리함으로써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수준에 대해 기초적인 검토를 시행함
- 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북한 산업·기업DB 내에서 제조업의 중화학공업 중 “건재” 부문에 포함된 기업체의 현황을 재정리함
- “건재” 부문에는 ‘시멘트’, ‘벽돌, 타일, 기타 건재’, ‘유리’, ‘도자기’, ‘마그네사이트 크링커 및 내화물’,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등 5개의 소분류가 해당됨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전역에 274개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중 폭넓은 건재 종류를 포함하는 ‘벽돌, 타일, 기타 건재’ 부문이 135개로서 절반을 차지함
  - 시멘트 제조 공장은 전체의 25% 수준인 68개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황해북도 20개가 위치하고 있음
  - 벽돌, 타일, 기타 건재를 생산하는 공장은 평양직할시,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순으로 해당 공장이 많았음

표 6 품목별 · 지역별 건재 공장 분포

구 분	시멘트	벽돌, 타일, 기타 건재	유리	도자기	마그네사이트 크링커 및 내화물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총 계
평양직할시	2	31	4	5		2	44
남포특별시	1	5	5	1		1	13
나선특별시	3	1					4
평안남도	7	21	3	4			35
평안북도	3	10	1	4	1		19
자강도	9	9	3	3			24
황해남도	5	5		1			11
황해북도	20	14	1	4		1	40
강원도	3	6	1	2		1	13
함경남도	7	18	1	3	5		34
함경북도	6	8	1	8	3		26
양강도	1	6		1			8
기 타	1	1	1				3
총합계	68	135	21	36	9	5	274
	24.8%	49.3%	7.7%	13.1%	3.3%	1.8%	

출처 :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기업DB(<http://nkindustry.kiet.re.kr>) (2024.06.28 방문)

- 2000년 이후로는 표 2와 같이 총 12개의 공장이 새롭게 완공되었으며, 타일, 기와, 흙관 등 ‘벽돌, 블록, 기타 건재’ 분야에 해당하는 공장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표 7 연도별 완공 건재 공장 목록(2000년 이후)

연도	연도별 완공 건재공장
2023년	해산타일공장
2022년	단천건재공장
2021년	희천타일공장
2019년	산림기자재공장, 평안남도기와생산기지
2018년	미림색기와공장
2014년	신원세멘트공장
2012년	618세멘트공장
2005년	대안천선유리공장
2000년	고산토기와공장, 순천토기와공장, 원산흙관공장

출처 :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기업DB (2024.06.28 방문)

- 공장의 신설과 생산, 운영과 관련한 보도 건수를 2010년 이후로 집계해 보면 총 4,634건이 있었으며, 건설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시멘트 생산 관련 보도가 55.6%로 가장 많았음(표 8 참조)

표 8 품목별 · 지역별 건재 공장에 대한 보도 건수(2010년 이후)

구 분	시멘트	벽돌, 타일, 기타 건재	유리	도자기	마그네사이트 크링커 및 내화물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총 계
평양직할시	1	535		37		19	592
남포특별시	14	141	307	4		1	467
나선특별시	27	13					40
평안남도	679	73		1			753
평안북도	42	40	11	4			97
자강도	132	49	12	14			207
황해남도	52	16		1			69
황해북도	1,012	56		2			1,070
강원도	365	48	72	1		2	488
함경남도	101	126		3	169		399
함경북도	123	105		148	25		401
양강도	29	8		1			38
기 타		13					13
총합계	2,577	1,223	402	216	194	22	4,634
	55.6%	26.4%	8.7%	4.7%	4.2%	0.5%	

출처 :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기업DB(<http://nkindustry.kiet.re.kr>) (2024.06.28 방문)

### 3. 건재 수요와 공급 관련 자료 검토

- 자재 부문이 계획한 건설사업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생산을 확대하고 신설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이러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추진 중인 건설공사에서 중점영역에 해당하는 살림집에 대해 최근의 공급 실적을 정리하고, 앞서 살펴본 지역별 공장 분포 자료와 병행하여 검토함
- 우선 2022년과 2023년 동안의 살림집 공급 세대수는 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표 4와 같이 지역별로 정리할 수 있으며, 2년 사이에 총 70,500호가 완공되었음

표 9 최근 2년 지역별 살림집 공급 실적

구 분		2022년	2023년	합 계	
				세대수	비율
평양 직할시	새거리조성	10,800	11,400	22,200	31.4%
	농촌살림집	1,340	930	2,270	3.2%
	소 계	12,140	12,330	24,470	34.6%
남포특별시		730	300	1,030	1.5%
라선특별시		370		370	0.5%
평안남도		150	3,410	3,560	5.0%
평안북도		730	4,270	5,000	7.1%
자강도	농촌살림집		4,250	4,250	6.0%
	기 타		50	50	0.1%
	소 계		4,300	4,300	6.1%
황해남도		660	3,450	4,110	5.8%
황해북도		1,830	3,350	5,180	7.3%
강원도		300	2,930	3,230	4.6%
함경 남도	검덕지구	5,000	5,000	10,000	14.1%
	농촌살림집	1,740	1,900	3,640	5.1%
	기 타	500		500	0.7%
	소 계	7,240	6,900	14,140	20.0%
함경북도		940	1,460	2,400	3.4%
양강도		690	2,270	2,960	4.2%
총합계		25,780	44,970	70,750	100.0%

출처 : 자체 북한 건설개발 동향DB

- 지역별 살림집 공급 실적과 건재 공장 분포를 동시에 두고 검토하면 표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해당 지역의 건설 수요는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양시 새거리조성 사업을 비롯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건재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개략적인 비교만 가능함

- 아울러 수요 충족 관점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의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별 주요 공장을 포함하여 개별 공장의 세부 생산 품목과 해당 제품의 생산능력 확인
  - 각 살림집의 유형별로 소요되는 건재 종류와 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시군 단위에서 집계한 후 공급능력과 비교

**표 10** 지역별 주요 건재 공장수와 살림집 공급 실적

구 분	건재 공장수						살림집 공급 실적	
	시멘트		벽돌 등		총 건재 공장수 <sup>1)</sup>		세대수	비율
	공장수	비율	공장수	비율	공장수	비율		
평양직할시	2	3%	31	23.1%	44	16.2%	24,470	34.6%
남포특별시	1	1%	5	3.7%	13	4.8%	1,030	1.5%
나선특별시	3	4%	1	0.7%	4	1.5%	370	0.5%
평안남도	7	10%	21	15.7%	35	12.9%	3,560	5.0%
평안북도	3	4%	10	7.5%	19	7.0%	5,000	7.1%
자강도	9	13%	9	6.7%	24	8.9%	4,300	6.1%
황해남도	5	7%	5	3.7%	11	4.1%	4,110	5.8%
황해북도	20	30%	14	10.4%	40	14.8%	5,180	7.3%
강원도	3	4%	6	4.5%	13	4.8%	3,230	4.6%
함경남도	7	10%	18	13.4%	34	12.5%	14,140	20.0%
함경북도	6	9%	8	6.0%	26	9.6%	2,400	3.4%
양강도	1	1%	6	4.5%	8	3.0%	2,960	4.2%
총합계	67	100%	134	100%	271 <sup>2)</sup>	100.0%	70,750	100%

주 : 1) 지역별 총 건재 공장수는 앞서 표 1의 모든 분류에 대한 공장수임

2) 표 1에서 지역이 할당되지 않는 3건 제외

출처 :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기업DB와 자체 북한 건설개발 동향DB

#### 4. 북한 건재 공장 대비 남한 사업체수 검토

- 북한 소재 건재 공장에 대응하는 남한의 사업체수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제조업 관련 조사결과를 확인함
- 산업연구원의 건재 분류에 포함된 개별 품목에 대한 사업체수를 파악하여 정리하면 표 11과 같으며, 남북한 건설산업 규모를 고려한 비교가 추가로 필요함

표 11 건재 분류에 대한 남한의 품목별 사업체수

소분류	세분류		품목명	사업체수
시멘트	시멘트	86	내화시멘트	11
			시멘트 클링커	9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19
			백색시멘트	5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8
			알루미나시멘트	2
			고로슬래그시멘트	20
			기타 수경성 시멘트	12
벽돌, 타일, 기타 건재	벽돌	63	점토벽돌	25
			콘크리트 벽돌	38
	블록	195	콘크리트 블록	195
	타일	85	플라스틱 타일	45
			점토타일	19
			콘크리트 타일	21
	석재	122	인조대리석	42
			건설용 석제품	73
			착색 가공석제품(건설용)	7
	기와	9	점토기와	7
			콘크리트 기와	2
	흙관	49	흙관 및 VR관	49
	전주	23	콘크리트 전주	23
	소 계			546
유리	유리	124	판유리	21
			건축용 안전유리	103
도자기	도자기	43	세면기	6
			변기	9
			기타 위생도기제품	6
			전기용 도자기	22
마그네사이트 크링커 및 내화물	내화물	22	내화벽돌 및 블록	17
			내화타일	5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기타 비금속	44	연마석	23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	21
총 계				865

출처 : 국가통계포털(2023),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 5. 건재 관련 최근 기술개발 동향

- 건재 수요 증가로 원료, 생산방식, 자재 절약 공법 등에 대한 기술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음
- 해당 기술개발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발간 「기술혁신」에 포함된 문헌 중 건설 관련 논문을 별도로 정리하고, 건재를 중심으로 기술 내용을 간략히 검토함
- 문헌 상의 부문을 기준으로 건설, 수송, 기계, 전자, 건재, 경공업, 화학 등에 대해 총 51건이 건설과 관련이 있었고, 자재(건재)와 관계된 것은 총 15건이었음
  - 각 논문을 별도로 설정한 분야와 유형에<sup>7</sup> 따라 분류한 결과 표 8과 같이 건축 분야 관련 문헌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음
- 건설 관련 논문 51건에 대한 제목과 해당 분야 등 개략적인 정보는 표 13과 같음

표 12 문헌 상의 부문에 따른 건수

문헌 부문	구 분	건 수
건설수송	건 설	29
	수 송	9
	소 계	38
기계채취건설동력	기 계	1
	건 설	4
	소 계	5
전자정보	전 자	4
화학-건재경공업	건 재	1
	경공업	2
	화 학	1
	소 계	4
총 계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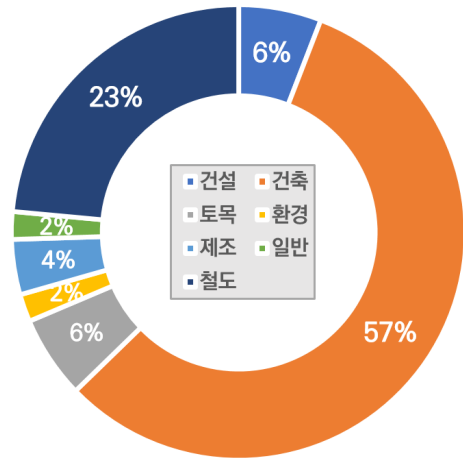


표 13 건설 분야와 유형별 관련 문헌 건수

분 야	유 형	건 수	분 야	유 형	건 수
건 축	계 획	2	토 목	구 조	2
	공 구	1		환 경	1
	공 법	6		소 계	3
	구 조	2	철 도	공 법	2
	설 비	3		수 송	9
	자 재	14		자 재	1
	환 경	1		소 계	12
	소 계	29	환 경	공 법	1
건축/토목	구 조	3	제 조	자 재	2
일 반	관 리	1	총 계		51

<sup>7</sup> 유형은 자재, 공법, 구조, 계획, 설비, 환경, 시험, 관리, 수송 등으로, 분야는 건축, 토목, 철도, 제조, 일반 등으로 분류함

표 14 건설 관련 문헌 목록(2022년 발간 「기술혁신」)

구분	코 드	제 목	페이지	부 문		분야	유형
				문헌	세부		
22년 1월호	22-01-①	이동통신기재를 리용한 실내환경측정 및 조종체계	44-45	전자정보	전자	건축	설비 (환경)
	22-01-②	한소편컴퓨터를 리용한 급수탱크수위조절체계	45-46	전자정보	전자	건축	설비
	22-01-③	수송개체들사이의 정보적련관에 기초한 철도역렬 차작업공정모형화	51-52	전자정보	전자	철도	수송
22년 2월호	22-02-①	목재가공부산물을 리용한 목삭판생산공정	23	경공업·화학	경공업	건축	자재
22년 3월호	22-03-①	케도전차철길의 케도선형기조설정방법	31-32	수송·건설	수송	철도	수송
	22-03-②	침수피해를 받는 철도로반보호옹벽의 력학적 일상태해석에 의한 보강재의 설치특성 확정	32	"	수송	철도	공법
	22-03-③	유리섬유강화수지에 의한 지하전동차 운전실양벽 생산공정	33	"	건설	철도	자재
	22-03-④	농촌생활오수정화에 효과적인 우물형오수안정화조	33-34	"	건설	건축	공법
	22-03-⑤	탁아소내부시설들의 합리적인 설계기준설정방법	34-35	"	건설	건축	계획
	22-03-⑥	경소마그네사건재판생산흐름선	35-36	"	건설	건축	자재
21년 4월호	22-04-①	세멘트생산공정에 컴퓨터조종체계의 확립	47	전자정보	전자	제조	자재
21년 5월호	22-05-①	구조형식선정에 의한 금속구조물의 부식방지대책	18-19	기계·채취 건설	건설	건축/ 토목	구조
	22-05-②	경소마그네사목삭판제조에서 변형률을 줄이기 위 한 방법	25	"	건설	건축	자재
	22-05-③	오수격자기	26-27	"	건설	건축	공법
	22-05-④	품질관리소조활동추진방법	27	"	건설	일반	관리
22년 6월호	22-06-①	석고판종이밀종이의 합리적인 풀먹임조건 확정	4	화학·경공업	경공업	건축	자재
	22-06-②	물길굴세로방향에서 암체특성의 변화에 따르는 응 력과 변위 결정	34-35	건설	건설	토목	구조
	22-06-③	평면곡선보의 처짐미분방정식 결정	35-36	"	건설	토목	구조
	22-06-④	애기기지귀갈이대가 있는 위생실설계	36-37	"	건설	건축	계획
	22-06-⑤	건물난방체계에서 소형전기방열기의 리용	37-38	"	건설	건축	설비
	22-06-⑥	비소성타일의 백화방지에 효과적인 새로운 규산출생산방법	38-39	"	건설	건축	자재
22년 7월호	22-07-①	석고판종이밀종이 제조방법	5	화학·경공업	화학	건축	자재
	22-07-②	콩크리트의 탄소성우연손상응력과 변형사이의 관계	29-30	건설·수송	건설	건축/ 토목	구조
	22-07-③	질석을 리용한 장식판제작에 쓰이는 규산염계결합 제의 특성 개선	30	"	건설	건축	자재
	22-07-④	머리칼단백기포제를 리용한 상온경화형기포 보온재 생산	31-32	"	건설	건축	자재
	22-07-⑤	단판피복경소마그네사목삭판 생산	32-33	"	건설	건축	자재
	22-07-⑥	타일생산과정에 생기는 폐설물을 생산에 리용	33-34	"	건설	건축	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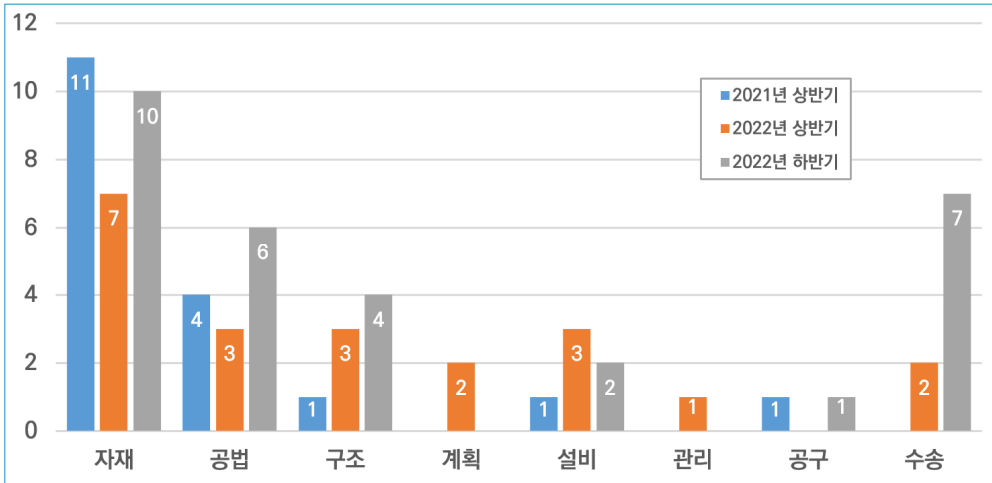


구분	코 드	제 목	페이지	부 문		분야	유형
				문헌	세부		
	22-07-⑦	목재세기측정기의 성능 개선	34-35	"	건설	건축	공구
	22-07-⑧	남새기린초 1호를 지붕록화에 리용	35-36	"	건설	건축	공법
	22-07-⑨	인공지능파합성기술	36-37	"	건설	건축	구조
	22-07-⑩	일상태를 고려한 부사성도철길로반의 구조	37-38	"	건설	철도	공법
	22-07-⑪	역구내에서 열차운전취급작업을 위한 진로탐색방법	38-39	"	수송	철도	수송
	22-07-⑫	길목요소구성방법	40	"	수송	철도	수송
22년 8월호	22-08-①	케도전차철길 곡선구간활높이차의 하용값결정방법	32-33	수송-건설	수송	철도	수송
	22-08-②	화차회귀일수자료창고의 자료구축방법	33-34	"	수송	철도	수송
	22-08-③	콩크리트의 확장성손상응력과 변형사이의 관계	34-35	"	건설	건축/ 토목	구조
	22-08-④	건물구조의 계속사용기간에 따르는 바람하중 결정방법	35-36	"	건설	건축	구조
	22-08-⑤	건물난방체계에서 온수보이라의 리용	37	"	건설	건축	설비
	22-08-⑥	티탄철광에 의한 티탄백생산방법	38	"	건설	건축	자재
22년 9월호	22-09-①	새로운 경소마그네샤스레트생산방법	11-12	화학-건설 경공업	건설	건축	자재
22년 11월호	22-11-①	크링카분쇄기전동체계의 축심편차측정방법	4-5	기계-동력	기계	제조	자재
	22-11-②	초벌미장용 몰탈압사기	31-32	건설-수송	건설	건축	공법
	22-11-③	발구동권양식발판에서 권양장치의 합리적인 구조해결	32-33	"	건설	건축	공법
	22-11-④	인조석바닥연마기의 고무-용수철완충장치	33-34	"	건설	건축	공법
	22-11-⑤	오수처리에서 피스톤펌프의 리용	34-35	"	건설	환경	공법
	22-11-⑥	민감성지수에 의한 공기량변화상태의 정량적평가	35-36	"	건설	토목 (광)	설비 (환경)
	22-11-⑦	열차선행지휘에서 피식열차다남선의 응용	36-37	"	수송	철도	수송
22년 12월호	22-12-①	알칼리함량이 낮은 유리섬유생산방법	34	건설-수송	건설	건축	자재
	22-12-②	소다석화유리섬유의 내알칼리성을 높여주는 집속제	35	"	건설	건축	자재
	22-12-③	운행중 기관차기술상태평가를 위한 자료기지 구축	35-36	"	수송	철도	수송
	22-12-④	흙형레루달음상태평가	36-37	"	수송	철도	수송

- 2021년 이후 건설 관련 논문들의 추이를 유형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표 15와 같음
  - 전체 건수 가운데 자재 관련한 문헌이 40.6%를 차지하였고, 공법 관련 논문도 전체의 18.8%를 차지하였음

표 15 유형별 문헌 건수 추이

구 분	2021년 1,2분기	2022년 1,2분기	2022년 3,4분기	합 계	
				건 수	비 율
자 재	11	7	10	28	40.6%
공 법	4	3	6	13	18.8%
구 조	1	3	4	8	11.6%
계 획		2		2	2.9%
설 비	1	3	2	6	8.7%
관 리		1		1	1.4%
공 구	1		1	2	2.9%
수 송		2	7	9	13.0%
총 계	18	21	30	69	100.0%



- 건재를 중심으로 주요 문헌들의 기술개발 내용을 정리함

[22-01-①] 이동통신기재를 리용한 실내환경측정 및 조종체계

- 이동통신기재를 리용하여 주요실내의 온도, 습도, 비침도, CO<sub>2</sub>농도를 측정하고 조종하는 체계 개발 (SHT-11, GY-30, MG811 리용)
- 온도측정범위와 정확도는 각각 -40~123.8℃, ±0.4℃, 습도측정범위와 정확도는 0~100%, ±3%, 비침도측정범위와 정확도는 각각 0~54 613lx, ±0.5lx, CO<sub>2</sub>농도측정범위는 4~100×10<sup>-4</sup>% 등으로 나타남

[22-02-①] 목재가공부산물을 리용한 목삭판생산공정

- 목재가공부산물을 재자원화한 목삭판제조에 중요한 것은 원료자원량에 맞는 기술적파라메터를 확정하여 요소공정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생산공정을 갖추는것임

- 원료자원량에 맞는 목삭판생산공정은 ①목재가공부산물이 종류와 물량, ② 목재가공부산물의 물기율, ③목삭판의 성층구조, ④목삭판제품두께에 따른 성형틀치수, ⑤목삭판 예비압착, 가열압착, 굳히기, 절단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함

[22-03-⑤] 탁아소내부시설들의 합리적인 설계기준설정방법

- 탁아소내부시설들에 대한 설계에서 탁아소어린이들의 발육특성과 운동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 확립
- 탁아소어린이들의 형태학적지표들과 운동능력지표들의 측정결과에 기초하여 물놀이장(욕조높이, 샤워높이, 세면대야밑면높이), 일광욕실(살창높이, 살창사이간격), 복도(계단너비, 계단높이, 보조손잡이높이)의 설계기준 설정

[22-05-④] 품질관리소조활동추진방법

- 생산자대중을 품질관리에 참가시키고 모든 생산단계와 공정에서 품질관리 각종 수법을 적극 활용하여 가장 유리한 품질을 가장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확립
- 품질관리소조활동은 생산자대중이 참가하는 품질관리활동으로 ①과제 선정 및 소조책임자 선정, ②소조과제 해결에 맞는 성원으로 소조 조직, ③소조원들 과제 측정, 분석 진행 및 정형 기록, ④소조활동정형에 대한 총화보고서 작성·제출

[22-06-⑥] 비소성타일의 백화방지에 효과적인 새로운 규산줄생산방법

- 많은 전기에너지 소비하는 열처리공정 없이 규소의 파쇄, 미분공정에서 립자의 크기를 최적화하고 규산줄합성반응기에서의 교반시간을 늘이는 방법으로 제품의 실수율을 높이는 새로운 규산줄생산방법 확립
- 새로운 규산줄생산방법에서 분쇄, 미분쇄공정을 거친 규소분말의 알갱이는 50~80 $\mu$ m, 교반시간은 7시간으로 보장하는 것이 최적조건으로 확인됨

[22-07-③] 질석을 리용한 장식판제작에 쓰이는 규산염계결합제의 특성 개선

- 질석을 리용한 장식판제작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유리를 변성한 규산염계결합제를 리용하고 있으나, 자름접착세기가 높지못한 것과 같은 결함들이 있어 널리 리용하는데서 제한을 받음
- 무기염과 유기복합염을 리용하여 자름접착세기특성이 개선된 새로운 규산염계결합제를 제조

[22-07-④] 머리칼단백기포제를 리용한 상온경화형기포보온재 생산

- 포르틀란드세멘트를 리용한 기포보온재생산에는 원가가 높고 기포발생량이 비교적 많은 단백폐설물인 머리칼을 리용하여 만든 단백기포제가 많이 쓰임

- 단백폐설물인 머리칼의 물분해, 기포형성특성을 해명하여 기포안정성을 보다 높일수 있는 머리칼단백기포제 제조방법을 받아들이고 류산철, 경화제의 첨가량을 확정하여 상온에서 양생·경화시킬수 있는 기포보온재의 합리적인 생산방법 확립

#### [22-07-⑤] 단판피복경소마그네사목삭판 생산

- 목재부산물을 리용하여 “마그네사세멘트 : 경화액 : 목삭밥 : 첨가제 = 25 : 16.6 : 58.3 : 0.1”로 단판피복경소마그네사목삭판을 생산함으로써 원료 재자원화 실현
- 해당 목삭판의 기술적특성은 부피질량 900~1,000kg/m<sup>3</sup>, 구부림세기 9MPa, 당김세기 4MPa, 누름세기 15MPa, 틸성결수 3,000MPa, 두께팽창률 10%이하임

#### [22-08-⑤] 건물난방체제에서 온수보이라의 리용

- 종전에 건물난방에 리용된 증기보이라에서는 물을 가열할 때 생기는 증기를 리용하며, 전력소비에 비해 난방효과가 낮고 물보충변과 증기배출변, 압력계, 전압전류수감부 등 증기압력을 측정 및 조절하기 위한 주변보조장치 필요
- 주변보조장치가 크게 요구되지 않고, 물가열기 설치공간과 전력소비를 증기보이라 보다 크게 줄이면서도 충분한 난방효과를 얻을수 있는 온수보이라를 제작함

#### [22-11-⑥] 민감성지수에 의한 공기량변화상태의 정량적평가

- 갯도에서의 통기저항의 변화가 통기망 전체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기량조절과 공기흐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갯도의 통기저항이 변할 때 기타 갯도들에서의 공기량변화특성을 수값계산방식으로 진행하면 많은 품이 들며, 민감성지수개념을 받아들여 어느한 갯도의 통기저항이 변할 때 기타 갯도들의 공기량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공기량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할수 있게 함

#### [22-12-①] 알카리함량이 낮은 유리섬유생산방법

- 깨진병유리를 비롯한 알카리함량이 낮은 파유리가 제철슬라크를 리용하여 종전보다 알카리함량이 더 낮은 유리섬유를 생산함
- 파유리와 제철슬라크의 비를 1:2로 하고 여기에 기타 보조재료를 첨가하여 용융온도를 1,200~1,250℃로 보장하면서 유리섬유를 생산하면 유리섬유속의 알카리함량을 4%이하로 낮추어 알카리매질속에서의 내구성을 높일수 있음

## IV. 《지방발전 20×10 정책》

지방의 발전과 자력강생을 위한 일환으로 지방공업공장을 전국 시, 군에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표하고, 국가적으로 자재, 설비, 인력을 투입하여 공장 건설에 돌입

### 1. 김정은 시정연설(01.15.)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 전격 발표

-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후 불과 보름만에 시정 연설
-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 이념에 배치 언급
  - 지방의 저발전, 저개발의 현실을 인식
  - \* 지방의 “세기적인 낙후성”(노동신문 01.26. 1면, 01.27. 1면, 01.31. 1면, 02.11. 1면, 02.13. 2면),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 불균형 지속 언급
- 중평·련포온실농장, 김화 공업공장, 농촌살림집 건설, 개성시 지원 등 정도로 지방발전을 일으키기에는 태부족
- 지난 전원회의에서 개성시, 재령군, 연탄군, 우시군에 지방공업공장 개건현대화 계획을 제시했으나 너무 소극적
  - \* “시, 군의 경제적 자원과 원료원천을 조성하고 적극 이용하여 자기 지역 내 주민들에 질 높은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보장하여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상 편의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에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업”(노동신문, 01.16. 일자)
- 《지방발전 20×10 정책》을천명하고 실천방안 논의를 지시, 이후 연일 노동신문 1면에 정책의 대대적 홍보

### 2. 정책 개념

-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10년간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집행
  - 농촌진흥을 위한 정책과는 별도로 추진
- 김화군 경험에 기초하여 당에서 책임지고 매 군에 자금, 노력, 자재를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적 지도사업체계를 정립
- 지방공업의 발전 = 지방의 발전 =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
  - 시, 군은 국가의 전략적 보루
  -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자원, 경제적 잠재력과 생활환경에서는 차이 날 수 있지만, 국가 내에서 인민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 10년 후에는 “평양의 처녀총각이 살기 좋은 우리 고장에 시집장가를 오는 류다른 광경도 펼쳐질지 모른다”(노동신문, 01.28.일자 1면)

### 3.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진수와 기본내용(노동신문, 02.13.일자 2면)

- (진수) “지방공업혁명의 강력한 추진으로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어 전국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수호”
- (기본내용)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수준이상으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매해 20개 군씩 건설하는것을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모가 나게 집행하여 금후 10년안에 모든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전국적판도에서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는 것”
  - － 지방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 － 매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서로 경쟁하는 풍조를 만들어 다각적인 장성을 추동하는 것
  - － 실제적인 결실, 눈에 띄우는 변화가 진짜로 지방인민들의 피부에까지 가닿게 하여 우리 사람들의 인식영역에서 개변을 가져오는 것

### 4. 《지방발전 20×10 정책》관철의 기본요구(노동신문 02.20.일자 2면)

- 첫째부터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작전과 지도를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잘 해나가는 것
  - － 전국의 시,군들에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정립
  - －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낡은 공장들을 개건보수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하되 인구수와 주민들의 수요, 경제실태와 자연지리적 조건 등 해당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
  - － 원료기지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완강하게 전개
- 인민군대가 기수가 되고 주인공이 되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로서의 자기의 고귀한 명함을 지켜내는 것
- 전인민적인 애국열의를 지방발전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집초시키는 것
- 도,시,군당책임비서들과 도,시,군인민위원장들이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 올바른 자세를 자각하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것

### 5.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적 노력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경제실무적 대책 수립(01.24.)
- 정책 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확대회의 개최(02.09.)
-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 사업에 착수(책임지도자: 조용원 조직비서)(01.29.)
- 내각과 경제지도기관에서 지방발전정책의 실천적 대책 강구
- 정책의 교육, 전파, 토론진행
  - －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등



- 지방공업공장 주력 건설노동자: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관병
  - 이들의 건설 성과와 난관 극복 사례 수시 보도
-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시, 군의 3대혁명화를 위한 수단이자 계기로 삼음(노동신문 05.28.일자 1면)
  - 새로운 경제발전5개년계획 이후 시, 군의 자립적 발전을 더욱 증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발전을 독려하는 기치를 당중앙뿐만 아니라 시, 군 단위에까지 넓히려는 의도로 판단

## 6.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 사업에 착수(노동신문 01.30.일자 3면)

- 책임지도자 조용원 조직비서
- 당중앙의 지방발전정책에 입각하여 지방공업공장들에 대한 설계, 시공 등 공사추진정형과 원료기지조성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
- 인구수와 자연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장들의 규모와 생산능력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정하며 해마다 건설할 공장들의 설계를 노력절약, 부지절약, 에너지절약, 기술집약형의 원칙에서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선행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
- 건설역량편성과 자재, 설비보장 그리고 식료공업, 경공업 발전추세에 맞게 공장들을 발전지향적으로, 현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대책들 심도있게 탐구
- 지역의 원료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를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대책 수립

## 7. 정책 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내용(노동신문 02.10.일자 1면)

-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받들고 작전과 지도를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해나가며 공장건설과 생산활성화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를 기민할 것을 강조
-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 순차와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 인구수 등에 맞게 생산지표들을 바로 설정하며 설계를 노력절약, 부지절약, 에너지절약, 기술집약형의 원칙에서 발전지향적으로, 전망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
-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강재, 목재를 비롯한 자재들을 선행시켜 생산보장하며 수송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여 공사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
- 세계적인 식료품, 소비품발전 추세에 맞게 설비와 협동품을 질적으로 제작완성하며 국가의 결정, 지시에 모든 단위들이 일사불란하게 보조를 맞추도록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
- 시, 군들의 원료기지조성사업을 연차별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려 지방공업공장들에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도들
- 새로 건설되는 공장들의 규모와 능력에 맞게 관리기구와 노력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기술자, 기능공양성사업을 예견성있게 하며 설비들의 정상가동과 제품의 질개선에서 제

기되는 문제들

-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이용할 수 있게 경제실무적 조치들을 적시적으로 강구하며 승인절차와 공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문제들

## 8. 20개 시, 군

- 20개 시, 군이 어느 곳인지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으나, 노동신문 02.03.일자 3면에 언급된 시·군들이 금년에 선정된 20개 시·군일 것으로 보임
  - 시도별로 2곳 내외로 고루 분포

표 16 올해 《지방발전 20×10 정책》 대상 20개 시, 군

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개성시
시군	속천군, 성천군	구성시, 운산군, 구장군	재령군, 은천군	연탄군, 은파군	금야군, 함주군	경성군, 어랑군	김형직군	우시군, 동신군	고산군, 이천군	온천군	장풍군

## 9. 지방공업공장 건설 진행

- 올 해 20개 시,군들에 건설할 지방공업공장들과 그 규모와 부지, 생산공정들이 반영된 종합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02.27.)
-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2.29.일자 1면): 김정은 참석·연설, 지방발전정책 천명 후 첫 테이프
- 구성시, 속천군, 은파군, 경성군, 어랑군, 온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3.07.일자 3·4면)
- 구장군, 운산군, 연탄군, 은천군, 재령군, 동신군, 우시군, 고산군, 이천군, 함주군, 금야군, 김형직군, 장풍군에서 연이어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3.11.일자 1면)
- 노동신문 06.17.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20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 골조공사 기본 결속
  - 착공 이후 석달 남짓한 기간에 골조공사 기본 결속, 원림녹화사업 병행
  - 전국적으로 수만정보의 원료기지 조성
  - 각 도들에서 기름작물 62,000여정보, 종이원료림 32,000여정보 조성

그림 6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착공식



출처: 노동신문 02.29.일자 1면

그림 7 지방공업공장 건설 선전 자료



출처: 노동신문 04.01.일자 1면

## V. 「살림집관리법」 전면 개정

기존 「살림집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살림집관리법」에서는 최근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살림집이 대거 건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살림집의 관리·운영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규정을 대폭 보강

### 1. 2024년 3월 민주조선에 여러 차례 소개된 「살림집관리법」

- 살림집 관련하여 ‘인계, 이관인수, 등록’, ‘배정’, ‘이용’, ‘관리’ 등으로 나누어 「살림집관리법」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
- 노동신문에 따르면(2023.10.20.일자) 「살림집관리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10.19. 개최)에서 심의 채택됨
  - 「살림집관리법」은 살림집관리와 이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2. 「살림집법」 vs. 「살림집관리법」

- 민주조선에 소개된 법령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존 「살림집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불비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보완, 구체화한 내용으로 판단됨
- 최근 몇 언론에서 살림집 배정 시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에 살림집을 우선 규정한 것을 「살림집관리법」에 새로 담긴 내용인 듯 소개하고 있으나, 작년 10월 노동신문 보도에서 이미 「살림집법」의 살림집 배정 원칙에 추가되어 있었음
  - \* 노동신문(2023.10.20.일자)에 실린 관련 내용: “살림집법에 밝혀진 살림집 배정원칙에 따르면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와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세대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살림집을 배정하게 되어있다.”
- 「살림집법」은 2009년 최초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충되고 있음
- 기존 「살림집법」과 표현이 거의 동일한 내용도 상당수 있는 만큼, 「살림집관리법」이 「살림집법」에서 따로 분법화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 그 보다는 「살림집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명을 대체한 것으로 보임

### 3. 전면 개정 배경

- 북한은 2021년초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수립 이후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살림집 건설에 매진하고 있음
  - 평양에서는 5만세대 건설사업, 지방과 농촌에서는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며, 건설실적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음
  -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등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군건설세멘트보장법」에서는 모든 시·군에 시멘트를 2022년에 5천t씩, 2023년부터 해마다 1만t씩 보장하는 것을 법에 명문화

- 살림집 건설이 확대되면서 입사 대상 인민들, 기존 살림집이 철거되는 인민들 등의 민원, 담당기관과 인민 사이의 갈등이 종종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
  - 새로운 살림집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인민들은 기존의 살림집에 거주하는 만큼, 기존 살림집에 대한 관리 또한 도외시킬 수 없음
- 최근 「살림집관리법」 제정에 볼 수 있는 살림집 관련 규정의 강화와 구체화는 국가 전체적으로 살림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4. 「살림집관리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살림집 시설물 관리 체계 구체화 및 책임성 강화
  - 살림집 인계문건의 구체화, 시설물 등록 주체의 명문화, 등록자료 갱신주기의 명기 및 등록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 타용도에서 변경되는 살림집의 제도적 관리
  - 살림집 보수를 위한 기술감정, 시설물 설치·이용·철수 시 원상 복구
  - 살림집 관리 전반에 있어 국가와 담당 주체의 책임성 강화 및 역할 조정
    - \* 살림집 이관·인수는 지방인민위원회로, 살림집에 대한 통일적 등록, 살림집사용료 결정, 살림집 현판·문패 규격 설정, 살림집 용도변경승인은 중앙기관으로
- 살림집 입사·거주·이사 등에서의 혼란 방지
  - 배정받은 살림집에 입사 의무 기한 3개월 규정 명문화, 이용허가증의 분실·반환 시 규정 추가·보완
- 사회문제 해결과 결부된 살림집 정책
  - 살림집 배정 원칙 중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배려, 미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결혼을 장려
  - 기존 살림집 철거 세대에 대한 대책 강화
-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규정 보완
  - 복도, 구획놀이터의 청소 의무, 다층·단층살림집 구역에 현판 게시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

#### 5. 2022년 기준 「살림집법」과 달라진 주요 내용

표 17 「살림집관리법」이 기존 법에서 추가, 보완, 수정된 내용

변경 형태	변경 항목	변경 내용
추가	준공된 살림집을 살림집관리기관에 넘겨줄 때 필요한 추가 인계문건	– 승강기, 상하수도, 난방시설, 항공장애물표시등을 비롯한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의 시설물인계합의문건을 첨부
추가	관리대상이 다른 살림집 이관·인수 시 추가 규정	– 살림집관리기관이 살림집이관인수문건을 작성하고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합의·승인을 받도록 함 – 건설설계문건, 건설설계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살림집등록대장을

변경 형태	변경 항목	변경 내용
		비롯하여 살림집관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을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하며, 기술상태가 불비한 살림집, 해당 문건이 없는 살림집은 이관·인수할 수 없음
추가	살림집의 (시설물) 등록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림집에 설치된 승강기와 상수도, 난방, 전기, 체신설비를 비롯한 시설은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이, 하수도과 울타리, 오물장, 공동변소등은 살림집관리기관이 등록</li> <li>- 살림집관리기관은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이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서도 종합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대장에 해당내용을 등록하며 정보기술수단을 이용하여 등록내용을 자료기화해야 함</li> <li>- 살림집에 대한 통일적 등록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담당</li> </ul>
추가	살림집등록자료 갱신 주기 명기	- 살림집관리기관은 변경된 살림집등록자료를 분기 1차 이상 갱신
수정·보완	살림집등록정형보고의 체계화	- 살림집의 등록정형을 상, 하반기에 1차 해당 지역인민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며 해당 지역인민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은 1년에 1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
보완·추가	살림집 배정원칙의 일부 변경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수,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이외에 '신체조건'을 추가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 대한 배려를 얻을 수 있음</li> <li>- 결혼 전 독신자, 해당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공민에게는 살림집 배정을 금지하여 결혼을 장려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음</li> </ul>
추가	용도변경 살림집의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물, 산업건물을 용도변경한 살림집은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쳐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배정할 수 있음</li> <li>- 이는 최근 살림집의 부족으로 공공건물과 산업건물 등 타 용도의 건물을 살림집으로 바꾼 사례가 많음을 짐작하게 하며, 살림집 수의 확보와 관리 차원에서 이를 양성화하려는 시도로 보임</li> </ul>
추가	이용허가증의 일원화	- 살림집이용허가증 또는 동거살림집이용허가증의 형식과 내용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정함
보완	이용허가 취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내'로 배정받은 살림집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살림집이용허가를 취소</li> <li>- 살림집의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살림집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며, 살림집의 원활한 배정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입사 의무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li> </ul>
보완·추가	살림집 꾸리기 관련 구체적 표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림집과 복도, 마당, 구획놀이터 등 공동공간에 대한 청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언제나 깨끗이 거두도록 하며, 농촌살림집에서는 '생땅'이 드러나지 않게 녹지를 조성</li> <li>- 동사무소와 인민반은 다층살림집과 단층살림집구역의 일정한 곳에 구역, 동, 호동, 현관, 인민반을 밝힌 현판을 달아야 함(살림집 현판과 문패 규격은 국가규격제정기관이 정함)</li> <li>- 이는 아파트, 다층·소층·단층 주택 등 공동주택 형식의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공용공간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판단되며, 또한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경관에 대한 관리도 강조한 내용</li> </ul>
보완	살림집 사용료 지불 규정	- 살림집을 배정받아 이용하는 공민은 살림집사용료를 살림집관리기관에 내야 하며, 살림집사용료는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함
추가	이용허가증의 분실 시 규정	- 살림집이용허가증을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이용자확인을 받아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한 요금을 징수

변경 형태	변경 항목	변경 내용
보완	이용허가증 반환 시 규정	- 이사할 때 살림집관리기관의 인계확인을 받은 후 이용허가증을 지방인민위원회 등에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 이용허가증을 발급 받음
보완	살림집 이용 시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	- '살림집 안에서 집집승을 기르는 현상' 발견 시 살림집관리기관에 즉시 통보
추가	살림집 보수를 위한 기술 감정 규정 명확화	-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보수를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살림집에 대한 기술감정을 해야 하며,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야 함
추가	살림집에 시설물 설치· 이용·철수 시 원상 복구 규정	- 살림집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철수하면서 건물의 파괴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도록 명시
추가	철거 세대 대책 추가	-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살림집을 철거시키려는 경우 철거세대들에 대한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세운 조건에서 살림집관리기관과 합의하고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는 최근 평양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전국 각지의 대대적인 농촌살림집 건설에서 기존 살림집을 허무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작년 준공된 평양 대평구역 살림집의 경우 타 지역 사업에서의 철거 세대를 위해 조성된 것임
수정	살림집 구조·용도 변경 승인 주체	- 구조변경승인은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용도변경승인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건물기술감정을 사전에 득해야 함 - 용도변경 승인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은 전국 살림집의 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임
추가	살림집 관리에 있어 국가와 담당 주체의 책임성을 강조	-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관리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살림집관리에 필요한 노력과 자재, 자금, 설비보장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추가: 기존에 없던 내용을 추가

수정: 기존 내용을 수정·변경

보완: 기존 내용에 일부 추가하거나 구체화



## VI. 강동종합온실 준공

2024년 3월, 약 1년만에 평양시 강동군 군 공항부지에 강동종합온실농장 건설 완료. 중평온실농장과 련포온실농장에 이어 한층 현대적, 과학적 온실재배시설과 부대시설 조성 완료됨으로써 평양 시민에 건강하고 안정적 먹거리 제공이 가능해 졌음을 선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요대상 사업으로 홍보, 북한 농업의 과학화·현대화 과시

### 1. 강동종합온실 건설 목표

- 2019년 중평남새온실농장 및 2022년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에 이어, 군 공항을 활용해 평양시와 수도권 인구에게 공급할 채소와 식량 생산처로서 2023년 2월 15일 착공
- 평양시 강동군은 도심에서 벗어난 교외지역<sup>8</sup>으로 착공 당시 강동온실농장은 북한이 강조해온 ‘새시대 농촌건설 및 농촌혁명’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촌건설의 새로운 전형으로 선전함
  - 온실 조성의 목표는 ‘인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설정, 국가 최종대사로서 현대적이고 실용성이 확보된 시설로 조성할 계획을 밝힘

### 2. 강동종합온실 구성 및 규모<sup>9</sup>

- 농장 전체 면적 260여정보(약 260만㎡), 연면적 120만㎡, 건축물은 약 1,050여동으로 구성<sup>10</sup>
  - 련포온실농장에 비해 채소 생산규모가 크다고 설명
- 채소 생산을 위한 온실은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 등이 배치
  - 기존 온실농장과 비교 시 유리수경온실 다수 포함
  - 영양액 공급 및회수관로, 탄산가스공급관로와 지열수, 열망관로 등을 비롯 수백만m의 내외부 망관로 조성 완료
  - 원통형남새재배장치는 재배틀이 광원을 중심으로 일정한 주기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재배장치로, 영양물질흡수율과 빛 이용률이 높아 작물 재배에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

<sup>8</sup> 강동군은 대동강의 동쪽에 위치한 평양시 교외지역으로 면적 약 516㎢, 인구 약 22만명 (출처 : 북한지역정보넷, 나무위키)

#### <sup>9</sup> 참고 자료

- 2024. 3. 16., 노동신문 1면, “위대한 위민현신의 장정우에 솟아난 눈부신 사회주의재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하였다”
- 2024. 3. 17., 노동신문 1면, “[정론] 위대한 우리 어버이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소식에 접한 인민들의 격정을 안아보며”
- 2024. 3. 17., 노동신문 3면,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강동종합온실이 세계굴지의 남새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sup>10</sup> 농장면적으로 알려진 260여 정보는 강동군 전체 면적 대비 약 0.5%를 차지하는 규모로 여의도면적의 약58% 수준임

- 또, 일조량,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공급량 등을 정밀 조정가능한 시스템 도입으로 작물 재배 기간을 단축, 작물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방식 적용
- 반구형유리수경온실은 특이한 디자인과 더불어 사다리형회전식다층재배장치와 적외선 등을 이용한 다층재배장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배장치들이 설치. 연 10회작 이상의 채소 재배가 가능하여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온실에는 자동영양액 공급체계와 더불어 영양액 비배 횟수 또는 재이용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비료 절약과 원가 절약 측면에서도 기여
- 종합적으로 지능형통합생산체계 구축으로 기존 중평남새온실, 련포남새온실에 이어 한 세대 현대적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자평
- 이러한 기술의 적용을 위해 국가과학원 현대화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농업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이 참여, 기여했다고 밝힘
- 온실 외 탁아소, 유치원, 학교, 종합진료소 등의 공공건물과 약 1,200여 세대의 다층, 소층, 다락식살림집 포함
- 조성 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관련 계획안과 조감도는 약 300여건, 기술설계도는 약 3,280여건 수준

**표 18 강동종합온실 건설 경과(노동 신문 보도 참고)**

일자	주요 내용
2022. 12. 26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평양시 강동지구에 대규모 온실군 건설 계획 발표
2023. 2. 15	- 강동온실농장 착공
2023. 7. 17	- 김덕훈 내각총리 강동온실농장 현지료해
2024. 3. 15	-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
2024. 3. 27	- 강동종합온실 살림집 입사 모임
2024. 4. 01	- 첫 수확물 출하(출하지 : 평양)

**그림 8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



출처: 노동신문(2024.03.16.), “위대한 위민헌신의 강정우에 솟아난 눈부신 사회주의재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하시었다”

**그림 9 강동종합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



출처: 노동신문(2024.03.22.),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시대 현대적인 온실의 본보기로 일떠선 강동종합온실

그림 10 강동종합온실 완공후 전경



출처 : 노동신문(2024. 03. 22), “희한한 <농장도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이렇게 줄어든다”

### 3. 강동온실농장 활용 현황

- 북한은 완공된 강동종합온실에 대해 <농장도시>, <온실도시>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단기간 내에 지능형 농경시설을 갖춘 온실에 대해 적극 홍보
- 준공 이후 4월 초부터 수확물을 도시(평양)로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

그림 11 강동종합온실에서 생산되는 채소들



출처 : SPN서울평양뉴스(2024.04.02.), “평양 강동종합온실농장, 조업 시작 10여일만에 채소 생산 공급”

그림 12 강동종합온실의 부지절약형 온실



출처 : 통일뉴스(2024.05.03.), 북, 강동종합온실에서 운영되는 부지절약형 온실들의 성과”

그림 13 강동종합온실의 지능형 통합생산체계



출처 : 통일뉴스(2024. 03. 22), “한세대 더 발전된 강동종합온실의 실제”

#### 4. 시사점

- 강동종합온실농장은 2019년 완공된 중평남새온실온장과 2022년 완공된 련포온실농장에 이어 북한에서 주요 대상사업으로 추진한 대규모 온실농장으로, 중평, 련포 온실농장 대비 규모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거듭한 성과물로 확인됨
- 특히 토지 집약적 채소 생산 시설과 지능형 재배기술을 도입, 이를 통해 작물 생산량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기존 대형 온실농장과 유사한 점은 농촌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대규모 농업시설이라는 측면은 변함없으나, 중평과 련포 온실농장과 가장 큰 차별점은 수도(평양시)에 위치한 입지적 측면과 농장의 규모, 시설 및 재배법의 과학화·지능화 등 한 단계 발전된 시설로 판단됨
- 또, 노동신문 등을 통해 확인된 북한 내부에서의 평가 역시 혁신적 농촌발전의 강조라기 보다 ‘새시대’, ‘현대적 시설’, ‘분명부강한 강국의 내일’ 등의 수사를 사용하며 국가 주요 대상사업인 평양 5만세대 살림집 등과 연계, 도시화 및 과학기술이 접목된 현대시설 등을 강조하는 양상임
-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강동종합온실을 딸, 김주애와 현장시찰을 하는 등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주요 경제분야 현장이라는 것을 강조·선전하고 있음
- 강동종합온실농장에 온실시설 외 조성된 살림집과 봉사시설(공공 및 서비스 시설)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볼 때, 해당지역으로 상당한 인구의 이동이 예상되며, 평양시 외곽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도시지역인 본평양을 제외한 외곽 지역의 도시화, 현대화 과정에 큰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중평, 련포 온실농장에 이어 강동종합온실은 기존 시설보다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접목, 수도 평양과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스마트팜 기술 등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북한의 자체적 성과



로 자평하고 있음

- 다만, 온실농장에서 채소 재배를 위해 필요한 전력과 물 공급(특히 겨울철), 기타 비료 등의 공급 보장 여부에 따라 실제 작물 생산량 및 도시(평양)로의 채소 공급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또, 북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과 같은 맥락으로 강동종합온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장된다면 이후 운영과 그 성과에 따라 북한 온실 농업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
- 한편, 강동종합온실농장 사례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비군사적 교류·협력 방안으로 주요하게 손꼽히는 스마트팜 기술 + 주변 배후 지역 개발 모델 분야로 남북 상호 간 관심이 높을것으로 예상. 현재 북한의 스마트팜 기술의 자동화 수준에 따라 향후 남측의 AI를 활용한 전자동 스마트팜 기술 협력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PART 3

# 건설 · 개발동향 분석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 Analysis



I.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sup>11</sup>

- 2024년 1,2분기 건설동향 관련 최종 분석대상 보도건수는 191건임
- 가장 높은 빈도로 집계된 시설유형은 도시생활시설(77건)이었으며, 공장시설(36건), 농림어업시설(25건), 교육복지시설(20건), 국토지역개발(9건), 공급시설(8건), 광업자원시설(6건), 환경방재시설(6건), 문화휴양시설(4건) 순으로 집계됨
- 교통물류시설 개발사업은 한 건도 집계되지 않음

표 1 분석대상 사업의 시설유형별 기사 건수 분포

시설유형	개발사업 기사 건수
교통물류시설	0
공급시설	8
발전시설	8
발전시설 외	-
공장시설	36
도시생활시설	77
살림집	74
살림집 외	3
국토지역개발	9
특구/개발구	-
특구/개발구 외	9
문화휴양시설	4
교육복지시설	20
광업자원시설	6
농림어업시설	25
환경방재시설	6
합 계	191

11 조선일보 등 다른 신문의 기사가 거의 대부분 노동신문 기사와 중복되어, 노동신문에 한정하여 기사를 분석하였음.

표 2 유형별 주요사업 목록

시설유형	주요사업	대표 출처
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도 고성군, 회양군, 군민발전소 건설 추진</li> <li>강원도 이천군, 회양군, 군민발전소 착공</li> <li>황해북도 신평군, 신평발전소건설 성과 지속 확대</li> <li>자강도 우시군, 우시3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 추진</li> </ul>	01.11 02.07; 02.08 04.10 06.11
공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지방공업공장들 골조공사 연이어 결속</li> <li>평안남도, 평성건재공장 생산품 다종화를 위한 공사 진행</li> <li>황해남북도 강령군·신계군, 밀가공기지 건설 사업 돌입</li> <li>남포특별시, 학생신발공장 준공</li> <li>함경남도, 함흥학생교육공장 준공</li> </ul>	06.01 04.28 04.18 06.05 06.17
도시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농촌살림집 건설 중</li> <li>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 중</li> <li>평양직할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li> <li>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 살림집 건설 추진</li> </ul>	02.26 04.10 04.17 06.02
국토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간석지 건설사업 진행</li> <li>전국, 붕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진행</li> </ul>	01.06; 01.12 03.19
문화휴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양직할시, 평양인형극장 건설 중</li> <li>자강도, 강계송마구락부 준공</li> <li>함경남도, 도체육촌 건설 중</li> </ul>	05.05 06.16 06.27
교육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강도 삼지연시,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li> <li>평양시 고려약공장들 개건현대화 마감단계</li> <li>남포시 과학기술도서관 준공</li> <li>전국, 수백 개의 학교와 유치원 개건</li> </ul>	04.15 05.20 06.01 06.14
광업자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안남도 순천시, 순천석화석광산 20만산대발파 진행</li> <li>함경북도 무산시, 무산광산연합기업소 50만산대발파 진행</li> <li>전국 각지, 탄광연합기업소 새 탄광, 새 갱 건설 성과 확대</li> </ul>	01.06 01.09 05.13
농림어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경남도 단천시, 염소분장, 젖소분장 완공</li> <li>평양직할시, 강동온실농장 완공</li> <li>토지정리돌격대, 4,700여정보의 토지, 규격포전으로 정리</li> <li>전국, 올해 관개공사 목표 앞당겨 수행</li> </ul>	03.12 03.16 06.03 06.12
환경방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도 고산군, 사방야계공사 추진 중</li> <li>양강도, 수천m구간 가림천 호안공사 완료</li> <li>평안북도 정주시, 선천군, 동림군, 해안방조제 공사 진행</li> <li>평안남도, 해안방조제영구화공사 위한 30만산 대발파 진행</li> </ul>	04.21 05.30 06.11 06.23

\* '대표출처' 노동신문 기사 일자임.

## II. 유형별 주요 건설·개발 동향

### 1. 공급시설

- 강원도 고성군, 회양군, 군민발전소 건설 추진(노동신문, 01.11)
- 강원도 이천군, 회양군, 군민발전소 착공(노동신문, 02.07; 02.08)
- 황해북도 신평군, 신평발전소건설 성과 지속 확대(노동신문, 04.10)
- 자강도 우시군, 우시3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 추진(노동신문, 06.11)

#### 가. 강원도 고성군, 회양군, 군민발전소 건설 추진(노동신문, 01.11, 4면)

- (내용)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재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는 두개의 군민발전소 건설을 올해중에 완료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펼치고 있음
  - － 고성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압력철관로와 발전설비조립작업이 적극 벌어지고 있으며, 건설자들은 합리적 작업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공사를 본때있게 내밀고 있음
  - － 회양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건설자들은 일정계획에 반영된 작업과제를 무조건 끝낼 불같은 열의를 안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음

#### 나. 강원도 이천군, 회양군, 군민발전소 착공(노동신문, 02.07, 4면; 02.08, 5면)

- (내용) 림진강류역에 능력이 큰 또 하나의 발전소인 이천2호군민발전소건설 착공식이 6일에 진행되며 발전소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가 있었음
- 회양2호군민발전소건설 착공식이 7일에 진행되었으며, 착공식이 끝난 다음 발전소건설을 위한 첫 발파가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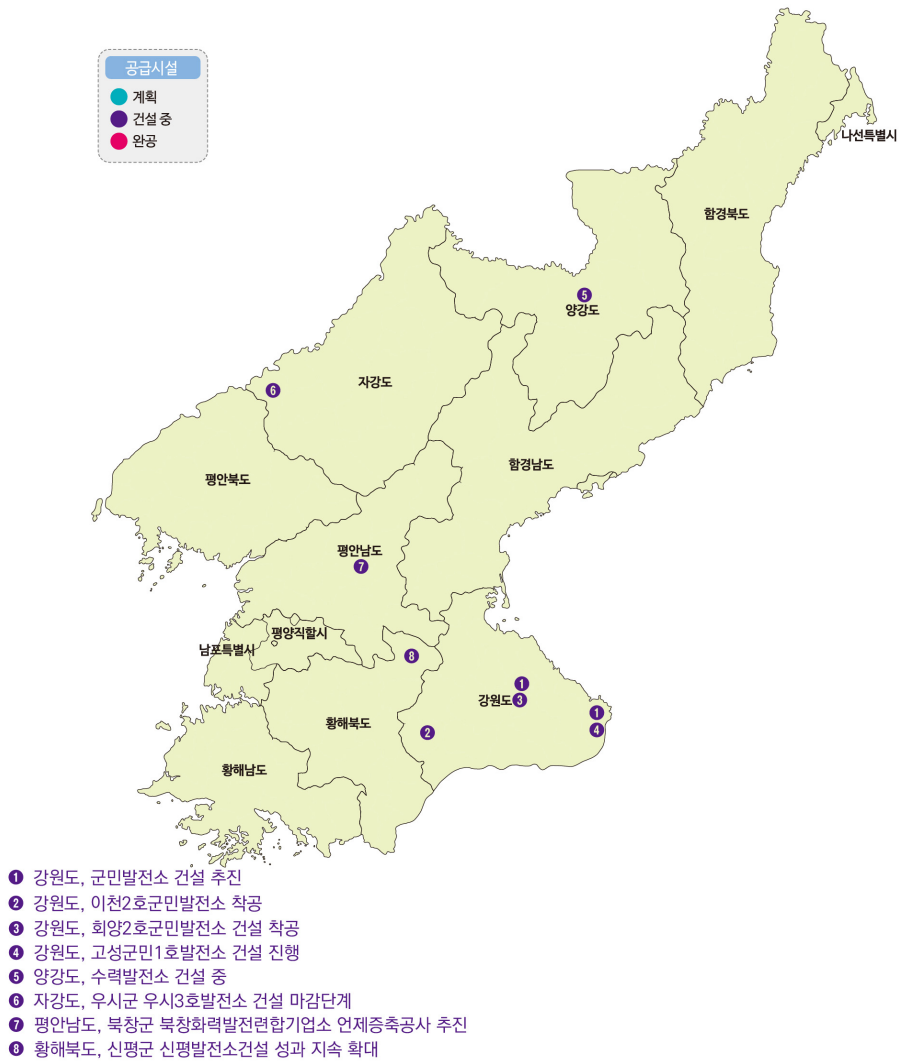
#### 다. 황해북도 신평군, 신평발전소건설 성과 지속 확대(노동신문, 04.10, 4면)

- (내용) 신평발전소건설에서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더욱 분발해나섰음
  - － 현재 물길굴콩크리트피복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언제건설과 발전기실건축공사를 위한 기초굴착작업이 결속을 가까이하고 있음
  - － 언제건설공사에 참가한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언제기초굴착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있으며, 기초굴착작업이 끝나는 즉시 언제타입공사에 진입할수 있게 혼합장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내밀고 있음

#### 라. 자강도 우시군, 우시3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 추진(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우시3호발전소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여 올해중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건설되는데 맞게 빠른 기간에 공사를 결속하고자 하고 있음
  - －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언제콩크리트치기를 결속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발전설비조립과 발전기실건축공사를 다그치고있음

그림 1 공급시설 건설·개발동향



## 2. 공장시설

- 전국, 지방공업공장들 골조공사 연이어 결속(노동신문, 06.01)
- 평안남도, 평성건재공장 생산품 다종화를 위한 공사 진행(노동신문, 04.28)
- 황해남북도, 강령군·신계군 밀가공기지 건설 사업 돌입(노동신문, 04.18)
- 남포특별시, 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05)
- 함경남도, 함흥학생교복공장 준공(노동신문, 06.17)

### 가. 전국, 지방공업공장들 골조공사 연이어 결속(노동신문, 06.01, 1면)

- (내용) 기초공사 완료에 이어 20개 시군의 지방공업공장 골조공사 마무리 또는 진행  
－ 05.27. 현재 성천군, 장풍군, 고산군 골조공사 결속  
－ 온천군, 우시군, 재령군, 은천군, 동신군은 골조공사 성과 확대
- (위치) 전국

### 나. 평안남도, 평성건재공장 생산품 다종화를 위한 공사 진행(노동신문, 04.28, 4면)

- (내용)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공사 진행  
－ 현재 설비조립이 한창이며, 색몰타르, 외장재생산공정 등이 확립되었으며, 종합목재가 공설비들을 설치하는 사업 마감단계  
－ 완공 시 색몰타르, 외장재, 메움재, 난주, 난간 등 각종 인조석가공품과 건구 대량 생산 가능
- (위치) 평안남도, 평성

### 다. 황해남북도, 강령군·신계군 밀가공기지 건설 사업 돌입(노동신문, 04.18, 4면)

- (내용) 강령군과 신계군에서 현대적이고 수만t 생산능력의 밀가공공장 건설 진입  
－ 강령군은 04.10. 착공 이후 기초굴착공사와 기초콘크리트치기에 진입
- (위치) 황해남도 강령군, 황해북도 신계군

### 라. 남포특별시, 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05,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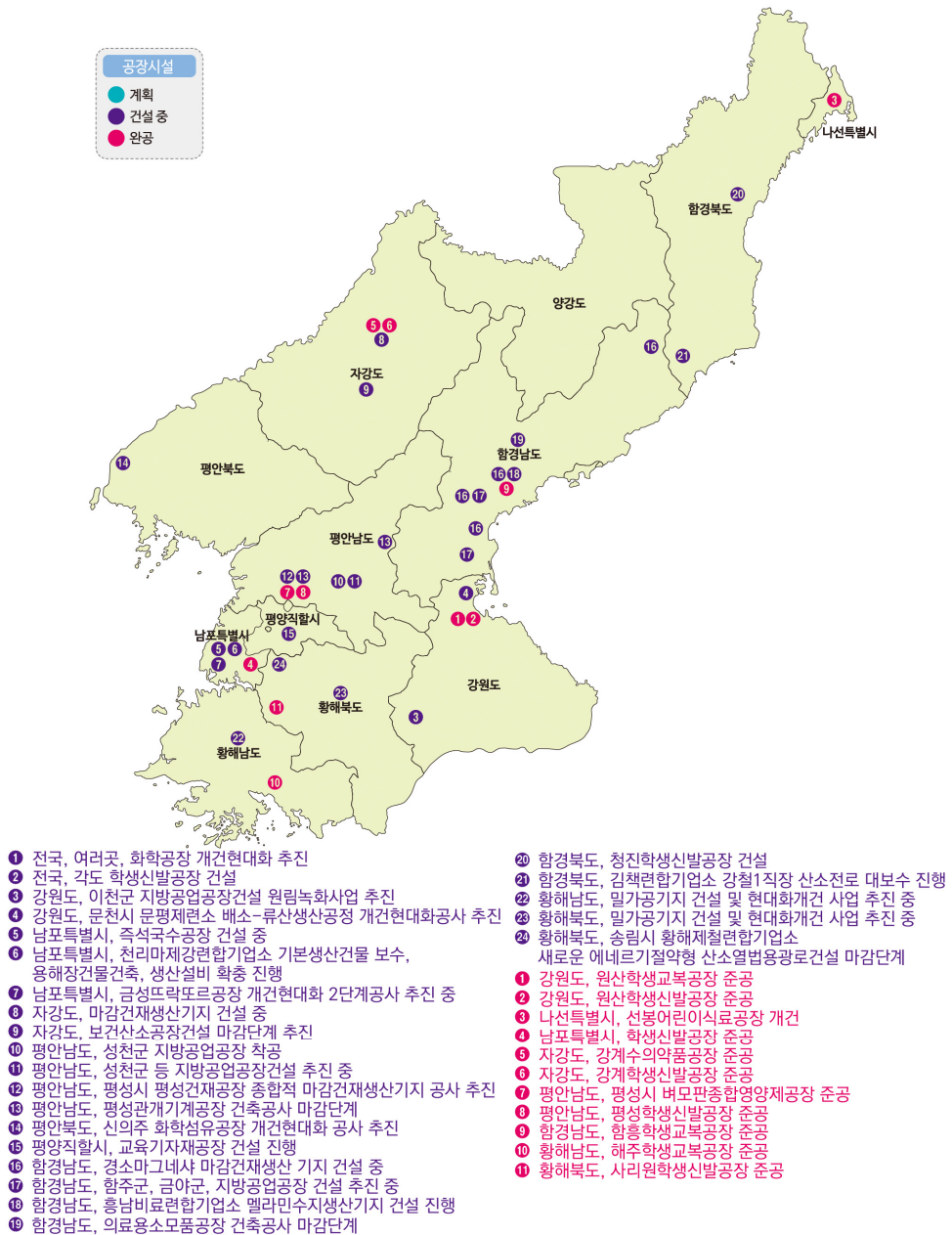
- (내용) 현대적 설비들을 갖춘 생산공정과, 종업원의 문화생활 조건이 구비된 신발공장이 06.04. 준공되어, 시의 학생들에 공급할 구두와 운동신발 생산토대 마련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마. 함경남도, 함흥학생교복공장 준공(노동신문, 06.17, 4면)

- (내용)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복공장 06.16. 준공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그림 2 공장시설 건설·개발동향



### 3. 도시생활시설

-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 중(노동신문, 02. 26)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 중(노동신문, 04.10)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 17)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 살림집 건설 추진(노동신문, 06. 02)

#### 가.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 중(노동신문, 02. 26, 1면)

- (내용) 지방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각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농촌살림집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 (황해남도) 운산군에서 농촌살림집주변에 나무심기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
  - － (평양직할시) 력포구역에서 원림조성과 관련한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
  - －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 각 시·군에서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내외부미장작업과 울타리공사, 전기공사, 상하수도망공사속도를 끌어올리고있음. 함경남도에서는 북청군과 홍원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는 선진적인 공법을 교환·공유하면서 살림집, 공동축사건설성과 확대
  - － (자강도) 희천시와 만포시, 향산군 등 여러 지역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의 영향을 극복할수 있는 대책 수립 및 농촌살림집 내부마감공사 추진

#### 나.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 중(노동신문, 04. 10, 1면)

- (내용)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착공식 후 40여민만에 살림집 골조공사 완성하는 등 빠른 속도로 3단계 살림집 건설 사업 추진 중
- (규모) 1만 세대 살림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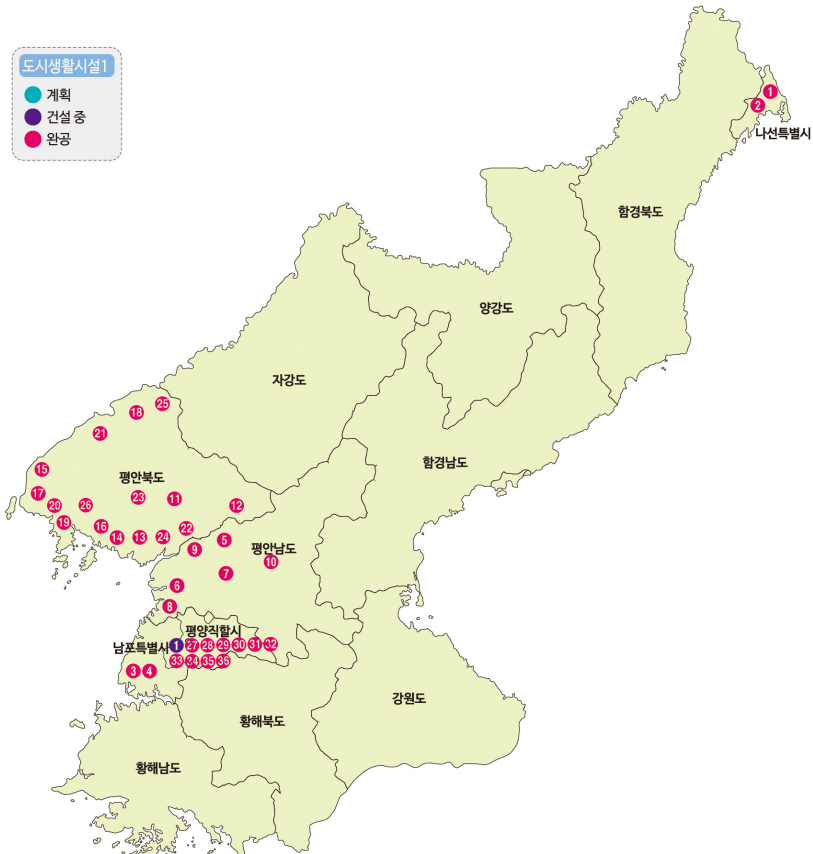
#### 다.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 17, 1면)

- (내용)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에 김정은 위원장 등 주요 인사 참석. 완공된 전위거리, 림흥거리와 초고층 살림집들은 평양을 세계적 문명도시로 전변시켜나가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특성)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약 1년만에 준공
- (규모) 80여 정보 영역에 약 1만세대 살림집

#### 라.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 살림집 건설 추진(노동신문, 06. 02,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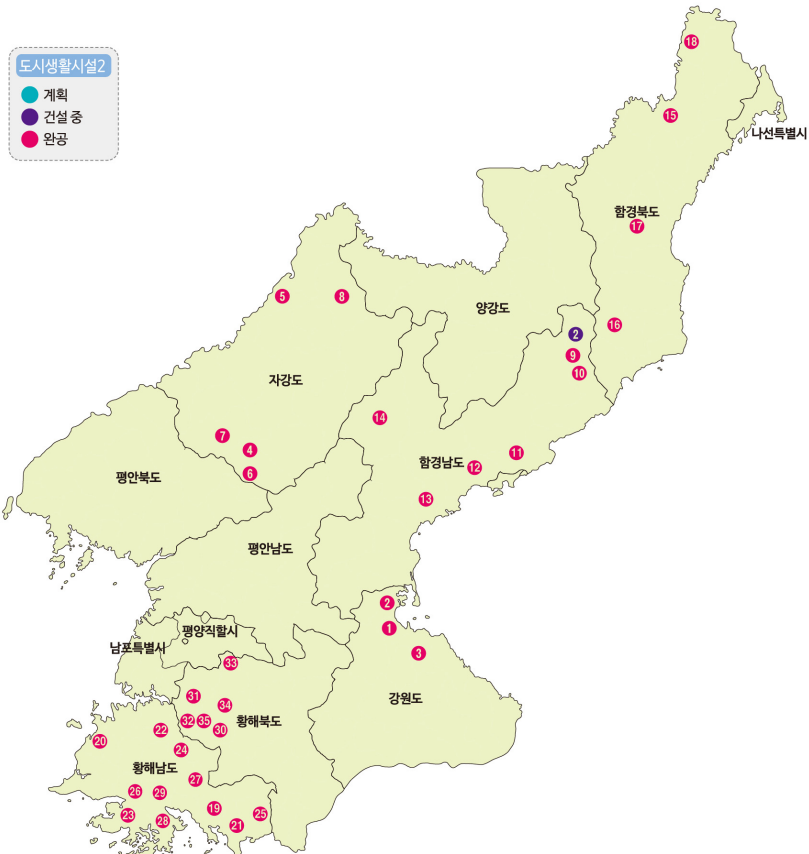
- (내용) 검덕지구 산악협곡도시건설에 혁신적 성과 이룩. 살림집들 골조축조 마감단계 진척 및 웅벽, 시설물공사, 내외부미장 등 진행. 해발고 1,200M 이상되는 높은 산정에 살림집 건설에 맞는 공법 적용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그림 3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동향(살림집·평양직할시, 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평안남·북도)



- 1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 중
- 2 나선특별시, 라진구역 무청동, 유현동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3 나선특별시, 선봉구역 홍의동, 하회동의 근로자들 새집들이
- 4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덕흥농장에서 새집들이
- 5 평안북도, 천리마구역 고창남새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6 평안남도, 개천시 보부농장 살림집 입주
- 7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농장 살림집 준공
- 8 평안남도, 순천시 풍탄농장 살림집 입사
- 9 평안남도, 평원군 운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10 평안남도, 안주시 송학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11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 살림집 준공
- 12 평안북도, 구장군 상이공예작물농장 살림집 준공
- 13 평안북도, 정주시 독장농장 살림집 준공
- 14 평안북도, 관산군 당상농장 120여동 살림집 준공
- 15 평안북도, 신의주시 선상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16 평안북도, 선천군 솔재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17 평안북도, 통천군 장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18 평안북도, 장성군 옥포축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19 평안북도, 철산군 원세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20 평안북도, 염주군 내종리, 신정리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21 평안북도, 삭주군 룡영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22 평안북도, 박천군 봉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23 평안북도, 구성시 온천군 농장에서 새집들이 진행
- 24 평안북도, 삼광축산농장 새집들이 진행
- 25 평안북도, 벽동군 송사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26 평안북도, 동림군 보성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27 평양직할시, 전위거리 완공
- 28 평양직할시, 금대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 29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 형산남새농장 살림집 준공
- 30 평양직할시, 순안구역 구서농장 살림집 입사
- 31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대성남새농장 살림집 준공
- 32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
- 33 평양직할시, 삼석구역 장수원농장 살림집 입사
- 34 평양직할시,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 살림집 준공
- 35 평양직할시, 강동군 송금축산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36 평양직할시, 강남군 장교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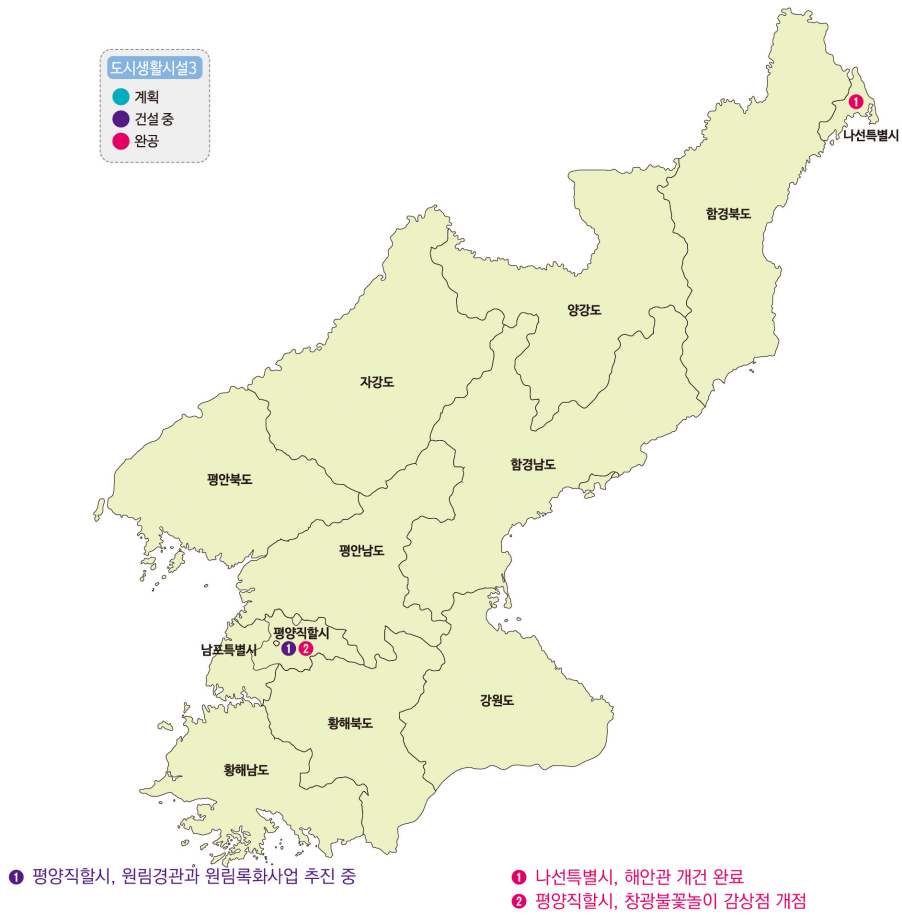
그림 4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동향(살림집\_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전국)



- ①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 중
- ②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 살림집 건설 추진
- ③ 강원도, 원산시 죽산남새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 ④ 강원도, 문천시 교성리 관동동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⑤ 강원도, 안변군 천삼농장, 상음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⑥ 자강도, 희천시 송지농장 살림집 입사
- ⑦ 자강도, 만포시 고산농장 살림집 입사
- ⑧ 자강도, 향산군 태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⑨ 자강도, 송원군 양지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⑩ 함경남도, 단천시 대흥1동, 무학동 새집들이 진행
- ⑪ 함경남도, 북청군 죽상농장 소재지마을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⑫ 함경남도, 홍원군 공덕리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⑬ 함경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수도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⑭ 함경남도, 장진군 백암농장, 도내농장과 리원군 송정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⑮ 함경북도, 회령시 장태축산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⑯ 함경북도, 길주군 남양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⑰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군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⑱ 함경북도, 은성군 왕재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⑲ 황해남도, 청진군 신생농장 살림집 입사
- ⑳ 황해남도, 과일군 월사농장과 연광농장 살림집 준공
- ㉑ 황해남도, 연안군 라진포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㉒ 황해남도, 안악군 굴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㉓ 황해남도, 웅진군 대기리와 수대리 새집들이
- ㉔ 황해남도, 신원포농장, 삼지강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㉕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㉖ 황해남도, 태탄군 부양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㉗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㉘ 황해남도, 평두농장 및 금농농성자재배원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㉙ 황해남도, 벽성군 장해농장, 통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㉚ 황해북도, 은정축산농장 살림집 준공
- ㉛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리 살림집입사모임 진
- ㉜ 황해북도, 사리원시 문현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㉝ 황해북도, 승호군 광정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㉞ 황해북도, 연탄군 월룡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 ㉟ 황해북도, 체육인숙소 준공식 진행

그림 5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동향(살림집 외)



## 4. 국토지역개발

- 전국, 간석지 건설사업 진행(노동신문, 01.06; 01.12; 02.14 外)
- 전국,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진행(노동신문, 03.19)

### 가. 전국, 간석지 건설사업 진행(노동신문, 01.06, 4면; 01.12, 4면; 02.14, 5면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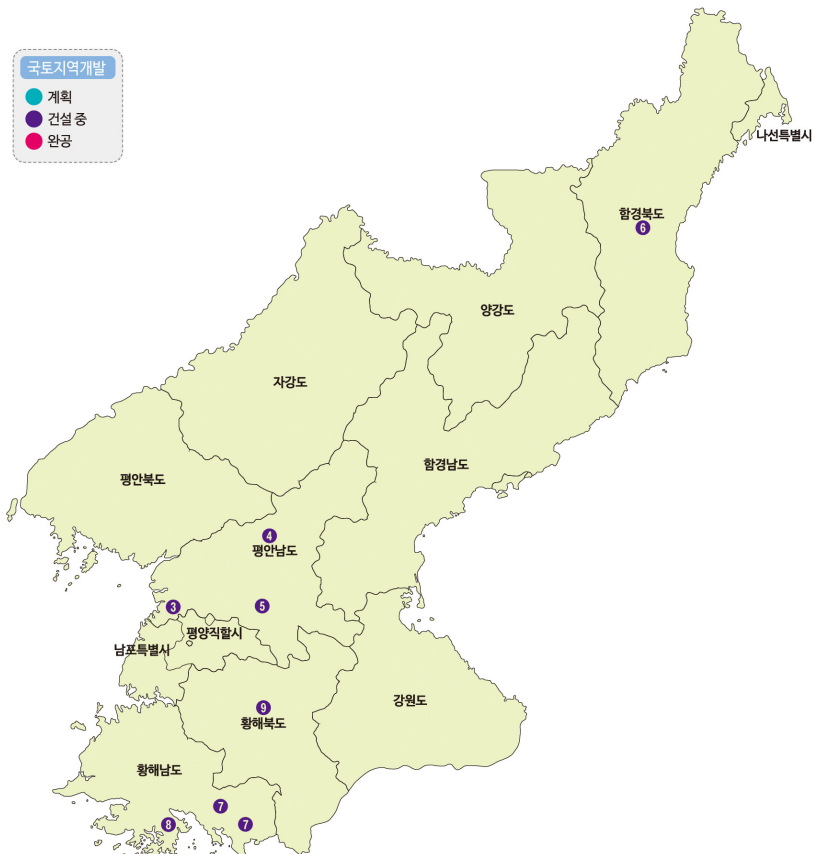
- (내용)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등 서해안 각 지역에서 간석지 건설사업 진행 중
  - － 황해남도: 각회도간석지, 증산도간석지, 대수압도간석지, 양촌간석지(강령군)
  - － 평안북도: 흥건도간석지, 월도간석지, 애도간석지, 석화간석지
  - － 평안남도: 평원간석지
- (주체) 각 도의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 나. 전국,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진행(노동신문, 03.19, 5면)

- (내용) 전국적으로 수천만㎡의 바닥파기를 포함한 방대한 량의 강하천정리와 수백 km의 도로기술개건, 수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및 공원, 유원지 그리고 수십 km의 해안방조제 및 방파제들에 대한 대보수공사 등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한 지표별 과제들이 비교적 원만히 수행
  - － 민족문화유산 보호정책을 관철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의미있는 진전
  - － 도소재지를 훌륭하게 꾸리고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에서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뚜렷한 진일보를 이룩
  - － 라진구역에서도 거리와 마을을 더 잘 꾸리려는 움직임이 적극화
  - － 큰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에 라선시와 허천군, 은천군, 회령시, 숙천군, 연탄군, 태천군, 구장군, 정평군, 성천군이 강하천정리에서 실적을 내고 해주시와 희천시, 형제산구역, 평강군, 백암군, 곡산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들이 계획된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 과제를 수행
  - － 그 외 남포시와 선교구역, 혜산시, 신의주시에서 원림록화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
  -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는 국토환경보호부문과 도시경영부문에서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단계별 과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며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재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년차별로 강력히 실행할 데 대하여 강조
- 허천군과 안변군의 현실을 대비
  - － 지난해 강하천정리사업을 통이 크게 내민 허천군에서는 수십만 ㎡의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장석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여 큰물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와 다리들에 대한 기술개건 사업에도 상당한 품을 들여 주민들의 교통상 편의와 자동차운행의 안전성을 더 잘 보장
  - － 그러나 안변군에서는 심히 만성화되고 무책임한 일군들의 사업태도로 지지부진하였음



그림 6 국토지역개발 건설·개발동향



- ① 전국, 여러 간석지 건설장 발파 진행
- ② 전국, 불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 진행
- ③ 평안남도, 평원간석지 1차 물막이공사 진행 중
- ④ 평안북도, 여러 간석지 건설
- ⑤ 평안북도, 석화간석지, 1차물막이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 ⑥ 함경북도, 경성타일공장 개건공사 외 여러 대상건설 추진 중
- ⑦ 황해남도, 간석지건설 추진중
- ⑧ 황해남도, 양촌간석지 건설
- ⑨ 황해북도, 각 시군 국토관리사업 치밀하게 진행

## 5. 문화휴양시설

- 평양직할시, 평양인형극장 건설 중(노동신문, 05.05)
- 자강도, 강계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06.16)
- 함경남도, 도체육촌 건설 중(노동신문, 06.27)

### 가. 평양직할시, 평양인형극장 건설 중(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평양인형극장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몇달 안되었지만 문화성 건설사업소 로동계급과 성에서 조직한 당원돌격대가 기초콘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지상골조콘크리트치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음
- (규모) 200여 석의 영화관, 200여 석의 인형극 관람실, 기념품 매대, 오락장 등
- (주체) 문화성 건설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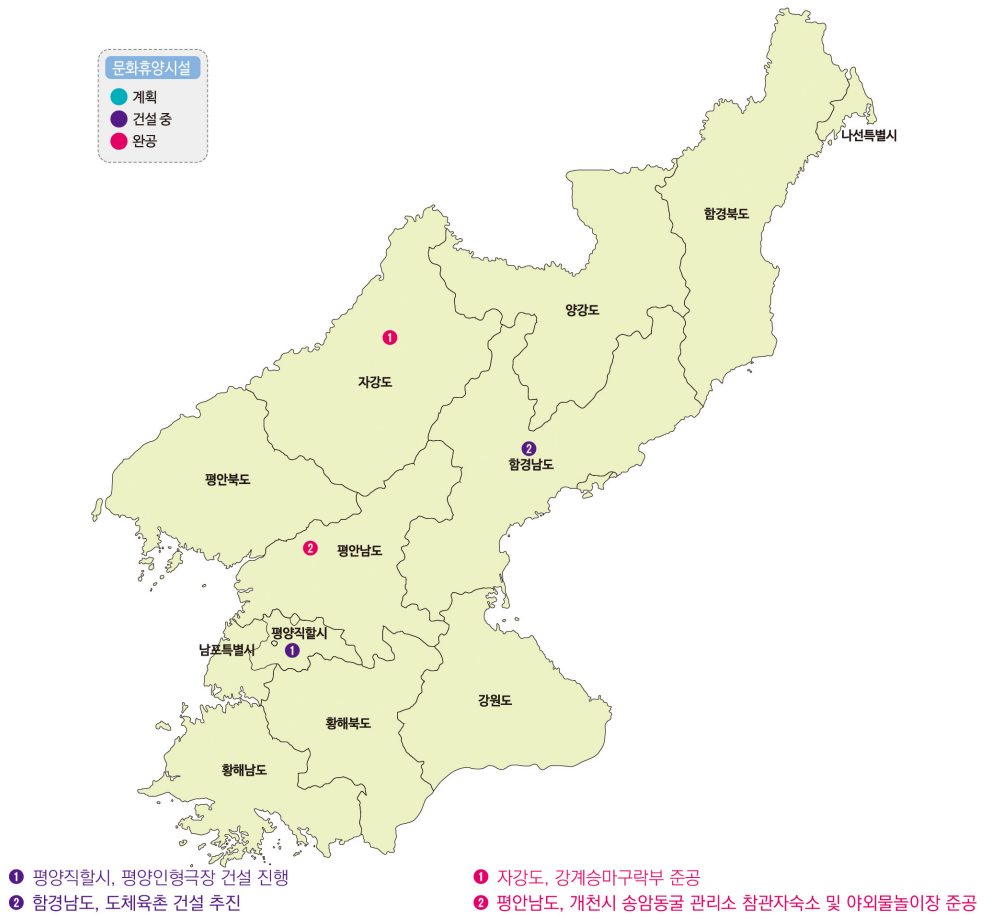
### 나. 자강도, 강계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06.16, 4면)

- (내용) 특색있게 일떠선 강계승마구락부에는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구비되어있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게 됨
  - －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강계승마구락부 종업원 등 참가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다. 함경남도, 도체육촌 건설 중(노동신문, 06.27, 4면)

- (내용) 함흥시에 일떠서는 도체육촌은 다양한 종목의 체육경기를 진행할수 있는 체육관과 축구장, 체육인숙소, 미니골프장 등을 갖춘 현대적인 체육기지로 꾸러지게 됨
  - －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드높이 체육인숙소 골조공사를 끝내고 체육관 골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성과를 확대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그림 7 문화휴양시설 건설·개발동향



## 6. 교육복지시설

- 양강도, 삼지연시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노동신문, 04.15)
- 평양직할시, 고려약공장들 개건현대화 마감단계(노동신문, 05.20)
- 남포특별시, 과학기술도서관 준공(노동신문, 06.01)
- 전국, 수백 개의 학교와 유치원 개건(노동신문, 06.14)

### 가. 양강도, 삼지연시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노동신문, 04.15, 4면)

- (내용)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식이 14일 현지에서 진행, 위력한 교양거점이 마련
  - － 서관에는 백두산정에 오르신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 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짐
  - － 사관실에는 삼지연시의 전경을 보여주는 모형사판과 벽사판이 전시
  - － 혁명사적관의 호실들에는 영상사진문헌들,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이 전시
- (위치) 양강도 삼지연시

### 나. 평양직할시, 고려약공장들 개건현대화 마감단계(노동신문, 05.20, 5면)

- (내용) 대동강구역, 보통강구역 등에서는 책임일군들이 고려약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보 건토대강화를 위한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책임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음
- (위치) 평양시 대동강구역, 보통강구역 등 여러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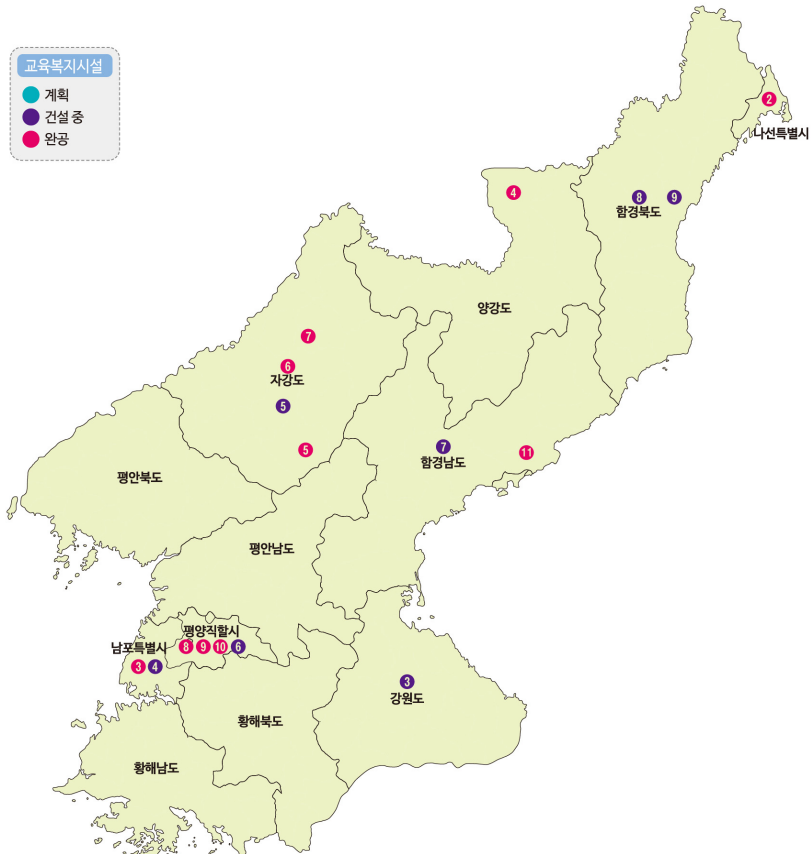
### 다. 남포특별시, 과학기술도서관 개건 준공(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남포시과학기술도서관 준공식이 5월 31일 현지에서 진행
  - － 대중적인 과학기술보급거점답게 면모를 일신한 도서관에는 열람실들과 강의실, 다기능홀 을 비롯하여 정보봉사와 연구토론 및 보급, 전시회를 진행할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
  - － 종합정보봉사체제와 수많은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구축
  - － 준공식에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일군들, 건설자들, 청년학생들, 도서관종업원들이 참가

### 라. 전국, 수백 개의 학교와 유치원 개건(노동신문, 06.14, 2면)

- (내용)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학교, 유치원들이 본보기 수준으로 개건
  - － (평양시) 모란봉구역 민흥소학교, 강동군 봉화고급중학교 등 10여 개 학교들의 신설 및 개건
  - － (함경북도)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140여 개 분교를 훌륭히 꾸림
  - － (황해북도) 수십 개 분교들의 모습을 일신
  - － 평안북도 꾁산군 초창농장 10일 유치원을 비롯하여 많은 유치원 개건

그림 8 교육복지시설 건설·개발동향



- ① 전국, 각지 교원양성부문 대학, 농업대학 신축 및 개건 진행
- ② 전국, 여러 도에서 대학건설 추진
- ③ 강원도, 과학기술도서관 건설 마감단계
- ④ 남포특별시, 대안구역 본보기학교 건설 진행
- ⑤ 자강도, 전천군 전천군병원건설 사업 추진 중
- ⑥ 평양직할시, 고려약공장개건현대화 마감단계
- ⑦ 함경남도, 각 시,군들 표준약국 건설 진행
- ⑧ 함경북도, 3대혁명전시관건설 추진
- ⑨ 함경북도, 청진시 오충흥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 추진 중

- ① 전국, 수백개의 학교 및 유치원 개건
- ② 나선특별시, 청학휴양소 개건
- ③ 남포특별시, 과학기술도서관 개건 준공
- ④ 양강도, 삼지연시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
- ⑤ 자강도, 동신군 원탕료양소 개건 완료
- ⑥ 자강도, 품질분석소 준공
- ⑦ 자강도, 과학기술도서관 준공
- ⑧ 평양직할시, 김책공업종합대학 종합실형교육관 개관
- ⑨ 평양직할시, 첫 표준약국 완공
- ⑩ 평양직할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
- ⑪ 함경남도, 북청군 혁명사적관 개관식 진행

## 7. 광업자원시설

-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석회석광산 2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6)
- 함경북도, 무산시 무산광산연합기업소 5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9)
- 평안남도, 덕천시 덕성탄광 굴진성과 확대(노동신문, 04.05)
- 전국 각지, 탄광연합기업소 새 탄광, 새 갱 건설 성과 확대(노동신문, 05.13)

### 가.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석회석광산 2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6, 4면)

- (내용) 순천석회석광산에서 1월 5일 2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
  - 굴진경도들을 전개하고 착암기, 압축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수백m에 달하는 소갱 굴진과제를 앞당겨 끝내었으며 발파직장에서는 암질조건에 맞게 앞선 작업방법을 활용하여 교대당 발파회수를 늘여나갔음

### 나.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5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9, 5면)

- (내용) 1월 8일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50만산대발파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음
  - 회전식착정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발파효율제고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한사람이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안고 과감한 투쟁을 벌여왔음

### 다. 평안남도, 덕천시 덕성탄광 굴진성과 확대(노동신문, 04.05,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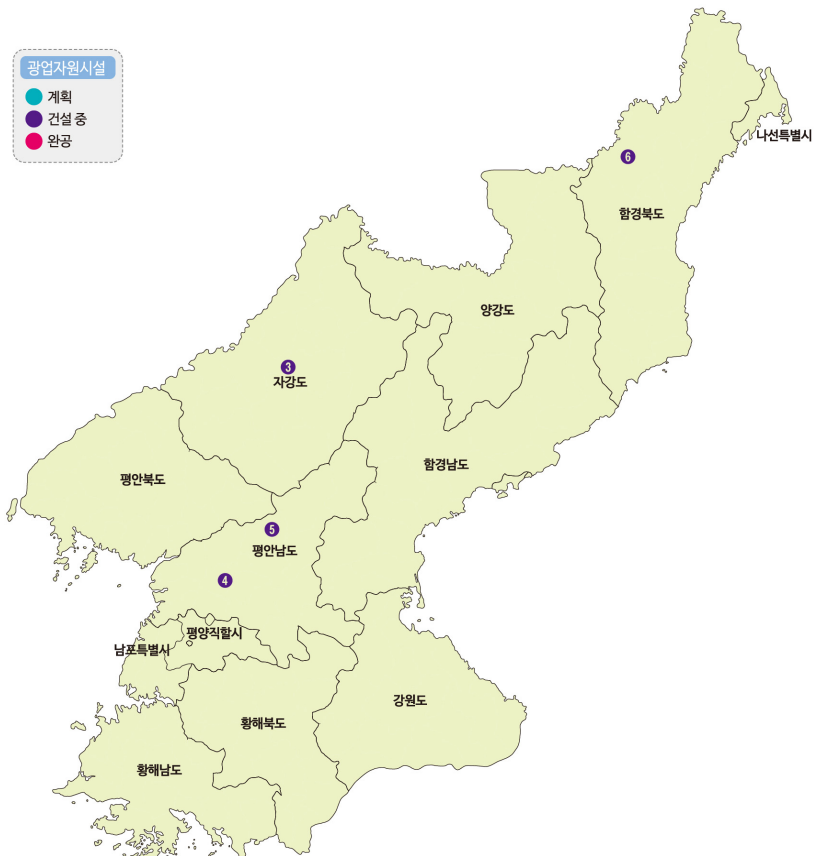
- (내용) 덕성탄광2갱 고속도굴진소대는 대원들이 착암기 등 굴진설비에 정통하도록 하는 한편 천공깊이와 각도를 철저히 보장하여 매일 2배이상의 굴진실적을 기록함
  - 40여일만에 1/4분기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상반기 굴진계획을 4월 15일전으로 해제킬 목표를 내세우고 전진해나가고있음

### 라. 전국 각지, 탄광연합기업소 새 탄광, 새 갱 건설 성과 확대(노동신문, 05.13, 4면)

- (내용)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삼록탄광이 사갱굴진과 버력처리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으며 압축기와 권양기설치를 위한 준비도 선행시키고있음
-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는 새 탄광, 새 갱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음
  - 태산탄광에서 자체의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1/4분기에만도 갱건설공정계획을 112%로 수행하였으며 그 기세로 계속 혁신하고있음
  - 룡북청년탄광 청년2갱의 탄부들은 각이한 암질조건에 맞는 발파방법들을 받아들여 발파효율을 제고함으로써 갱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있음
-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극동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비들의 성능을 갱신하여 기본굴진실적을 계획의 1.5배로 끌어올리었음
  - 룡반탄광 1갱에서도 종전보다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발파효율을 높임으로써 사갱굴진과 기본굴진에서 뚜렷한 실적을 냈음



그림 9 광업자원시설 건설·개발동향



- 1 전국, 각지 탄광연합기업소 새 탄광, 새 갱 건설 성과 확대
- 2 전국, 능률적 싸이로식 석탄저장고 건설 추진
- 3 자강도, 공급탄광 탄발 마련을 위한 굴진 확대
- 4 평안남도, 순천석회석광산 20만산 대발파
- 5 평안남도, 덕천시 덕성탄광 굴진성과 확대
- 6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50만산대발파 진행

## 8. 농림어업시설

- 함경남도, 단천시 염소분장, 젖소분장 완공(노동신문, 03.12)
- 평양직할시, 강동온실농장 완공(노동신문, 03.16)
- 전국에서 토지정리돌격대가 4700여정보의 토지, 규격포전으로 정리(노동신문, 06.03)
- 전국, 올해 관개공사 목표 앞당겨 수행(노동신문, 06.12)

### 가. 함경남도, 단천시 염소분장, 젖소분장 완공(노동신문, 03.12, 5면)

- (내용) 단천시에서는 지난해 10월말 능력이 큰 염소분장과 젖소분장 건설을 시작, 최근 완공함
  - － 염소호동, 젖소우리, 보리짚재배장, 발효먹이생산장 등이 꾸려져있고, 염소호동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자연풀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방목도로 건설에 집중함
  - － 현재 젖제품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리공사와 소형발전소건설 등 추진중
- (특성) 자연풀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 나. 평양직할시, 강동온실농장 완공(노동신문, 03.16, 1면)

- (내용) 평양 강동지구에 세계굴지의 남채생산기지가 1년만에 완공, 15일 준공 및 조업이 진행됨
  - － 현대성과 선진성, 편리성과 독창성이 구현된 온실호동들과 천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갖추
- (특성) 원통형남채재배장치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 등 독특한 양상의 현대적인 온실로 일반재배방식에 비하여 획기적인 생산성을 담보하는 부지절약형, 로력절약형의 종합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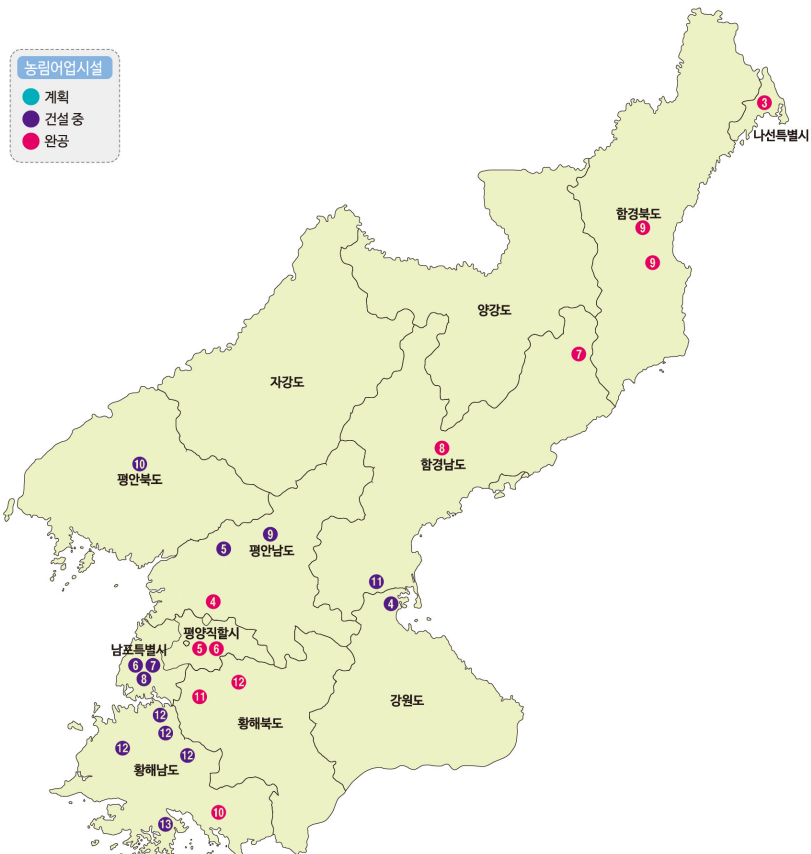
### 다. 전국에서 토지정리돌격대가 4700여정보의 토지, 규격포전으로 정리(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토지정리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올 봄에 4700여정보 토지를 규격포전으로 정리함
  - － 황해북도려단에서 포전도로건설과 논두렁짓기, 논수평고루기 등을 질적으로 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수백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등 1,170여정보의 토지정리하고, 평안북도려단에서도 700여정보의 봄철토지정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
- (위치) 전국

### 라. 전국, 올해 관개공사 목표 앞당겨 수행(노동신문, 06.12, 3면)

- (내용)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4,000여개소의 양수장건설과 3,500여km의 관늘이기공사, 7,500여개소의 지하수시설, 2,100여개소의 관개시설건설 및 능력확장, 1만 6,700여km의 물길건설 및 보수 등 23만 6,000여정보의 논밭관개공사를 5월초까지 완결함
  - － 1,400여km의 강하천정리와 1,800여km의 제방보수, 수십km의 해안방조제공사는 마감단계
- (특성) 논밭관개공사를 질적으로 마쳐 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됨

그림 10 농림어업시설 건설·개발동향



- ① 전국, 각지 수지관늘이기공사 마감단계 진행
- ② 전국, 각지 관개체계완비 추진 중
- ③ 전국, 올해 계획된 관개물길공사 기본적으로 결속
- ④ 강원도, 문천시 양수장건설 마감단계 추진
- ⑤ 평안남도, 개천-태성호 관개물길 대보수공사
- ⑥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양수장 건설중
- ⑦ 남포특별시, 관개시설 개선 공사 중
- ⑧ 남포특별시, 관개공사 마감단계 추진
- ⑨ 평안남도, 수안정보 논밭 관개공사 진행
- ⑩ 평안북도, 각 시군 물길가시기와 확장공사 진행
- ⑪ 함경남도, 고원군 염소목장 신축 진행
- ⑫ 황해남도, 냉습지 개량 사업 추진
- ⑬ 황해남도, 강령호 물길공사 추진 중

- ① 전국, 토지정리돌격대 4700여정보의 토지, 규격포전으로 정리
- ② 전국, 올해 관개공사 목표 앞당겨 수행
- ③ 나선특별시, 부포오리공장 고니사 준공
- ④ 평안남도, 평성시 올해 계획한 발관개공사 완료
- ⑤ 평양직할시, 양묘장 준공
- ⑥ 평양직할시, 강동온실농장 완공
- ⑦ 함경남도, 단천시 염소분장, 젖소분장 완공
- ⑧ 함경남도, 올해 계획한 발관개공사 완료
- ⑨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군, 지방공업공장 원료기지 관개공사 완료
- ⑩ 황해남도, 윤곡축산농장 젖소분장 준공
- ⑪ 황해북도, 광천닭공장 조업식 진행
- ⑫ 황해북도, 상원군 올해 계획한 발관개공사 완공

## 9. 환경방재시설

- 강원도, 고산군 사방야계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4.21)
- 양강도, 수천m구간 가림천호안공사 완료(노동신문, 05.30)
- 평안북도, 정주시, 선천군, 동림군, 해안방조제 공사 진행(노동신문, 06.11)
- 평안남도, 해안방조제연구화공사를 위한 3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6.23)

### 가. 강원도, 고산군 사방야계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4.21, 4면)

- (내용) 고산군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해에 사방야계공사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 보다 높은 목표를 세움
  - － 료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이고, 여러가지 소공구 등을 질적으로, 충분히 마련해주는데 힘을 넣음
- (특성) 과학기술편집물시청을 통해 작업소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 제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나. 양강도, 수천m구간 가림천호안공사 완료(노동신문, 05.30, 4면)

- (내용) 양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천m구간의 가림천호안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 가림천지구의 면모를 바꾸고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함
  - － 도의 일군들은 가림천과 그 지류들을 현지답사하여 설계 및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고, 단위별로 작업과제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중기계들의 만가동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함
- (주제) 도급기관들과 보천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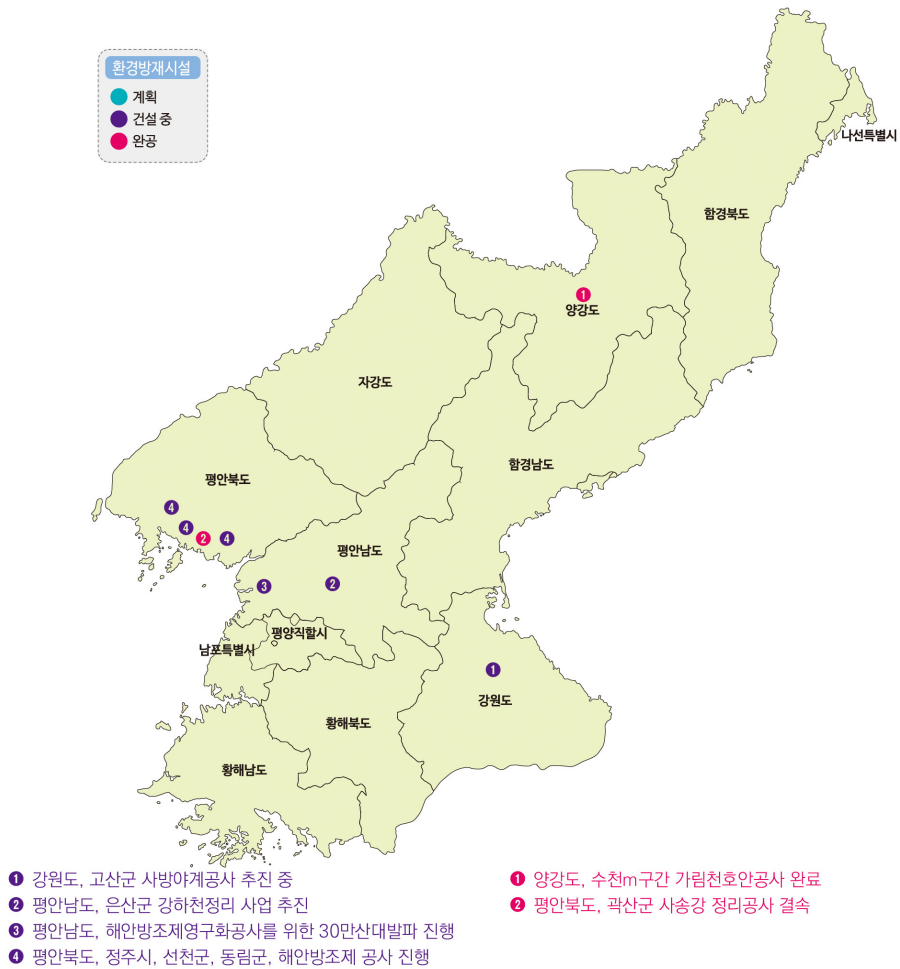
### 다. 평안북도, 정주시, 선천군, 동림군, 해안방조제 공사 진행(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해안선을 끼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재해성이상기후를 기정사실화하고 해안방조제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 도는 해안방조제의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세워 해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력과 자재보장 등을 앞세우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사의 질을 높이도록 함
  - － 정주시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계획된 상반기 공사과제를 결속하였고, 선천군과 동림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성토작업과 장석쌓기에 달라붙어 작업을 함
- (특성) 재해성이상기후 대비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선천군, 동림군

### 라. 평안남도, 해안방조제연구화공사를 위한 3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6.23, 4면)

- (내용) 평안남도의 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숙천군일대의 해안방조제들을 다지는데 필요한 막돌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대발파를 진행, 21일 30만산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이뤄짐
- (특성) 올해 계획된 숙천군일대의 해안방조제연구화공사과제를 잘 끝낼수 있는 담보 마련

그림 11 환경방재시설 건설·개발동향



### Ⅲ.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 1. 개요

- ‘개발’(191건)대상으로 지역별·유형별 보도 건수를 보면, 평안북도 22건, 평양직할시 21, 평안남도 21건, 함경북도와 황해남도 18건 순으로 집계됨

표 3 건설 사업의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sup>1)</sup>	공장 시설	도시 생활 <sup>2)</sup>	국토 지역 <sup>3)</sup>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평양직할시	21	0	0	1	13(11)	0	1	4	0	2	0
남포특별시	12	0	0	5	2(2)	0	0	2	0	3	0
나선특별시	6	0	0	1	3(2)	0	0	1	0	1	0
평안남도	21	0	1(1)	6	6(6)	1(0)	1	0	2	2	2
평안북도	22	0	0	1	16(16)	2(0)	0	0	0	1	2
자 강 도	16	0	1(1)	4	5(5)	0	1	4	1	0	0
황해남도	18	0	0	2	11(11)	2(0)	0	0	0	3	0
황해북도	13	0	1(1)	3	6(6)	1(0)	0	0	0	2	0
강 원 도	14	0	4(4)	4	3(3)	0	0	1	0	1	1
함경남도	18	0	0	5	7(7)	0	1	2	0	3	0
함경북도	12	0	0	2	4(4)	1(0)	0	2	1	1	0
양 강 도	3	0	1(1)	0	0(0)	0	0	1	0	0	1
기타 <sup>4)</sup>	16	0	0	2	1(1)	2(0)	0	3	2	6	0
계	191	0	8	36	77	9	4	20	6	2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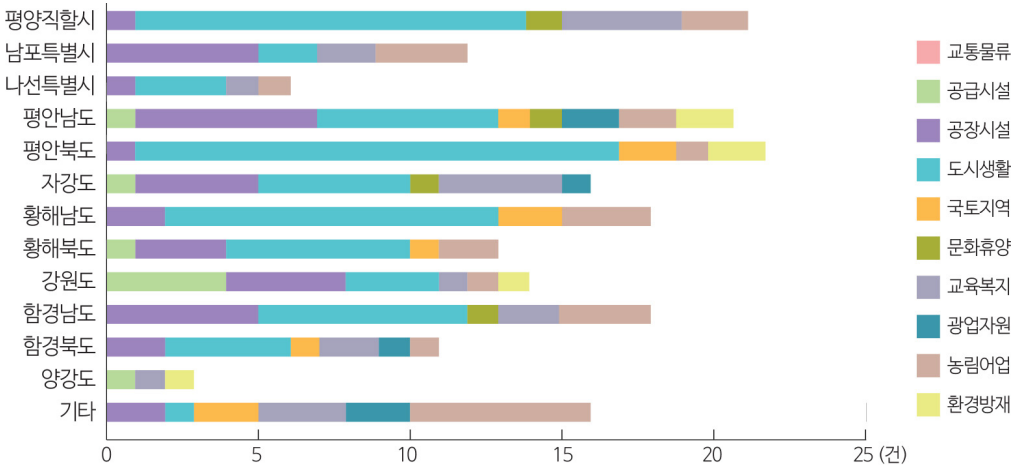
주1) 괄호는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 건수임

주2) 괄호는 도시생활시설 중 살림집 건수임

주3) 괄호는 국토지역개발 중 특구 건수임

주4) 전국 또는 3개도 이상 걸친 시설, 또는 위치미상 시설 건수임

그림 12 건설 사업의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 2. 지역별 현황

### 가. 평양직할시

- 총 21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3건, 교육복지시설 4건, 농림어업시설 2건, 문화휴양시설과 공장시설이 각 1건 분포
- 주요사업으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완공,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추진 중, 강동종합온실농장 완공,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 평양직할시 첫 표준약국 완공 등

### 나. 남포특별시

- 총 12건으로 공장시설 5건, 농림어업시설 3건, 도시생활시설 및 교육복지시설이 각 2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강서구역 덕흥농장 새집들이, 학생신발공장 준공, 과학기술도서관 개건 준공, 남포특별시 관개공사 마간단계 추진 등

### 다. 나선특별시

- 총 6건으로 도시생활시설 3건, 공장시설, 교육복지시설, 농림어업시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라진구역 무창동, 유현동 농촌살림집 완공, 부포오리공장 고니사 준공, 선봉어린이식료공장 개건 등

### 라. 평안남도

- 총 21건으로 공장시설 및 도시생활시설이 각 6건, 광업자원시설, 농림어업시설, 환경방재시설이 각 2건씩, 공급시설 및 문화휴양시설, 국토지역개발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성천군 등 지방공업공장 건설 추진 중, 평성건재공장 종합적 마감건재생산기지 공사 추진, 개천시 보부농장 살림집 입주, 평원군 운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해안방조제영구화공사를 위한 30만산 대발파 진행, 평원간석지 1차 물막이공사 진행 중 등

### 마. 평안북도

- 총 22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6건, 국토지역개발, 환경방재시설 각 2건, 공장시설, 농림어업시설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삼광축산농장 새집들이, 태천군 통흥농장 살림집 준공, 꾀산군 당상농장 120여동 살림집 준공, 꾀산군 사송강 정리공사 결속, 석화간석지 1차 물막이공사 결속 등

## 바. 자강도

- 총 16건으로 도시생활시설 5건, 공장시설, 교육복지시설이 각 4건, 공급시설, 문화휴양시설, 광업자원시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희천시 송지농장 살림집 입사, 만포시 고산농장 살림집 입사, 강계수의약품공장 준공, 강계학생신발공장 준공, 동신군 원탕료양소 개건 완료, 전찬군병원건설사업 추진 중 등

## 사. 황해남도

- 총 18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1건, 농림어업시설 3건, 공장시설, 국토지역개발 각 2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과일군 월사농장과 연광농장 살림집 준공, 재령군 신환포농장, 삼지강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강령군 평무농장 및 금동은정차재배원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해주학생교복공장 준공, 강령호 물길공사 추진 중 등

## 아. 황해북도

- 총 13건으로 도시생활시설 6건, 공장시설 3건, 농림어업시설 2건, 공장시설, 국토지역개발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은정축산농장 살림집 준공, 사리원시 문현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연탄군 월룡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황해북도 밀가공기지 건설 및 현대화개건 사업 추진 중, 사리원학생신발공장 준공, 광천닭공장 조업식 진행 등

## 자. 강원도

- 총 14건으로 공급시설, 공장시설 각 4건씩, 도시생활시설 3건, 교육복지시설, 농림어업시설, 환경방재시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이천2호군민발전소 착공, 회양2호 군민발전소 건설 착공, 이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 원림녹사화업 추진, 원산학생교복공장 준공, 문천시 교성리, 관풍동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강원도 과학기술도서관 건설 마감단계 등

## 차. 함경남도

- 총 18건으로 도시생활시설 7건, 공장시설 5건, 농림어업시설 3건, 교육복지시설 2건, 문화휴양시설 1건 분포
- 주요사업으로 단천시 검덕지구의 산업협곡도시 살림집 건설 추진 중, 단천시 대흥1동, 무학동 새집들이 진행, 흥원군 공덕리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함경남도 경소 마그네사 마감건재생산기지 건설 중, 함주군·금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추진 중, 북청군 혁명사적관 개관식 등

## 가. 함경북도

- 총 11건으로 도시생활시설 4건, 공장시설과 교육복지시설 각 2건씩, 농림어업시설, 광업자원시설, 국토지역개발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회령시 창태축산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길주군 남양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청진시 학생신발공장 건설, 함경북도 3대혁명전시관 건설 추진, 청진시 오중흥 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 추진 중, 무산광산연합기업소 50만산 대발파 진행 등

## 타. 양강도

- 총 3건으로 공급시설, 교육복지시설, 환경방재시설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양강도 수력발전소 건설 중, 삼자연혁명사전관 개관, 수천m 구간 가림천 호안공사 완료

## 파. 기타, 전국

- 총 16건으로 농림어업시설 6건, 교육복지시설 3건, 공장시설, 광업자원시설 및 국토지역개발 각 2건, 도시생활시설이 1건 분포
- 주요사업으로 전국 각지 수지관늘이기공사 마감단계 진행, 토지정리돌격대 4,700여정보의 토지, 규격 포전으로 정리, 전국, 올해 관개공사 목표 앞당겨 수행, 전국 각지, 교원양성부문 대학·농업대학 신축 및 개건 진행, 전국 수백개의 학교 및 유치원 개건, 전국 여러 간척지 건설장 발파 진행, 전국, 능률적 싸이로식 석탄저장고 건설 추진 등

## 3. 지역별 사업 단계별 분포

### 1) 개요

- ‘개발’ 사업 중 ‘계획’ 단계 0건, ‘건설’ 단계 80건, ‘완공’ 단계 111건임

### 2) 단계별 분포

#### 가. 계획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0건

#### 나. 건설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80건으로 평안남도 11건, 강원도 9건, 남포특별시·함경남도 각 8건, 함경북도 6건, 평양직할시·평안북도·자강도·황해남도 각 5건, 황해북도 4건, 양강도 1건, 전국에 걸친 시설은 13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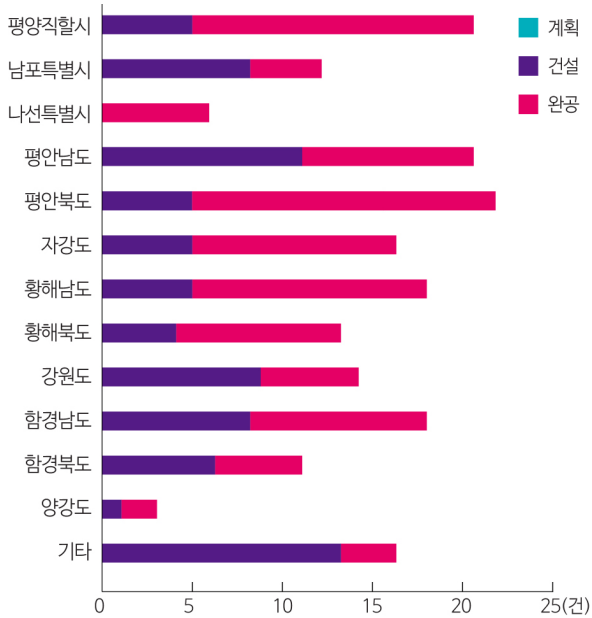
#### 다. 완공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111건으로 평안북도 17건, 평양직할시 16건, 황해남도 13건, 자강도 11건, 평안남도·함경남도 각 10건, 황해북도 9건, 나선특별시 6건, 강원도·함경북도 각 5건, 남포특별시 4건, 양강도 2건, 전국에 걸친 시설은 3건 분포

표 4 지역별 단계별 사업 분포

단계별 지역별	계	계획	건설	완공
평양직할시	21	0	5	16
남포특별시	12	0	8	4
나선특별시	6	0		6
평안남도	21	0	11	10
평안북도	22	0	5	17
자강도	16	0	5	11
황해남도	18	0	5	13
황해북도	13	0	4	9
강원도	14	0	9	5
함경남도	18	0	8	10
함경북도	11	0	6	5
양강도	3	0	1	2
전국/기타	16	0	13	3
계	191	0	80	111

그림 13 지역별 단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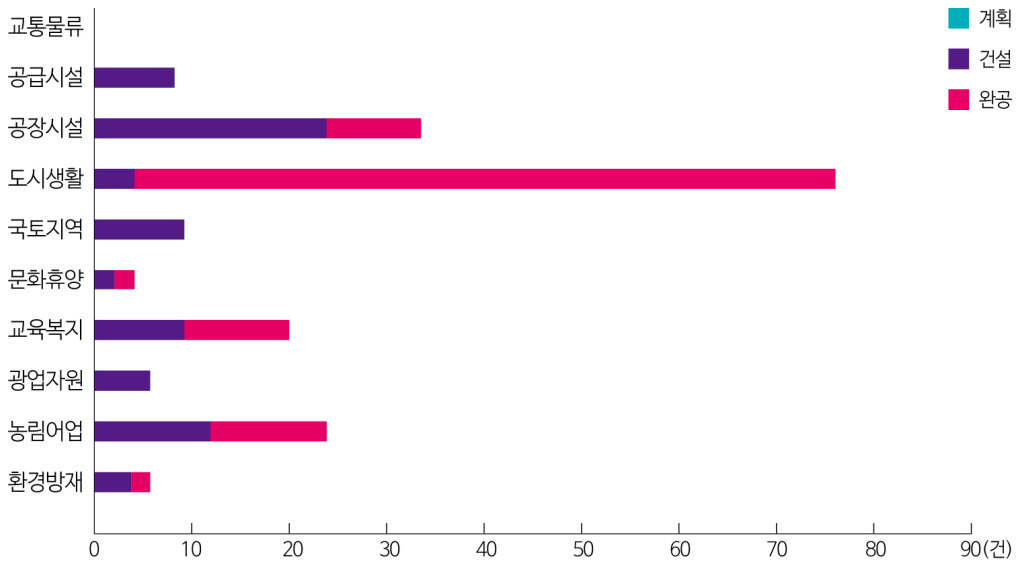
#### 4. 단계별 시설유형별 분포

- 계획단계는 총 0건
- 건설단계는 총 80건으로 공장시설 25건, 농림어업시설 13건, 교육복지시설 및 국토지역 개발 각 9건, 공급시설 8건, 광업자원시설 6건, 도시생활시설 및 환경방재시설 각 4건, 문화휴양시설 2건 순으로 분포
- 완공단계는 총 111건으로 도시생활시설 73건, 농림어업시설 12건, 공장시설 및 교육복지시설 각 11건, 문화휴양시설 및 환경방재시설 각 2건 순으로 분포

표 5 단계별 시설유형별 분포

유형별 단계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계획	0	0	0	0	0	0	0	0	0	0	0
건설	80	0	8	25	4	9	2	9	6	13	4
완공	111	0	0	11	73	0	2	11	0	12	2
계	191	0	8	36	77	9	4	20	6	25	6

그림 14 단계별 시설유형별 분포





---

## PART 4

# 종합 및 시사점

Comprehension and Implications





## I.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예산결과와 2024년 국가 예산 계획에 대한 보고진행. 1,2분기 농촌살림집 건설 실적은 18,000여 세대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준임. 살림집을 포함하여 지방·농촌건설에 필요한 각종 건재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지역별 마감 건재 생산토대를 마련. 지방의 발전과 자력강생을 위한 일환으로 지방공업공장을 전국 시·군에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발표. 최근 대거 건설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 살림집 관리 및 운영 체계 구체화를 위해 기존 「살림집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살림집관리법」 발표. 중평온실농장과 련포온실농장에 이어 수도 평양에 한층 현대적·과학적 온실 농장인 강동종합온실 준공

### 1.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과 및 2024년 국가 예산

-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산 보고 진행
  - 2024년 1월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2023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2024년 국가 예산을 보고함
-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의 주요 내용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당면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
- 2024년 국가예산 계획의 주요 내용
  - 군사적 잠재력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투자 집중으로 지속적 발전 추동
  - 국가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2.7% 인상,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3.4% 증가 계획
-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1% 내외 증가율로 유지되던 국가예산증가율이 2024년에는

2~3% 수준으로 계획

- 2023년 높은 지출증가율을 배분했던 농업에 지난해 대비 0.1% 늘려 배분, 농촌건설, 농업생산환경 개선 등, 관련된 건설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
- 높은 지출증가율 배분한 과학기술부문, 사회주의문화부문도 관련 시설의 조성사업 활성화 예상

## 2. 2024년 1,2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 평양시 화성지구 2단계(림흥거리)와 서포지구(전위거리) 사업 준공
  - 평양시에 5년간('21~'25년) 5만세대, 매년 1만세대 살림집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4년째 맞이.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을 준공(2024.04.16)하고, 3단계 사업 진행 중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2단계 건설사업 진행 중
  - 2021~2025년, 5개년 동안 검덕지구 2단계 사업,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
  - 2024년 초, 단천시 대응 1동, 무학동에 1천여 세대 소층, 다층 살림집 완공, 룡천동에도 선정마을 완공 보도
- 2024년 1,2 분기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 현황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12.27.~31) 이후 추진한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은 평양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추진
  - 2024년 1,2분기 기간에 60여 개 농장에서 18,000여 세대 완공. 지금까지 완공, 마감단계, 진행 중인 모든 농촌살림집은 113,700여 세대
- 전국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배 수준의 실적을 보임
- (시사점) 살림집 건설의 '물량 증가'와 함께 '사업 범위 확대', '제도 정비' 추진. 살림집 사업은 '목표'가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고, 필요한 '자원'(시멘트, 노동력 등)이 자체 조달 가능하여, 당분간 지속 성장 또는 최소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3. 건재 생산 기반 현황과 기술개발 동향

- 건재 생산 관련 동향
  -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면서 건설자재 부문의 생산 확대를 요구하였음
  - 전국 각지에서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지방발전정책 실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체의 건재생산토대 강화에 있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
  - 최근 재료적 측면에서는 경소마스네샤 건재판을 비롯, 경소마그네샤에 대한 언급이 다수
  - 최근 구체적 건재 생산 사례로는 평양시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대한 건재 조달의 경우 김책제철련합기업소(함경북도 청진시)가 철판과 선철을,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공사(평안남도 천리마군)는 환강과 철망, 형강을 보장하고 있음

- 건재 생산 인프라 현황
  - 북한 전역에 274개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중 폭넓은 건재 종류를 포함하는 '벽돌, 타일, 기타 건재' 부문이 135개로서 절반을 차지함
  - 시멘트 제조 공장은 전체의 25% 수준인 68개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황해북도 20개가 위치하고 있음
  - 벽돌, 타일, 기타 건재를 생산하는 공장은 평양직할시,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순으로 해당 공장이 많았음
- 건재 관련 최근 기술개발 동향
  - 건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 생산방식, 자재 절약 공법 등에 대한 기술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음
  - 2022년 발간 「기술혁신」에 포함된 문헌 중 건설 관련 논문을 별도로 정리하고, 건재를 중심으로 기술 내용을 간략히 검토한 결과, 건설, 수송, 기계, 전자, 건재, 경공업, 화학 등에 대해 총 51건이 건설과 관련이 있었고, 자재(건재)와 관계된 것은 총 15건이었음
- (시사점) 건재 생산 인프라 현황 및 최근 기술개발 동향은 북한의 건설·개발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초자료 임. 따라서 향후 수요 충족 관점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 주요 공장을 포함하여 개별 공장의 세부적 생산 품목과 해당 제품의 생산능력 확인
  - 각 살림집의 유형별로 소요되는 건재 종류와 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시군 단위에서 집계한 후 공급능력과 비교

#### 4. 《지방발전 20x10 정책》

-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발표와 개념, 대상지역
  -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후 불과 보름만에 시정 연설,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 이념에 배치 언급
  - 농촌진흥을 위한 정책과는 별도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10년간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
  - 김화군 경험에 기초하여 당에서 책임지고 매 군에 자금, 노력, 자재를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적 지도사업체계를 정립
  - 올해 대상 20개 시·군으로 숙천군, 성천군(평남), 구성시, 운산군, 구장군(평북), 재령군, 은천군(황남), 연탄군, 은파군(황북), 금야군, 함주군(함남), 경선군, 어랑군(함북), 김형직군(양강), 우시군, 동신군(자강), 고산군, 이천군(강원), 남포시 온천군, 개성시 장풍군 선정

- 지방공업공장 건설 진행
  -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2.29.일자 1면): 김정은 참석·연설, 지방발전정책 천명 후 첫 테이프
  - 구성시, 숙천군, 은파군, 경성군, 어랑군, 온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3.07.일자 3·4면)
  - 구장군, 운산군, 연탄군, 은천군, 재령군, 동신군, 우시군, 고산군, 이천군, 함주군, 금야군, 김형직군, 장풍군에서 연이어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3.11.일자 1면)
  - 노동신문 06.17.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20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 골조공사 기본 결속
- (시사점) 농촌진흥, 농촌살림집 건설과 더불어 지역발전 및 지방도시 건설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지방공업공장 건설 및 운영을 통해 김정은식 국토·지역개발의 방향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됨
  -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이행 성과와 실질적 운영 성과에 따라 향후 북한 경제 발전의 수준과 인민생활 질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5. 「살림집관리법」 전면 개정

- 「살림집법」 vs. 「살림집관리법」
  - 「살림집관리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10.19. 개최)에서 심의 채택됨
  - 대부분 기존 「살림집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불비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보완, 구체화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기존 「살림집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령을 대체한 것으로 보임
- 2022년 기준 「살림집법」과 달라진 주요 내용
  - (추가) 준공된 살림집을 살림집관리기관에 넘겨줄 때 필요한 추가 인계문건, 관리대상이 다른 살림집 이관·인수 시 추가 규정, 용도변경 살림집의 배정, 이용허가증의 일원화, 살림집 보수를 위한 기술 감정 규정 명확화, 철거 세대 대책 추가, 살림집 관리에 있어 국가와 담당 주체의 책임성을 강조 등
  - (수정/보완) 살림집등록정보고의 체계화, 살림집 배정원칙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이용허가 취소 기준, 살림집 꾸리기 관련 구체적 표현 추가, 살림집 사용료 지불 규정, 살림집 이용 시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 살림집 구조·용도 변경 승인 주체 등
- (시사점) 북한은 2021년초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수립 이후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살림집 건설에 매진하고 있음. 살림집 건설이 확대되면서 입사 대상 인민들, 기존 살림집이 철거되는 인민들 등의 민원, 담당기관과 인민 사이의 갈등이 종종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
  - 법 전면 개정을 통해 살림집 시설물 관리 체계 구체화 및 책임성 강화, 살림집 입사·거

주·이사 등에서의 혼란 방지, 사회문제 해결과 결부된 살림집 정책 제시, 증가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 규정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6. 강동종합온실 준공

- 강동종합온실 건설 목표와 조성 개요
  - 2019년 중평남새온실농장 및 2022년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에 이어, 군 공항을 활용 해 평양시와 수도권 인구에 공급할 채소와 식량 생산처로서 2023년 2월 15일 착공
  - '인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 목표 설정, 국가 최종대사로서 현대적 이고 실용성이 확보된 시설로 조성할 계획을 밝힘
  - 농장 전체 면적 260여정보(약 260만㎡), 연면적 120만㎡, 건축물은 약 1,050여동으로 구성
  - 채소 생산을 위한 온실은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 등이 배치
  - 온실 외 탁아소, 유치원, 학교, 종합진료소 등의 공공건물과 약 1,200여 세대의 다층, 소층, 다락식살림집 포함
- 온실 관련 도입 기술 수준
  - 기존 온실농장과 비교 시 유리수경온실 다수 포함
  - 영양액 공급 및회수관로, 탄산가스공급관로와 지열수, 열망관로 등을 비롯 수백만m의 내외부 망관로 조성 완료
  - 원통형남새재배장치는 재배틀이 광원을 중심으로 일정한 주기로 회전하는 방식, 영양 물질흡수률과 빛 이용률이 높아 작물 재배에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
  - 또, 일조량,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공급량 등을 정밀 조정가능한 시스템 도입으로 작 물 재배 기간을 단축, 작물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방식 적용
  - 반구형유리수경온실은 특이한 디자인과 더불어 사다리형회전식다층재배장치와 적외선 등을 이용한 다층재배장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배장치들이 설치. 연 10회작 이상의 채 소 재배가 가능하여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사점) 기존 대형 온실농장과 비교 시, 농촌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대규모 농업시설이라는 측면은 동일하나, 가장 큰 차별점은 수도(평 양시)에 위치한 입지적 측면과 농장의 규모, 시설 및 재배법의 과학화·지능화 등 한 단계 발전된 시설로 판단됨
  - 강동종합온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장된다면 이후 운영과 그 성과에 따라 북한 온실농업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
  - 한편, 강동종합온실농장 사례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비군사적 교류·협력 방안으로 주요하게 손꼽히는 스마트팜 기술 + 주변배후 지역 개발 모델 분야로 남북 상호 간 관심 이 높을것으로 예상

## II.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2024년 1,2분기 집계결과 분석대상 사업기사 건수는 191건으로 지난해 동기(160건)에 비해 약 1.2배 정도 증가. 시설유형별로는 도시생활시설 중 살림집 관련 기사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된 농촌살림집 건설에 대한 것으로 파악됨. 지역별로는 평안북도 22건, 평안남도과 평양직할시가 각각 21건 순으로 많이 집계됨

### 1. 기사 건수 191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2배 수준으로 증가

- 분석대상 사업 기사건수가 191건으로, 전년 동기(160건)에 비해 1.2배 정도로 증가. 2023년 3,4분기(252건)에 비해서는 약 0.7배 수준
  - 대체적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계획된 공사 및 실적이 다수 발표되는 경향이 있어 직전 분기 집계수에 비해 저조한 건수이나, 상반기에 해당하는 1,2분기 건수로는 2021년 97건, 2022년 141건, 2023년 160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상반기 기간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을 추진하는 기간으로 주로 건설중인 기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이번 1,2분기 기사는 191건 중 111건이 완공 기사로, 상반기 내 단기간에 완공이 가능한 살림집 건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과 지난해 건설 목표 사업이 올해 초 완공된 후 보도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

### 2. 지역별 분포를 보면, 평안남북도와 평양직할시에서 21건 이상 집계

- 평안북도에서 22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 건수가 집계되었으며, 평안남도와 평양직할시에서 각각 21건으로 많은 기사수 집계
  - 평양직할시를 중심으로 평안남북도의 건설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농촌)살림집, 공업공장 관련 사업이 다수 추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평안북도의 경우 22건 중 도시생활시설(살림집) 사업이 16건으로 약 70% 이상 차지
  - 평양직할시 역시 21건 중 살림집관련 사업이 13건으로 화성지구, 서포지구 등 도시 내 살림집 외에도 도시 외 지역 농촌살림집도 다수가 함께 추진된 것을 확인

### 3. 유형별 특징 종합

- (교통물류시설) 이번 1,2분기에는 한 건도 집계되지 않음
- (공급시설) 총 8건(발전시설 8건)으로 강원도 고성군, 회양군, 이천군 군민발전소 건설 추진
- (공장시설) 총 36건으로 도시생활시설(살림집) 다음으로 많은 기사 건수가 집계
  - 전국적으로 지방공업공장 신설과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학생교복공장, 학생신발 공장 등 경공업 공장도 건설 중

- (도시생활시설) 총 77건으로 건으로 이 중 74건이 살림집 관련 기사 집계
  - 지난해에 이어 전국의 농촌살림집 건설 및 완공 소식이 다수의 기사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 사업 완공,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 함경남도 단천시 2단계 살림집 건설 사업 등이 있음
- (국토지역개발) 총 9건의 기사가 있었으며,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등 서해안 각 지역에서 간석지 건설사업이 진행 중
- (문화휴양시설) 총 4건으로, 기간 대비 집계된 기사 건수가 저조한 편. 평양시 평양인형극장이 지난분기에 이어 계속 건설 중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자강도 강계승마구락부 준공, 함경남도 도체육촌 건설 중 등이 있음
- (교육복지시설) 총 20건으로 주요사업은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 평양시 고려약공장들 개건현대화 마감단계, 남포시 과학기술도서관 준공 등
- (광업자원시설) 총 6건으로 주요사업은 평안남도 순천석회석광산 20만산 대발파 진행,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사업소 50만산 대발파 진행 등
- (농림어업시설) 총 25건으로 도시생활시설과 공장시설 다음으로 많았음. 주요 사업으로는 평양직할시 강동종합온실 준공사업과 전국적으로 상반기 농사철 대비 관련 농업시설 건설 사업이 다수 집계
  - 그 외 함경남도 단천시 염소분장, 젓소분장 완공 사업 등이 있음
- (환경방재시설) 총 6건이었으며, 평안북도 해안방조제 공사와 사방야계공사 등이었음

### Ⅲ. 1,2분기 종합 시사점

#### 1. 전국적으로 농촌살림집 중심의 살림집 건설과 평양시 살림집 건설 지속

-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살림집 건설에 대한 보고 건수가 많았음
  - 1,2분기 중 건설 중 또는 완공된 물량과 더불어 작년 목표량이 올해 초 완공되어 1,2분기 보도된 기사건수가 더해져 예년대비 관련 분야 기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지방 농촌살림집 뿐 아니라 평양시 외곽지역 농촌살림집, 농장 내 살림집 완공 소식이 다수 보도되었으며, 평양 도심에서는 화성지구 2단계 완공 및 3단계 1만세대 건설 추진이 1,2분기에 진행됨
  - 살림집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3배 수준의 실적 달성
  - 최근 「살림집관리법」 개정 또한, 건설·완공되는 살림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새로운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임
  - 다만, 이러한 살림집 분야 성장과 법제도 개선 노력이 장기적인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것인지는 불확실함



## 2. 《지방발전 20x10정책》추진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 확대

- 지방 발전과 자력갱생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공업공장을 전국 시·군에서 매년 20개 지역을 10년 간 순차적으로 추진
  - 새로운 경제발전5개년계획 이후 시·군의 자립적 발전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국가 발전을 독려하는 기치를 당중앙뿐 아니라 시·군 단위까지 넓히려는 의도로 판단
  - 올해 대상 지역인 20개 지역 모두에서 상반기 내 지방공업공장 건설 및 개건 사업 추진에 돌입했고, 이를 포함한 공장시설 관련 기사 다수 집계
  - 다만, 지방공업공장 사업 추진으로 평양 내 공장건설 활동 상대적 저조

## 3. 전국에서 도과학기술도서관 준공

- 남포특별시, 자강도, 강원도에서 과학기술도서관 개건 준공 소식 보도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모든 산업 영역에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관찰되어왔음
  - 특히 북한은 농업기술의 중요성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2024년 1분기에 완공된 강동종합온실은 수도 평양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채소 재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다양한 농업기술이 적용된 사례로 꼽힘
  - 이와같이 과학기술 개발 및 적용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각 도별 '과학기술도서관' 개건 및 현대화는 과학기술 활용의 기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개건 준공된 도서관에는 종합정보시스템과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이 구축되어 있고, 강의, 토론, 전시 기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4.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 대비 차원에서 관개체계 정비 강력히 집중

-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더불어 농촌발전, 농업기술의 선진화, 기후변화 대응형 농업생산량 관리 등에 최근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2분기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기간으로, 매년 1,2분기(특히 2분기)에 농림어업부문 보도 기사 건수가 전체 기사 건수에서 많은 비중 차지
  - 올 해 1,2분기에도 농림어업부문 기사는 25건으로 도시생활시설(살림집), 공장시설 다음으로 많은 기사가 집계된 부문임
  - 특히 이번 상반기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기후변화 영향(호우, 홍수 등)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관개체계 정비에 집중하는 모양새
  -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관개공사 목표를 앞당겨 수행 완료했다는 기사 다수 집계
  - 각지 일군 및 근로자들, 인민군장별들이 4,000여개소 양수장 건설, 3,500km의 관늘이기 공사, 7,500여개소의 지하수시설, 2,100여개소의 관개시설 건설 및 능력확장, 1만 6,700여km의 물길건설 및 보수를 5월초까지 완결하였다고 보도



---

# 부 록

A p p e n d i x



# 조사 개요

## I. 조사 목적과 범위

이 조사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북한연구센터에서 연중 진행하며, 조사 결과는 분기별 보고서와 연간 종합보고서로 발간함

### 1. 조사 목적

- 최신 북한지역 인프라 개발·계획 및 제도 동향 정보 구축
  - LH와 유관 기관, 일반국민들에 대한 북한 건설·개발 관련 정보 제공
- 남북경협사업 추진주체로서 LH의 역량 확보
  - 남북관계 개선시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
  - 대북사업 관련 경영·정책에 대한 적시 지원

### 2. 조사 범위

- 내용적 범위
  - 북한 인프라·시설 개발 동향
  - 북한 개발 관련 계획·제도 동향
  - 주요 조사대상 분야: 산업, 교통물류, 에너지, 자원(지하자원, 수자원), 주택, 도시·지역 개발 등
- 시간적 범위
  - 2024년 1,2분기(1~6월)
- 공간적 범위
  - 북한지역(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 등도 포함)
  - 공간분석 단위: 도, 시, 군과 가능한 범위에서 구역 등 하위 행정구역 포함

## II. 자료 출처와 기초자료 입력·분류 방법

### 1. 자료 출처와 입력방법

#### □ 자료 출처

- 1차 자료: 노동신문(2024년 1월~6월 발간)
- 2차 자료: 각종 국내외 언론과 동향자료
  -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활용

#### □ 기초 Data 입력방법

- 조사대상 자료의 해당 기사를 엑셀 파일로 입력하여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 Data로 구축
- 시설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 자료원 등 입력<sup>1</sup>

표 1 기사 내용 입력자료 양식

코드	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내용 (기사)	지역			자료원					비고
	대	중	소	기사	대표	구분	위계 단계	세부 사업	규모 (면적 등)		시도	시군	장소	출처 (북)	출처 (남)	기사 제목	일자	수록 면	

### 2. 분류 기준과 내용

#### □ 유형분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의한 ‘기반시설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 분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위 참조 대상 중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시설은 아니지만 개발동향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토지역개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하나의 기사에서 특정 도시, 지역, 농촌지역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수의 개발사업을 다루는 기사는 편의상 ‘국토지역개발’로 분류함

<sup>1</sup> 기사의 기초사항 입력은 <이석기·이승엽(2014), 「2000년대 북한기업 현황 : 북한 공식매체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의 입력방법을 응용하되, 시설유형분류와 사업내용 등은 분석대상에 맞게 새롭게 구성함.

표 2 유형 분류표

대	중	소	비고
1. 교통물류시설	도로	고속도로, 1급도로, 일반도로(2급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 기타	
	철도	일반철도, 철도시설, 기타	
	공항	민간공항, 군공항, 기타	
	항만		
	유통업무설비	창고,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집배송시설, 기타	SOC 유통·공급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기타	주차장, 기타	
2. 공급시설	발전시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변전소, 발전소, 기타	
	유류시설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기타	
	수도가스시설	수도시설, 가스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기타	
	기타		
3. 공장시설	음식료	음식료(10,11,12), 섬유 의복(13,14,16), 목재가구(16,32), 종이출판(17,18), 석유화학(19, 20,21,22), 비금속소재(23), 철강(24), 기계(25,29), 전기전자(26,27,28), 운송장비(30,31), 기타(33)	한국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해당 중분류 기준
	섬유의복		
	목재가구		
	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4. 도시생활시설	살림집	단독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숙박시설	호텔, 기타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기타	
	상업시설	백화점, 상점, 기타	
	기타		
5. 국토지역 개발	국토개발		북한 전역의 개발·계획
	지역개발		광역 개발·계획
	도시개발	평양시, 지방도시, 기타	
	농촌개발		도시 이외 중소지역개발
	특구개발	중앙급, 지방급	
	기타	간척지, 기타	

대	중	소	비고
6. 문화휴양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기타	SOC 공간시설
	문화시설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기타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기타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등 관광지 부수 시설, 기타	
	기타		
7. 교육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의료보건시설	종합의료시설, 병원, 보건소,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포함
	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장례식장, 도축장,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위생시설
	기타		
8. 광업자원시설	연료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기타	
	금속광업	철광업, 비철광업	
	비금속광업	토사석광업, 기타비금속광업	
	기타		
9. 농림어업시설	농업시설	작물재배, 축산업, 기타	농업용 물길조성사업 포함
	임업시설	영림업, 벌목업, 채취업, 기타	
	어업시설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기타	
	농어업단지	재배단지, 축산단지, 임업단지, 수산단지, 기타	
	기타		
10. 환경방재 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설비, 방조설비, 기타	SOC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타	SOC 환경기초시설
	기타		

- 사업명

- － 기사 : 기사에 나타난 사업의 명칭

- － 대표 : 동일 사업명 기사별로 명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명칭 부여

- 사업내용 : 사업내용은 제도, 계획, 개발에 대해 각각 위계와 단계별로 구분



표 3 사업내용의 구분과 위계/단계 세부 내용

구분	위계, 단계
제도	당지침, 법규, 내각지침, 기타
계획	당, 내각, 부처, 지방, 기타
개발	계획, 건설, 완공, 운영, 미상

#### □ 동일 기사 내 복수 지역 출현 시 통계(건수) 처리

- 「북한건설·개발동향」은 기사 건수를 중심으로 계량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료 집계 편의상 하나의 기사에서 2개 지역(광역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루고 있을 경우 각각 지역별로 집계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건수에 반영함
  - － 1건의 기사에서 2개 이상 도에 걸친 경우는 기타(전국)으로 분류하여 집계함

#### □ 서술방식과 맞춤법 적용

- 사업 관련 사실(fact)을 위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기사 내용을 최대한 살림
  - － 수사적 표현과 선전문구 등은 삭제하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 － 가독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 한국의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적용
- 고유명사 중 많이 알려진 경우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나(예, 량강도 → 양강도), 일반 용어나 표기법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사 원문을 살림
  - － 한국과 많이 다른 용어는 각주로 해설을 부기하였음

### Ⅲ. 분석자료 추출과정

#### 1. 1,2분기 1단계 추출 자료와 출처별 분포

- 유형분류 기준에 적합한 관련 기사를 1차 자료에서 411건을 추출함
- 원 출처는 노동신문임

#### 2. 2단계 추출 과정(분석 자료)

- 1단계 추출 자료 411건에서 2단계로 최종 분석대상 ‘개발’ 기사자료 191건을 추출
  - － 같은 사업 관련 기사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 기사 1건만 채택하고 다른 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
  - － 생산현장의 생산계획 초과달성 등 성과 홍보 기사의 경우, 시설 위치 파악의 유용성은 있으나, 시설 건설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료 집계에서는 제외

표 4 추출 자료 건수

출처	1단계 추출 기사(건)	2단계 추출 기사(분석자료/건)
노동신문	336	185
조선신보	75	6
계	411	191

표 5 2단계 추출 자료 시설유형별 분포

유형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191	0	8	36	77	9	4	20	6	25	6

# '24년 1,2분기 북한건설 · 개발동향 자료

## I. 공급시설

### 1. 발전시설

#### □ 강원도, 군민발전소 건설 추진(노동신문, 01.11, 4면)

- (내용)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발전소건설에서 전진을 이룩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음
  - － 도에서는 지난 시기의 발전소건설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함께 나타난 편향을 분석·총화하고 현재 두개의 군민발전소건설을 올해 중에 완료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음
- (주체) 강원도당위원회, 강원도 일군, 근로자들
- (위치) 강원도 고성군, 회양군

#### □ 양강도, 수력발전소 건설 중(노동신문, 02.04, 4면)

- (내용) 지역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력발전소가 건설 중임
  - － 도에서는 올해중에 수천m구간의 도강굴진을 끝내는것을 무조건 관철하고자 함
  - － 며칠전 발전소건설장에 탄원한 도급기관들과 혜산시의 많은 당원들로 건설력량이 편성되어 출발모임이 있었는데, 도의 책임일군들은 올해 목표점령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자고 격려함
- (주체) 양강도당위원회, 양강도책임일군
- (위치) 양강도

#### □ 강원도, 이천2호군민발전소 착공(노동신문, 02.07, 4면)

- (내용) 강원도 이천2호군민발전소의 착공식이 2월 6일 진행됨
  - － 임진강류역에 능력이 큰 또 하나의 발전소가 건설되면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주민세대들에 필요한 전기를 보다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됨
- (위치) 강원도 이천군

□ 강원도, 회양2호군민발전소 건설 착공(노동신문, 02.08, 5면)

- (내용) 강원도 회양2호군민발전소건설 착공식이 2월 7일 진행됨
  - － 도에서는 물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제기하고 설계와 시공력량편성, 건설장비, 기공구보장대책을 선행함
- (위치) 강원도 회양군

□ 평안남도 북창군,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언제증축공사 추진(노동신문, 04.01, 4면)

- (내용)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영구재처리장 언제증축공사를 위한 대발파가 진행됨
  - － 수십차례의 현지답사와 기술협의회를 통하여 효율적인 발파구역을 확정하고 공정설계를 선행시키는것과 함께 설비, 자재보장을 제때에 따라세우면서 굴진작업에 력량과 수단을 집중함
  - － 로동자, 기술자들은 암석군기와 단면에 맞는 천공깊이를 보장하고 발파순환당 효율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소갱굴진과제를 짧은 기간에 결속함
  - － 발파공들도 암질조건에 따르는 화공품의 장입과 다지기, 도화선늘이기 등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발파의 성공을 믿음직하게 담보함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 황해북도 신평군, 신평발전소건설 성과 지속 확대(노동신문, 04.10, 4면)

- (내용) 신평발전소건설을 위해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더욱 분발한 가운데 물길굴콩크리트피복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건설과 발전기실건축공사를 위한 기초굴착작업이 결속을 가까이하고 있음
  - － 신평발전소건설은 지역의 전력문제를 풀고 폭우와 큰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
  - － 도에서는 물길굴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올해안으로 콩크리트피복공사를 전부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함
  - － 발전소건설지휘를 맡은 일군들은 물길굴콩크리트피복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들에 좌지를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대책하고 있음
  - － 은파군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맡은 구간의 물길굴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 중대별, 소대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앞선 작업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일정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함
  - － 곡산, 서흥, 신계군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기세좋게 전진함
  - －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언제기초굴착작업을 해체짐
  - － 한편 기초굴착작업이 끝나는 즉시 언제타입공사에 진입할수 있게 혼합장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내딛

－ 발전기실건축공사를 맡은 레성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매일 작업과제를 수행함

- (주체) 은파군대대, 황해북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 레성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 (위치) 황해북도 신평군

#### □ 자강도 우시군, 우시3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우시3호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로, 발전소건설이 끝나면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게 되고, 강을 다스려 큰물피해를 최소화할수 있게 됨
  - － 군에서는 지난 시기 중소형발전소들을 계단식으로 일떠세운 경험에 기초하여 우시3호 발전소를 자체로 건설할 목표를 세움
  - － 특히 올해중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건설되는데 맞게 빠른 기간에 공사를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 있음
- (주체) 우시군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자강도 우시군

#### □ 강원도, 고성군민1호발전소 건설 진행(노동신문, 06.14, 5면)

- (내용) 고성군민발전소 완공의 시각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그치고 있음
  - －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고성군민발전소건설을 위한 방대한 언제쌓기와 물길굴공사, 발전기실건설 등을 다그쳐 일자리를 크게 냄
  - －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은 고성군민1호발전소 압력철관로공사로 기성관례대로 추진한다면 2년은 실히 걸리는 이 공사를 발전소건설자들이 반년 남짓한 기간에 해제킴
  - － 룡성로동계급은 대형압축기생산을 마지막단계에서 본때있게 진행
- (주체) 도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발전소건설자들
- (위치) 강원도 고성군

## II. 공장시설

### 1. 음식료

#### □ 전국, 밀가공기지 건설 및 현대화개건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4.18, 4면)

- (내용) 전국 각지에서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밀가공기지들을 일떠세우고 있음
  - － 식생활문화를 변화시키고자 농업부문에서는 정보당 밀수확고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중임
- 얼마전 강령군과 신계군에서 수만t능력의 현대적인 밀가공공장건설이 시작됨
  - － 수매량정성과 밀가공기지건설연합지휘조에서는 해당 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건설을 제때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내딛
- 황해남도에서는 건설에 필요한 굴착기와 삽차, 대형화물자동차들을 보장해주고 건설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전개
  - － 지난 10일 착공이래 불과 며칠도 안되는 기간에 기초굴착공사를 끝내고 기초콘크리트 치기에 진입하여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공사성과를 확대함
- 황해북도에서도 신계군에 건설하는 밀가공공장을 빠른 기간안에 일떠세울 목표를 세우고 료전기재들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앞질러가며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감
- (위치) 황해북도, 황해남도

#### □ 남포특별시, 즉석국수공장 건설 중 (노동신문, 05.30, 4면)

- (내용) 남포시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즉석국수공장을 일떠세움
  - － 새로 건설되는 즉석국수공장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공정이 그르히 갖추어짐
  - － 시안의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짧은 기간에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적극 합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로력조직을 면밀히 하고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딛
  - － 현재 골조공사가 기본적으로 결속된데 이어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건축공사가 적극 추진되는데 맞게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는 사업도 밀고나감
- (위치) 남포특별시

#### □ 나선특별시, 선봉어린이식료공장 개건(노동신문, 05.31, 5면)

- (내용) 라선시 선봉구역에 선봉어린이식료공장의 개건되어 조업식이 5월 29일 진행됨
  - － 초고온살균기와 분쇄기, 교반기, 발효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을 갖춘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영양가높은 신젓과 빵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됨

- (주체) 라선시당위원회, 선봉구역의 일군들, 근로자들, 공장종업원들
- (위치) 나선특별시 선봉구역

## 2. 섬유의복

### □ 황해남도, 해주학생교복공장 준공(노동신문, 01.01, 8면)

- (내용) 해주학생교복공장 준공식이 12월 31일에 진행됨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 평안북도,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개건현대화 공사 추진(노동신문, 01.07, 4면)

- (내용)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개건현대화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
  - －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개건현대화공사는 연건평 수십만㎡에 110여개의 대상건설과 수만t능력의 종이생산공정확립, 리오셀섬유에 의한 제품생산공정의 구축 등 방대한 공사와 제임
  - － 대상건설과 초기기설치공사, 리오셀섬유시험생산 등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진행되는 속도에 뚜렷한 공사실적이 련이어 기록
  - － 특히 실무일군강습과 기공구전사회준비 등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한계단 높이고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들을 예단성있게 조직하는것과 함께 자재와 물자확보에 힘을 넣어 단계별공사계획들을 드팀없이 수행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앞질러가며 마련
- (규모) 연건평 수십만㎡, 110여개 대상, 수만t능력의 제품생산공정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 함경북도, 청진학생신발공장 건설(노동신문, 03.12, 5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청진학생신발공장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결속단계에 들어섬
  - － 도에서는 학생신발공장건설을 최상의수준에서 완공할 목표로 공사조직과 지휘를 전개
  - － 도에서는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신발생산에 필요한 설비제작을 동시에 내밀고, 기능공 양성사업도 중요하게 틀어쥐고 질 좋은 학생신발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움
  - － 지금 설비설치를 위한 사업이 추진 중임
- (주체) 함경북도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 전국 각도, 학생신발공장 건설(노동신문, 03.18, 4면)

- (내용)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생신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 평양시에서 학생신발공장건설이 계속되는데 이어 각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많은 대상공사를 적극 내딛
  - 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을 빠른 기간에 질적으로 끝냄
- 함경북도에서 학생신발공장건설이 결속단계에 들어섬
  - 라남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학생신발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해 분투
- 황해북도에서도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휘력량을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공장건설이 일정계획대로 진척되도록 함
  - 설비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 설계 요구를 철저히 지켜 제품의 질 담보
- 함경남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여러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학생신발공장건설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능공양성사업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룩되고 있음
- 강원도에서는 수십명의 로동자들을 류원신발공장과 원산구두공장에 보내여 그곳 기술자, 기능공들로부터 학생신발생산과 관련한 기술전습을 받도록 함
- 함경남도에서도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기능공양성사업이 강력히 실행되고 있음
  - 함흥구두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기 단위에서 기술전습을 받고있는 로동자들의 기능수준을 하루빨리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성심을 다함
- 이밖의 여러 도의 일군들도 새로 일떠서는 학생신발공장들의 기능공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최단기간내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사업을 옹운 방법론을 가지고 추진
- (주체) 전국 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
- (위치) 전국

#### □ 강원도, 원산학생교복공장, 원산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05, 4면)

- (내용) 강원도에서 원산학생교복공장과 원산학생신발공장 준공식이 6월 4일 진행됨
  - 원산시에 학생교복공장, 학생신발공장이 건설됨으로써 도안의 학생들에게 철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복과 맵시있고 질 좋은 신발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할수 있게 됨
  - 도당위원회에서는 학생교복공장과 학생신발공장건설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
  -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은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현대적인 설비들과 공정들을 갖춘 학생교복공장과 학생신발공장건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 남포특별시, 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05, 4면)

- (내용) 남포시에 학생신발공장이 준공되어, 6월 4일 준공식이 진행됨
  -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공장건설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강력한 시공력량을 편성하였으며 자재보장을 앞세워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심화함
  - 일군들과 건설자들, 공장종업원들은 앞선 공법을 적용,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을 질적으로 결속
  -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생산공정과 종업원들의 문화생활여건이 갖추어진 공장이 세워져 시안의 학생들에게 각종 구두와 운동신발을 원만히 생산·공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 마련
- (특성) 시인민위원회, 시지방공업관리국, 시무역관리국 등 여러 단위에서 공장건설 지원
- (위치) 남포특별시

#### □ 자강도, 강계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14, 4면)

- (내용) 강계학생신발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준공식이 6월 13일에 진행됨
  -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적극 내딛
  -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
  - 생산공정의 자동화수준이 높고 능력이 큰 학생신발공장이 건설됨으로써 도안의 학생들에게 각양각색의 운동신과 구두를 생산공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 함경남도, 함흥학생교복공장 준공(노동신문, 06.17, 4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학생교복공장을 일떠세우고, 준공식을 6월 16일에 진행함
  - 도에서는 현대적인 학생교복공장건설을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틀어쥐고 설비,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딛
  - 건설자들은 능률적인 시공방법을 일반화하고 각종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을 활용하면서 건축공사를 질적으로 결속하였으며 공장의 내외부를 현대적미감이 나게 일신함
  - 련관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공장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의 생산을 보장
  - 도안의 학생들에게 계절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교복들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음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 평안남도, 평성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21, 4면)

- (내용) 평성시에서 학생신발공장을 새로 일떠세웠으며, 준공식이 6월 19일에 진행됨

- 도당위원회에서는 공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고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선행시킴
-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적극 수용, 건축공사를 단기간에 결속
- 현대적인 설비들로 생산공정이 꾸려지고 훌륭한 생산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도안의 학생들에게 공급할 각종 신발을 원만히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 황해북도, 사리원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22, 5면)

- (내용)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사리원학생신발공장 준공식이 6월 20일 진행되었음
  -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도안의 학생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운동신과 구두를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됨
  -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은 시공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여 건축공사를 진행
- (특성) 도과학기술위원회 첨단기술제품제작소, 도공업기술연구소 등 여러 단위에서 신발 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수십종의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줌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3. 섬유화학

#### □ 전국, 화학공장 개건현대화 추진(노동신문, 01.18, 4면)

- (내용)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주체화대상공사에 계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평안북도의 많은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수십개 건설대상들의 건축공사기일을 계획보다 앞당기기 위해 분발력 발휘
  - 공사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들도 대상건설과 초지기설치공사, 리오셀섬유시험생산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감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촉매생산공정확립을 결속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생산공정을 일떠세우기 위한 생산건물건설에 박차를 가함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도 여러 생산공정을 전기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개조하는것을 비롯하여 현존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사업에 주력
  - 명간화학공장의 로동계급은 새로운 갈탄저온건류공정을 확립 사업에서 진전을 가져옴
  -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갈탄저온건류로건설하는 한편 질소분리기를 보수정비, 여러동의 생산건물에 대한 내부공사를 끝내기 위한 사업들 립체적으로 벌림
- (주체)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 노동자들
- (위치) 전국

#### □ 함경남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멜라민수지생산기지 건설 진행(노동신문, 06.13, 1면)

- (내용)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멜라민수지생산기지를 건설 중임
  - 건축공사가 기본적으로 결속된 지금 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제작과 조립에 역량을 집중
  - 60여종에 달하는 설비제작을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해 화학기계분공장을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여러 단위가 립체전을 벌리며, 설비부속품이 생산되는족족 그 조립도 동시에 진행
  - 연합기업소일군들은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건설을 내밀면서 생산을 담당할 기술자, 기능공양성사업도 함께 전개
  - 새로 조직된 멜라민직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새 공정의 기술적특성과 원리들을 배우고 있음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 평안남도 평성시, 벼모판종합영양제공장 준공(노동신문, 06.19, 4면)

- (내용) 평안남도에 평성벼모판종합영양제공장이 준공되어 6월 18일 준공식을 진행함
  - 설비의 국산화비중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원료의 분쇄와 혼합, 계량, 포장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된 공장이 건설되어 농장들에 벼모판종합영양제를 보장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
  -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에네르기, 로력절약형 생산공정을 목표로 건물형성안과 설계를 하고 건설장비들과 세멘트, 강재 등을 제때에 보장,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밑에 설비제작과 설치를 끝냄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4. 비금속소재

#### □ 자강도, 마감건재생산기지 건설 중(노동신문, 02.01, 3면)

- (내용) 자강도에서 농촌건설을 위해 지방원료에 의거하는 마감건재생산토대강화에 계속 박차
  - 올해부터는 농촌건설에 살림집들뿐 아니라 공공건물, 생산건물들도 포함시켜 건설하여야 하는것으로 하여 마감건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맞게 도에서는 현재의 건재기지들을 활성화와 여러가지 질좋은 건재품을 더 많이 개발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
  - 도에서는 강계시에 능력이 큰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를 본보기로 일떠세우고 있는데, 이미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색기와생산공정과 각종 규격의 수지관생산공정을 꾸려놓은데 이어 여러가지 건재를 더 많이 개발생산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치밀하

게 하고 있음

- 아크릴계칠감생산능력확장공사와 함께 기와칠감 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 또한 시, 군들의 마감건재생산단위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건재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음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 함경남도, 경소마그네사 마감건재생산 기지 건설 중(노동신문, 02.04, 4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마감건재생산기지 신규건설 및 능력확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특히 시, 군들에 경소마그네사를 리용하는 건재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벌려 목재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농촌건설에 필요한 건재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함
  - 도에서는 경소마그네사에 의한 건재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는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 기사업을 진행하고 시, 군들에서 그 성과와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함
  - 시, 군책임일군들이 자체의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힘있게 추진
  - 단천시, 함주군, 정평군, 함흥시 흥남구역이 경소마그네사에 의한 건재생산기지 조성에 선두인데, 이 지역들에서는 지금 질제고를 첫자리에 놓고 여러가지 문양으로 장식된 출입문을 비롯하여 경소마그네사를 리용한 건제품생산량과 가지수를 늘여나감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함흥시, 함주군, 정평군

#### □ 강원도 문천시, 문평제련소 배소-류산생산공정 개건현대화공사 추진(노동신문, 05.15, 7면)

- (내용) 문평제련소에서 배소-류산생산공정의 개건현대화공사를 결속단계에서 다그침
  - 제련소의 생산정상화와 환경보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배소-류산생산공정의 개건현대화사업은 생산건물을 일떠세우는것과 동시에 각종 설비들을 제작, 설치하는 방대한 과제임
  - 제련소의 기술자들은 폐열보이라의 조립도면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완성함으로써 공사를 일정대로 내밀수 있게 하는데 이바지함
  - 보장부문의 로동자들도 자체의 힘으로 많은 설비와 대형강철구조물을 손색없이 제작조립하고, 건축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대담하고 혁신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건물들의 건축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
  - 련관단위들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탐구전을 벌려 개건현대화공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감
- (주체) 제련소 일군들, 기술자들
- (위치) 강원도 문천시

## 5 철강

### □ 함경북도 김책시, 김책연합기업소 강철1직장 산소전로 대보수 진행(노동신문, 06.08, 1면)

- (내용)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이 강철1직장 산소전로대보수에 진입, 성과를 올리고 있음
  - 금속공업성의 일군들은 현대화대상공사들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새로 일떠선 산소열법용광로들의 운영기술을 향상시켜 조업이래 일 주체철생산에서 최고실적을 기록한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철강재생산에서도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올 높은 목표를 내세움
  - 이곳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 보내줄 철강재생산량을 늘여야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높은 조직력과 지도력, 과학기술적안목으로 대보수공사를 동시에 립체적으로 내뱉
  - 로동자, 기술자들은 덩지큰 강철구조물들을 제때에 제작하고 습식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해냄
  - 건물대보수를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로 산소전로대보수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
- (주체)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 로동계급
- (위치) 함경북도 김책시

### □ 남포특별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기본생산건물 보수, 용해장건물건축, 생산설비 확충 진행(노동신문, 06.08, 1면)

- (내용)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철강재생산토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감
  - 해당 단위들에 내려간 책임일군을 비롯한 성의 일군들은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서 실질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심고리들을 면바로 틀어쥐고 하나하나 모가 나게 집행해나감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강철전사들도 철강재생산 증산과 능력 확장에 매진
  -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천㎡에 달하는 기본생산건물의 지붕철판씩우기를 불과 보름만에 끝내고 기중기설치와 강철기동제작 등에서 위훈을 창조하면서 연속조괴계통증설, 용해장건물건축공사성과를 날로 확대해나감
  - 특히 설계집단과 기술력량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두뇌전, 탐구전을 벌려 60t초고전력 전기로, 수천t능력의 전극생산기지건설에 필요한 기술준비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함
  - 수직식산화배소구단광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공사과제들을 대부분 해제긴 보산제철소의 로동계급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배가의 분발력을 발휘
- (주체)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 로동계급
- (위치) 평안남도 천리마군

□ 황해북도 송림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새로운 에너르기절약형 산소열범용광로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06.17, 1면)

- (내용)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정비보강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에너르기절약형산소열범용광로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면서 계통별시운전에 진입함
  - － 련합기업소에서 최근 중주파유도로들과 대형산소분리기, 판련속조괴계통을 비롯한 큰 직한 대상들을 증설 및 완비한데 이어 또 하나의 주체화대상이 완성되게 됨으로써 철강 재생산을 보다 늘일수 있는 담보 마련
  - － 설계실을 비롯한 련합기업소기술집단이 산소열범용광로건설과 생산 및 문화후생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계와 기술준비사업에서 큰 몫을 맡아 해제됨
  - － 건설대보수사업소와 공무제관직장, 공무수리직장, 화차수리직장, 4.15기술혁신돌격대, 개건현대화돌격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작업량이 방대한 산업건물축조와 미장 및 지붕공사, 설비, 장치물제작과 조립작업에서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
  - － 배풍장과 감속기, 제진, 용수계통을 비롯하여 수천의 강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조립이 결속된 대상들에서는 지금 계통들에 대한 시운전 진행
- (주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 로동계급
- (위치) 황해북도 송림시

## 6. 기계

□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건재공장 종합적 마감건재생산기지로 공사 추진(노동신문, 04.28, 4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평성건재공장을 종합적 마감건재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공사를 추진
  - － 도의 일군들은 당의 지방발전정책실현에서 자체의 마감건재생산토대 강화의 중요성을 명심,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필요한 건설자재와 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음
  - － 현재 색물탈, 외장재생산공정 등이 확립되었고, 종합목재가공설비 설치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진척
  - － 도에서는 평성건재공장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마감건재의 질제고와 새 제품개발사업도 예견성있게 밀고나가고 있으며, 생산규모가 커지는데 맞게 로력보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 도의 책임일군들은 현장에 자주 나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공사가 중단없이 진척
  - － 공사과정의 경험을 살려 시, 군들에서 자체 마감건재생산토대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도 전개



- (특성) 공사가 완공되면 색물탈, 외장재, 메움재는 물론 란주, 란간을 비롯한 각종 인조석 가공품들과 건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음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 자강도, 보건산소공장건설 마감단계 추진(노동신문, 05.12, 4면)

- (내용) 자강도에서 도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보건산소공장건설이 마감단계에 임
  - 공장에는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생산건물들은 물론 종업원들의 문화후생시설도 갖추게 됨
  - 강력한 지휘 및 시공력량을 편성하여 파견하는 한편 자재와 료전기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훌륭히 완공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함
  - 지난해 착공의 첫삽을 박은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기초공사를 끝내고 골조공사에 진입
  - 골조공사에 이어 내외부공사도 기본적으로 결속한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지금 해당 부문의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설비조립을 적극 다그침
- (위치) 자강도

#### □ 평양직할시, 교육기자재공장 건설 진행(노동신문, 06.18, 5면)

- (내용) 교육성과 평양건설위원회 일군들, 건설자들은 종합적인 교육기자재공장건설을 일정계획대로 추진 중임
  - 평양건설위원회에서는 설비보장을 선행시키고 공사대상에 따르는 건설력량조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면서 조직사업을 심화시킴
  - 이곳 책임일군들은 일정계획에 따르는 공사정형을 수시로 료해하고 예견성있는 대책들을 따라세우는것과 함께 시공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취해나감
  - 고급기능공들로 미장경기를 조직하여 여러달이 걸릴 공사과제를 보름동안에 끝낼수 있게 하고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10여개 대상가운데서 제일 큰 대상들인 사무청사와 후생건물골조공사를 끝냄으로써 올해 목표달성을 위한 담보를 마련
- (주체) 평양건설위원회
- (위치) 평양직할시

#### □ 평안남도 평성시, 관개기계공장 건축공사 마감단계(노동신문, 06.25, 5면)

- (내용) 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고 기계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한창 진행
  - 원료투입으로부터 주물, 가공, 조립, 도장 등 모든 공정들이 흐름식으로 설계된 생산현장에는 소재, 부속품의 정밀도와 가공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게 연소모형주조공정이 꾸려지고 CNC설비들이 들어앉게 됨

- 동적균형잡이기계를 비롯한 측정설비들까지 갖추어짐으로써 양수기의 날개 등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진행하여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됨
- 북창군, 대동군중대의 돌격대원들은 유도로설치공사에 필요한 배수관공사, 연소모형주조공정에 갖추 설비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적극 내밀고, 평원군, 덕천시중대에서도 미장작업과 울타리공사, 구내포장작업, 원림경관조성을 마감단계에서 추진
- (주체) 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 로동계급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 함경남도, 의료용소모품공장 건축공사 마감단계(노동신문, 06.29, 4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의료용소모품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지금 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섬
  - 의료용소모품공장이 일떠서게 되면 한해동안에 수술용고무장갑을 비롯하여 30여종에 수백만점의 의료용소모품이 생산됨
  - 건설자들은 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사무 및 후생건물에 대한 골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으며 이미 미장작업을 끝낸 건물에 대한 외부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과감한 공격전을 들이대고 있음
- (위치) 함경남도

#### □ 남포특별시, 금성뜨락뜨르공장 개건현대화 2단계공사 추진 중(조선신보, 06.19, 2면)

- (내용) 금성뜨락뜨르공장은 2022년에 1단계 개건현대화사업을 끝내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음
  - 현재 여러대상에 대한 건축공사가 계속되는데 이어 20여개 대상의 건축공사가 각각80% 계산을 넘어선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건축공사들이 마감단계에서 진척됨
  - 건설자들은 산소발생장, 취수뿔프장, 연유공급소, 원료준비직장, 사무청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의 건축공사과제를 계속한데 이어 체육관과 로동자합숙, 제품전시장, 공무직장의 건축공사에 일제히 진입하여 기초굴착과 기초콘크리트치기를 해제킴
- (위치) 남포특별시

## 7. 기타

#### □ 자강도, 강계수의약품공장 준공(노동신문, 01.17, 3면)

- (내용) 자강도에서 강계수의약품공장을 새로 건설하여 준공식을 1월 16일에 진행함
  -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이 갖추어진 공장 건설로 도의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토대 마련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평안남도, 성천군 등 지방공업공장건설 추진 중(노동신문, 04.01, 1면)

- (내용)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게 될 성천군과 속천군의 원료기지조성과 생산토대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적극 지원
  - 지난 3월 6일과 14일에만도 도적인 통이 큰 지원사업이 진행됨
  - 도에서는 원료기지의 지력제고와 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을 계속 밀고나감
- (주체) 평안남도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평안남도 성천군, 속천군

□ 강원도 이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 원림녹화사업 추진(노동신문, 04.04, 1면)

- (내용)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이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군 인건설자들의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공장주변에 대한 원림녹화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딛
  - 군에서는 원림설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나무들을 보장하기 위한데 큰 힘을 넣었으며, 이 과정에 10여종에 달하는 수백그루의 나무들을 확보
  - 일군들은 심은 나무들의 사름물보장에도 각별한 주의를 돌림
- (주체) 이천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강원도 이천군

□ 함경남도 함주군, 금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추진 중(노동신문, 05.14, 1면)

- (내용) 함경남도 함주군과 금야군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군인건설자들은 지방 공업공장의 건축공사를 힘있게 추진, 설비조립을 위한 예견성있는 대책을 강구
  -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수십명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선발, 설비조립력량을 편성하고 실천실기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
  - 도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정형을 수시로 알아보며 대책을 세우고 (...) 공장, 기업소들의 우수한 기능공들을 더 찾아냄
- (위치) 함경남도 함주군, 금야군

### Ⅲ. 도시생활시설

#### 1. 살림집

##### □ 함경남도 단천시, 대흥1동, 무학동 새집들이 진행(노동신문, 01.20, 1면)

- (내용)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전변되고 있는 검덕지구에 현대적 광산마을이 또다시 일떠섬
  - － 단천시 대흥1동, 무학동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1,000여세대의 소층, 다층살림집들을 번듯하게 건설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19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
- (규모) 1,000여세대의 소층 및 다층 살림집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대흥1동, 무학동

##### □ 함경남도 단천시, 룡천동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1.23, 2면)

- (내용) 단천시 룡천동에 광산도시의 자태를 드러내며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이 준비하게 솟아오른 새 마을에 살림집입사모임이 22일 진행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룡천동

##### □ 평양직할시, 전위거리 완공(노동신문, 02.06, 4면)

- (내용) 1년전까지만도 허허벌판이던 이 지역에 웅건 장중한 새 거리가 힘차게 솟구쳐 오름
  - － 대통로를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일떠선 고층살림집들은 개개가 이채로우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훌륭하고 완벽한 조형미를 이루고있음
  - － 봉사망, 공공건물들의 독특한 모습들도 새 거리에 황홀함을 더해주고 있음
- (주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등
- (위치) 평양직할시 서포지구 전위거리

##### □ 평안북도, 삼광축산농장 새집들이 진행(노동신문, 02.10, 3면)

- (내용)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의 근로자들이 새집들이경사를 맞아 살림집입사모임이 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 (위치) 평안북도 운전군 삼광축산농장

##### □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 중(노동신문, 02.26, 1면)

- (내용) 지방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우선적인 힘을 넣는것을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로 이행하는데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정치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에 따라 각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농촌살림집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음

- (평양시, 평안남도) 현재 락랑구역과 태천군, 순천시, 숙천군, 개천시를 비롯한 많은 시, 군, 구역에서 준공검사준비를 착실히 갖추어나가고 있음
- (황해남도) 운산군에서 농촌살림집주변에 나무심기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모든 시, 군들에서 원림조성을 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음
- (평양시) 평양시의 건설자들이 여러 지역 농촌살림집건설장에 건설력량을 보강해주는 한편 직종별건설기능공정기를 조직하였고, 력포구역에서 원림조성 관련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구역, 군들에서 나무심기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장악과 지도를 심화
-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시, 군, 구역 농촌살림집건설장들에서는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내외부미장작업과 울타리공사, 전기공사, 상하수도망공사속도를 련일 끌어올리고있음. 함경남도 도일군들은 지난해 농촌살림집건설에서 성과를 거둔 정평군과 함주군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림. 북청군과 흥원군 등 여러 군에서는 선진적인 공법을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살림집, 공동축사건설성과를 확대
- (자강도) 희천시와 만포시, 향산군을 비롯한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의 영향을 극복할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서 농촌살림집들에 대한 내부마감공사 중
-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여러 시, 군에서 여러 종류의 나무심기를 진행 및 공동축사건설 중
- (위치) 전국

#### □ 평양직할시, 금대농장 농촌살림집 완공(노동신문, 03.30, 1면)

- (내용)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 금대농장 소재지마을 살림집입사모임이 29일 진행
- (규모) 300세대 문화주택
- (위치) 평양직할시 금대농장

#### □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 형산남새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01, 3면)

- (내용) 형제산구역 형산남새농장 소재지마을을 비롯한 여러 마을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3월 31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

#### □ 함경북도 회령시, 창태축산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4.06, 2면)

- (내용) 함경북도 회령시 창태축산농장마을 살림집입사모임이 5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함경북도 회령시

####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 중(노동신문, 04.10, 1면)

- (내용)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착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40여일만에 맡은 살림집골조공사를 완성하는 혁신을 창조

－ 려단에서는 공사에 진입하기에 앞서 건설장 가까이에 혼합장을 전개하고 휘틀제작을 비롯하여 기초콘크리트치기와 골조공사를 위한 준비와 함께 콘크리트혼합물생산량과 수송거리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룬전기재들의 실동률을 높이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

－ 기초공사를 결속한지 30여일만에는 마감층골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

- (주체) 여러 려단 군인건설자들
- (규모) 1만세대 살림집 건설
- (위치) 평양직할시

#### □ 평양직할시, 순안구역 구서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4.13, 3면)

- (내용)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구서농장 소재지마을 살림집입사모임 12일 진행  
－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아담하게 꾸려진 수백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임
- (규모) 수백세대 단층, 소층살림집
- (위치) 평양직할시

#### □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대성남새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15, 3면)

- (내용)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대성남새농장 제5, 6작업반마을들에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수백세대의 살림집이 조성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14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대성남새농장 제5,6 작업반 마을

#### □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16, 3면)

- (내용)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의 농업근로자들 새집들이, 14일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자연기복을 따라 현대적인 단층, 다락식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아담하게 들어앉은 마을들에 과일나무와 느티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로 이채로운 원림경관이 펼쳐져 날이 문명개화되는 사회주의농촌의 전변상을 뚜렷이 보여줌
- (규모) 단층, 다락식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 (위치)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

####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17, 1면)

- (내용)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준공됨
- (특성) 약 1년 만에 준공
- (규모) 살림집 1만세대
- (위치)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전위거리

#### □ 평안남도 개천시, 보부농장 살림집 입주(노동신문, 04.21, 3면)

- (내용) 평안남도 개천시 보부농장에 선경마을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 19일 진행
  - － 개천시의 일군들은 건설력량을 강력하게 편성하고 설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살림집과 공동축사건설을 립체적으로 내밀었고, 건설자들은 시공의 전문화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고 앞선 시공방법들을 받아들여 건축공사의 질을 보장
- (규모) 다락식, 단층, 소층살림집
- (위치) 평안남도 개천시

#### □ 황해북도, 은정축산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22, 3면)

- (내용)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은정축산농장에 현대성과 다양성, 문화성이 구현된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황해북도 봉산군

#### □ 평안북도 구장군, 상이공예작물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23, 4면)

- (내용) 평안북도 구장군 상이공예작물농장 살림집입사모임이 22일 현지에서 진행
  - － 평안북도와 구장군의 일군들, 건설자들은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살림집건설에서 설계와 시공,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
- (규모) 수백세대 단층, 다락식 살림집
- (위치) 평안북도 구장군

#### □ 황해남도 청단군, 신생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4.24, 3면)

- (내용) 황해남도 청단군 신생농장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문화주택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3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황해남도 청단군

#### □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25, 3면)

- (내용) 숙천군 약전농장에도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생활에 편리하게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다양한 형식의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4일 현지에서 진행
  - － 숙천군에서는 시공력량편성과 건설장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고 마감건재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따라세우면서 공사조직과 기술지도를 심화
  - － 군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살림집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공사속도와 질보장에 힘을 넣어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들과 공동축사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원림록화도 잘하여 풍치를 돋구었음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과 공동축사들
- (위치) 평안남도 속천군

#### □ 자강도 희천시, 송지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4.26, 5면)

- (내용) 희천시 송지농장에서 산간지대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원림록화로 풍치를 돋구고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새 살림집이 조성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25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현대적 새 살림집
- (위치) 자강도 희천시

#### □ 평안남도 순천시, 풍탄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4.27, 3면)

- (내용) 순천시 풍탄농장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6일 현지에서 진행
  - 다양한 형식으로 일떠선 단층, 소층살림집들의 프락마다에는 과일나무들이 꽃망울을 터치고 마을들의 곳곳에 수종이 좋은 수천그루의 나무들이 푸른 잎새를 펼쳐 주변풍치를 한껏 돋구고있음
- (규모) 다양한 형식의 단층, 소층 살림집
- (위치) 평안남도 순천시

#### □ 평양직할시, 삼석구역 장수원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4.29, 3면)

- (내용)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장수원농장에 주변풍치와 어울리면서도 아담하고 현대적 미감이 나는 문화주택들이 훌륭히 일떠서 28일 살림집입사모임이 진행
- (위치) 평양직할시 삼석구역 장수원농장

#### □ 평안북도 정주시, 독장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30, 4면)

- (내용) 정주시 독장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워 29일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수백세대의 다락식,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아담하게 일떠서고 주변풍치를 돋구며 과일나무와 느티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뿌리내린 선경마을의 모습은 나날이 변모
- (규모) 수백세대 다락식, 단층, 소층살림집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 □ 평양직할시,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5.01, 4면)

- (내용)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에 선경마을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4월 30일 진행  
 - 구역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모든 살림집들을 현대성과 문화성이 보장된 건축물들로 훌륭히 일떠세움
- (위치) 평양직할시 사동구역

#### □ 자강도 만포시, 고산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5.02, 3면)

- (내용) 만포시 고산농장에 살림집입사모임이 1일 현지에서 진행  
 - 건설자들은 건축공사에서의 질적수준을 보장하여 농촌마을을 사회주의맛이 나고 지역적특성이 살아나게 건설하였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로 농촌특색의 원림경관을 조성함
- (위치) 자강도 만포시

#### □ 황해남도 과일군, 월사농장과 연광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5.03, 2면)

- (내용) 과일군 월사농장과 연광농장에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일 현지에서 진행  
 -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형식으로 설계된 수백세대 살림집들의 트랙마다에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뿌리내렸으며 공동축사들도 구색이 맞게 건설됨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황해남도 과일군

#### □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리 살림집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5.04, 4면)

- (내용) 황주군 순천리에 농촌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건축형성에서 다양성이 구현된 마을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3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황해북도 황주군

#### □ 강원도 원산시, 죽산남새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5.11, 2면)

- (내용)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의 죽산남새농장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10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농촌문화주택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 평안북도 곡산군, 당상농장 120여동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5.12, 2면)

- (내용) 곡산군 당상농장에 120여동의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 10일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자연지리적조건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아담하게 건설된 120여동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조성됨
- 곡산군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작업의 기계화비중과 시공의 전문화수준을 높여 다락식, 단층, 소층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움
- (규모) 120여동에 수백세대 살림집들
- (위치) 평안북도 곡산군

#### □ 평안북도 신의주시, 선상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5.13, 4면)

- (내용)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선상농장의 농업근로자들, 12일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 평양직할시, 강동군 송금축산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5.15, 6면)

- (내용)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송금축산농장에서 13일에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위치) 평양직할시 강동군

#### □ 황해남도 연안군, 라진포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16, 4면)

- (내용)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의 연안군 라진포농장에도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15일 현지에서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농촌특유의 단층, 소층, 다락식으로 아담하고 특색있게 일떠선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에는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져있음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
- (위치) 황해남도 연안군 라진포 농장

#### □ 황해남도, 안악군 굴산농장 농촌할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17, 4면)

- (내용) 서해곡창 황해남도의 안악군 굴산농장에도 희한한 선경마을들이 솟아나 살림집입사모임이 14일에 진행
  -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자연기복을 따라 다양한 형식의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마을들에 과일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 꽃관목들로 원림경관이 펼쳐짐
  - 건설자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들을 최대한 절약할수 있는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실용성과 조형예술화가 보장된 수백세대의 살림집과 공동축사를 일떠세움.
- (규모) 단층, 소층살림집 수백세대
- (위치) 황해남도 안악군 굴산농장

#### □ 나선평별시, 라진구역 무창동, 유현동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18, 3면)

- (내용) 라선시 라진구역 무창동과 유현동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들이 16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
  - － 라진구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시공의 전문화실현과 자재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혁신적인 공법과 경험을 공유, 일반화하여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원림록화로 새 마을들의 풍치도 돋음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들
- (위치) 나선평별시 라진구역 무창동, 유현동

#### □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덕흥농장에서 새집들이(노동신문, 05.19, 3면)

- (내용)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농장의 여러 마을에 새집들이경사
  - －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설계된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솟아남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덕흥농장

#### □ 나선평별시, 선봉구역 홍의동, 하회동의 근로자들 새집들이(노동신문, 05.20, 3면)

- (내용) 라선시 선봉구역 홍의동, 하회동에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이 일떠섬
- (규모) 수백세대 현대적 농촌살림집들
- (위치) 나선평별시 선봉구역 홍의동, 하회동

#### □ 함경남도 북청군, 죽상농장 소재지마을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1, 2면)

- (내용) 북청군 죽상농장에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19일 현지에서 진행
  - － 북청군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과 제대군인들, 고급기능공들로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설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대상공사를 전격적으로 추진
  - －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건축물의 질보장에 힘을 넣어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들과 함께 공동축사도 번듯하게 일떠세움
- (규모) 수백세대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 및 공동축사
  - － (위치) 함경남도 북청군 죽상농장

#### □ 평안남도 평원군, 운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2, 5면)

- (내용) 서해별방 평원군 운봉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

- 여러 작업반마을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번듯하게 일떠섬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운봉농장

#### □ 황해남도 웅진군, 대기리와 수대리 새집들이(노동신문, 05.23, 5면)

- (내용) 황해남도 웅진군 대기리와 수대리, 서해기슭의 양지바른 곳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대기리의 소층살림집들과 별방지대의 특성을 잘 살린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
- 건축형성에서 현대성과 다양성, 문화성이 구현된 주택들에는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있으며 살림집뜨락과 마을주변에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 꽃관목들이 경관을 펼침
- (규모) 소층살림집 수백세대와 공동축사
- (위치) 황해남도 웅진군 대기리, 수대리

#### □ 평안북도 선천군, 솔재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4, 2면)

- (내용) 선천군 솔재농장에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평안북도 선천군 솔재농장

#### □ 황해북도 사리원시, 문헌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5, 2면)

- (내용) 사리원시 문헌농장에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진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4일 진행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들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문헌농장

#### □ 평안북도 동림군, 보성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6, 2면)

- (내용) 평안북도 동림군 보성농장에 농촌고유의 특성을 살리며 아담하게 일떠선 문화주택들이 완공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24일 현지에서 진행
- 동림군에서는 공사의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시공력량강화와 건설장비, 기공구확보에 힘을 넣으면서 새로 일떠서는 농촌살림집지구의 현대성, 문화성보장에 주력
-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과 능률높은 기공구들을 적극 도입하여 수백세대의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움
- (규모) 수백세대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들
- (위치) 평안북도 동림군 보성농장

- **황해북도 승호군, 광정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7, 2면)**
  - (내용) 승호군 광정농장에 농촌살림집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6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황해북도 승호군 광정농장
- **강원도 문천시, 교성리, 관풍동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9, 5면)**
  - (내용) 문천시 교성리와 관풍동의 농촌마을들에 해안연선지역의 특색이 살아나게 번듯하게 일떠선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이 계속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28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
  - (위치) 강원도 문천시 교성리, 관풍동
- **함경남도 홍원군, 공덕리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30, 3면)**
  - (내용) 홍원군 공덕리 양지바른 곳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수백세대의 소층, 단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솟아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로 이채로운 원림경관을 이룬 농장마을 완공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28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소층, 단층, 다락식살림집 수백세대
  - (위치) 함경남도 홍원군 공덕리
- **평안남도 안주시, 송학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31, 4면)**
  - (내용) 안주시 송학농장에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미래상을 그려주는 새 마을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9일 현지에서 진행
    - － 안주시에서는 지난해 농촌살림집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시공력량편성과 건설장비, 기공구보장대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공사조직과 기술지도를 심화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들
  - (위치) 평안남도 안주시 송학농장
- **평안북도 룡천군, 장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룡천군 장산농장에도 선경마을들이 솟아나 새집들이 경사
    - － 별방지대의 특색을 잘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그뿐히 갖추어진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 완공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들
  - (위치) 평안북도 룡천군 장산농장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 살림집 건설 추진(노동신문, 06.02, 5면)**
  - (내용) 단천지구광업총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건설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

- 살림집건설의 단계별목표에 따라 이들은 토량처리와 기초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고 그 기세로 살림집들의 골조축조를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면서 웅벽 및 시설물공사, 내외부미장 등을 립체적으로 내밀고있음
-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로력절약형, 자재절약형공법들을 활용하여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는 담보 마련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고창남새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2, 5면)

- (내용)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남새농장에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아담하게 꾸러지고 원림록화로 풍치를 돋군 수백세대의 살림집들 완공
- (위치)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고창남새농장

□ 강원도 안변군, 천삼농장, 상음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3, 2면)

- (내용) 안변군 천삼농장과 상음농장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린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췌히 갖추어짐
- (위치) 강원도 안변군 천삼농장, 상음농장

□ 평안북도 창성군, 옥포축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5, 3면)

- (내용) 산골군인 창성군의 옥포축산농장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섬
  - 옥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고장이라는 뜻에서 옥포리로 불리우는 경치좋은 이곳에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섬
- (위치) 평안북도 창성군 옥포축산농장

□ 평안북도 철산군, 원세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5, 3면)

- (내용) 철산군에서는 농촌살림집건설을 힘있게 진척시켜 또다시 수백세대의 새 살림집을 일떠세워 살림집입사모임이 3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들
- (위치) 평안북도 철산군 원세평농장

□ 황해남도 재령군, 신환포농장, 삼지강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6, 4면)

- (내용) 서해별방 재령군의 신환포농장과 삼지강농장에도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양지바른 곳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아담하게 건설되고 공동축사들도 그쯘하게 갖추

- (위치) 황해남도 재령군 신환포농장, 삼지강농장

#### □ 평양직할시 강남군, 장교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7, 3면)

- (내용) 평양시 강남군에서 올해 계획된 농촌살림집건설을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결속  
- 착공후 70여일만에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요구와 편의가 보장된 선경마을들을 훌륭히 일떠세워 살림집입사모임이 5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백수십세대 살림집
- (위치) 평양직할시 강남군 장교농장

#### □ 황해남도 배천군,역구도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8, 1면)

- (내용) 배천군 역구도농장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5일 진행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수백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공동축사들이 번듯하게 일떠서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뿌리내린 마을들의 전변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들
- (위치)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

#### □ 함경남도, 농촌경리위원회(함흥시) 수도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 09, 3면)

- (내용)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 수도농장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채로운 새집들이 일떠서 7일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동해안 공업도시 함흥시를 감돌아흐르는 성천강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조성되었으며 현대적인 단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앞을 다투어 일떠섰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뿌리내려 이채로운 원림경관이 펼쳐짐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수도농장

#### □ 황해남도 태탄군, 부양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1, 2면)

- (내용) 태탄군 부양농장, 별방지대의 특색을 살리면서 양지바른 산기슭에 솟아난 수백세대의 살림집들과 공동축사들,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조화를 이룬 새 마을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황해남도 태탄군 부양농장

□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4, 3면)

- (내용) 신원군 월당농장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살림집을 완공, 살림집입사모임이 12일 진행
  - － 신원군의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건축물의 질보장에 힘을 넣어 수백세대의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들과 함께 공동축사도 번듯하게 일떠세움
- (규모) 수백세대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들
- (위치)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농장

□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리, 신정리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5, 3면)

- (내용)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리와 신정리의 근로자들도 새집들이경사
  - － 서해별방지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들에는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그뿐히 갖추어져있음
  - － 염주군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생활거점들을 일떠세우기 위해 능력있는 일군들을 파견하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내중리와 신정리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건설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들
- (위치)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리, 신정리

□ 함경북도 길주군, 남양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6, 2면)

- (내용) 길주군 남양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새 살림집에 입사
  - － 길주군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경험과 기술을 적극 공유, 이전하고 건설의 기계화 비중과 시공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을 따라세우면서 현대적인 단층, 소층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움
- (위치) 함경북도 길주군 남양농장

□ 자강도 향산군, 태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8, 4면)

- (내용) 향산군 태평농장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건설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16일 현지에서 진행
  - － 산간지대의 특색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일떠선 살림집들로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문화주택들임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들
- (위치) 자강도 향산군 태평농장

- **평안북도 삭주군, 룡영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9, 3면)**
  - (내용) 삭주군 룡영농장에도 농촌고유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상편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문화주택들이 건설되어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위치) 평안북도 삭주군 룡영농장
- **황해남도 강령군, 평무농장 및 금동은정차재배원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1, 3면)**
  - (내용) 강령군 평무농장과 금동은정차재배원에서도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 산간지대의 특성을 살려 양지바른 곳들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곳곳에 뿌리내린 수종이 좋은 과일나무들로 새 마을들 조성
  - (규모) 수백세대 현대적 살림집들
  - (위치) 황해남도 강령군
- **평안남도, 체육촌 체육인숙소 준공(노동신문, 06.21, 4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도체육촌 체육인숙소를 새로 건설하여 준공식을 19일에 진행
    - － 특색있게 꾸려진 체육인숙소에는 침실, 식사실, 탁구장을 비롯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음
  - (위치) 평안남도
- **황해북도, 연탄군 월룡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2, 3면)**
  - (내용)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월룡농장에도 새집들이경사
    - － 연탄군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과 경험을 적극 도입하여 전반적인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 (위치) 황해북도 연탄군 월룡농장
- **함경북도 벽동군, 송사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2, 3면)**
  - (내용) 벽동군 송사농장에 문화주택들이 새로 일떠섰음
    - － 산간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아담하게 꾸려지고 원림록화로 풍치를 돋군 수백세대의 단층, 다락식, 소촌살림집들임
  - (위치) 함경북도 벽동군 송사농장
- **함경남도 장진군 백암농장, 도내농장과 리원군 송정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3, 3면)**
  - (내용) 장진군 백암농장, 도내농장과 리원군 송정농장에도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건설

- 지역들의 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조건들이 원만히 갖추어진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들 건설
- (위치) 함경남도 장진군, 리원군

#### □ 황해북도, 체육인숙소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06.23, 4면)

- (내용) 황해북도체육인숙소가 새로 건설되어 준공식이 21일에 진행
  - 체육시설들이 집중되어있는 경암산지구에 훌륭히 일떠선 숙소에는 침실, 식사실, 기능 회복실, 체육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한 체육인들의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원만히 보장 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그쯔히 갖추어짐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경암산지구

#### □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리와 어랑군 칠향리, 팔경대리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4, 3면)

- (내용) 경성군 염분리와 어랑군 칠향리, 팔경대리에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 일떠섬
  - 해당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현대성과 문화성이 구현되게 설계되고 원림록화로 풍치를 돋군 수백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솟아남
  - 경성군, 어랑군에서는 살림집건설을 위한 역량편성과 자재보장을 선행시키고 공사가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척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심화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군

#### □ 자강도 송원군, 양지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5, 2면)

- (내용) 송원군 양지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
  - 산기슭을 따라 수백세대의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아담하게 솟아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로 풍치를 돋군 마을들에는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짐
- (위치) 자강도 송원군 양지농장

#### □ 평안북도 박천군, 봉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6, 3면)

- (내용) 박천군 봉린농장에도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새 모습이 펼쳐졌짐
  - 건축형식에서 다양성이 구현되고 특색있는 원림경관속에 조화롭게 들어앉은 수백세대의 단층, 다락식문화주택들 계속됨
- (규모) 수백세대 단층, 다락식문화주택들
- (위치) 평안북도 박천군 봉린농장

□ **자강도 화평군, 가림농장, 구슬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7, 3면)**

- (내용) 화평군 가림농장과 구슬농장에도 아담한 농장마을들 솟아남  
 - 오가산자연보호구의 풍치와 어울리게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건설된 새 살림집들 계속됨
- (위치) 자강도 화평군 가림농장, 구슬농장

□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8, 2면)**

- (내용) 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온성군 왕재산농장에 새 살림집들이 일떠섬
- (위치)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농장

□ **황해남도 벽성군, 장해농장, 통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9, 3면)**

- (내용) 벽성군 장해농장과 통산농장에도 새집들이 풍경이 펼쳐짐  
 - 양지바른 곳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 집주변에 우거진 수종이 좋은 과일나무들로 마을들은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함
- (규모) 수백세대 현대적 살림집들
- (위치) 황해남도 벽성군 장해농장, 통산농장

□ **평안북도 구성시, 운전군, 농장에서 새집들이 진행(노동신문, 06.30, 2면)**

- (내용) 구성시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동산공예작물농장과 운전군 북일농장에 지역적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새 마을들이 일떠섬
- (위치) 평안북도 구성시, 운전군

## 2. 상업시설

□ **나선특별시, 해안관 개건 완료(노동신문, 06.17, 4면)**

- (내용) 라선시 해안관이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 일떠서 16일에 개관식 진행  
 - 라선시의 일군들과 라선광흥종합개발사업소 종업원들은 개건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제낄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밑에 자재, 설비보장을 앞세우고 앞선 공법을 받아들여 건설을 다그쳐 끝냈으며 곳곳에 휴식터를 꾸리고 원림록화를 잘하여 주변풍치를 돋구었음  
 - 해안관에는 고기쟁반국수와 랭면, 신선로를 비롯한 민족음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맛 좋고 영양가높은 각종 요리를 봉사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그뿐히 갖추어짐
- (위치) 나선특별시

□ 평양직할시, 창광불꽃놀이 감상점 개점(조선신보, 06.05, 2면)

- (내용) 평양시 립흥거리에 꾸려진 창광불꽃놀이감상점이 수도시민들과 어린이에게 인기  
- 상점에서는 이채로운 야경을 펼쳐놓는 반짝불꽃대, 불꽃분수와 불꽃잠자리 등 20여종의 불꽃놀이감들을 판매하고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는 놀이터도 꾸려져있음
- (규모) 2층
- (위치) 평양직할시 립흥거리

### 3. 기타

□ 평양직할시, 원림경관과 원림녹화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4.14, 5면)

- (내용) 수도 평양의 풍치를 더욱 이채롭게 할 열의밑에 아름다운 원림경관을 펼쳐놓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  
-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서문거리와 그 주변의 오랜 가로수들을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교체하고 완공을 앞두고있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주변에 느티나무들로 가로수를 조성  
- 보통강의 금란도와 운하도에 각각 체육공원을 새로 건설하고 그 주변에 독특한 원림경관을 펼치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여러 단위의 지붕녹화를 실현한 경험에 토대하여 현존건물지붕들에 지붕녹화를 새롭게 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진척
- (특성) 평양시 여러 단위, 조경·녹화사업 추진
- (주체) 평양시 일군들 및 근로자들
- (위치) 평양직할시

## IV. 국토지역개발

### 1. 지역개발

#### □ 함경북도, 경성타일공장 개건공사 외 여러 대상건설 추진 중(노동신문, 04.11, 4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경성타일공장 개건, 도3대혁명전시관건설과 오중흡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를 비롯하여 올해 투쟁목표로 내세운 대상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음
  - － 공사대상들의 규모와 자재소요량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단계별목표를 면밀하게 세운 도에서는 지금 여러 대상건설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감
  - － 지방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성타일공장의 개건공사도 적극 추진
  - － 타일생산능력을 끌어올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개건공사는 현재 건축공사량의 60%계선을 넘어섬
  - － 이밖에 즉석국수공장건설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대상공사장에서도 성과가 계속 확대됨
  - － 도에서는 들끓는 건설장마다에서 수시로 협의회를 열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지역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올해에 내세운 공사과제들을 드팀없이 추진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 2. 국토개발

#### □ 전국,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 진행(노동신문, 03.19, 5면)

- (내용) 각지에서 올해의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진행
  - － 지난해의 국토관리사업정형을 랭정하게 분석총화하고 성과와 경험속에서도 결함과 교훈을 먼저 찾아 새롭게 분발하며 분투하는 기풍을 확립하는것이 중요
  - － 전국적으로 수천만㎡의 바닥파기를 포함한 방대한 량의 강하천정리와 수백km의 도로기술개건, 수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및 공원, 유원지 그리고 수십km의 해안방조제 및 방파제들에 대한 대보수공사 등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한 지표별과제들이 비교적 원만히 수행
  - － 도소제지를 훌륭하게 꾸리고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뚜렷한 진일보를 이룩하였으며 라진구역에서도 거리와 마을을 더 잘 꾸리려는 움직임이 적극화됨
  - － 큰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선시와 허천군, 은천군, 회령시, 숙천군, 연탄군, 태천군, 구장군, 정평군, 성천군이 강하천정리에서 실적을 내고 해주시와 희천시, 형제산구역, 평강군, 백암군, 곡산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들이 계획된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



- 이밖에도 남포시와 선교구역, 해산시, 신의주시에서 원림복화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것을 비롯하여 지난해에 해놓은 일들은 적지 않음
- 지난해 강하천정리사업을 통이 크게 내민 허천군에서는 수십만㎡의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장석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여 큰물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도로와 다리들에 대한 기술개건사업에도 상당한 품을 들여 주민들의 교통상편의와 자동차운행의 안전성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게 함
- 강하천정리와 함께 계획한 도로기술개건과 다리건설도 성과적으로 계속됨
- 그러나 안변군에서는 심히 만성화되고 무책임한 일군들의 사업태도로 하여 국토관리사업이 해를 거듭하며 지지부진하였음
- 안변군만이 아닌 청진시 라남구역과 삼천군, 녕변군, 회양군, 영광군, 덕성군의 일군들도 지난해 강하천정리와 도로관리, 도시와 마을꾸리기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에서 어떤 편향들이 나타났었는가를 사상적으로 엄정히 분석총화하고 단단히 각성하여야 함
- 지난 2일에 진행된 지난해 산림복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 총화회의는 시사적임
  - 참가자들 모두가 목격한것처럼 지난해의 국토관리사업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는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함
  - 반면에 단위별순위에서 뒤자리를 차지한 시, 군의 일군들은 심각한 가책을 받음
- (위치) 전국

#### □ 황해북도, 각 시군 국토관리사업 치밀하게 진행 (노동신문, 04.08,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주요도로보수공사와 강하천바닥파기, 제방공사, 원림경관조성 등을 봄철국토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하여 실적을 올림
  - 도에서는 시, 군들사이의 경쟁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평산군에서 보여주기를 실속있게 조직
  - 보여주기에서는 먼저 지난 시기 국토관리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과 결점들을 분석총화함
- 앞선 단위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할 목적밑에 직관물을 통한 해설사업이 진행된데 이어 여러 대상에 대한 참관이 있었음
  - 곡산군에서는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 강하천바닥파기를 박력있게 내밀
  - 사리원시와 은파군에서는 도로공사, 공원꾸리기, 원림경관조성에 깊은 관심을 돌려 거리와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킴
- (위치) 황해북도

### 3. 기타

#### □ 전국, 여러 간석지 건설장 발파 진행(노동신문, 01.06, 4면)

- (내용) 각회도간석지, 월도간석지, 애도간석지건설장에서 새로운 투쟁목표점령을 위한 첫 발파의 폭음이 련이어 장쾌하게 울림
  - 새해의 첫 진군길에 나선 황해남도,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더욱 양양되고 분발된 투쟁으로 10만산, 20만산대발파와 중소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물막이공사와 조유지제방공사를 보다 전격적으로 내밀수 있는 전망을 엮
  -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이 각회도간석지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발파들을 성과적으로 보장
  - 20만산대발파를 맡은 건설직장에서는 착암기,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맡겨진 굴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
  - 용진간석지건설대에서는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고 단위시간당 굴진속도를 끌어올리면서 10만산대발파를 위한 공정수행에 역량을 집중
  -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료전기재들의 실동률을 높이고 제바닥성토공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공사를 통이 크게 전개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도 월도간석지 조유지제방공사와 애도간석지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발파준비를 최단기간 내에 결속
  - 5일 20만산대발파와 중소발파가 련이어 진행됨으로써 월도간석지 조유지제방공사와 애도간석지건설을 힘있게 내밀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됨
- (위치) 전국

#### □ 황해남도, 간석지건설 추진중(노동신문, 01.12, 4면)

- (내용)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각회도간석지와 증산도간석지, 대수압도간석지 4구역건설을 올해중에 끝내기 위해 분투
  - 올해 종합기업소가 맡은 3개 대상건설은 수백만㎡의 토량을 처리하여 근 100리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고 수십만㎡의 장석공사 등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며, 이 공사가 끝나면 한개 군의 농경지와 맞먹는 새땅이 생겨나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음
- 각회도간석지건설이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음
  - 이미 정초에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많은 흙과 돌을 확보한 건설직장과 양화, 청단간석지건설대의 건설자들은 장석쌓기와 배수문건설을 힘있게 내딛
  - 방조제의 전진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이동수리기지를 현장에 접근시킨 기계화대에서는 채석장에서 대형화물자동차들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고 한㎡ 더 심기, 한차 더 뛰기운동을 맹렬히 벌림

- 이와 함께 수륙양용굴착기에 의한 제바닥흙성토공법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높임
- 그리하여 지난 10일 현재 650여m구간에 방조제를 쌓는 성과를 거둠
- 한편 종합기업소에서는 증산도간석지와 대수압도간석지 4구역건설준비를 적극 다그침
- (위치) 황해남도 청단군, 연안군

#### □ 평안남도, 평원간석지 1차 물막이공사 진행 중(노동신문, 02.14, 5면)

- (내용) 평원간석지건설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이 13일 20만산대발파의 장쾌한 폭음을 올림
  - 지휘관들은 대발파를 위한 공사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함
  - 제방성토공사에 필요한 막돌, 토량확보를 위해 지질상태를 정확히 측정한데 기초하여 발파설계를 선행시키고 굴진에 힘을 집중
  - 1단계 3호방조제건설을 위한 수km구간의 도로공사를 최단기간내에 해제된 군인건설자들은 암질상태에 따르는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고 교대당 발파회수를 늘여나가면서 굴진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 □ 황해남도, 양촌간석지 건설(노동신문, 03.01, 5면)

- (내용) 강령군에 위치한 양촌간석지건설장에서 조선인민군 홍정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간석지건설에서 중요한 1차물막이공사를 단 한달동안에 성과적으로 결속
  - 그리하여 160여정보의 농경지를 얻어낼수 있는 돌파구를 옴
  - 악조건 속에서 군인건설자들은 불과 한달동안에 800여m의 도갱굴진을 진행하고 수십 만m<sup>3</sup>의 막돌과 흙을 운반하여 1700여m의 방조제를 쌓음
- (주체) 강령군 군인건설자들
- (위치) 황해남도 강령군

#### □ 평안북도, 여러 간석지 건설(노동신문, 03.23, 1면)

- (내용)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애도간석지 1구역 1차물막이공사와 흥건도간석지 1단계 하천 및 조유지제방공사, 월도간석지 중간제방공사 등을 추진
  - 올해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앞에 나선 공사과제는 방대함
  - 이것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수천정보의 새땅이 새로 생겨나고 이미 개간한 간석지들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담보가 마련됨
  - 애도간석지 1구역 1차물막이공사장에서 위훈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짐

-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기본력량이 여러 지역에 전개되어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극복하며 성토공사에서 실적을 올림
- 수십km구간의 홍건도간석지 1단계 하천 및 조유지제방공사와 월도간석지 중간제방공사를 빠른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진척

- (위치) 평안북도

#### □ 평안북도, 석화간석지, 1차물막이공사 성과적으로 결속(노동신문, 05.04, 5면)

- (내용) 조선인민군 서규복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사나운 날바다를 길들이며 3일 석화간석지 1차물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 석화간석지건설을 올해중에 끝낼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부대에서는 공정별계획을 세운데 맞게 건설력량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설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함
  - 20만산대발파의 폭음으로 새해의 첫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짚은 군인건설자들은 중, 소 발파를 련속 들이대어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갔으며 현장수리기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함으로써 굴삭기, 대형화물자동차 등의 가동률을 끌어올림
  - 언제나 앞장서나갈 일념 안고 군인건설자들은 압축기,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능률높은 굴진, 발파방법으로 1차물막이공사에 필요한 막돌과 흙을 원만히 확보
  - 약조건에서도 군인건설자들은 하루평균 8,000m<sup>3</sup>이상의 흙과 돌을 성토하며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
  - 마감막이구간의 바닥패움을 막기 위해 바다물수위변동에 따르는 제방2단성토공법이 도입되고 쇠그물돌자루투석과 집중련속투석이 선행되어 공사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
  - 기계화초병들은 대소한의 강추위와 폭설, 세찬 파도에도 아랑곳없이 채석장과 제방에서의 자동차머무름시간을 줄이고 한m<sup>3</sup> 더 싣기, 한차 더 뛰기운동을 맹렬히 벌리면서 매일 700차이상의 막돌과 토량을 투입
  - 공정별에 따르는 현장기술학습이 실속있게 진행되고 방조제는 하루가 다르게 뻗어나갔으며 마침내 1차물막이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
  - 조선인민군 서규복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석화간석지건설완공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으로 공사속도를 더욱 높임
- (위치) 평안북도 선천군

## V. 문화휴양시설

### 1. 문화시설

#### □ 평양직할시, 평양인형극장 건설 진행(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인민들과 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수도의 중심부에 일떠서는 평양인형극장건설이 힘있게 추진
  - － 인형극장으로서의 특성이 잘 안겨오게 설계된 극장에는 200여석의 영화관과 400여석의 인형극관람실, 특색있는 기념품매대들이 갖추어지며, 다양한 오락장들도 꾸러지게 됨
  - － 평양인형극장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몇달 안되었지만 문화성 건설사업소 로동계급과 성에서 조직한 당원돌격대가 기초콘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지상골조콘크리트치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뒀
  - －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극장의 2층 층막공사가 끝나고 인형극관람실이 꾸러지게 될 3층에 대한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짐
  - － 건설자들은 라선형계단을 비롯한 복잡한 공사과제수행에서 합리적인 공법을 적극 받아들여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해나감
  - － 건설자재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고 일군들은 혁신자들을 널리 소개하고 그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내뒀
- (주체) 건설사업소 일군들, 건설자들, 문화성 당위원회 일군들
- (위치) 평양직할시

### 2. 운동시설

#### □ 자강도, 강계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06.16, 4면)

- (내용) 자강도에서 도품질분석소와 강계승마구락부를 훌륭히 일떠세워 준공함
  - － 도에서는 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따라세우면서 공사의 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과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감
  - － 건설자들은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면서 맡은 대상공사들을 질적으로 끝냄
  - － 특색있게 일떠선 강계승마구락부에는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구비되어있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게 됨
  - －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들에는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강계시안의 근로자들, 도품질분석소, 강계승마구락부 종업원들이 참가

- (주체) 자강도당위원회,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 함경남도, 도체육촌 건설 추진(노동신문, 06.27, 4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당결정에 반영된 도체육촌건설을 적극 내딛
  - 함흥시에 일떠서는 도체육촌은 다양한 종목의 체육경기를 진행할수 있는 체육관과 축구장, 체육인숙소, 미니골프장 등을 갖춘 현대적인 체육기지로 꾸려지게됨
  - 도에서는 건설자재보장을 따라세우면서 공사를 힘있게 추진
  -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드높이 체육인숙소골조공사를 끝내고 체육관골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성과를 확대
  - 시공일군들은 건설자들속에 설계상의 요구를 깊이 인식시키면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
  - 도안의 체육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사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맡은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건설자들을 고무
  - 도의 책임일군들은 건설장을 수시로 찾아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 대중의 양양된 열의가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음
- (위치) 함경남도

### 3. 관광휴게시설

#### □ 평안남도 개천시, 송암동굴 관리소 참관자숙소 및 야외물놀이장 준공(노동신문, 06.22, 5면)

- (내용) 송암동굴관리소에 참관자들을 위한 숙소와 야외물놀이장이 새로 건설되어 준공식이 6월 20일 진행됨
  - 송암동굴의 주변경치에 어울리게 아담하게 일떠선 참관자숙소에는 침실과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으며 수천㎡의 부지면적에 건설된 야외물놀이장에는 수조들과 덕수터, 모래터, 배구장들이 훌륭히 꾸려져 있음
  -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공사를 질적으로 결속하여 참관자숙소와 야외물놀이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움
  -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개천시안의 근로자들, 송암동굴관리소 종업원들이 참가
- (위치) 평안남도 개천시 송암동굴

## VI. 교육복지시설

### 1. 교육연구시설

#### □ 전국 각지, 교원양성부문 대학, 농업대학 신축 및 개건 진행(노동신문, 04.09, 5면)

- (내용) 여러 도에서 교원양성대학, 농업대학을 새로 설립하거나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
  - － 강원도에서는 리수덕원산교원대학건설을 올해 내 완공하고자 도적인 력량을 동원하여 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 있으며, 함경남도에서도 최희숙함흥교원대학의 골조공사를 끝내고 현재 건축공사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 － 오중흡청진사범대학, 강계사범대학, 혜산교원대학, 차광수신의주사범대학이 건설중인 데 해당 도들은 로력과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건설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김형직사범대학4호교사, 5호기숙사건설과 김철주사범대학건설을 위한 준비사업도 진행중임
  - － 신축 및 개건현대화하는 여러 농업대학들의 설계 완성, 건설 시작 등 다음해까지 끝낼 목표가 세워졌고, 현재 청진농업대학에서 도서관과 체육관, 원산농업대학에서 체육관이 건설 중임
- (위치) 전국

#### □ 평양직할시, 김책공업종합대학 종합실험교육관 개관(노동신문, 04.15, 4면)

- (내용)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이며 믿음직한 과학연구기지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종합실험교육관이 건설되어 14일 개관식이 진행됨
  - － 교원, 연구사들의 교육 및 과학연구사업과 학생들의 학과학습을 위한 종합적인 실험실습기지가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으로서 대학의 면모가 더욱 일신되게 됨
- (특성) 첨단실험설비들이 구비된 수십개의 현대적인 실험실들을 갖추
- (위치) 평양직할시

#### □ 함경북도 청진시, 오중흡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4.28, 4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오중흡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를 힘있게 진행중임
  - －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개건현대화공사의 규모가 큰데, 이에 맞게 도에서는 지휘 및 시공력량을 강력히 꾸리고 건설자재보장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공정별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하도록 기능공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지금 5호기숙사와 4호교사 등의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미 골조공사가 결속된 현장들에서는 내외부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다른 대상들의 골조공사도 마감단계에 들어섬

- 20여개 대상의 개건보수공사도 진행중임

- (특성) 개건보수공사에서는 미장경기도 조직하면서 개건보수작업 진행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 자강도, 품질분석소 준공(노동신문, 05.30, 4면)

- (내용) 자강도에서 여러 분석실과 종업원들 문화후생시설 등을 갖춘 품질분석소를 새로 건설함
  - 도에서는 특히 건설력량을 강력하게 편성하고 자재와 료전기재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건설자들은 기초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고 골조공사에 진입함
  -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서로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단계별공사과제들을 련이어 결속하였고, 도에서는 품질분석소건설이 진행될수록 현대적인 분석설비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함
- (특성) 품질분석사업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이 가능하게 됨
- (주체) 일군들과 건설자들
- (위치) 자강도

#### □ 남포특별시, 과학기술도서관 개건 준공(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과학기술도서관을 훌륭히 개건하여, 준공식이 5월 31일 현지에서 진행
  - 대중적인 과학기술보급거점답게 도서관에는 열람실들과 강의실, 다기능홀을 비롯하여 정보봉사과 연구토론 및 보급,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있고, 도서관종업원들은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종합정보봉사체제와 수많은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구축함
- (위치) 남포특별시

#### □ 강원도, 과학기술도서관 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강원도에서 전자열람실, 가상현실체험실, 사회과학도서열람실 등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현대적인 과학기술도서관을 일떠세우고 있는데, 현재 마감단계임
  -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단기간에 끝낸 건설자들은 도에서 만든 건재를 적극 리용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 있으며,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와 지피식물을 도서관주변에 심어 특색있는 원림경관을 만들고, 도로 포장공사 등도 진행 중임

- 도에서는 공사진행에 맞게 각종 정보설비와 비품들을 일식으로 갖추는 사업도 추진중임
- (규모) 연건평 수천㎡
- (위치) 강원도

#### □ 남포특별시, 대안구역 본보기학교 건설 진행(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구역에서는 학교건설을 올해중에 결속하기 위해 일군들의 임무분담을 명백히 하고 자재보장에 관심을 돌림
  -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 공장, 기업소에서도 본보기학교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적극 지원하여 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고, 현장지휘를 맡은 일군들은 2호교사건설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였고,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함
  - 지금 건설장에서는 1호교사개건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오신고급중학교의 면모가 일신되는 가운데 남양고급중학교건설과 중기계소학교 증축공사 등도 힘있게 추진되고있음
- (위치) 남포특별시 대안구역

#### □ 전국, 수백개의 학교 및 유치원 개건(조선신보, 06.14, 2면)

- (내용)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학교, 유치원들이 본보기수준으로 개건됨
  - 평양시에서는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중앙은행 평양시은행, 중앙열망사업소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란봉구역 민흥소학교, 강동군 봉화고급중학교를 비롯한 10여개 학교들의 신설 및 개건현대화 공사를 완공하는데 이바지함
  - 함경북도에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모든 분교들의 교육환경을 짧은 기간에 개선할 목표밑에 군중적인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140여개 분교를 훌륭히 꾸림
  - 황해북도의 일군들도 분교개건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현장협의회를 조직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해결하여 수십개 분교들의 모습을 일신시킴
  - 평안북도에서는 곡산군 초장농장 10일 유치원 등이 개건됨
- (위치) 전국

#### □ 자강도, 과학기술도서관 준공(노동신문, 06.15, 4면)

- (내용) 자강도에 과학기술도서관이 훌륭히 건설되어 준공식이 13일에 진행
  - 정치성과 현대성, 문화성이 보장된 도서관에는 학술토론회장과 과학영화관, 동화상열람실 등 정보봉사와 연구토론 및 보급, 각종 전시회를 진행할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짐

- 건설자들은 선진적인 공법을 적극 활용하여 벽체축조와 내외부공사를 비롯한 건설과제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하였고, 련관단위들에서도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였으며 도급기관 일군들과 강계시안의 근로자들은 물심량면으로 지원함
- (특성)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보자료기지, 보급기지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 전국, 여러 도에서 대학건설 추진(노동신문, 06.24, 5면)

- (내용) 교육성,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학교꾸리기중앙지휘조, 도들에서 적극 밀어주는 가운데 전국에서 여러 대학의 건설과 대상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 현재 고려성균관 도서관건설이 마감단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학일군들이 련관단위와 힘을 합쳐 의자, 책상, 서가 등 수백점에 달하는 도서관비품제작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음
  - 리수덕원산교원대학건설을 맡은 강원도도시건설려단에서는 1, 2호교사건축공사를 끝낸 기세로 기숙사, 도서관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음
  - 여러 성과 도안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의 깊은 관심속에 오중흙청진사범대학, 최희숙함흥교원대학, 혜산교원대학, 차광수신의주사범대학, 강계사범대학들의 건설 및 개건현대화공사도 적극 추진되고 있음
  - 이뿐만이 아니라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도농업대학들의 설계를 상반기안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숙천농업대학의 출판소 등의 건설이 완료되고 교사건설이 진행중이며, 청진농업대학의 다기능체육관 내외부미장과 원산농업대학 체육관기초공사가 적극 벌어지고 있음
- (위치) 전국

#### □ 평양직할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조선신보, 05.27, 1면)

- (내용)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이 21일에 진행
  - 착공된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주체건축과 주체교육부문의 본보기적인 창조물로 완공
- (특성) 교무 및 사무구획, 문화 및 체육시설구획, 생활구획 등이 자기의 사명과 기능, 용도에 맞게 현대적, 실용적으로 꾸려져 있으며 선진적인 교육체제와 높은 수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추
- (규모) 연 건축면적 13만 3,000여㎡
- (위치) 평양직할시

## 2. 의료보건시설

### □ 자강도 동신군, 원탕료양소 개건 완료(노동신문, 04.17, 5면)

- (내용) 자강도 동신군의 경치좋은 곳에 위치한 원탕료양소가 훌륭히 개건됨
  - 도에서는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적미감에 맞게 료양소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었고, 도당위원회에서는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자재보장 등 실무적조치들을 취하면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함
  - 동신군과 도안의 일군들, 건설자들, 료양소종업원들은 종전의 건물들을 통채로 들어내고 치료호동, 입원병동, 사무청사 등을 훌륭히 세움
- (특성) 온천욕치료실, 모래치료실, 물리치료실 등과 입원실, 문화후생시설들이 특색있게 꾸려짐
- (위치) 자강도 동신군

### □ 자강도 전천군, 전천군병원건설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4.28, 4면)

- (내용) 자강도에서 전국적인 본보기가 될 전천군병원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 군병원건설은 공사량이 방대한데, 도에서는 강력한 건설력량을 현지에 파견하고, 자재와 료전기재보장대책을 적극 따라세워, 지난 2월에 착공의 첫삽을 박은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토량을 처리하고 기초공크리트치기를 결속함
  - 기초공사가 끝난 건설장에서는 골조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으며, 현장일군들은 시공의 질보장을 중시하고 벽체축조, 층막치기 등의 작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공사지휘를 해나가고 있는데, 특히 기능공력량을 옹게 편성하고 시공의 전문화수준을 높여 공사실적을 올리고 있음
- (특성) 현대적인 진단 및 치료실, 수술실, 입원실을 비롯한 의료봉사시설과 조건들을 갖추출 예정
- (위치) 자강도 전천군

### □ 나선특별시, 청학휴양소 개건(노동신문, 05.04, 5면)

- (내용) 라선시에 청학휴양소가 개건됨
  - 라선시에서는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적미감에 맞게 휴양소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단계별계획을 세우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진행함
  - 경치좋은 청학산기슭에 4층으로 개건된 휴양소에는 침실들과 식사실, 치료실, 미용실 등 문화후생시설들이 휴양생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갖추어져 있으며, 완전히 변모된 휴양소의 구내와 공원, 야외휴식터 등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이채로운 원림경관을 갖추

- (특성) 침실들과 식사실, 치료실, 미용실 등 문화후생시설들을 갖추
- (규모) 4층 규모
- (위치) 나선특별시

#### □ 함경남도 각 시, 군들에서 표준약국 건설 진행(노동신문, 05.19, 4면)

- (내용) 함경남도의 시, 군마다에 표준약국이 일떠서고 있는데, 현재 단천시와 금야군의 표준약국은 완공을 앞두고있으며 다른 시, 군들에서는 내부미장작업 등이 한창임
  - 도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표준약국건설을 다그쳐 끝내는것을 올해에 수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강력히 추진하면서, 특히 시, 군일군들이 공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음
  - 단천시에서 로력조직을 면밀히 하고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적극적으로 내밀어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고, 금야군에서는 모든 작업이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시공지도에 품을 들이였으며 공사가 완공단계에서 진척될수록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다시한번 따져보며 적시적인 대책을 강구함
  - 도에서는 단천시와 금야군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표준약국건설이 높은 질적수준에서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 (특성) 시군마다 표준약국 건설로, 대중약품을 비롯하여 효능높은 고려약과 신약들, 각종 의료용소모품들을 봉사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 개선
- (위치) 함경남도

#### □ 평양직할시, 고려약공장개건현대화 마감단계(노동신문, 05.20, 5면)

- (내용)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이 사회주의보건시책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중요과업의 하나로, 이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앞선 평양시안의 고려약공장들의 개건현대화사업은 지역일군들의 꾸준하고 현실성 있는 지도와 방조가 보건발전에서 중요함을 강조
  - 현재 평양시에서 모범적인 지역들은 대동강구역, 보통강구역 등으로 이 구역들에서는 책임일군들이 고려약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보건토대강화를 위한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책임적으로 밀고나가고 있음
  - 대동강구역에서는 공사를 구역당위원회가 책임지고 추진하면서 동시에 구역일군들이 한가지씩 맡아안고 공사과정에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풀어주고 있음
  - 보통강구역 일군들은 개건현대화사업과 고려약생산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맞게 공장에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고려약생산설비들의 성능을 보다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사업도 적극 밀어주고 있음
- (특성) 고려약공장들의 개건현대화공사는 지역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주요함
- (위치) 평양직할시

#### □ 평양직할시, 첫 표준약국 완공(조선신보, 05.13, 2면)

- (내용) 전국 각지의 시, 군들에서 표준약국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속에 그 시범으로 평양시에 모란봉구역의약품관리소 종합약국이 일떠서 24시간봉사체제로 운영을 시작함
  - 건물정면에 《약국 24h》이라는 간판이 있으며, 내부는 판매구역과 기초 검사구역, 상담 및 처방구역, 약품분석구역, 보관구역, 제조구역 등으로 구분, 1층에는 품종별, 질병별로 전시된 의약품진렬대와 제조실, 분석실, 상담실, 검사실, 기술 및 주문봉사실 등이 있음
- (특성) 24시간봉사체제, 현대적인 진단설비가 갖추어진 검사실에서는 건강검진 가능
- (규모) 2층 규모, 연건축면적은 900여㎡
- (위치) 평양직할시 모란봉구역

### 3. 기타

#### □ 함경북도, 3대혁명전시관건설 추진(노동신문, 04.11, 4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도3대혁명전시관건설과 오중흡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를 비롯하여 올해 투쟁목표로 내세운 대상공사를 힘있게 내딛
  - 공사대상들의 규모와 자재소요량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단계별목표를 면밀하게 세운 도에서는 지금 여러 대상건설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감
  - 3대혁명전시관건설을 맡은 일군들은 기능공력량을 강화하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면서 골조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킴
  - 도에서는 들끓는 건설장마다에서 수시로 협의회를 열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지역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올해에 내세운 공사과제들을 드팀없이 추진해나감
- (주체) 함경북도 일군들
- (위치) 함경북도

#### □ 양강도 삼지연시,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노동신문, 04.15, 4면)

- (내용) 삼지연혁명사적관이 새로 일떠서 개관되었으며, 개관식이 4월 14일에 진행됨
- (위치) 양강도 삼지연시

#### □ 함경남도, 북청군 혁명사적관 개관식 진행(노동신문, 06.06, 2면)

- (내용) 북청군혁명사적관이 새로 일떠서 개관되었으며, 개관식이 5일 진행됨
- (위치) 함경남도 북청군

## VII. 광업자원시설

### 1. 연료광업

#### □ 전국, 능률적 싸이로식 석탄저장고 건설 추진(노동신문, 06.26, 5면)

- (내용) 석탄공업성에서는 최근 인포청년탄광과 남덕청년탄광, 룡문탄광에 건설되어 그 우월성이 확증된 싸이로식석탄저장고를 올해안으로 여러 탄광에 일떠세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장악과 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 련관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필요한 자재를 보장사업에 관심을 돌리면서 성일군들을 해당 단위들에 내려보내 현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시적인 대책을 세우게 하고 있음
  - 회안청년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단계별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백㎥의 토량을 단 하루동안에 처리하며 기초굴착을 끝내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력량을 보강하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 부속품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공사를 다그치고있음. 현재 탄광의 싸이로식석탄저장고건설은 90%계선을 넘어서
  - 득장청년탄광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저장고의 능력을 처음 계획하였던것의 1.2배로 다시 정하고, 건설로력과 자재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공사를 정해진 기간까지 끝내기 위한 지휘를 치밀하게 해나가고있음.
  - 2.8직동청년탄광과 개천탄광에서도 짧은 기간에 기초공사를 결속하였고, 능률높은 기공구들을 착실히 갖추어놓고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골조콘크리트치기를 진행중임
- (위치) 전국

### 2. 비금속광업

#### □ 평안남도, 순천석회석광산 20만산 대발파(노동신문, 01.06, 4면)

- (내용) 순천석회석광산의 로동계급이 5일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건설전구들에 보낼 세멘트의 주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됨
  - 일군들은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따라세우면서 발파준비를 내밀었으며,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발파구역과 발파지점들을 확정하고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는 굴진력량을 증강함
  - 로동자들은 굴진경도들을 전개하고 착암기, 압축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수백m에



달하는 소갱굴진과제를 앞당겨 끝내었으며 발파직장에서는 암질조건에 맞게 앞선 작업 방법을 활용하여 교대당 발파회수를 늘여나감

- (규모) 20만산대발파
- (위치) 평안남도 순천시

#### □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5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9, 4면)

- (내용) 지난 8일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50만산대발파를 진행하여, 높은 철정광생산실적을 기록할수 있는 담보를 만들
  - 연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강력한 기술력량을 로천분광산에 파견하고 현장기술자들과의 배합작전으로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였는데, 이들은 회전식착정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발파효율제고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감
  - 50만산대발파 이후 연합기업소에서는 운광작업에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 (규모) 50만산대발파
- (위치) 함경북도 무산시

#### □ 평안남도 덕천시, 덕성탄광 굴진성과 확대(노동신문, 04.05, 5면)

- (내용) 덕성탄광 2갱 고속도굴진소대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음
  - 소대에서는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대원들이 착암기를 비롯한 굴진설비들에 정통하도록 하는 한편 천공깊이와 각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철저히 보장하여 매일 2배이상의 굴진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굴진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압축공기리용률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림으로써 굴진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이 나날 소대는 40여일만에 1.4분기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고속도굴진소대에서는 상반기 굴진계획을 4월 15일전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 중임
- (위치) 평안남도 덕천시

#### □ 자강도, 공급탄광 탄발 마련을 위한 굴진 확대(노동신문, 05.10, 5면)

- (내용) 자강도공급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에서 새 탄발 마련 위한 굴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석탄증산의 담보를 마련해간다는 관점밑에 이곳 초급일군들은 올해 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목표를 세우고 솔선하고 있으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4월의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함

- 이들은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고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점검에 힘을 넣어 그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 암질상태에 따르는 효율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시간당 작업실적을 부단히 끌어올리고 있음.

- (주체) 자강도공급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초급일군들
- (위치) 자강도

#### □ 전국 각지, 탄광연합기업소 새 탄광, 새 갱 건설 성과 확대(노동신문, 05.13, 4면)

- (내용) 석탄공업성에서는 새 탄광, 새 갱개발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세운데 맞게 건설정형을 료해하고 세멘트, 갱목을 비롯한 자재들을 제때에 선행시키는 등 걸린 문제들을 대책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새 탄광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 그들의 열의를 고조시키는것과 함께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음
  - 삼록탄광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활용하여 사갱굴진과 버력처리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으며 압축기와 권양기설치를 위한 준비도 선행시키고 있음
  -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 탄광, 새 갱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음
  - 태산탄광에서 자체의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1.4분기에만도 갱건설공정계획을 112%로 수행하였으며 그 기세로 계속 혁신하고 있음
  - 룡북청년탄광 청년2갱의 탄부들은 각이한 암질조건에 맞는 발파방법들을 받아들여 발파효률을 제고함으로써 갱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음
  -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탄부들의 로동조건, 생활조건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새 탄광, 새 갱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극동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비들의 성능을 갱신하여 기본굴진실적을 계획의 1.5배로 끌어올림
  - 룡반탄광 1갱에서도 종전보다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발파효률을 높임으로써 사갱굴진과 기본굴진에서 뚜렷한 실적을 냄
- (위치) 전국

## VIII. 농림어업시설

### 1. 농업시설

#### □ 황해남도, 운곡축산농장 젖소분장 준공(노동신문, 01.01, 8면)

- (내용)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운곡축산농장 젖소분장 준공식이 12월 31일 현지에서 진행됨
  - 소사양관리와 젖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그뿐하게 갖춘 분장이 꾸려짐으로써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젖제품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담보 마련
  - 젖소우리와 젖가공실, 합숙을 비롯한 생산 및 생활건물건설을 잘 결속
- (위치) 황해남도 청단군 운곡리

#### □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양수장 건설중(노동신문, 01.06, 4면)

- (내용) 강서구역에서는 전부터 올해 농사에 필요한 물보장대책을 세워 일련의 성과를 거둠
  - 구역관개관리소의 종업원들은 양수장건물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양수기와 전동기 등 설비조립을 끝내고, 철관용접을 빠른 기간에 결속, 헌신적인 노력으로 양수장건설은 마감단계임
- (주체) 구역관개관리소의 종업원들, 구역 일군들
- (위치)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 □ 황해북도, 광천닭공장 조업식 진행(노동신문, 01.14, 3면)

- (내용) 완공된 광천닭공장 조업식이 1월 13일에 진행됨
  - 생산의 자동화, 집약화, 과학화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수의방역과 실험분석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확립된 생산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 지방의 특색을 살린 천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배치
  - 광천닭공장은 교과서적인 가금업기지이며, 명당자리에 특색있게 손색없이 건설된 건물들과 번듯하게 닦아진 도로들, 표준공장의 면모에 어울리는 주변산들의 수림화와 구내 원림화 실현
- (위치) 황해북도 황주군

#### □ 남포특별시, 관개시설 개선 공사 중(노동신문, 02.04, 4면)

- (내용) 남포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관개시설 복구, 완비 사업의 일환으로 수십m구간의 낡은 잠관을 들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통강간선물길 4호 용수잠관공사를 하고 있음

－ 가물막이공사를 단기간에 미치고, 이미 있던 콘크리트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 진행중임

- (주체) 시당위원회, 시농촌경리위원회, 룡강군 등의 일군,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 (규모) 수십m구간
- (위치) 남포특별시

#### □ 황해남도, 강령호 물길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2.14, 1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강령호의 담수를 드넓은 전야로 보내줄 물길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20여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양수장들을 비롯한 많은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 과제임
- (특성) 완공되면 물부족을 느끼던 강령군의 식여, 광천, 인봉리뿐 아니라 새로 개간한 1200여 정보의 간척지논 등 수천정보의 농경지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됨
- (규모) 20여만㎥ 토량 처리
- (위치) 황해남도 강령군

#### □ 평안남도, 개천-태성호 관개물길대보수공사(노동신문, 03.12, 1면)<sup>3</sup>

- (내용) 물길건설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개천-태성호, 평남관개물길대보수공사를 본격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개거<sup>4</sup>콘크리트피복공사와 10여개의 물길굴보수공사에 주력하고 있음
  - －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콘크리트피복공사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돌격대원들은 휘틀설치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공법을 비롯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면서 공사속도를 높이고있음
  - － 남포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광도개거보수공사 마감단계로, 개거에 콘크리트피복공사를 해야 하는 조건에 맞게 혼석채취장을 기동성있게 전개
  - － 평안남도려단에서 기능공양성사업을 중시하고, 혼합기, 진동다짐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수리할수 있는 기지를 꾸리고, 양수기를 증설하고 만가동시키는것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혼석을 앞질러 보장하면서 콘크리트피복공사속도를 높이고 있음
- (주체) 물길건설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 (위치) 평안남도, 남포특별시

<sup>3</sup> 개천-남포시 태성호간 물길은 북한이 1999년 11월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60km 관개수로이며 '자연 흐름물길'로 건설되고 있음. 평남 서북부지역인 개천시로부터 순천시→속천군→평원군→대동군→증산군을 거쳐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호까지 장장 400리 구간을 아무런 보조장치없이 자연상태로 물이 흘러들도록 건설한다는 것임 (출처: 연합뉴스, 2001.03.07.일자, "북한 개천-태성호 '자연흐름물길'이란)

<sup>4</sup> 위를 덮지 않고 터놓은 수로(출처 : naver 국어사전)

#### □ 함경남도 단천시, 염소분장, 젖소분장 완공(노동신문, 03.12, 5면)

- (내용) 지난해 10월말 공사시작하여, 능력이 큰 염소분장과 젖소분장을 건설
  - － 분장들에는 염소호동과 젖소우리, 보리짚채배장, 발효먹이생산장 등이 꾸려져있음
  - － 염소호동을 합리적 배치하고 자연풀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방목도로 건설에 집중함
  - － 지금 시에서는 젖제품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안 모색, 다리공사와 소형발전소건설 등 추진중
- (특성) 자연풀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함
- (주체) 단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 강원도 문천시, 양수장건설 마감단계 추진(노동신문, 04.02, 5면)

- (내용) 문천시에서 가뭄피해를 입을수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양수장을 건설하여 마감단계임
  - － 시안의 관개시설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여 양수장들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일군들의 임무분담을 명백히 하고 로력, 자재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감
- (위치) 강원도 문천시

#### □ 함경남도 고원군, 염소목장 신축 진행(노동신문, 04.08, 5면)

- (내용) 고원군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이 유리한 신주리에 사무청사, 합숙, 염소호동들과 젖가루생산기지, 보리짚채배장, 발효먹이생산장 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갖춘 염소목장을 새로 건설중임
  - － 염소목장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며 젖가루생산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중임
- (위치) 함경남도 고원군

#### □ 남포특별시, 관개공사 마감단계 추진(노동신문, 04.11, 4면)

- (내용) 남포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계획된 백수십개의 양수장건설을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발관개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진행중임
  - － 와우도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양수장건설과 수지관늘이기에서 성과를 이룩, 대안구역, 천리마구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발관개공사를 진척
- (주체) 남포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 (규모) 백수십개의 양수장
- (위치) 남포특별시

#### □ 평안남도 평성시, 올해 계획 발관개공사 완료(노동신문, 04.13, 4면)

- (내용) 평성시에서는 올해 계획된 발관개공사를 결속함
  - 시는 단시일내에 끝내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휘력량을 꾸리고 발관개공사를 시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밑에 설비와 자재를 공사에 지장없이 제때에 보장
- (특성) 시자체의 힘으로 근 20종에 수천개의 부분품 생산 사업 진행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 평안남도, 수만정보 논밭 관개공사 진행(노동신문, 04.18, 4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수만정보의 논밭 관개공사를 진행하여 관개체계 완비에서 전진을 이룩함
  - 도에서는 물보장조건이 불리한 지역들의 관개공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구체적인 실행대책을 강구하고, 본보기를 창조하여 일반화하고, 로력과 자재, 설비보장을 앞세움
- (위치) 평안남도

#### □ 전국 각지, 수지관늘이기공사 마감단계 진행(노동신문, 04.19, 4면)

- (내용)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수천km의 구간에 각종 규격의 수지관을 늘려 올해 계획된 면적의 수지관늘이기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중임
  - 황해남도에서는 해주수지제품공장에서 수지관을 지장없이 생산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짧은 기간에 각종 규격의 수지관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둠
  - 수지관늘이기공사를 신속히 결속하기 위한 면밀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함경남도에서 관로파기를 확고히 선행시켜 발관개공사장들에서는 날마다 높은 실적이 기록됨
  -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 관로파기와 수지관늘이기공사를 철저히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는데 힘을 넣었고, 농업근로자들은 맡겨진 작업과제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함
  - 지역의 기후조건을 타산한 자강도의 일군들은 농장들에서 동결심도에 맞게 관로파기를 편향없이 진행하도록 지도사업을 심화시켰고, 관로파기와 수지관늘이기공사에서련일 혁신 창조
- (특성) 관개체계를 정비보강하고, 완성하는데서 수지관늘이기공사가 매우 중요
- (규모) 수천km의 구간
- (위치) 전국

#### □ 전국 각지, 관개체계완비 추진 중(노동신문, 04.24, 1면)

- (내용) 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계획된 관개물길공사와 지하수시설건설 및 보수를 기본적으로 결속하는 등 관개체계완비에서 올해도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음

- 중앙관개건설전투지휘조에서는 관개공사를 위한 실행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장악과 총화사업을 드세게 하는 한편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함
  - 개천-태성호, 평남관개물길대보수공사 돌격대원들은 양수기, 혼합기 등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휘틀설치시간 단축 공법 등 기술혁신안 도입으로 봄철까지 계획한 보수공사를 끝냄
  - 남포시에서 룡강간선물길 4호용수잠관공사를 결속하였는데, 설비들의 만가동 보장과 합리적인 작업방법으로 1000여㎡의 토랑처리로 단기간에 잠관해체작업 마무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기능공들과 협력하여 철관을 제작, 잠관공사를 수십일 앞당겨 마침
  - 서해갑문-평안남도내륙지물길 능력확장공사에 동원된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계획보다 앞당겨 30여km에 달하는 물길구간에서 45만여㎡의 바닥흙을 처리함
  -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령호의 물을 여러 지역으로 끌기 위한 로선과 양수장건설위치를 확정하는데 기초하여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 공사를 진행
  - 평안북도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월도간석지물길확장공사 일정계획을 2배이상으로 수행함
- (규모) 수천개소의 지하수시설
- (위치) 전국

#### □ 평안북도 각 시군, 물길가시기와 확장공사 진행(노동신문, 04.25, 4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천수백km구간의 물길가시기와 확장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전반적인 물길들에 대한 조사로 작업량을 정확히 타산하고 그에 맞게 로력과 료전기재보장대책을 세움
  - 룡천군과 신의주시, 정주시, 태천군, 철산군을 비롯한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지역의 물길과 용수로, 배수로정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함
  -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됨
- (규모) 천수백km구간
- (위치) 평안북도

#### □ 함경남도, 올해 계획 발관개공사 완료(노동신문, 05.12, 4면)

- (내용) 도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휘력량을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관개공사에 필요한 조건보장에 큰 힘을 넣은 결과 올해 계획된 발관개공사를 결속함
  - 정평군, 금야군, 함주군에서 발관개공사를 군 사업으로 전환하여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설비와 자재를 보장, 자체로 여러 부분품 생산 사업도 진행하여 계획된



과제를 짧은 기간에 끝냄

- 단천시, 신흥군, 북청군 및 다른 지역들에서도 발관개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어 도적으로 백수십개의 양수장건설과 물길파기 등 계획된 과제가 성과적으로 결속
- (특성)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담보 마련
- (위치) 함경남도

□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군, 지방공업공장 원료기지 관개공사 완료(노동신문, 05.14, 1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경성군과 어랑군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이곳 원료기지들에 대한 관개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
  - 원료기지들의 지력개선과 생산토대강화에 힘을 넣어온 도에서는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관개공사를 통이 크게 전개
  - 도에서는 짧은 기간에 관개공사를 다그쳐 끝낼 목표밑에 로력보장대책을 면밀히 세우는것과 함께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예견성있게 확보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림
  - 도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원료기지들에는 여러개의 양수장이 새로 건설되고 수천m의 관로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우물과 굴포 등이 생겨나 가물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군

□ **나선특별시, 부포오리공장 고니사 준공(노동신문, 05.31, 5면)**

- (내용) 라선시에서 부포오리공장에 새끼고니사, 알낱이터 등 사육조건과 배합사료먹이터를 실리있게 갖춘 고니사를 새로 조성, 28일에 준공식 진행
- (특성) 사육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고니사
- (위치) 나선특별시 부포리

□ **전국에서 토지정리돌격대가 4700여정보의 토지, 규격포전으로 정리(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토지정리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전국에서 올 봄에 4700여정보 토지를 규격포전으로 정리함
  - 황해북도려단에서 1,170여정보의 토지정리를 진행하였는데, 황주군, 봉산군, 토산군, 은파군대대들에서는 설계의 요구대로 포전도로건설과 논두렁짓기, 논수평고루기 등을 질적으로 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수백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
- \* 려단에서는 8000여개의 포전을 5700여개로, 600여km의 논두렁을 400여km로, 120여km의 수로를 110여km로 정리하면서 10여정보의 새땅도 찾아냄

- 황해남도 봉천군의 토지정리에 진입한 10, 9중대에서는 작업조건에 맞게 불도젤들을 집중, 분산하면서 논수평고루기, 논두렁짓기를 비롯한 모든 공정수행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 과정에 수백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시켰고, 6중대에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면서 많은 농경지를 규격화된 포전으로 만들
- 4월22일토지정리돌격대 제2대의 돌격대원들도 안악군, 은천군, 태탄군에서 880여정보의 포전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둠
- 량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삼지연시, 삼수군, 김형직군, 김정숙군, 운흥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잡관목베기를 앞세우는 한편 연결농기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나무뿌리들채내기와 돌추기를 완강하게 내미는 등 상반기 토지정리계획을 앞당겨 완수함
- 평안북도려단에서도 700여정보의 봄철토지정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
- 함경남도려단에서도 봄철토지정리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

#### □ 황해북도 상원군, 올해 계획한 발관개공사 완공(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많은 포전이 모래메흙<sup>5</sup>땅이거나 자갈밭인 상원군에서 올해 계획된 발관개공사를 앞당겨 결속하여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함
- 관개구조물공사에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근로자들은 보와 굴포들에 대한 보수공사도 진행함
- 관개구조물건설이 앞당겨진데 맞게 설비조립을 따라세우기 위해 군책임일군, 군농기계작업소와 군관개관리소의 종업원들은 자체로 수십종에 수천개의 부분품을 생산보장함
- (특성) 많은 포전이 모래메흙땅이거나 자갈밭이어서 관개공사가 알곡고지점형에서 관건임
- (주체) 군책임일군, 군농기계작업소와 군관개관리소의 종업원들
- (위치) 황해북도 상원군

#### □ 전국, 올해 관개공사 목표 앞당겨 수행(노동신문, 06.12, 3면)

- (내용)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4,000여개소의 양수장건설과 3,500여km의 관늘이기공사, 7,500여개소의 지하수시설, 2,100여개소의 관개시설건설 및 능력확장, 1만 6,700여km의 물길건설 및 보수 등 23만 6,000여정보의 논발관개공사를 완결하고, 1,400여km의 강하천정리와 1,800여km의 제방보수, 수십km의 해안방조제공사는 마감단계
- 지난해 6만여정보에 이어 올해에도 가물피해지역들을 위주로 6만여정보의 밭들에 관개시설이 일신되고 다양한 관수방법을 활용할수 있게 되어 가물과 고온현상을 비롯한 이상기후속에서도 해당 지역들에서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됨
- 황해남도에서는 강령호의 물을 리용하기 위한 인입물길공사에서 하루 평균 800m<sup>3</sup>의 토

량이 처리되고 물길이 쭉쭉 뻗어나갔고, 룡매도물길확장공사에 필요한 골재확보를 선행 시키고 콘크리트치기실적을 올리면서 30km구간 물길보수와 20여개소의 개거, 구조물공사를 완결함

- 평안북도에서 군민협동작전으로 월도간석지물길확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는데, 군 인건설자들은 물길확장, 토량처리, 구조물설치 등을 하였고, 도의 수송전사들은 매일 400여리의 운행길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공사에 필요한 골재보장을 확고히 선행시켜, 1,400여㎥의 콘크리트치기공사를 10일동안에 마치고, 수십km 물길, 30여개 구조물공사를 실속있게 마무리함
- 남포시에서는 룡강간선물길 4호용수잠관공사를 위해 건설력량을 조직, 굴착기, 삽차 등 건설장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1,000여㎥의 토량처리, 가물막이공사, 잠관해체작업을 단기간에 결속하고, 철관제작기일을 수십일 단축함
- 서해갑문-평안남도내륙지물길 능력확장공사에서 45만여㎥의 토량처리, 32km구간의 물길바닥파기, 제방공사과제가 영농기전으로 앞당겨 결속
- 각지에서 발관개를 실현하기 위한 양수장건설과 관늘이기공사가 힘있게 추진됨
  - 평안남도에서는 280여개소의 양수장공사를 일정계획보다 10여일 앞당겨 끝냈는데, 기술학습, 기능전습을 정상적으로 벌려 기능공대렬을 늘인 평성시, 숙천군, 평원군에서는 공정별작업을 기한전에 질적으로 완성함
  - 함경북도에서는 자력갱생정신과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수지관생산을 선행시킨데 이어 성능높은 접합기들을 활용하여 110여km구간의 관늘이기를 4월초까지 결속하였는데, 자체로 수백개의 발브, 애자를 만들어낸 길주군, 명천군에서는 수지관을 더 생산하여 다른 시, 군들에도 보내줌
  - 황해북도에서는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영구적으로 완성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수명과 안전성이 담보될수 있게 수백개소의 양수장들을 기술규정에 엄격히 준하여 건설함
  - 강원도에서는 기술력량, 건설력량을 집중하고 원산시, 고산군, 천내군에서는 관로 파기공사를 열흘동안에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고, 지하수시설, 물길건설도 본격적으로 진척됨
  - 자강도 근로자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1,100여개의 지하수시설 건설·보수
  - 함경남도, 관개수로 확장 등 물통과능력 제고하는 물길정리사업 추진
  - 평양시, 량강도, 개성시 등지에서도 배수시설물들에 대한 정비보강을 책임있게 하고 분수식, 다공관식, 강우식관수방법 등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임
- 올해 관개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사업에서도 혁신이 창조되었는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중앙은행, 기계공업성, 금속공업성, 건설건재공업성, 전력공업성 등 해당 부문과 단위들은 관개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설비 등을 우선적으로 제때에 보장하기 위해 노력함

- 성천강전기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주물, 가공, 조립에 이르는 생산공정전반을 기술적특성에 부합되게 완성하고 가치있는 기술들을 도입하여 수천대의 고효율전동기를 제작함
- 안주뿔프공장, 강서분무기공장에서 수천대의 뿔프, 수만개의 물뿌무개를 생산함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대안전기공장, 평양전동기공장, 대동강전기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들에서도 세멘트, 전동기, 변압기 등을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줌
- 평성관개기계공장, 해주관개기계공장 등 관개기계공장들은 기술개진과 함께 생산도 추진됨
- 철도운수부문도 계획된 물동량을 공사장들에 전격적으로 수송함
- (규모) 23만 6,000여정보에 해당하는 논밭관개공사, 1,400여km의 강하천정리, 1,800여km의 제방보수, 수십km의 해안방조제공사 등
- (위치) 전국

## 2. 임업시설

### □ 평양직할시, 양묘장 준공(노동신문, 01.27, 3면)

- (내용)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시양묘장을 훌륭히 일떠세워 26일 준공식 진행
  - 종자선별 및 파종장, 경기질생산장, 수지경판온실 등을 잘 완성하였고, 생산시설들과 실험분석설비 등이 갖추어진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양묘장
  -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은 앞선 경험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높은 수준에서 제작설치함
- (특성) 시안의 산림조성과 원림록화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토대 마련
- (주체)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
- (위치) 평양직할시

## 3. 농어업단지

### □ 평양직할시, 강동온실농장 완공(노동신문, 03.16, 1면)

- (내용) 수도 평양의 강동지구에 세계굴지의 남새생산기지가 1년만에 완공되어 3월 15일 준공 및 조업이 진행됨
  -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을 비롯하여 독특한 양상의 현대적인 온

실들이 장관을 이룬 강동종합온실은 수도시민들에게 갖가지 품종의 남새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 기대

- 현대성과 선진성, 편리성과 독창성이 구현된 온실호동들과 천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갖추
- 일반재배방식에 비하여 획기적인 생산성을 담보하는 부지절약형, 로력절약형의 종합온실완공으로 온실남새생산의 새로운 영역과 경지가 개척되었다고 자부함
- (특성) 온실남새생산의 지능화, 집약화수준에서 선진적이고 현대성과 문화성, 실용성 보장
- (규모) 천수백세대의 살림집 등
- (위치) 평양직할시

## 4. 기타

### □ 황해남도, 냉습지<sup>6</sup> 개량 사업 추진(노동신문, 02.04, 4면)

- (내용)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냉습지개량을 잘하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인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냉습지개량에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은천군이 계획된 과제를 마쳤고, 재령군, 안악군, 송화군이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음
  - 다른 지역들에서도 봄철영농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냉습지개량을 기본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력량을 집중하여 일자리를 크게 내고 있어 도적으로 수천정보의 냉습지를 개량하게 되었으며 그 기세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음
- (특성) 냉습지개량으로 정보당수확고 증산
- (규모) 수천정보의 냉습지
- (위치) 황해남도 은천군, 재령군, 안악군, 송화군

6 지하수면이 높거나 주위의 찬물이 모여들어 언제나 습기가 많고 온도가 낮은 땅.(출처: naver 국어사전)

## IX. 환경방재시설

### 1. 방재시설

#### □ 평안남도 은산군, 나무심기와 강하천정리 사업 추진(노동신문, 04.08, 5면)

- (내용) 은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심기와 강하천정리 등을 적극 추진중임
  - － 덕림리에서부터 니답리까지 수천m의 제방공사에 큰 힘을 넣고 있으며, 구룡강을 다스려 수습정보의 새땅을 확보 가능. 침수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음
  - － 지난해에 시작된 강바닥파기 및 제방공사는 올해 더욱 힘있게 진척되고 있으며, 굴착기 운전공들과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이 긴밀히 협동하면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주체) 은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굴착기운전공들과 화물자동차운전사들
- (규모) 수습정보의 새땅, 덕림리~니답리 수천m 제방
- (위치) 평안남도 은산군

#### □ 강원도 고산군, 사방야계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4.21, 4면)

- (내용) 고산군산림경영소는 지난해에 사방야계공사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 더 높은 목표를 세움
  - － 일군들은 료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여러가지 소공구 등을 질적으로, 충분히 마련해주는데 힘을 넣고 있음
  - － 작업소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 사업도 완강히 추진
- (주체) 고산군산림경영소 일군들, 작업소종업원들
- (위치) 강원도 고산군

#### □ 양강도, 수천m구간 가림천호안공사 완료(노동신문, 05.30, 4면)

- (내용) 양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천m구간의 가림천호안공사를 짧은 기간에 계속, 가림천지구의 면모를 바꾸고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함
  - － 도의 일군들은 가림천과 그 지류들을 현지답사하여 설계를 하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고, 단위별로 작업과제를 분담하고 중기계들의 만기동보장을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움
  - － 도급기관들과 보천군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만들 열의를 안고 하천바닥파기, 제방쌓기 등 많은 과제수행에 심혈을 기울임
- (주체) 도급기관들과 보천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양강도

#### □ 평안북도 정주시, 선천군, 동림군, 해안방조제 공사 진행(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해안선을 끼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재해성이상기후를 기정사실화하고 해안방조제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도는 해안방조제의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세워 해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력과 자재보장 등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담보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정주시에서 군민협동작전으로 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계획된 상반기 공사과제를 결속하였고, 선천군과 동림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해안방조제를 보수, 보강하기 위한 성토작업과 장식쌓기에 집중
- (특성) 지대적특성에 맞게 재해성이상기후 대비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선천군, 동림군

#### □ 평안남도, 해안방조제연구화공사를 위한 3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6.23, 4면)

- (내용) 평안남도의 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숙천군일대의 해안방조제들을 다지는 데 필요한 막돌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대발파를 진행, 21일 30만산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이뤄짐
  - 평성석탄공업대학과 순천석회석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현지측량과 발파설계를 선행시켜 시공의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 소갱굴진에 동원된 로동자, 기술자들은 암질조건에 맞게 천공위치와 발파각도, 발파구멍개수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대발파를 완료함
- (주체) 평성석탄공업대학과 순천석회석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 (규모) 30만산대발파
- (위치) 평안남도 숙천군

#### □ 평안북도 곡산군, 사송강 정리공사 결속(노동신문, 06.28, 5면)

- (내용) 곡산군의 일군들은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장마철기간 큰물이 날 수 있는 강하천의 위험개소들을 모두 찾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움
  - 군안의 여러 농장을 거쳐 흐르는 사송강 정리공사는 제일 큰 과제였는데, 여러대의 굴착기와 삽차를 집중배치하여 강바닥파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쳤고, 군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맡은 작업과제를 수행
- (특성) 천수백정보의 농경지를 보호할수 있는 담보 마련
- (주체) 군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들
- (규모) 근 20km 구간 바닥파기, 34만 6500m<sup>3</sup> 토량처리, 3만 4천m<sup>2</sup> 장식쌓기
- (위치) 평안북도 곡산군



# '24년 1,2분기 건재 관련 주요 기사

## □ 공통(일반)

- (노동신문, 02.04) 전국각지에서 건재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음
- (노동신문, 03.02) 북한 평양교통운수대학에서 개발한 경소마그네샤 건재판이 최근 몇 년 동안 각지의 주요대상 건설에 널리 도입되고 있음
- (노동신문, 04.21) 마감건재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며 건재기술 또한 부단히 발전하고있음
  - － 이미 마련되어있는 건재생산기지들을 정비보강하며 건재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데 모를 박아야 함
  - － 도, 시, 군들에서는 건재생산단위의 기술자, 기능공력량을 빨리 늘이는 사업을 품들여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함
  - － 건재생산단위들사이의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활발히 벌리는것은 마감건재생산토대를 강화하는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임
- (노동신문, 05.08) 지난 시기 각 도들에서는 마감건재생산토대강화에 힘을 넣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 지금 도들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지역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질 좋은 건재품의 가지수를 더욱 늘일 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노동신문, 05.14)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있음
  - － 김책제철련합기업소(함경북도 청진시)는 많은 철판과 건설자재생산에 필요한 선철을 보내주었음
  -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공사(평안남도 천리마군)도 필요한 환강과 철망, 형강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있음
  - － 2.8비날론련합기업소(함경남도 함흥시)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평안남도 안주시)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내주고있음
  - － 평양건설위원회의 여러 단위에서도 흙관과 전기비닐관, 인조석을 비롯한 건재를 원만히 보장하고있음

- 대동강축전지공장(평양시 평천구역)과 문평제련소(강원도 문천시), 단천제련소(함경남도 단천) 살림집건설에서 제기되는 각종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내주고있음
- 량강도림업관리국과 함경북도림업관리국, 자강도림업관리국을 비롯한 립업부문은 통나무역출에도 힘을 넣어 공사용목재를 지체없이 실어보내도록 하고있음
- 평양시와 남포시,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기비닐관보장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음
- (노동신문, 06.09) 건설자재를 절약할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과 앞선 작업방법들을 활용하고 지방원료에 의거한 건재생산을 늘여 살림집건설을 전격적으로 내밀었음
- (노동신문, 06.10) 합리적인 시공공법들이 속속 창조되어 전국에 일반화되는 과정에 자재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건설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고있으며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속에 수많은 건재생산기지들이 도처에 일떠서고있음
- (노동신문, 06.11) 도에서 자체로 만든 건재를 적극 리용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음
- (노동신문, 06.23)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지방원료에 의거한 건재생산을 다그치면서 전반적인 건축공사와 마을주변의 원림조성을 특색있게 마무리함

#### □ 평양직할시

- (노동신문, 02.14) 평양시에서 건재생산기지들의 생산을 늘이는데서 진전을 이룩하고 있음. 시에서는 미림색기와공장 등 여러곳에 전개된 생산기지들의 운영에 힘을 넣으면서 건재품의 가지수를 부단히 늘이고 있음
- (노동신문, 05.11)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올해 지방공업공장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음
- (노동신문, 06.04) 강남군은 마감건재생산공정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선진적인 건재생산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었으며, 군안의 마감건재생산기지 로동자들도 마감건재들을 최우선적으로 생산하여 보내주었음

#### □ 남포특별시

- (노동신문, 04.09) 대안친선유리공장, 룡강석재가공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교대별, 직장별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계획수행률을 끌어올리었음
- (노동신문, 05.08) 각 도당위원회의 짜인 작전과 면밀한 지휘밑에 여러 공장, 기업소에 우리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한 새로운 마감건재생산공정들이 확립되고 청진목재가공공장, 룡강건재생산사업소 등 많은 단위들이 종합적인 가구 및 건구생산기지, 타일생산기지로 훌륭하게 꾸러지고 있음
- (노동신문, 05.20) 룡강석재가공공장이 평양의 살림집 건설장과 농촌살림집 건설장,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건설장들마다에 필요한 각종 석재를 생산 보장

하고 있음

- (노동신문, 06.22) 천리마타일공장 증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미 꾸려진 1단계, 2단계 생산공정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리는것과 함께 지난해에 새로 조성한 3단계 1호내벽타일생산흐름선의 능력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 기술혁신사업과 사회주의 경쟁 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매일 1.5배이상의 타일을 생산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있음

#### □ 평안남도

- (노동신문, 04.08, 천리마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현대화공사에 진입한 금속건설사업소의 로동계급은 기발한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건축공사에 필요한 트라스제작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분투하고있음
- (노동신문, 04.09, 순천시) 전국적인 1.4분기 세멘트생산계획이 104%로 완수되었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는 지난해에 기록한 최고생산실적을 뛰어 갱신하면서 수도의 대건설전구들과 농촌살림집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고 있음
- (노동신문, 04.28, 평성시) 평안남도에서 평성건재공장을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공사를 힘있게 추진함
  - 색몰탈, 외장재, 메움재는 물론 란주, 란간을 비롯한 각종 인조석가공품들과 전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음

#### □ 평안북도

- (노동신문, 02.14, 각지) 평안북도의 건재품생산분위기도 좋음
  - 선천군, 의주군, 곡산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 건재품생산을 늘여 자기 고장을 훌륭히 전변시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나가고 있음
  -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과 금야군, 정평군, 단천시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와 지역에서는 질 좋은 수지건재생산과 다양한 건재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노동신문, 05.08, 각지) 평안북도에서 여러가지 마감건재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하고있음
  - 도에서는 정주시, 선천군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이 지역들에서 이룩되는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여 도안의 시, 군일군들이 각종 외장재, 색몰탈 등 지방의 원료원천을 리용한 마감건재를 얼마든지 생산보장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생산토대강화를 위한 사업을 강력히 밀고나가게 하고있음

#### □ 자강도

- (노동신문, 02.01) 농촌건설을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원료에 의거하는 마감건재생산토대강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음

- 올해부터는 농촌건설에 살림집들뿐 아니라 공공건물, 생산건물들도 포함시켜 건설하여야 하는것으로 하여 마감건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있음
- 자강도는 현재의 건재기지들을 활성화하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질좋은 건재품을 더 많이 개발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하고있음
- 자강도는 강계시에 능력이 큰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를 본보기로 일떠세우고있음 (이미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색기와생산공정과 각종 규격의 수지관생산공정을 꾸려놓은데 이어 여러가지 건재를 더 많이 개발생산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치밀하게 하고있음. 아크릴계칠감생산능력확장공사와 함께 기와칠감 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음)
- (노동신문, 02.04) 자강도에서 건재품을 자체로 생산하여 지방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에 활용하고 있음
  - 희천타일공장, 강계건재공장과 시중유리공장 등에서 기와, 타일, 위생자기와 질좋은 금속건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음

#### □ 황해북도

- (노동신문, 02.14) 지방건설에 필요한 건재생산투쟁은 황해북도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송림시와 경암건재공장 등에서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한 건구와 여러가지 건재품을 개발생산하여 도안의 중요건설장에 보내주고 있음
- (노동신문, 02.14, 송림시) 설비조립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범용광로건설에서 전진을 가져오고있음
  -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철의 기지 로동계급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부족되는 자재와 부분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제진계통의 조수탑을 비롯한 여러 강철구조물제작과 설치를 끝낸데 이어 농축기제작 및 조립속도를 높이고 있음
- (노동신문, 02.14) 황해북도에서도 마감건재생산토대강화에 주선을 넣어 좋은 결실을 안아오고있음
  - 하나의 건재생산공정을 꾸려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손색없이 해나갈 목표를 내세운 도의 일군들은 전문건재생산기지들과 시, 군들에 꾸려진 건재생산단위들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료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 생산공정들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생산에 진입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있음
- (노동신문, 05.27, 각지) 황해북도에서 마감건재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도에서는 새로운 타일생산기지건설을 위한 설비조립과 계통별시운전을 일정대로 진척시키는 한편 시, 군들에서 건재생산공정들을 새로 일떠세우는 사업을 높은 목표를 가지

고 전망성있게 내밀도록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 마감건재의 질을 끌어올리고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앞선 경험과 선진적인 건재생산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마감건재생산토대를 부단히 강화해나가고 있음
- 승호군에서는 폐기폐설물로 기와를 생산할수 있는 공정들을 확립하고 마감건재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부쩍 늘이고 있음
- 사리원시와 송림시, 은파군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외장재와 칠감, 색기와 등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들을 꾸려놓은데 맞게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고 있음
- 평산군에서는 착색모래, 타일생산공정을 갖추어놓는것을 비롯하여 지방건설에 필요한 건재와 자재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을 가져오고 있음
- 토산군과 연탄군, 황주군에서는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한 마감건재생산공정들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형태의 건구와 장식판들을 생산하고 있음

#### □ 강원도

- (노동신문, 02.14, 원산시) 강원도의 여러 단위에서도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건재생산토대를 꾸리는데 기술력량을 적극 인입시켜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원산시상업관리소 등에서 수지건재와 유리건재, 경소마그네샤건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제품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노동신문, 04.21, 천내리군) 천내리세멘트공장이 종전의 부유예열식소성계통을 능률높은 부유가소식소성계통으로 개조함

#### □ 함경남도

- (노동신문, 02.04) 함경남도에서 마감건재생산기지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그 능력을 확장하는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음
  - 특히 시, 군들에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는 건재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벌려 목재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농촌건설에 필요한 건재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음
  - 도는 경소마그네샤에 의한 건재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는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시, 군들에서 그 성과와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음
  - 단천시, 함주군, 정평군, 함흥시 흥남구역이 경소마그네샤에 의한 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앞섬(이 지역들에서는 지금 질제고를 첫자리에 놓고 여러가지 문양으로 장식된 출입문을 비롯하여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한 건제품생산량과 가지수를 늘여나가고 있음)
  - 도안의 다른 시, 군들에서도 경소마그네샤에 의한 건재생산토대강화에 박차를 가하여 좋은 결실을 안아옴

- (노동신문, 03.22) 함경남도는 시, 군들에서의 마감건재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토대가 미약한 지역들에 각종 건구와 마감건재를 생산하여 보내주고 있음

## □ 함경북도

- (노동신문, 02.14) 함경북도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청진목재가공공장과 경성타일공장 등 여러 단위에서는 농촌건설에 필요한 건구와 타일, 보온재, 지붕재를 생산하고 있음
- (노동신문, 03.22) 함경북도에서는 무산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 건설자재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주어 농촌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게 하고있음
- (노동신문, 04.08, 청진시)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새로 일떠선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의 배풍계통보수공사, 청진제강소 수직식산화배소구단광로의 콘베아계통현대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음
  - － 이곳 노동자, 기술자들은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칸지게 진행하여 대형설비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는것과 함께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합쳐가며 제관속도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을 탐구하고 실리있는 지구장비들을 창안하였음
  - － 그리하여 계획된 여러 종류의 제관품들을 빠른 시일안에 질적으로 생산해냄으로써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음
- (노동신문, 05.08, 청진시) 각 도당위원회의 재인 작전과 면밀한 지휘밑에 여러 공장, 기업소에 우리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한 새로운 마감건재생산공정들이 확립되고 청진목재가공공장, 룡강건재생산사업소 등 많은 단위들이 종합적인 가구 및 건구생산기지, 타일생산기지로 훌륭하게 꾸려지고 있음
- (노동신문, 05.08) 함경북도에서 지역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마감건재생산을 보다 적극화하고있음
  - － 청진스레트공장과 김책시에서 보여주기사업이 조직된데 이어 기술강습을 비롯하여 마감건재생산기술을 공유, 이전하기 위한 사업들이 도적인 범위에서 실속있게 진행되고 있음
  - － 그런 속에 회령시, 길주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는 자체의 원료원천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는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끌어올리면서 건재품의 종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진척시키고있음
  - － 특히 명천군에서는 석재가공기지를 새로 일떠세우고있음
  - － 현재 군에서는 설비제작, 채취 등이 힘있게 추진되는데 맞게 사문석에 의한 석재생산에 하루빨리 진입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음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Tel 042-866-8400 Homepage <http://lhri.lh.or.kr>

LH 토지주택연구원(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설 연구원으로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결합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최고의 토지·주택·도시 분야의 종합연구기관입니다.

